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02-02
연구보고 07-R13-1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I

- 국내체류 해외 한민족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책임연구원 : 조혜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문경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박동성 (한국사회과학자료원·전문위원)

양한순 (아주대학교·교수)

최진숙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007-02-01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02-02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I - 국내체류 해외 한민족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02-03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고려대학교
2007-02-04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동국대학교
2007-02-05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호남대학교
2007-02-06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02-07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증장기 대책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조혜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총괄책임자) 문경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동성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양한순 (아주대학교) 최진숙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고려대학교	윤인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채정민(고려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소 선임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동국대학교	김익기 동국대학교 교수	이동훈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호남대학교	김태기 호남대학교 교수	임영언 (전남대학교 세계한상· 문화연구단 연구교수) 박일 (오사카시립대학교 교수) 배광웅 (오사카교육대학교 교수)
	한국 외국어대학교	임영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황영삼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고가영(한국외대 역사문화 연구소 전임연구원) 박지배(한국외대 역사문화 연구소 전임연구원) 이병조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권주영(한국외대 산학협력단 GCC연구원) 김석원 (키예프국립대학교 교수) 최소영(우즈베키스탄 과학 아카데미연구소 연구원) 최인나(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동양학부 한국어 문화센터 연구원) 임현숙(러시아 볼로그라드 국립대학교 동양언어문화 센터 한국어강사)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강일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전재식(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전문연구원) 길은배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배기형(세종대학교 교수)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 증가하고 있는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은 한국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생활상태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음. 이를 통해 향후 이들이 고국과 거주국을 매개하는 글로벌 에이전트의 역할 수행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해보고자 하였음.

2. 연구 내용

-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한민족청소년들 중 주요국(미국,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 출신 청소년들과 그 외의 기타 국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문동기, 방문이후에 이들의 인식 변화,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인식,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한국과 관련된 진로 설정, 한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음.

3. 연구결과

- 설문조사를 통해서서는 이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 한국어 및 문화에 대한 태도, 한민족 정체성, 네트워크 구축 관련 관심 등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면담조사를 통해서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이들이 한국체류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음.

● 설문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주요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한민족청소년들은 그 이민사에 따라 이민 세대, 경제상황, 한국 전통문화 및 언어 보유 정도, 한국과 관련된 진로 관심 등에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음. 중국, CIS, 일본지역은 3세대가 주를 이루고 4세대도 있는 반면에 북미 지역은 2세대와 1.5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음. 가족의 경제적 수준 인식에 있어서도 북미지역은 비교적 높은 반면, CIS나 일본은 다소 낮게 나타났음. 부모님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정도는 북미 지역이 높다고 나타난 반면, 일본과 CIS 지역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 한국과 관련이 있는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CIS와 중국 지역 한민족청소년들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에 각 지역에 공통적으로 한국 언어 및 문화에 대한 관심,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정도, 한국청소년들과의 교류 및 친선 기회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가 높았음. 특히 이들 청소년들은 장래 진로와 관련해 고위 전문직 등 엘리트 직종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차 거주국의 중요한 인적 자원일 뿐 아니라 고국과 적절한 연계를 가질 때 한국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짐.
- 특히 한국어를 배워두면 장래의 직업이나 진로 설정에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나서 이러한 부분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 나아가 모국어, 모국문화 및 모국 방문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욱 개발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 지원도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면담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한국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한국 방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

미지와 한국사회의 현실이 다름을 알게 됨. 특히 미국에서 온 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사회가 유교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매우 자유분방하고, 고도의 기술을 가진 현대적인 사회라는 것을 깨닫게 됨. 중국에서 온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사회가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며, 재일한인과 고려인 청소년들도 한국사회에 들어와 체류하면서 자신들은 한국사회의 일원이 아님을 느낌. 공통적으로 이들은 외국에서 살 때는 한민족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지만 한국사회에 들어와서는 더욱 한국인과 다름을 느끼게 됨.

-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주변적 정체성을 겪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호한 정체성을 인식하게 됨. 하지만 역으로 자신들의 중간자적 위치는 모국과 본국을 매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에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함.
- 이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한국어나 한인이라는 배경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특히 한국과 자신의 거주국을 매개하여 사업을 하거나 미래 직업을 구상하기도 함. 이들이 제안하는 해외한인과 고국과의 연계 방안으로는 공통적으로 고국 방문에 대한 정보 제공, 외국인을 위한 생활편의 제공,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들고 있음.

4. 정책제언

- 모국방문을 위한 정보 제공 강화: 이민후속세대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모국을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을 다원화해야 할 것임
- 모국방문 프로그램의 활성화: 이민후속세대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재외한인청소년 교류·지원센터 설립: 현재 국제청소년교류센터 내에 재외한인청소년 교류·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함. 현재 국내를 방문하고 있는 한민족청소년들의 경우 연수기관이나 방문기관을 통해 국내체류 정보를 얻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충분치 않음. 이 센터를 통하여 해외한민족청소년들의 모국방문에 대한 총괄적 정보를 제공하며, 국내 청소년들과의 교류 및 연계를 추진하는 기능을 수행함.
- 모국방문 재외한인 청소년에게 글로벌화의 첨병으로서의 역할 부여: 모국을 방문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들을 단지 민족주의적인 의식으로 묶으려 해서는 안 될 것임. 이들은 해외 각국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기 때문에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의식을 공유하기 보다는 거주국에서 사회화과정을 거침으로써 현지의 생활양식과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향후 한국과 연계를 갖는 것은 민족주의 강화보다는 글로벌화 확산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모국방문시 외국인으로써의 생활 편의 제공 필요: 한국이 보다 원활한 다문화·글로벌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 위주의 다양한 편의시설, 행정절차 등을 글로벌화시킬 필요가 있음.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내용	5
3. 연구 방법	6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해외한민족 개념 및 현황	11
1) 개념	11
2) 해외한민족 현황	14
3) 해외한민족 이주 역사	22
4) 주요국으로의 한민족 이주사	25
2. 해외한민족 이해를 위한 이론적 배경	31
1) 초국주의(Transnationalism)	31
2) 민족공동체 논의	34
3. 재외한인 차세대 및 청소년 연구	38
4.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 논의	41
5. 타민족의 민족 네트워크 활용 사례	44
1) 중국: 화교 네트워크와 화교 교육	44
2) 이스라엘: 유대인 네트워크의 역할	47
3) 인도: 인교 네트워크의 역할	50
III. 국내체류 해외 한민족청소년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55
2. 조사 내용	56
3. 실태 조사 비교 분석	57
1) 분석 방법	57
2) 분석 결과	58
4. 요약 및 소결	105

IV. 국내체류 해외 한민족청소년 면담조사

1. 조사개요	113
1) 연구과정 개관	113
2) 면담 참가자 개관	113
2. 국내 체류 재미한인 청소년 면담조사 분석	115
1) 면담참가자 개요	115
2) 한국방문 동기	116
3) 한국체류 과정에서의 경험	120
4) 정체성	124
5) 이민사회에서의 위치	129
6) 거주국에서의 한인단체 및 한국문화 관련 생애경험	134
7) 진로 선택을 위한 전략	137
8) 고국과 해외 한민족 연계 방안	140
3. 국내 체류 조선족 청소년 면담조사 분석	144
1) 면담참가자 개요	144
2) 한국방문 동기	145
3) 한국체류과정에서의 경험	152
4) 정체성	157
5) 이민사회에서의 위치	165
6) 한인단체, 한국문화 관련 생애 경험	169
7) 진로 선택을 위한 전략	171
8) 고국과의 연계 방안	177
4. 국내 체류 재일한인 청소년 면담조사 분석	180
1) 면담참가자 개요	180
2) 한국방문 동기	181
3) 한국체류과정에서의 경험	184
4) 정체성	190
5) 이민사회에서의 위치	198
6) 거주국에서의 한인단체, 한국문화 관련 생애경험	201
7) 진로 선택을 위한 전략	203
8) 고국과 해외 한민족 연계 방안	206
5. 국내 체류 고려인 청소년 면담조사 분석	208

1) 면담참가자 개요	208
2) 한국방문 동기	209
3) 한국 체류 과정에서의 경험	211
4) 정체성	213
5) 이민사회에서의 위치	219
6) 거주국에서의 한인단체, 한국문화 관련 생애경험	222
7) 진로 선택을 위한 전략	225
8) 고국과 해외 한민족 연계 방안	226
6. 국내 체류 기타 국가 거주 한인 청소년 면담조사 분석	232
1) 면담참가자 개요	232
2) 한국방문 동기	234
3) 한국 체류과정에서의 경험	237
4) 정체성	243
5) 이민사회에서의 위치	250
6) 거주국에서의 한인단체, 한국문화 관련 생애경험	251
7) 진로 선택을 위한 전략	254
8) 고국과 해외한민족 연계 방안	256
7. 요약 및 소결	259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 론	271
2. 정책제언	274
참 고 문 헌	279
부 록	283

표 목차

<표 II-1> 재외동포현황	15
<표 II-2> 거주 자격별 재외동포 현황(2007년 5월 1일 기준)	17
<표 II-3 >연도별 재외동포 증감현황	18
<표 II-4> 재외동포다수 거주 국가(2007년 기준)	19
<표 II-5> 연도별 및 국적별 외국적동포 체류 현황	20
<표 II-6> 한국대학에 유학 중인 재외동포 학생 현황 (2007년 4월 1일 기준)	21
<표 II-7> 재외한인의 이민 배경요인, 이민자 특성, 거주국의 민족정책, 문화변용 수준	30
<표 III-1> 국내체류 해외 한민족 연수생	56
<표 III-2> 설문지 내용과 문항 수	57
<표 III-3> 나라별 성별 인원	58
<표 III-4> 현재 신분	60
<표 III-5> 나라별 장래 희망 직업	61
<표 III-6> 종교	62
<표 III-7> 나라별 이민 세대 현황	63
<표 III-8> 부모의 민족 배경	64
<표 III-9> 본국에서의 생활 만족도	65
<표 III-10> 아버지의 학력	67
<표 III-11> 어머니 학력	68
<표 III-12> 아버지의 직업	69
<표 III-13> 어머니의 직업	70
<표 III-14> 가족 수입 만족도	71
<표 III-15> 상대적 소득 만족도	72
<표 III-16>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75
<표 III-17> 한국에 대한 관심	81
<표 III-18> 한국 방문 경험	85
<표 III-19> 한국 뉴스 시청	86

<표 III-20> 한국 뉴스 접촉 방법	87
<표 III-21> 한국 연속극과 오락 프로그램의 시청률	88
<표 III-22> 한국의 연속극이나 오락프로에 대한 느낌	89
<표 III-23>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91
<표 III-24> 한민족 정체성	96
<표 III-25> 네트워크 구축	101
<표 IV-1> 면담참가자 분포	114
<표 IV-2> 재미한인 청소년 면담 참가자 개요	115
<표 IV-3> 조선족 청소년 면담 참가자 개요	144
<표 IV-4> 재일한인 청소년 면담 참가자 개요	180
<표 IV-5> 고려인 청소년 면담 참가자 개요	209
<표 IV-6> 기타국가 출신 해외한인 청소년 면담참가자 개요	233
<표 IV-7> 국내 체류 해외 한민족청소년 면담조사 결과 요약	267

그림 목차

[그림 II-1] 재외동포수 증감 현황(2007. 5.1 기준 추산치) ……	16
[그림 II-2] 주요국가별 재외동포 현황(2007. 5.1 기준 추산치) …	16
[그림 II-3] 연도별 재외동포 증감현황 ……………	18
[그림 II-4] 재외동포 다수거주 국가(2천명 이상) 현황 (2005.1.1 기준) ……………	20
[그림 II-5] 한국인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	22
[그림 III-1] 국가 간 남녀 비율 ……………	59
[그림 III-2] 현재 신분 ……………	60
[그림 III-3] 나라별 장래 희망 직업 ……………	62
[그림 III-4] 종교 ……………	63
[그림 III-5] 이민 세대 현황 ……………	64
[그림 III-6] 부모의 민족 배경 ……………	65
[그림 III-7] 본국에서의 생활 만족도 ……………	66
[그림 III-8] 아버지의 학력 ……………	67
[그림 III-9] 어머니의 학력 ……………	68
[그림 III-10] 아버지의 직업 ……………	69
[그림 III-11] 어머니의 직업 ……………	70
[그림 III-12] 가족 수입 만족도 ……………	71
[그림 III-13] 상대적 소득 만족도 ……………	72
[그림 III-14]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	75
[그림 III-15] 부모님은 대체로 한국에 대해 좋게 말씀하신다 ……	76
[그림 III-16] 부모님은 내가 한국어 공부하기를 원하신다 ……	76
[그림 III-17] 부모님은 내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 갖기를 원하신다…	76
[그림 III-18] 부모님은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신다 ……	77
[그림 III-19] 부모님은 한국음식을 즐겨 만드신다 ……………	77
[그림 III-20] 부모님은 내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라신다. ……	77
[그림 III-21] 한국 관련 뉴스에 대한 관심이 있다 ……………	82
[그림 III-22] 한국에서 연수(공부)를 더 오래 하고 싶다 ……	82

[그림 III-23]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또 방문하고 싶다	82
[그림 III-24]	한국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고 싶다	83
[그림 III-25]	한국에 있는 내 나이 또래 청소년들과 대화하고 싶다 ..	83
[그림 III-26]	나는 배우자로 한국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	83
[그림 III-27]	한국과 관련성 있는 직업 갖기를 계획하고 있다	84
[그림 III-28]	부모님보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이 있다 ...	84
[그림 III-29]	나는 부모님보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	84
[그림 III-30]	한국어를 배워두면 장래 직업이나 진로 설정에 더 유리할 것이다	85
[그림 III-31]	한국 방문 경험	86
[그림 III-32]	한국 뉴스 시청	87
[그림 III-33]	한국 뉴스 접촉 방법	88
[그림 III-34]	한국 연속극과 오락 프로그램의 시청률	89
[그림 III-35]	한국의 연속극이나 오락프로에 대한 느낌	89
[그림 III-36]	한민족 배경은 내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	92
[그림 III-37]	한국의 전통명절을 쇠고 있다	92
[그림 III-38]	나는 한민족 문화를 많이 알고 있다	92
[그림 III-39]	나는 한국어를 듣고 이해한다	93
[그림 III-40]	나는 한국어를 말할 수 있다	93
[그림 III-41]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다	93
[그림 III-42]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97
[그림 III-43]	한민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고 노력한다 ...	97
[그림 III-44]	한인들로 구성된 조직이나 단체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	97
[그림 III-45]	나의 한민족 배경에 대해 잘 안다	98
[그림 III-46]	한민족 일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98
[그림 III-47]	한민족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98
[그림 III-48]	다른 사람들에게 한민족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	99
[그림 III-49]	한인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102
[그림 III-50]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	102
[그림 III-51]	재외동포에게 정보제공	103
[그림 III-52]	청소년과의 교류 기회 증가	103
[그림 III-53]	한국 인터넷 사이트 이용	103

[그림 III-54]	한국청소년과의 대화 가능 인터넷 사이트 구축	104
[그림 III-55]	한국 유학생들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104
[그림 III-56]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로 인해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	104
[그림 III-57]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한국 유학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	105
[그림 III-58]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	105
[그림 V-1]	재외한인청소년 교류지원센터(안)	276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세계화·지구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한국의 세계화 및 국가 경쟁력 고취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품, 자본, 인구, 지식, 이미지, 문화 등이 국경을 가로질러 이동하고 있는 지구촌 시대에 물적 자원이 빈약한 한반도는 인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만이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국경 및 국적 개념의 약화 속에서 한반도는 지역적 테두리 내에 존재하는 인적 자원 뿐 아니라 한반도 밖에 거주하는 ‘한민족’들을 제대로 연계시킬 때 보다 효과적으로 한반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으리라고 보여진다.

한민족의 이민사는 이미 한 세기를 훨씬 넘어섰고 이제 이민1세대가 뿌리를 내려 그 후손들이 2, 3, 4세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한반도는 이들 이민 후속 세대들과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언어나 문화 장벽 때문에 주류 사회로 진출하지 못했던 1세대와는 달리 2, 3, 4세대들은 현지에서 태어나서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현지사회의 주류로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해외 한민족들은 세계의 주요 열강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 등지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한민족 후속세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들 주요 열강국가와의 외교 및 경제 교류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한민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외 각국에 정착하고 있으며, 이들의 규모는 이민, 유학, 단기체류 등의 목적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해외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규모는 2007년 현재 중국에 276만여명, 북미에 220만여명, 일본에 89만여명,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에 53만여명 등이며 이들 주요 국가 외에도 동남아시아,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 걸쳐 700여

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 수치는 규모 면에서 중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에 이어 세계 5위이며, 남한인구 4400여만명과 북한인구 2300만명을 합친 본국 인구 대비 비율은 이스라엘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민 외에도 입양, 유학, 연수, 파견 등으로 해외 거주 한민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유학 및 부모의 투자이민 등으로 최근 외국으로 이민해 정착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이민을 통해 정착 과정에 있는 한민족과 새로운 이민자들, 단기체류자, 입양인 등 해외 한인들의 존재양상은 다양하리라고 보여지며, 본국 및 한국과의 관계도 새롭게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글로벌화와 정보화의 영향으로 국경 개념이 약화되면서 이제는 이민이나 국제 이주가 영원히 고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국과 거주국 사이를 왕래하거나 고국의 사안에 개입하는 사례들이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국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한류 확산, 한국 기업의 제품의 국제적 위상 강화나 한국의 올림픽, 월드컵 개최 등을 통하여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가 상승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계기들은 해외 한민족으로 하여금 고국에 더욱 관심을 갖거나 직접 방문하는 유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해외한인 청소년들도 증가하고 있다. 방학동안 어학 연수를 받거나 아예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 유학을 하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한국에서의 경험은 향후 자신의 거주국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한국과의 연계를 만들게 될 것이다. 직접 한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한국 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을 하게 되며, 한국어 학습과, 한국에서의 교육 경험은 자신의 진로와도 연결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은 한국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생활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 방문동기, 방문이후에 이들의 인식 변화, 한인으로써의 정체성 인식,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한국과 관련된 진로 설정, 한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특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주요국(미국,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에서 온 한민족청소년들의 경험과 이들 외에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한민족청소년들의 경험을 함께 살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이들이 고국과 거주국을 매개하는 글로벌 에이전트의 역할 수행에 대한 예측을 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1) 해외 한민족 현황, 개념, 선행연구 검토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적 배경 이해를 위해 해외 한민족 개념 및 현황에 대해 파악한다. 이와 함께 해외 한민족 차세대 및 청소년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타민족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사례에 대해 개관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2) 국내체류 재외한인 청소년 생활 및 의식 실태 조사

국내의 모국 수학 프로그램이나 연수, 유학,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하고 있는 재외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실태, 모국관,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도, 민족 정체성,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해 조사한다. 주요국(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 출신 한민족청소년 뿐 아니라 유럽이나 남미 등 여러 지역 출신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의식 조사를 실시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향후 본국으로 돌아간 뒤 고국과 본국에 대한 네트워크 역할 수행 방안에 대한 의견도 조사한다.

3) 모국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개별 청소년 의견 조사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재외한인 청소년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들이 모국과의 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한국관련 관심사나 진로 설정에 대한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한다면, 이들에게 보다 심층적인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한국방문 경험이 어떻게 개입하는지 등을 조사한다.

3. 연구 방법

□ 문헌조사

- 해외한민족 분포, 현황 및 실태와 관련된 문헌자료 분석
- 한민족 해외 이주 경향 및 경로 변화에 관한 문헌자료 조사
- 해외한민족 차세대 및 청소년들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 타민족의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례 조사

□ 전문가 자문

- 주요국가(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CIS)의 한민족 현황 파악을 위한 자문조사
- 한민족청소년 실태 조사 범위, 규모 및 방법 모색을 위한 자문 청취
- 해외 거주 한민족청소년과 한국 청소년의 교류 협력 증진 방안 모색 및 이를 통한 한국 청소년의 글로벌 사회 대처 능력 함양 방식에 관한 자문 청취

□ 설문조사

- 국내체류 재외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500명 내외)
- 국내 대학의 한국어연수기관, 국제교육진흥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모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효과가 큰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를 설문대상에 포함
 - ※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 연령은 9세부터 24세임

□ 심층면담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50명 내외)
- 설문조사만으로는 피상적인 정보를 얻는데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심층면담 활용

□ 워크숍

- 국내 및 국외 연구진,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의 추진방향 및 진행사항을 조율하고 점검하는 워크숍 실시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해외 한민족 개념 및 현황
2. 해외 한민족 이해를 위한 이론적 배경
3. 재외한인 차세대 및 청소년 연구
4.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 논의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해외 한민족 개념 및 현황

1) 개념

해외에 나가있는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한인(韓人)들을 보편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들에 대해 논의할 때는 교민, 재외한인, 해외한인, 재외동포, 재외국민, 한인 디아스포라(Korean diasporas) 등의 다양한 개념이 사용된다. 이러한 지칭은 학문적, 공식적, 정책적, 혹은 일상적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의미가 각기 다르다(임채완·전형권, 2006; 윤인진, 2004).

먼저 ‘교민(僑民)’은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자국 사람, 즉 재외국민을 의미하는 말로서 현지 체류자, 유학생 등을 가리키는 협의의 개념이다. ‘교민’이라는 용어는 이민 일세를 지칭하고 모국과의 지속적인 연대감을 내포하기 때문에 거주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그 나라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사는 이민 2, 3세를 포함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교포’와 ‘동포’는 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핏줄이 같은 사람들로 우리 민족을 포괄하는 용어로 이해된다. 둘을 구분하자면 ‘교포’는 대체로 다른 나라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고 동포는 같은 나라에 살거나 다른 나라에 살며 같은 민족 의식을 가진 사람들 모두를 가리킨다. 현지교포, 남북한 동포, 국내외 동포 등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서 ‘동포’가 ‘교포’보다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1997년 3월 27일에 재외한인의 공식 창구로서 재외동포재단 설립을 공포하면서 ‘동포’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윤인진, 2004).

재외동포란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통칭하는 것으로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 규정에 따르면, 외국에 체류 혹은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가리키는

개념인 재외국민은 재외동포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 된다. 외교통상부의 개념 규정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법률 제6015호)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동법에 의하면,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재외동포는 이 둘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2조)(진동섭 외, 2003).

‘재외동포’는 주로 모국의 관점에서 정의되고 사용되는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나라 밖의 동포들을 혈통주의적인 정서에 근거해 한민족 공동체로 껴안으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의는 대개 동포 정책의 입안과 입법의 견지에서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동포’라는 개념으로 전 세계 한인을 아우르려는 「재외동포법」조차도 자의적인 적용 대상의 분류로 위헌판결을 받게 된 사실 등에서 보여지듯이, 동포나 교포의 개념들이 내포하고 있는 국내법상, 국제법상의 문제점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동포’라는 용어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가치중립적인 ‘재외한인’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재외한인의 개념이 재외동포 등 여타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가 학문적 용어로서 더욱 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임채완·전형권, 2006).

첫째, 재외한인은 재외동포에 비해 더욱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재외한인이라는 용어는 국적을 강조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핏줄이나 민족을 강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구화 시대 타민족, 타국가와의 학문적 교류나 국제 관계를 고려하여 보다 객관적인 용어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포’, ‘교포’라는 용어는 그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로 인하여 거주국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용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핏줄이라는 가깝고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거주국의 입장에서 보면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 외국 국적을 소지한 한인들에게 한국 정부의 관할권이 미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과 그로 인해 현지 한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고려인이나 중국 조선족 중 일부 지역 한인들은 이러한 용어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셋째, 한국어 개념으로 볼 때, 해외교포나 재외동포의 개념은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다. 어느 나라건 ‘나라 밖’에 핏줄을 공유하는 ‘교포’ 혹은 ‘동포’가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이들 개념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분명치 않다. 해외유대인, 인교, 화교·화인 등의 개념은 고유의 종족성(ethnicity)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그 대상이 분명하다. 따라서 재외동포보다는 재외한인이라는 개념이 더욱 적합하다. 넷째, 같은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하여도 국가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부르는 경향이 있다. 즉, 일본에서는 조선인, 중국에서는 조선족,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에서는 고려인, 미국에서는 한국계 미국인(Korean American) 등으로 부르고 있다.¹⁾ 그러므로 이러한 용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용어가 필요한바, 이 경우 ‘재외한인(Overseas Korean)’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한편 학문적으로 디아스포라 분류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혹은 디아스포

1) 거주국에 따라 재외한인을 호칭하는 것도 다르다. 재중한인은 재중동포, 중국동포, 중국교포, 조선족으로 불리고 있다. 재중한인, 재중동포, 중국동포는 한국인의 관점에서 부르는 것이고 조선족은 중국의 56개 소수민족 중 하나라는 중국정부의 공식 명칭이다. 독립국가연합에 사는 한인은 현지에서 자신들을 ‘고려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한인에 대한 호칭은 더욱 혼란스럽다. 재일한인은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코리아인’ 등으로 불린다. ‘재일조선인’이란 한국에서 오해되는 조총련에 소속된 재일동포라는 의미나 일본정부가 부과하는 외국인 등록에서 ‘조선적(朝鮮籍)’으로 기재된 사람이라는 제한된 의미도 아니다. ‘재일조선인’은 한반도에서 유래하여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결과 구중주국인 일본의 영역에서 생활하게 된 민족집단의 총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해 비해 ‘재일한국인’이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민이라는 ‘국민적 귀속’ 개념으로 ‘재일조선인’이라는 ‘민족적’ 개념의 범주에 포함되는 좀더 작은 집합을 가리킨다. 일본사회와 매스컴 등에서는 ‘재일한국-조선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는 분단체제를 반영한 호칭이다. 또한 최근에는 ‘재일(在日)’이라는 용어로 재일한인을 가리키는 경우도 많지만 이는 “일본에 산다”는 상태를 표시할 뿐이다(윤인진, 2004).

라 속성을 강조할 경우 ‘한인 디아스포라’ 혹은 ‘코리아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임채완·전형권, 2006). 디아스포라는 모국에서 추방되어 다양한 국가에 퍼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말이었으나, 오늘날, 디아스포라 및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는 점차 망명객, 이주민, 이민자, 민족적·인종적 소수민족을 지칭하는 상징으로 사용된다(Safran, 1991, p. 83).

재외한인 연구에서 혼돈되기 쉬운 용어는 민족과 종족이다. 이 혼란은 영어인 내이션(nation)과 에스니시티(ethnicity)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내이션은 우리말로 ‘국가’ 또는 ‘민족’으로 비교적 통일되게 번역되지만 ‘에스니시티’는 학자에 따라 다르게 번역된다. 보통 정치학자와 사회학자는 ‘민족’으로 인류학자는 ‘종족’으로 번역한다. 내이션과 에스니시티의 구분은 정치적 경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에스니시티는 정치적 경계없이 존재할 수 있어도 내이션은 정치적 경계 안에서 존재한다(윤인진, 2004).

본 연구에서는 Korean ethnicity가 어의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 경계 밖에 거주하고 있다는 뜻을 가진 해외한인, 재외한인, 해외한민족 등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또한 기존의 논의를 인용하고자 할 때는 교포나 동포 등 원래 사용되어진 어휘를 쓰도록 하겠다.

2) 해외 한민족 현황

(1) 주요국의 해외 한민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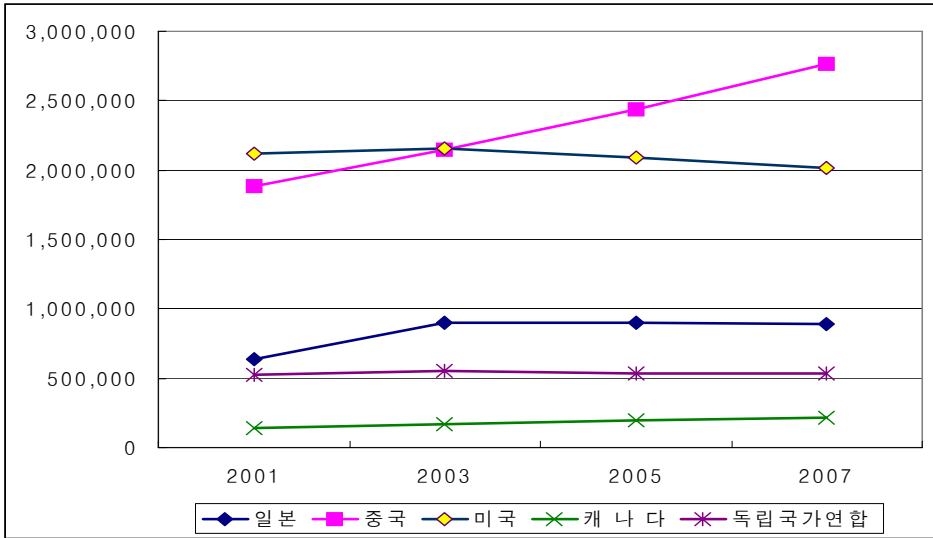
해외 한민족이 분포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한인 이주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 외교통상부 발행, 재외동포현황 통계에 따르면, 한국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주요 국가 및 인구수는 다음과 같다. 중국에 276만여 명, 북미에 220여만 명, 일본에 89만여 명, 독립국가연합에 53만여 명 등으로 이들 주요 국가 외에도 동남아시아,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 걸쳐 700여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인구는 남북한 인구 7천만의 9%에 해당하는 큰 규모이다.

<표 II-1> 재외동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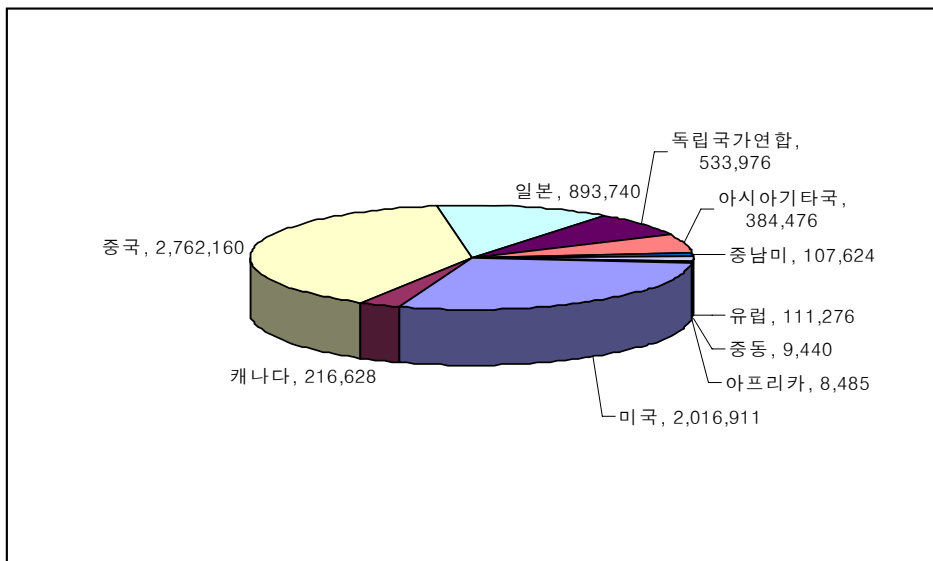
(단위 : 명)

연도별 지역별	2003	2005	2007	백분율(%)	전년비 증감율(%)
아 주 지 역	3,239,904	3,590,411	4,040,376	57.35	12.53
일 본	898,714 ①(260,168)	901,284 ②(284,840)	893,740 ③(296,168)	12.69	-0.84
중 국	2,144,789 ④(1,923,800)	2,439,395 ④(1,923,800)	2,762,160 ④(1,923,800)	39.21	13.23
기 타	196,401	249,732	384,476	5.46	53.96
미 주 지 역	2,433,262	2,392,828	2,341,163	33.23	-2.16
미 국	2,157,498 ⑤(1,076,872)	2,087,496 ⑤(1,076,872)	2,016,911 ⑤(1,076,872)	28.63	-3.38
캐 나 다	170,121 ⑥(101,715)	198,170 ⑥(101,715)	216,628 ⑥(101,715)	3.08	9.31
중 남 미	105,643	107,162	107,624	1.53	0.43
구 주 지 역	652,131	640,276	645,252	9.16	0.78
독립국가연합	557,732	532,697	533,976	7.58	0.24
유 럽	94,399	107,579	111,276	1.58	3.44
중 동 지 역	6,559	6,923	9,440	0.13	36.36
아프리카지역	5,095	7,900	8,485	0.12	7.41
총 계	6,336,951	6,638,338	7,044,716	100	6.12

- ① 1952~2002년간 재일동포 귀화자 총수(조선적 포함)
- ② 1952~2004년간 재일동포 귀화자 총수(조선적 포함)
- ③ 1952~2005년간 재일동포 귀화자 총수(조선적 포함)
- ④ 2000년도 중국 전국인구조사상의 조선족(중국 국적) 총수
- ⑤ 2000년도 미국통계청 인구센서스상의 한인 총수
- ⑥ 2001년도 캐나다통계청 인구센서스상의 한인 총수



[그림 II-1] 재외동포수 증감 현황 (2007. 5.1 기준 추산치)



[그림 II-2] 주요국가별 재외동포 현황 (2007. 5.1 기준 추산치)

<표 II-2> 거주 자격별 재외동포 현황(2007년 5월 1일 기준)

(단위 : 명)

지역별 자격별	시민권자	영주권자	체류자		총계
			일반	유학생	
아시아지역	2,471,580	554,787	473,621	90,423	3,590,411
일본	①284,840	515,570	82,666	18,208	901,284
중국	2,153,198 ②(1,923,800)	2,466	253,212	30,519	2,439,395
기타	33,542	36,751	137,743	41,696	249,732
미주지역	776,559	1,132,569	376,135	107,565	2,392,828
미국	679,212	986,240	335,756	86,288	2,087,496
캐나다	86,084	72,077	19,271	20,738	198,170
중남미	11,263	74,252	21,108	539	107,162
구주지역	534,522	20,153	45,309	40,292	640,276
독립국가연합	523,729	258	6,459	2,251	532,697
유럽	10,793	19,895	38,850	38,041	107,579
중동지역	39	169	6,559	156	6,923
아프리카지역	73	532	6,604	691	7,900
총계	3,782,773	1,708,210	908,228	239,127	6,638,338

① 재일동포 귀화자 총수(1952~2004년, 조선적 포함) : 일본 법무성 통계

② 2000년도 중국 전국인구조사상의 조선족(중국 국적) 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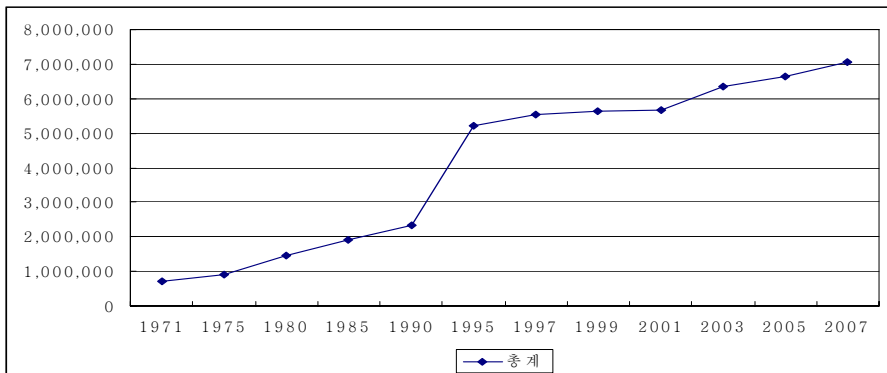
해를 거듭할수록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에 500만명을 넘어서서 2005년에는 660만, 2007년에는 700만명에 이르고 있다.

<표 II-3 >연도별 재외동포 증감현황

년 도	총 계	증감	전년비 증감율(%)
1971	702,928	(+)30,269	4.5
1972	728,470	(+)25,542	3.6
1973	801,432	(+)72,962	10.0
1974	871,405	(+)69,973	8.7
1975	920,358	(+)48,953	5.6
1976	1,016,016	(+)95,658	10.3
1977	1,171,290	(+)155,274	15.3
1978	1,253,139	(+)81,849	6.9
1979	1,341,709	(+)88,562	7.1
1980	1,470,916	(+)129,215	9.6
1981	1,590,832	(+)119,916	8.2
1982	1,685,380	(+)94,548	5.9
1983	1,733,589	(+)48,209	2.9
1984	1,778,707	(+)45,118	2.6
1985	1,905,181	(+)126,474	7.1
1986	2,006,216	(+)100,035	5.3
1987	2,045,169	(+)38,953	1.9
1988	2,123,641	(+)78,472	3.8
1989	2,272,912	(+)149,271	7.0
1990	2,320,099	(+)47,187	2.1
1991	4,832,414	(+)2,512,315	108.3
1992	4,943,590	(+)111,176	2.3
1995	5,228,573	(+)284,983	5.7
1997	5,544,229	(+)315,656	6.0
1999	5,644,558	(+)100,329	1.8
2001	5,653,809	(+)9,251	0.16
2003	6,336,951	(+)683,142	12.08
2005	6,638,338	(+)301,387	4.76
2007	7,044,718	(+)406,380	6.12

출처: 외교통상부(2005), 재외동포현황

※ '91년도부터 중국동포 및 독립국가연합동포를 포함하고, 2003년부터 재일동포 귀화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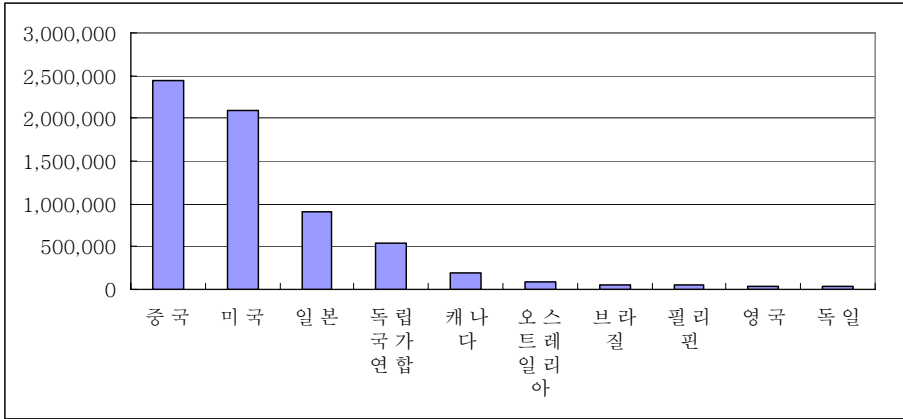
[그림 II-3] 연도별 재외동포 증감 현황 (단위: 명)

재외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국가는 주요 열강국들이라 할 수 있는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 호주 등이다.

<표 II-4> 재외동포다수 거주 국가(2007년 기준)

(단위 : 명)

1	중국	2,761,954
2	미국	2,023,653
3	일본	629,236
4	캐나다	218,716
5	러시아	207,225
6	우즈베키스탄	178,070
7	카자흐스탄	102,280
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95,297
9	필리핀	91,477
10	베트남	53,800
11	브라질	50,523
12	영국	41,995
13	우크라이나	33,131
14	뉴질랜드	32,972
15	인도네시아	30,700
16	독일	29,800
17	태국	25,000
18	아르헨티나	21,592
19	키르기스스탄(키르기즈)	20,900
20	프랑스	13,981
21	싱가포르	13,393
22	멕시코	12,070
23	과테말라	9,944
24	인도	8,271
25	이탈리아	5,502
26	파라과이	5,431
27	말레이시아	4,934
28	스페인	3,606
29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화국)	3,480
30	대만(타이완)	3,166
31	캄보디아	3,024
32	몽고	2,500
33	체코	2,439
34	칠레	2,018
35	오스트리아	1,998
36	스위스	1,980



[그림 II-4] 재외동포 다수거주 국가(2천명 이상) 현황 (2005.1.1 기준)

(2) 국내체류 해외동포 현황

해외 한민족의 규모 증가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외국적 동포)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체류 해외동포 중 가장 많은 규모를 보이는 집단은 조선족이며 다음이 재미한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5> 연도별 및 국적별 외국적동포 체류 현황

연도 국적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 계	138,384	155,872	184,822	194,413	267,436
전년대비증감(%)	8.2	12.6	18.6	5.2	37.6
한국계중국인	118,300	132,305	161,327	167,589	236,854
미 국	14,785	16,746	16,483	18,409	21,118
캐 나 다	2,015	2,567	3,006	3,652	4,441
오스트레일리아	1,235	1,481	1,511	1,608	1,810
한국계러시아인	875	1,248	843	1,227	799
뉴 질 랜드	269	384	445	522	653
독 일	290	354	344	410	477
일 본	148	198	233	277	326
프 랑 스	48	60	68	81	94
기 타	419	529	562	638	864

1. 중국 및 러시아는 모든 체류자격에서 외국국적 동포 수를 산출 함.
2. 중국 및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전체 체류자격 중 체류자격 ① E-9-A-E(고용특례), ② F-1-4(취업관리제), ③ F-4(재외동포) 등 3종류의 체류자격에서만 외국국적 동포 수 산출 출처: 법무부(2006). 출입국관리통계연보

이와 함께 국내의 대학에서 연수나 유학 중인 해외동포 청소년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중 재외동포 학생 수 변화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추이는 여름 방학 중 단기 연수로 한국을 찾는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단기 연수나 체류자들을 합하면 그 수치는 더욱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표 II-6>한국대학에 유학 중인 재외동포 학생 현황(2007년 4월 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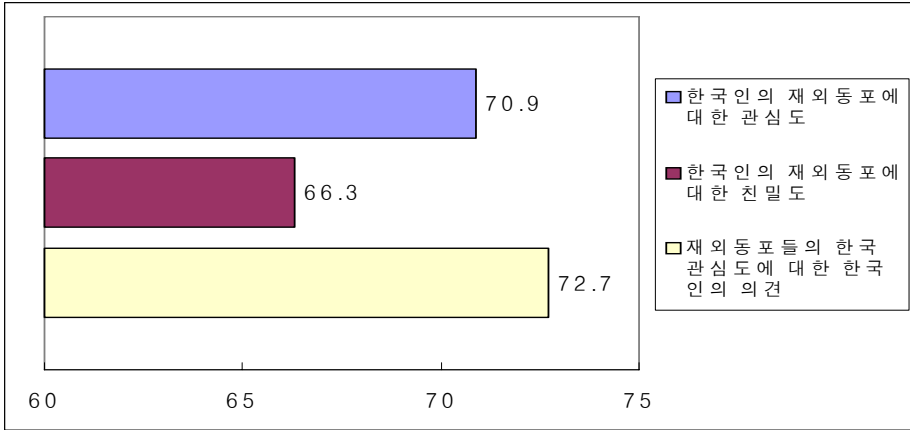
(단위 : 명)

국 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재미국 동포	139	126	252	215
재캐나다 동포	35	49	50	32
재중국 동포	283	779	920	1,821
재일본 동포	186	151	91	323
재독립국가연합 동포	15	11	18	9
기타지역	135	98	82	82
재외동포유학생합계	793	1,214	1,413	2,482
외국인유학생 총계	16,832	22,526	32,557	49,270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서 해당 부분 재구성

(3) 우리 국민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도

우리 국민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7개 광역도시 만 19세 이상 708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의견이 전체의 70.9%, 낮다는 의견은 6.8%로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외동포에 대한 친밀도 정도에서도 친근하게 느낀다는 의견이 전체의 66.3%로 나타났고, 재외동포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도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72.7%로 높게 나타났다(재외동포재단, 2007).



[그림 II-5] 한국인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재외동포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관련 기본방향에 대하여 옳은 방향이라는 의견이 전체 58.7%,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이다가 30.8%로 나타났으며, 재외동포 관련 지원 및 정책적 고려에 대하여 미약하다는 의견이 전체 46.3%, 적정하다는 의견이 17.4%, 충분하다는 의견이 전체 4.2%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민족정체성부분 42.5%, 재외국민 보호활동 31.1%, 거주국 정착에 도움이 될 네트워크 등 정보제공 24.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외동포(특히 재중/재CIS 동포)가 우리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경우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85.1%,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5.9%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우리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우호적임을 알 수 있다.

3) 해외한민족 이주 역사

한민족의 이주 역사는 크게 네 시기로 구분된다(윤인진, 2004).

(1) 제1시기(1860년대-1910년)

이 시기에는 구한말의 농민, 노동자들이 기근, 빈곤, 압정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 중국, 러시아, 하와이로 이주했다. 중국의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로 간 한인들은 경제유민(流民)으로서 당시 입국이 금지되었던 지역에서 농지를 개간하면서 신분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꾸려갔다.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의 한인의 이주는 1902~190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하와이 거주 일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이 1905년 한인 이주를 금지하면서 더 이상의 이주는 불가능해졌다. 1905년까지 7,226명의 이주자들이 도착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20대의 독신 남성이었다. 이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사진결혼의 형태로 천여 명 가량의 한인 여성들이 1924년까지 하와이로 건너가서 이민 가정을 형성하였다.

(2) 제2기(1910년-1945년)

이 시기에는 일제 통치시기에 토지와 생산수단을 빼앗긴 농민과 노동자들이 만주와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정치적으로 난민들과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러시아, 미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1931년의 만주사변과 1932년의 만주국 건설을 계기로 만주지역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인들의 대규모 집단이주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1930년대 후반 만주지역의 한인인구는 약 50만 명 정도 증가했는데, 이중 약 25만 명 정도가 집단이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권태환, 1996). 제1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경제호황을 맞아 한인들이 노동자의 신분으로 도입하였으며, 1937년의 중일전쟁과 1941년의 태평양전쟁을 계기로 대규모의 한인들이 광산, 전쟁터로 끌려갔다. 이런 식으로 재일한인의 규모는 급속히 증가해서 일본이 미국에게 패한 1945년 8월까지 약 230만 명 정도에 이르렀다가 패전 후 많은 한인들이 조국으로 귀환하자 급속히 감소하여 1947년에는 598,507명으로 급감하였다.

(3) 제3기(1945년-1962년)

1962년은 남한정부가 이민정책을 처음으로 수립한 해이다. 이 시기에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전쟁고아, 미군과 결혼한 여성, 혼혈아, 학생 등이 입양, 가족재회, 유학 등의 목적으로 미국 또는 캐나다로 이주하였다. 1950년부터 1964년까지 6천 명 가량의 여성들이 미군의 배우자로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동일시기에 5천 명 가량의 아동들이 전쟁고아로서, 혼혈아로서, 또는 입양아로서 미국으로 건너갔다. 위와 같이 두 부류의 이민자들이 전후 한인 이민자의 2/3을 차지하였다. 1945년부터 1965년까지 6천 명가량의 유학생들이 학위 취득 후 고국에서 누릴 사회적 권위와 출세에 대한 기대를 갖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에 눌러 앉거나 또는 끝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정착하였다. 이들은 미군과 결혼한 한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1965년 미국으로의 이민 문화가 활짝 개방되었을 때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는 연쇄이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4) 제4기(1962년부터 현재)

이때부터 정착을 목적으로 한 이민이 시작되었다.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외한인 이민자와 그 후손은 이 시기에 이주하여 정착한 사람들이다. 1962년에 남한 정부는 남미, 서유럽, 중동, 북미로 집단 이민과 계약이민을 시작하였다. 1962년 이민정책의 근본 목적은 잉여인구를 외국으로 보냄으로써 인구압력을 줄이고 해외에서 일하고 사는 교포들이 송금하는 외화를 벌기 위한 것이었다. 1960년대 중반에 미국과 캐나다가 그 이전까지는 북서구 유럽계 이민자들만을 선호하던 이민법을 개정하여 이민의 문호를 한인에게도 개방하자 많은 수의 한인들이 보다 넓은 신분상승의 기회를 찾아 미국과 캐나다로 이주하였다.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화이트 칼라직에 종사했던 중산층이 1960년대 중반 이후의 미국과 캐나다로의 이주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미국으로의 한인 이민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정점으로 해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오히려 이주를

포기하거나 역이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해외 이주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미국으로의 이주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반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의 이주는 증가함으로써 해외이주의 지역별 분포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종래의 가족초청 이주는 줄어드는 반면 사업 이주와 취업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4) 주요국으로의 한민족 이주사

다양한 국가로 이주해 간 한인들은 그들이 이주해간 시기, 이민 세대, 주재국의 소수 민족 정책 등에 따라, 한국 문화와 언어를 보유하고 있는 정도가 다르며, 그에 따라 다양한 경험과 민족 의식을 형성해 왔다. 해외동포가 거주하는 주요 국의 간략한 이주사 및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독립국가연합

1860년 북경조약 체결 후 러시아는 청으로부터 연해주를 할양 받는다. 인구가 희박한 이 지역의 안정과 황무지 개간을 위해 농경 기술이 뛰어난 한인들의 이주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한러 통상 수호 조약이 체결된 1884년까지 20여 년 간 1만여 명의 한인이 연해주로 이주한다. 한인 수의 증가에 위협을 느낀 연해주 총독들은 한인 이주를 통제하였고 한인의 증가는 정체 상태를 이룬다. 이들은 연해주에 황무지를 개척하여 벼농사를 시작하였고, 블라디보스톡 신한촌을 중심으로 한국의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한일합방 이후, 연해주 총독이 한인 통제 정책을 포기(1911년)하고,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1917년) 이후 소련이 민족해방운동을 적극 지원함에 따라 독립 운동가와 농민들의 지역 이주가 촉진되었고, 한인 수는 1923년에 10만 명을 돌파하고 1936년에는 20만 5000여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국가안전기획부, 1998; 이광규, 1999).

연해주 거주 한인들은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1937년 18만 명에서 20여만 명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다. 이들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우즈베크, 카자흐 등의 집단 농장에 분산 배치되어 2차 대전 직전

까지 한파와 질병 등과 싸우면서 정착하였고, 구소련이 와해되기 전까지 127개 소련 거주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족으로 알려졌다. 스탈린 사후 공민권 회복조치(1956년)로 거주지 제한이 완화되면서 주로 농업에 종사하던 한인들은 1960년대 이후부터 교육 기회를 찾아 도시로 진출하는 등 동포 사회가 안정기에 접어들게 된다(이광규, 1999).

한편 사할린 동포들은 일제시대 사할린의 광산, 군수 공장 노동자로 강제 징용된 한인들로서 2차 대전 종결 후 이 지역이 소련에 의해 점령되면서 소련의 억류 조치와 일본 정부의 송환노력 거부로 4만여 명이 귀국하지 못하고 현지에 잔류하게 되었다(국가안전기획부, 1998).

이들에게 있어 한국어는 거의 잊혀 가고 있어서, 60세 미만의 한인들은 거의 우리말을 못하고 있으며, 한인 학교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관혼상제를 비롯한 통과 의례나 세시풍속은 지켜지고 있는 편이며, 현지 교육의 수준도 높은 편이다. 독립국가연합의 한인들은 이곳이 여러 개의 민족 국가로 독립한 후 서로 민족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민족 언어의 사용과 더불어 한인들은 다시 방향과 시련을 겪고 있다. 일부는 극동의 연해주로 이주하면서 이 지역의 민족 자치주 건설에 기대를 걸기도 하지만 이 문제도 단순하지만은 않다. 이 지역의 한인들은 이주국의 정치, 경제 여건과 더불어 아직도 시련을 겪고 있으며, 강한 민족의식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활여건의 취약성으로 인해 민족어의 구사력이나 민족 문화의 유지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동준, 2000).

(2) 중국

중국으로의 한인의 이주는 청조 말기에 국경 통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1860년대 대흥작을 맞은 평안도, 함경도 지역 농민들이 대거 간도 지방으로 이동해갔다. 1883년에 청, 조선간에 ‘길림 조선 상민 무역 지방규약’을 체결하고, 1885년에 두만강 이북 지구를 한인 개간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한인 이주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한인들은 중국인이나 만주족이 사용하지 않는 늪지대나 황무지를 개간하여 벼농사를 지어 만주 일대에 쌀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당시 중국인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한인들은 개간한 땅을 빼앗기고 소작농이나 머슴으로 전락하고 만다. 한일합방이 되자 토지를 잃은 농민들과 우국지사들이 활동의 근거지를 찾아 만주로 이주하였고, 이에 따라 만주 거주 한인은 1910년에 10만 명을 넘어서고, 1916년에는 20만 명, 1921년에는 30만 70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이주한 우국지사들은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여 청산리대첩, 봉오동전투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1932년 일제의 괴뢰 정부인 만주국이 건국되자 이곳에 거주하던 한인들은 일본의 직접적인 예속 하에 들게 되고 무력에 의한 항일투쟁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은 만주의 황무지 개간과 지하활동을 하는 독립운동가, 한인 공산당 세력을 감시하기 위해 1934년까지 한인 10만 호 이주 계획을 수립하여 주로 전라도와 경상도 출신 농민을 대거 이주시키면서 이 지역의 한인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해방이 되면서 만주 지방에 거주하던 180만 명의 한인들 중 80여만 명이 귀국했으나 1947년 당시 약 100만 명이 귀국하지 않고 잔류하였다. 이들은 중국의 국, 공 내전 시 공산당에 협력하여 공을 세웠고, 한국 전쟁시에는 다수가 중국 의용군으로 참전하였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52년 9월 연변에 조선족 자치구를 세우게 되었고 이는 1955년 자치주로 개칭된다. 1958년 9월에는 길림성 장백 조선족 자치현이 건립되었으며, 흑룡강성, 요녕성, 내몽골 자치구 지역의 조선족 거주 지역에도 인구 규모의 다소에 따라 30여 개의 민족향과 100여 개의 민족 자치촌이 건립되었다(국가안전기획부, 1998; 이광규, 1999).

중국의 조선족은 중국의 56개 민족 가운데서 최고의 교육 문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20여 년의 이주과정 속에서도 민족어와 문화전통을 보존하였다. 그것은 중국 조선족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 긍지와 농경 생활 위주의 집거 생활을 하면서 민족학교를 세워 민족 문화 보존에 힘써왔고, 주재국 당국의 소수민족과 그들의 문화를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의 결과였다. 그러나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선족들이 대량으로 도시로 진출하게 되었다. 1982년부터 1990년 사이에 흑룡강과 길림에서

9만 명, 그 후 한국 회사들의 중국 진출과 관련하여 약 20만 명이 도시로 진출하였다. 조선족 농민들의 도시 진출은 인구의 분산, 조선족 집단 거주 지역 축소로 조선족 민족 교육의 황폐화, 조선족 민족공동체의 존속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시되고 있다(박동준, 2000).

(3) 일본

재일 한국인의 이주는 1910년 한일합방과 그에 따른 식민정책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한일합방 이후 일제의 토지 조사사업 등 토지 수탈 정책으로 많은 농민이 유민화된 가운데, 일제가 1922년부터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자유 도항을 허용한 것을 계기로 연평균 1만 명 이하였던 유출 인구가 연평균 3만 명 이상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23년 5월 자유 도항 허용령이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일제는 대륙침략 전쟁에 필요한 군수산업 노동력 확보를 위해 ‘국민 총동원법’(1938, 4), ‘반도인 노동자 활용에 관한 대책’(1942, 2), ‘조선 징용령’(1942, 9) 등을 연달아 공포하고 강제징용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39년부터 1945년까지, 72만 500명의 노동자와 36만 5000명의 군속, 군인이 징발되었다. 해방 무렵 총 196만 명에 이르던 재일 한인들은 해방 이후 개인 희망이나 연합군 사령부 일본 정부의 귀환 계획에 의거, 1950년 11월까지 총 140만 명이 귀국하였으나 한국 내 불안한 정치 경제 사정과 오랜 시간 일본 체류로 인한 국내 연고 상실 등의 이유로 1950년 12월 당시 56만여 명이 귀국하지 못하고 현지에 잔류함으로써 재일동포 사회의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다(국가안전기획부, 1998).

59년 이후 약 10만 명의 재일동포가 북송되었고, 1991년까지 약 70만 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었으나 그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귀화나 일본인과의 결혼 등으로 해서 일본 국적의 한인은 늘어나는 반면, 한국 국적의 한인 수는 줄어들고 있다. 일본은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강력한 동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한인들은 많은 정신적인 고통 및 물질적 제도적 사회적 차별을 받아왔다. 따라서 직업 선택과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컸고,

그로 인해 초기에는 단순 노동, 후기에는 서비스 위주의 산업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남북의 이념 대결로 해서 전체 한인 사회의 분열된 단체 활동은 이들에게 또 다른 분단을 겪게 하며, 일상생활과 교육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가져왔다. 민족학교는 남한계보다 북조선계가 월등히 많았으나 지금은 북조선계도 점차 위축되어 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박동준, 2000; 이정훈·윤인진, 1998).

(4) 미국

최초의 미국 이민은 1902년 ‘하와이 사탕수수 재배자 협회’의 찰스 비숍 회장이 내한해 한국인 노동자를 모집하면서 이해 12월 97명이 이주한 것을 효시로, 1950년까지 총 7300여명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1905년경부터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임금이 높은 캘리포니아 서부의 오렌지 농장, 철도, 광산지대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이민에 이어, 1899년에서 1940년 사이 약 900 명의 유학생이 미국으로 갔고 초기 이민자의 결혼 상대로 1910년에서 1924년 간 1060여 명의 한국인 여성이 이주했다. 1924년 이후부터는 미국 정부가 국가별, 인종별 이민 할당제를 시행함에 따라 한인의 미국 이민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해방 후에는 한국 전쟁의 여파로 미국인과 국제 결혼한 여성 및 입양고아, 소수 유학생이 주류를 이루어 도미하면서, 1965년까지 1500여 명이 미국 본토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후일 한국인 가족 초청이민을 주도한다. 1965년 10월 미국이 이민법 상의 국가, 인종별 할당제를 폐지함에 따라 미국이민이 급속히 증가하여 1970년대에는 26만 8천명, 1980년대에는 33만 4000명이 이주하였으며, 이 시기에는 합법이민 외에도 재산도피, 위장 이민 등 비합법적인 이민도 증가하였다(국가안전기획부, 1998).

재미 한인 사회의 경우 이민이 본격화된 지 30여 년이 지나면서 식품점, 봉제 공장, 세탁소 등의 소규모 자영업을 하던 1세 중심에서, 점차 1.5세와 2세로 점차 주도권이 넘어가는 시점에 놓여있다. 이들 젊은 세대들은 1세대에 비해 언어와 교육면에서 이민 사회에의 적응에 유리한 입장에 있으

며, 이민 1세와의 관계를 통하여 민족의 전통 문화에도 어느 정도 익숙하다. 따라서 이들은 미국 주류 사회의 진출과 더불어 모국과의 가교 역할에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 1.5세나 2세들이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미국 주류 사회에 대해서 주변인으로서의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인종 차별 및 자아 정체성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윤인진, 1997; 박동준, 2000; Jo, 2000).

〈표 II-7〉 재외한인의 이민 배경요인, 이민자 특성, 거주국의 민족정책, 문화변용 수준

	독립국가연합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이민시기					
1단계	1863~1904	1863~1910	1910 이전	1903~1905	1967 이전
2단계	1905~1937	1910~1930	1910~1937	1906~1945	1967 이후
3단계	1937~1945	1930~1945	1937~1945	1945~1964	
4단계	1945~1991	1945~1992	1945~1989	1965년 이후	
5단계	1991년 이후	1992년 이후	1989년 이후		
세대구성	3, 4세가 주류	2, 3세가 주류	2, 3세가 주류	1세가 주류	1세가 주류
출신지역	현재의 북한지역 (함경도, 평안도)	1930년 이전 현재 의 북한지역 (함경도, 평안도) 1930년 이후 : 한반도 내 지역 으로 다양화	현재의 남한 지역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대부분 남한출신 과 소수의 북한 실향민	대부분 남한 출신
이주동기	주로 경제적 이유 (경제유민)/ 정치적 동기 (독립운동)도 작용	주로 경제적 이유(경제유민)/ 정치적 동기 (독립운동)도 작용	주로 경제적 이유(노동이민)/ 1937~1945년에 는 강제징집	주로 경제적 이유(초기의 노동이민과 후기의 중산층 이민)/ 사회문화적 이유(자녀교육) 도 작용	주로 경제적 이유/ 사회문화적 이유(자녀교육과 사회복지)도 작용
계층배경	다수가 기근과 압제에 떠밀린 가난한 농민. 유민(流民)의 성격이 강했음	다수가 기근과 압제에 떠밀린 가난한 농민. 유민의 성격이 강했음	다수가 농민과 체류자 (Sojourner)와 강제이주자의 성격이 강했음	초기 : 농민, 노동자 중기 : 국제결혼 여성, 전쟁고아, 유학생 후기 : 고학력, 중산층	고학력, 전문직, 중산층 정착이민의 성격이 강함

				초기에는 체류자 성격이 강했으나 이후 정착이민의 성격이 강함	
거주국의 민족정책	동화주의	다원주의 (민족자치 허용)	동화주의	동화주의	다원주의 (다문화주의)
문화변용 수준	러시아문화로의 동화	민족문화 유지	일본문화로의 동화	미국문화로의 동화와 민족문화 유지	캐나다문화로의 동화와 민족문화 유지
호칭	고려사람	조선족	재일(在日)한인	코리아-아메리칸	캐나다 한인

출처: 윤인진(2004), pp. 13-14.

2. 해외한민족 이해를 위한 이론적 배경

1) 초국주의(Transnationalism)

근래의 이민자 연구 및 민족 집단에 대한 연구 동향은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정보, 문화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이주민 집단과 모국과의 교류 및 네트워크에 비중을 두고 있다. 최근에 이민자들은 국경 및 국적을 초월하는 삶을 살며, 그들의 고국과 강한 유대를 유지하는 경향이다. 이는 그들의 고국이 현재 주재국과 지리적으로 먼 위치에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러한 새로운 생활양식을 설명하기 위해, 일군의 사회 과학자들은 초국가적 혹은 초국적적(transnation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초국적주의(transnationalism)는 이민자들이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경계를 넘나드는 삶을 사는 사회 현상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민자들은 국경을 가로질러 가족, 경제적, 사회적, 조직적, 정치적 관계를 발전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이민자들의 고국과 현재 거주국 사이의 다중적 관계가 초국적주의(transnationalism)의 핵심 요소로 고려되어지며, 이러한 이민자들(immigrants)은 transmigrants라고 불린다. 따라서 과거에는 이민자는 고국을 떠나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여 고국과의 유대를 끊은 사람들로 개념화되었으나, 근래에는 이민자들이 고국을 떠나 새로운 사회

에 정착을 하였어도 지속적으로 고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Glick Schiller, Basch, and Blanc-Szanton, 1992, 1995; Glick Schiller 1999a, 1999b).

근대 민족 국가 건설과정은 통치 엘리트 세력이 지배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에 대한 집단적 기억(collective memories)과 역사적 담론(historical narratives)을 구성하여왔던 정치 과정이었다. 즉, 국가라는 지리적 영토 안에 단일한 국민이 거주하고, 이들은 역사, 문화, 언어를 공유하고, 단일한 정부에 충성한다는 신화를 창조하여왔다(Glick Schiller, Basch and Blanc-Szanton, 1995). 민족국가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고정되어있는 국가 경계를 암시했던 반면, 최근에는 여러 국가들이 자국의 영토 밖에 살고있는 이민자 집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민족 국가의 본질을 재개념화하게 한다(Glick Schiller and Fouron, 1998). 즉, 다양한 이민자 집단이 고국과 여러 가지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주목함으로써, 초국주의는 민족 공동체를 특정한 지리적 영토에 국한시키지 않고, 해외 민족까지 자국민에 포함하여 국경을 초월하는 가상적 공간(transcendental territory)으로 민족 국가(nation-states)의 영역을 확장한다(Glick Schiller, Basch and Blanc-Szanton, 1995).

점차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여행, 유학, 이민, 망명 등) 국경을 넘나들며 따라, 특정 장소나 국가, 문화, 사회를 하나의 결속되어진 단위로 보는 관점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등장한다. 즉, 국가적, 지리적 경계는 더 이상 문화를 정적인 특질들의 총합으로 나타내지 못한다(Gupta and Ferguson, 1992). 이러한 초국가적 상황은 타문화간의 역동적 교류를 증진시킨다. 이 상황에서 이민자들은 고국을 떠났어도, 현재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상징적 혹은 실질적으로 고국과의 관련을 유지하며 살고 있다(Clifford, 1994; Safran, 1991; Tololyan, 1996). 교통 통신의 발달은 이들 이민자들로 하여금 고국에 대한 관심을 유지시킬 수 있게 한다. 더욱이, 외교 및 무역 관계의 에이전시들은 고국과 이들 이민자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Portes and Rumbaut, 1996). 따라서 이민자 집단(Diaspora)은 현재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사회와 그들의 고국에 대해 이중적 관계(doubled relationship) 혹은 이중의 충성심

(doubled loyalty)을 갖게 되는 것이다(Lavie and Swedenburg, 1996: 14). 이민자들은 고국과 그들의 현재 주재국을 연결하는 사회, 경제, 문화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본, 노동, 기술, 미디어의 초국가적 흐름과 함께, 이민자 사회는 국가적 경계 및 ‘남’과 ‘우리’를 구분지어 왔던 뚜렷한 경계에 대해 문제시한다(Sharpe, 1995). 이러한 초국가적 흐름은 특정 문화가 고정된 영역 안에 묶여져 있다는 기존의 개념에 도전한다(Chuh, 1996; Kearney, 1995; Lavie and Swedenburg, 1996). 즉, 정치공동체의 테두리와 문화공동체의 테두리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 새로운 곳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 할 때, 이들의 집단 정체성은 더 이상 영역적으로, 공간적으로 묶여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더 이상 문화적으로도 동질적인 집단이 아님을 주목해야 한다(Appadurai, 1990, 1991).

이러한 초국주의는 이민자들이 모국과 거주국 사이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다중적이고 동시적인 관계들, 예컨대, 정치 경제적, 사회 문화적, 가족적 관계들을 망라하며, 모국과 거주국에 동시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민족 정체성은 다중 정체성의 형태를 띤다(윤인진, 2000a). 소위 세계화 시대의 이주자는 ‘시민권’ 또는 소속감에 대해 유연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수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또한 타향살이를 하기보다는 거주지에서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문화적 기반을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거주국의 사회·문화·정치적 영역에 참여하려 하기도 한다. 오늘날의 이주(이민)자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게 될 나라의 사회·문화 심지어 정치적 상황에 대한 지식을 수집하며 이민을 간 후에도 한국과의 사회·정치적 관계를 끊지 않는다. 이제 이주(이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안정을 위한 이주가 아니라 유연성, 이주, 재배치로 대표되는 적극적인 생존 전략의 실천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한인은 여러 민족-국가의 문화를 이중이나 다중으로 경험하고 수용하게 될 것이며 이미 상당한 수가 장기간의 해외 유학 또는 파견 근무로 이중 문화성을 가지고 있다(박준규, 2007). 이러한 이해의 틀을 가질

때, 재외동포는 한국 국적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국과 여러 가지 형태로 관련을 맺어 나가고 있으며, 한민족의 향방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2) 민족공동체 논의

세계 도처에 퍼져있는 한민족과 남북한을 통합하기 위한 논리로서 민족의 동질성에 대한 주장들이 제기되어왔다. 이들 논의들은 주로 민족의 혈통, 역사, 문화의 ‘공유’ 및 ‘단일성’등 객관화된 특질을 근거로 한민족이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를 이룩해야한다고 주장한다(김일평, 1995; 이정희, 1994; 이광규, 1999). 이러한 시각은 주로 민족 개념의 원초론적, 초역사적 성격에 토대를 두고 있다.

민족 개념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민족의 영속적 성격을 강조하는 ‘원초론’(primordialism)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을 근대화의 부산물로 간주하는 ‘도구론’(instrumentalism)이다(Smith, 1994).

전자는 인종적 공동체의 영속성에 주목하면서 민족주의가 조상, 종족, 종교, 언어, 영토라는 원초적 유대에 기초해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후자는 민족주의는 영원한 실체가 아니며 근대화와 도시화라는 특정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발현한 이데올로기라고 간주하며, 그 역사성을 강조한다. 원초론적 시각은 객관주의적 민족이론으로 이어지며, 그것은 언어, 공통의 문화유산, 종교, 관습 등과 같은 것들을 민족의 기초를 형성하는 객관적 특질로 본다. 민족은 국가에 선행하며 공통의 역사적 가치와 사회적 유대에 기초를 둔 실재라는 것이다. 반면 도구론적 시각은 주관주의적 민족 이론과 연결되며, 이것은 민족 공동체에 기꺼이 자신을 귀속시키고자하는 민족 성원의 주관적 의지가 민족을 만든다고 믿는다. 이 이론에 따르면 민족공동체에 대한 자발적 귀속의지를 불러일으킨 역사적 계기는 프랑스 대혁명이며, 이때 부르주아가 내세웠던 해방이념인 인민주권론이 세속주의 및 국민적 시장권과 결합되면서 봉건사회의 왕조적 충성심에 질적 전화를 가져와 근대적 민족주의를 낳았다는 것이다(임지현, 1999; 윤인진, 2000a).

민족은 초역사적이고 자연적 실체가 아니라 역사적 변화에 열려있는 사회적 실체이다. 사회적 실체로서의 민족에 대한 논의는 ‘민족의 구성양식’을 살피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민족의 구성양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혈통, 영토, 종교, 언어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총합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 관계들 중 일부는 장기 지속적이며, 또 다른 일부는 역사적 변화에 상당히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대체로 영토, 문화, 언어, 종교 등이 전자에 해당된다면, 정치, 경제 등은 후자에 속한다. 민족의 구성양식에서 양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항상적인 것이 아니며, 역사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우리사회에서 민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전자에 치중해왔다. 이것은 식민지와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의 부산물이기도 했다. 민족주의가 일본 제국주의와 분단의 고착화에 맞서는 저항이데올로기로 기능할 때는 나름대로의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민족 구성의 객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민족주의는 남과 북 모두에서 저항 이데올로기로서의 건강성을 상실하고 체제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어 버렸다(임지현, 1999).

한 국가의 국민이나 민족의 정체성이 개인적인 것인가, 집단적인 것인가 혹은 그것이 부여된 것인가, 구성된 것인가에 관한 엇갈린 주장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대체로 그것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분화되고 늘 새롭게 구성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구화 시대, 다양한 문화와 종족들과의 접촉을 경험하는 이민자들은 고정된 정체성의 벽을 넘어서 그 경계선 자체를 가변화시키거나 교착 내지 중첩시킴으로써 정체성에 불박혀 영토화된(territorialized) 사고와 행동을 탈영토화한다. 어떤 면에서 이는 새로운 정체성, 하지만 지속적으로 가변화되며 고정되지 않는 유목적(nomadic)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것은 어떤 고정된 위치에 불박힌 동일성이 아니라 변이를 통해 끊임없이 유동화되는 새로운 장을 형성하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구성되는 것이다. 정체성의 이러한 유동성은 지구화 시대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임채완·전형권, 2006).

따라서 단순히 객관적 특질들의 공유를 강조하며 한민족의 결속을 외치

는 것은 과거 지향적이고 정태적인 민족개념으로 회귀될 수 있으며 체제유지를 위한 보수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해외 각 곳에 퍼져있는 한민족이 처해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 정치 상황, 이민의 역사 등이 동질적이지 않은 만큼, 이들이 지닌 실질적인 민족관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즉, 한국인과 해외 한민족들의 민족의식 및 고국관 등의 개괄적인 모습은 동질적일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 및 표현양식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나 민족의식 등 추상적 이념으로서 한민족을 묶어내기 보다는 한반도 및 해외 각 곳에 퍼져 있는 한민족들이 형성하고 있는 실질적인 네트워크 및 개인 주체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하게 한민족의 혈통적 단일성, 언어, 역사, 문화의 공유를 부르짖는 것은 현실적인 네트워크 형성 방안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단지 정치적 구호 혹은 공허한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로 그칠 수 있다. 이것보다는 해외 각 곳에 퍼져있는 한민족의 각기 다른 이민사와 현재 거주국에서의 특수한 존재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이것이 한반도와외 교류에서 어떤 실질적 이득을 줄 수 있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예컨대 중국과 이스라엘의 민족공동체의 네트워크에서 보여지듯이 경제적 이익 등 실질적 이득을 떠난 맹목적인 민족의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박승록, 2000).

이스라엘의 유대인은 세계적으로 1800여만 명이 퍼져 있는데, 미국에 580만, 이스라엘 본국에 480만, 유럽에 150만, 구소련에 200만명이 분포하고 있으며, 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민성(Ministry of Immigration)과 외무성의 세계 유대인국(World Jewish Affairs Division)을 통해 해외 유대인 정책을 조율하고 있으며, 해외 거주 유대인들의 본국 이주를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친가, 외가, 조부모 중 어느 한쪽이 유대인이고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 이주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급 인력이 이주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전세계 유대인들은 세계 유대인 총회(WJC), 세계 시오니스트(WZO), 유대인협회(JA)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본국 지원 및 유대인의 본국 이주를 지

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본국에 대한 경제 지원이 활발한데 United Israel Appeal, United Jewish Appeal 등 200여개의 모금 조직이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송금을 하고 있다. 미국 내 유대인은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나 사회 각 분야에서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데, 포춘지 선정 100개 기업주의 3분의 1, 상원의원의 10%,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의 60%를 점유하고 있다(박승록, 2000: 75-76).

한편, 세계 136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 화교의 숫자는 약 3000만명에 이른다. 대만의 2100만명을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며, 거대한 경제력으로 동남아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화교들은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보완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 세계의 화교 조직은 약 9500여 개가 되는데, 아시아에 6500개, 미주에 약 2500개가 있다. 현재 대중화경제권은 대만의 제조 기술, 싱가포르의 마케팅 및 서비스, 중국의 노동력, 북미의 전문인력과 기술력이 전 세계 화교자본과 결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대한 경제 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화교들은 ‘국제화교협회’, ‘세계화상대회’ 등 전 세계의 중국계 기업 간 기구와 회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연결하는 인터넷 망을 운영하여 화교들간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 화교들간의 경제권 형성 실태를 보면, 1978년 중국의 개방 이후 정부는 적극적으로 화교 자본을 유치하고 있으며, 1989년 천안문 사건에 따른 서방의 경제 봉쇄를 탈피하기 위해 전세계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또, 화교 투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발표하고, 각 지방정부도 조세감면 등 독자적인 우대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힘입어 1983년에서 1994년 간 약 700억 달러의 화교 자본이 유입되어 전체 외자 유입의 3분의 2를 차지하였다. 지금까지 화교는 중국에 10만개 이상의 합작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기술과 자본을 이전하였다(박승록, 2000).

위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통한 실제적 이득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은 어떻게 모색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혈연이나 혈통, 문화의 동질성 등 객관적 특질들을 강조하다 보

면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될 수 있다. 즉, 혈통과 동질성을 강조하는 시각은 한인과 비한인 사이에서 출생한 혼혈아를 배제하고,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이민자의 자녀 세대들이나,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예컨대 입양아나 이민 후속 세대들을 배제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또한 객관적인 조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주관적으로 한인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설명하지 못한다(윤인진, 2000a).

따라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재외동포를 한민족 공동체에 귀속시키고 이들이 한반도의 남북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및 남북한 주민의 민족적 동질성이나 혈통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성 속에서 조화와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기존의 혈통과 동질성을 강조하는 민족 개념은 민족 문화와의 유대가 강한 1세나 2세대에게는 적합하지 모르나, 모국과의 유대가 약하고 거주국의 사회 문화에 동화된 이민 3세, 4세에는 적합하지 않다(윤인진, 2000a, 2000b).

3. 재외한인 차세대 및 청소년 연구

재외한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성세대에 치중되어 있고, 재외동포정책도 기성세대의 현지 거주국 정착에 초점을 맞추거나 한국에서의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한민족 인적자원 활용 관련 연구들로는 윤인진(2005a)의 재외동포 현황과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김남희 외(2005)의 국외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연구, 윤인진(2005b)의 장래 우리나라 인력난 문제해결 및 재외동포 인력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반면에 해외한민족 차세대나 청소년 세대의 인적자원활용방안에 대한 체계적 논의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단지 일부 연구에서 차세대 활용에 대한 방법들은 간단히 소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예컨대, 윤인진(2005a)은 해외동포 차세대 인적자원개발 방안으로 모국방문과 한국어 문화체험 프로

그램 개선, 차세대 인적자원데이터베이스화 및 모국과의 네트워크 형성, 폐쇄적인 국적제도 개선, 인터넷 한민족공동체로서의 코리아 넷 개선 등을 지적하고 있다.

대규모의 설문조사를 통해 차세대 현황 및 생활, 의식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는 찾기 힘들다. 설문조사 및 센서스 자료를 사용한 재외한인 차세대에 대한 연구로는 윤인진 외(2005)의 미주지역의 재미한인 차세대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2000년 미국 센서스 자료를 사용하여 재미한인 차세대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특성을 파악하고, 미국 주류사회의 다방면 분야의 진출현황과 실태를 진단하였으며, 표본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차세대의 교우관계,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태도, 부모 자녀 관계, 종교, 언어상황, 민족정체성, 모국과의 연대성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재미한인 차세대가 미국에서 역량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이들의 민족정체성을 고양하고, 모국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는 산발적으로 재외한인 자녀 세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또한 해외 한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연구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반해, 그들 자녀 세대들이 모국 방문을 통해 얻은 경험이나, 모국 방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모국 체류 기간에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는 흔치 않다. 이정훈과 윤인진(1998)은 재일동포 모국수학생을 대상으로 모국 수학의 목적 및 동기, 재일동포 사회와 본국과의 연계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국 수학의 상황과 문제점을 고찰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여러 대학교에서 장, 단기 연수 및 어학 연수를 받는 학생 96명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토대로 그들의 모국 수학의 목적 및 이유 등을 살펴보고, 모국 수학 상의 문제점 및 모국 수학 프로그램의 개선점 등을 제시하려 한다.

한준상(1995)은 재외교포 자녀들의 단기연수활동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교포 모국 수학 현황, 교육내용, 교포자녀들이 모국 수학에서 겪는 어려움 및 그 해결 방안에 대

해서 논의한다. 하지만 논의의 수준에 있어서 개괄적인 프로그램의 소개에 그치고 있으며 재외교포의 모국 방문 교육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교육 수혜자들을 통한 심층적이거나 포괄적인 의견을 섭렵하지 못한 수준에서 일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난 2000년대 이후 대비하기에 미흡한 점이 보인다. 즉, 보다 근본적인 취지에서 모국수학생들의 어려움과 요구 사항, 민족과 고국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해외동포 모국수학생이라 할 지라도 그들이 성장해온 국가 및 세대에 따라 고국 및 민족, 모국 수학의 목적 및 기대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모국수학생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연구로는 이창기와 김중(1994)의 연구가 있으며 이들은 서울대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해외동포 학생 88명을 대상으로 민족정체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민족 정체감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문항을 선택하여 민족정체감의 척도를 측정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질문 항목이 어떤 근거에서 채택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지지 않았다. 또한 지역별, 전공 계열별, 성별, 거주기간별, 이주 시기별로 모국수학생들의 민족 정체감을 측정하고 있는데, 지표별로 비교하려는 시도는 좋아 보이나 양화의 근거가 빈약해 보이며, 특히 양화되었을 때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개별 참여자들의 다양한 경험 및 동일한 언표, 즉 민족 정체감이라고 하는 언표 이면에 내재한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의미의 차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다.

최우길(1999)은 조선족의 정체성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부분적이거나 조선족 모국수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체성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 조사에서 조선족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자신들이 한국인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며 한국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닌 ‘중국의 조선족’으로 혹은 이중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중국은 조국이며 한반도(한국 또는 북한)는 고국이다’라는 명제에 35명의 응답자 중 31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교포 자녀세대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민족 정체성 교육 및 한국어와 문화 보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어왔다. 그 중에서도 장기간이든 단기간이든 한국을 방문하여 모국을 경험함으로써 해외교포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변화를 겪는다고 강조하며 해외동포 학생들의 모국 방문 경험의 중요성이 지적되어졌다(이광규, 1995).

4.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 논의

국토가 협소하고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요 열강 국가에 퍼져 있는 해외 한민족을 인적 자원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해외한민족을 실질적으로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다방면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서 세계화 또는 전지구화의 확대로 인해 국민국가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족성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공동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 큰 규모의 재외동포를 갖고 있는 중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그리스, 인도와 같은 나라들은 자국의 경제발전과 세계화 전략에 재외동포를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법무부, 2005). 거주국 동포단체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네트워크화로 이를 결집할 경우, 이는 한국과 동포사회, 그리고 거주국 3자간의 장기적인 동반자적 발전관계를 구축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 조선족과 재일동포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치유와 동시에 미래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아공동체를 논의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서 이러한 중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지적하고 있다. 거주국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모국에 대한 애정을 통해 각 국간 인적교류와 상호 이

해 증진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조재희, 2005).

‘한민족 네트워크’라는 말은 1996년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가 주최한 ‘제 1회 코리안 네트워크 출범 대회’에서 공식 제기된 바 있는데, 당시는 이 개념이 주로 ‘코리아 공영권’ 혹은 ‘범코리아 경제권’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는 ‘네트워크’의 중요한 측면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커뮤니케이션과 관계망의 확보라는 요소가 고려되지 않았다. ‘한민족 네트워크’라는 개념은 전 지구적 수준에서 한민족의 혈연적 동질성과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기반으로 커뮤니티와 인터넷 등을 통해 구성원 상호 간의 협력과 소통을 지향하는 일련의 관계망이자 가상 공동체로 그 외연이 확장될 수 있다(임채완·전형권, 2006).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이들 해외 한민족의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다. 특히, 해외 각 국으로의 이주가 시작되어 한 세기가 지난 현 시점에서 다양한 거주국에서 삶을 꾸려나가면서 초래된 재외동포들의 문화적 이질성과 다양성 및 한민족으로서의 보편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해외한민족을 네트워크 하고자 할 때 단순히 혈연이나 조상, 역사의 공유나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이미 이질화되기 시작한 이민자의 자녀 세대들을 포괄하지 못하게 된다. 자녀 세대들은 이민 사회의 주변인 위치에 머물렀던 부모 세대와 달리 거주국의 주류 사회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고 그 사회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이민 후속세대들이야말로 국가 간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윤인진 외(2005)의 재미동포 차세대 연구에 따르면 재미한인 1.5세와 2세들의 경우 이민1세대에 비해 비교적 전문직, 관리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자영업보다는 사기업의 고용인 또는 공공직의 공무원으로 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인사업체의 고용인이나 민족경제에 참여하기보다는 주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다. 이들은 아직 연령이 어리며, 1세대에 비해 영어능력이 높고 미국식 교육을 받았으며 미국사회 문화에의 적응 정도를 감안하면 미국 주류 사회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이민후속세대를 한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들이 고국과 연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한민족청소년들의 모국 방문 프로그램 및 교류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단순히 해외한민족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나 단순지식 위주의 국사 혹은 단편적인 유적지 관광을 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들의 모국방문을 계기로 모국과 장기적인 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해외한민족 모국 수학생과 국내 학생들과의 교류, 친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같은 전공이나 관심 분야를 가진 사람들과의 장기적인 모임을 활성화하여 한국을 떠나서는 온라인 상으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장기적인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한민족이라는 정서적 유대 및 막연한 전통문화를 공유한 집단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반도 밖의 여러 나라에 거주하는 한인교포를 한국문화공동체의 일원으로 느끼게 하는 의도적인 전략으로 제안되는 몇 가지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국제적인 조직을 형성하는 것,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들고 있다. 이 중에서 문화적 유대를 구축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인터넷 망을 구축하는 것을 들고 있다. 한민족홈페이지를 통해 누가 어디에서 요구하던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들의 조직과 단체 등이 총망라되고 이들의 구성과 활동사항을 언제나 알 수 있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계 각지에 흩어진 한민족을 하나의 연결망 속에 있게 하고 항상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이광규, 1999, 82-111).

이와 함께 국가의 해외이민자에 대한 정책이 보다 포용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자본주의의 지구화와 함께 교통 통신 등의 급속한 발달로 국가 간의 교류 및 인구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경의 개념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각 국가의 지리적 영토 개념이 희석화되는 지구화의 경향은 한반도 내부의 정세 변화와 해외동포 사회의

관계가 보다 밀접해질 것임을 암시한다. 특히, 해외 한민족은 한반도 통일에 다양한 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남북한 사회 통합과 함께 세계 도처에 퍼져 있는 한민족이 네트워크를 이룰 때 진정한 한민족 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확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재외동포의 본국에의 귀속 여부나, 현재의 국적 자체를 문제시하여 내국인이야 외국인이나를 따지며 배타시하기보다는 이들이 모국과 다중적으로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질적 네트워크와 역할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민족의식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고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추상적인 이념으로서 해외동포가 한민족으로서의 정통성을 간직했는지, 혹은 한민족으로의 정체성 정도를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에 대해 문제시하기보다는 이들이 해외 각 곳에 거주하면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다양한 적응력과 저력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국 및 그들의 거주국 모두에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가야 하겠다.

5. 타민족의 민족 네트워크 활용 사례²⁾

1) 중국: 화교 네트워크와 화교 교육

(1) 화교 네트워크의 역할

중국의 화교(華僑)³⁾는 민족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거주지에서의 정착과 동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민족 집단이다. 화교 자본은 중국의 성공적인 개혁·개방에 중심 역할을 하였다. 화교의 본국에 대한 기여는 경제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세계 각지에 퍼져있는 화교들의 세계적인 네트워킹의 위력에 기인한다. 이들은 송금, 직접 투자, 기존 화교 상권을 통

2) 이 부분은 임채완, 전형권(2006)의 「재외한인과 글로벌네트워크」의 제3부 타민족의 경험 부분을 요약정리한 것임

3) 화교(華僑), 화인(華人), 화예(華裔), 화상(華商)에 대한 구분은 위 책을 참조할 것

한 무역 확대, 중국 공무원 무료 연수 등을 통한 국제화 기회 제공 및 차세대 인사와의 연계망 형성 등을 통하여 본국에 대한 다면적 기여를 계속 해오고 있다. 국경을 넘어 존재하는 화교 네트워크는 새로운 사업의 추진이나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획득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네트워크를 이용한 강력한 기업망을 형성하고 있는 해외 거주 중국인들은 종친 조직인 동성회(同姓會), 동향 관계에 기초한 동향회(同鄉會), 이와 별도로 기업인들로 구성된 업종별 조합과 지역별 상공회의소 형태의 총상회 등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들을 총괄하는 세계중화총상회가 가장 조직이 방대하고 영향력이 강한 경제적인 구심체이다.

1980년대부터 형성한 글로벌 화상 네트워크는 학연, 지연 및 종합적 전문기술적 네트워크로의 변화라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는 세계화 정보화와 함께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시아 화상 자본과 북미의 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시도도 제기되고 있다. 1991년 리관유 수상의 제안에 따라 결성된 “세계화상대회” 창설이 대표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상대회는 날로 심화되어가는 초국가적 환경에서 세계경제와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하는 적극적인 활로 개척의 성격을 지닌다.

정보화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 상의 화교 네트워크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싱가포르총상회의 주도하에 1995년 12월 8일 개통한 세계화상네트워크(www.wcbs.com)이다. 이는 세계 각 지역 화인 기업들의 상업 교류를 위한 온라인 상의 네트워크로서 2005년 현재 120여 개국의 화상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정도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 회원들은 검색을 통해 필요한 상업 정보, 세계화상기업과 상업단체 자료도 받아볼 수 있으며, 잠재적인 상업 동반자, 상업적 기회 및 무역활동 자료, 제품과 서비스별로 분류된 제품소개까지 빠르고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등록된 화상기업의 자료는 이미 12만 9000여 건에 달하며, 아세안, 북미, 남미, 유럽, 호주 등 세계 각지의 화상 기업 및 상업 단체 자료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WCBN은 현재 지속적인 업데이트

로 사용자가 이 사이트를 통해 쉽게 비즈니스 파트너와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더욱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 세계 각지의 화상들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는 유력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연(緣)을 고리로 엮어진 화교 조직이 세계적 수준의 네트워크로 발전하기 까지 근본적으로 전통문화의 힘이 컸음을 부정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법에 의한 관계(法治)보다는 덕(德)에 의한 인간간의 상호신뢰를 더 중히 여겼던 중국사회는 도덕적 의무감을 중히 여기고 또한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화교 네트워크가 효용성을 갖고 더욱 열린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연을 바탕으로 한 공통된 종족 정체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세계 각 국의 화교 기업 15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들은 자국내 사업의 50% 이상과 국제 사업의 39%를 화교 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교 네트워크의 역할은 비단 경제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민 초기 이민자들의 유입과 정착을 돕는 데도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차이나타운’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디아스포라 공간은 그 자체가 하나의 네트워크이자 생활공간이다.

(2) 중국의 화교교육⁴⁾

중국의 해외 교포들을 위한 정책은 ‘현지화’와 ‘중화의식의 계승’이라는 두 가지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은 화교들이 해외 거주국에서 하루 빨리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인 고유의 중화 의식을 발양시켜 중국계 상호간의 민족적 유대를 공고히 함으로써, 그들의 개인적인 안녕은 물론 거주국과 모국간의 관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해외 교포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가 해외에 중국계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다.

대만 정부는 해외 화교 학교에 대한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시설 및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해외 중국계 청소년의

4) 이 부분은 진동섭(2003)의 「재외동포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중국어 공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중국어 교재와 민속 문화 교재를 편찬하고 있으며, 이들 교육내용을 서적뿐만이 아니라, 녹음 테이프, CD롬, 신문 등으로 제작하여 해외 화교 학교에 보급하고 있다. 중국 문화와 조국 발전에 대한 화교 청년들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해외 화교 청년 귀국 방문단을 9기, 총 참가자 수가 11,000여 명, 재외 동포 청년 여름방학 귀국견학단을 1기, 총 인원수가 1,100여 명, 재외 동포 청년 어문학습반을 6기, 총 참가자 수가 1,000여 명을 편성해 운영함으로써 해외 동포 청소년들에게 중국어를 학습하고 중화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방송, 통신 등의 수단을 이용한 해외 동포 교육도 펼치고 있다. 시대의 발전과 학습자의 수요에 맞게 신문과 잡지를 발행하여 해외 학교에 제공함으로써 해외 동포 학생들이 모국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최근에 교무위원회는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글로벌 중국어 웹 기반 교육 센터’ 사이트를 구축하여 동포들에게 신속하고 다차원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동포 교육의 노력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화교 학생 교육을 실시한 이래 14만 여 명의 화교 학생들이 귀국해 진학하였으며, 대만과 세계 각 지역 간의 각종 교류에 교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화교 학교의 졸업생들이 거주 지역에서 정계나 금융업 등 전문직에 종사함으로써 세계 속에 중국인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 이스라엘: 유대인 네트워크의 역할

현재 유대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에는 530만 명의 유대인이 있으며, 이는 세계 전체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67.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는 유대인 생활의 양대 축으로서, 본토 이스라엘이 전통을 보존하는 일을 맡는다면 미국은 본토 밖에서 전 세계 유대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떠맡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대인의 강한 결속력은 미국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데 공헌하고 있다.

미국 내 대표적인 유대인 기구인 이스라엘을 위한 유대인 기구(JAFI) 및 미국유대인협회(AJC) 등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네트워크는 해외 유대인의 모국 귀환 및 이스라엘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 내 최대 유대인 단체 중 하나인 미국 유대인 협회(AJC)는 미국 정계에 수많은 인맥을 두고 있으며 UN총회에 참여하여 의사 발언을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이들은 정치력 신장을 통한 유대인의 권익 보호와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내 유대인 기구는 미국 내의 정계와 재계 및 학계, 언론계 등에서 활약하며 강력한 ‘미국의 힘’을 구축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이러한 유대인의 활약에 구심점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 네트워크이다. 유대인들의 강한 응집력은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강력한 미국의 힘 뒤에 유대인들이 포진함으로써, 미국과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의 권익과 지위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유대인 네트워크는 중국에는 모국 이스라엘의 발전에 강한 촉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그 어떤 민족보다도 강하고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는 미국의 유대인 네트워크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100여개의 정치 활동 단체가 구성되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대인 조직인 세계유대인 총회(World Jewish Congress: WJC)를 비롯해 미국유대인협회(American Jewish Committee: AJC), 세계시온니스트기구(World Zionist Organization: WZO), 이스라엘을 위한 유대인 기구(Jewish Agency for Israel: JAFI)와 같은 네트워크가 유대인의 본국 이주 및 본국의 국익을 지원하고 있다. 유대인 네트워크가 행사하는 영향력은 정치와 경제의 영역을 초월하여 사회의 각 분야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세계 각국의 유대인들은 각 지역별로 독특한 유대 민족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유대인 인터넷 공동체(Jewish Internert Community)’를 구축하고 있다. 재정적 지원의 측면에서 볼 때, 재미 유대인의 노력으로 미국은 1974년 이후 이스라엘에 약

500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한 바 있다. 또한 각종 기금 모금 운동을 통해 해외에 분산된 유대인들의 모국 귀환을 돕는데 매년 수억 달러가 모금되어 해외 교민들의 이스라엘 이주와 정착, 그리고 재활을 돕는데 쓰이고 있다. 미국에는 해외 유대인들을 위해 기금을 모으는 189개의 연방 기구와 450여 개 이상의 유대인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전국적 단위의 기구인 연합유대인 호소(United Jewish Appeal: UJA)가 이스라엘을 위한 유대인 기수(JAFI)를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있다. 그 결과 JAFI는 이스라엘 건국 이후 250만 명의 새로운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유입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36년에 설립된 세계유대인총회(WJC)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 기구의 이익을 도모하고 요구를 충족시키는 임무를 띠고 있다. 또한 통일과 유대인의 생존을 도모하며 동시에 정신적, 문화적 및 사회적 유산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1906년에 설립된 미국유대인협회(AJC)는 국방 기구로는 가장 오래된 기관으로 미국 유대인 연감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그룹 간 관계, 반유대주의 및 유대계 정체성에 대한 가치 있는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는 연구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시오니스트기구(WZO)와 이스라엘을 위한 유대인 기구(JAFI)는 이스라엘 국가 설립 이전부터 유대인의 귀환과 정착, 국가 설립을 책임졌고, 이 두 집행부의 회장이 이스라엘의 초기 수상이 되기도 하였다. JAFI가 진행하는 ‘partnership’은 매년 2만 명의 전 세계 유대인 청소년과 외국인들이 유대인 역사, 전통 교육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도와주는 행사이다. 민간단체인 유대인협회(Jewish Agency)는 해외 유대인의 국내 이주와 정착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의 전통 보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통해 해외 거주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대인 협회는 주된 업무인 해외 거주 유대인의 귀환을 돕기 위하여 귀환센터(Israel Aliyah Center)를 산하 조직에 두고 있다. 이 센터는 이스라엘로 이주를 원하는 해외 거주 유대인에게 이주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 역할을 담당하며, 이들이 이스라엘에 이주할 때까지 이들을 관리하고 또한 이주에 필요

한 각종 절차를 대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대인 협회는 자신의 활동 지역에서 유대인의 숫자를 파악하고 유대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해외 거주 유대청소년에게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약 6주간의 히브리어 교육을 받게 하는 활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대인협회는 이주민의 수를 늘리고, 세계 각 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우리 의식’ 함양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3) 인도: 인교 네트워크의 역할

인도인의 디아스포라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국제적으로 이주한 ‘노동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대부분의 인교는 식민 시대의 노예를 거쳐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력 제공 기술자로 이주를 하다가 최근에는 고급 IT 인력으로 이주하고 있다. 노동력의 수출이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인도인의 해외 거주는, 초국가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모국과 거주국 간의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세계 각지에 골고루 퍼져 있는 인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인교 네트워크는 조직력과 현지 적응 능력이 뛰어나 세계 각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인도 외무성의 자료에 따르면 오늘날 인도 디아스포라의 크기는 약 2,6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미국에는 현재 회원 1000명 이상을 보유한 인도인 단체들만도 수백여 개가 있으며, 미국인도재단(American India Foundation)을 비롯해 인미기업가회(India-America Entrepreneur), 인미상공회의소, 인도인전문가네트워크(Network of Indian Professionals)등 분야별, 지역별, 종교별로 단체를 조직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인교에 비해 가장 교류가 활발하다. 미국의 경영, 금융 등의 부문에서 인도계의 전문가 풀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인도 본국과의 호혜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해외 인교 네트워크는 현지 사원 건축과 성지순례를 위한 고국 방문 등 종교적 연계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인도인으로서 사회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언어 및 문화를 통한 연계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국제적인 거래의 측면에서 볼 때 인도인 네트워크는 현지의 법률과 규제 사항, 그 나라 정부와 업계의 관행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거래에서의 교역 장벽을 완화해 준다. 이들은 거대 다국적 기업의 아웃소싱 제품에 대한 인도의 지분을 늘리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인교 네트워크는 각 나라의 도매와 소매 시장에 침투하여 광범위한 거래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있다.

최근 성공한 인교들은 특히 실리콘벨리의 고급 인력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돌려주는 시간(pay-back time)”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모국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미국에서 성공한 인도인들은 자본, 시간, 전문 기능을 고국에 기부하거나 인도에서 교육 시설을 확충하는데 관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인도공과대학(IIT) 동문들이 주도하는 모교에 대한 투자는 인력 양성과 그 인력들의 미국 이주 및 성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짐으로써 미국, 인도 그리고 세계 경제의 흐름에 주요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을 토대로 하여 미국의 경영, 금융 등의 부문에서 인도계의 전문가 풀이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인도에 하청기업을 만들어 인도의 고용 창출과 자본 축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결국 재외 인도인들과 본국과의 긴밀한 관계는 본국으로의 막대한 송금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사회적, 종교적 조직들은 재외 인도인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뿐 아니라 경제적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인교들의 경제력과 네트워크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수반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민주주의가 발전한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두드러진다. 미국 내 정치적 단체는 인도미국인협회를 비롯하여 각 출신 지역과 관련한 여러 단체들이 있다. 이 단체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며 세계적으로 인도인들의 정치적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재외 인도인 단체의 조직 현황을 보면, 1999년 현재 재외 인도인 단체는 338개로서 아시아와 유럽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지역별

단체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 수준에서 활발히 결합하고 있으며, 상호 전자상거래, 모국에 대한 송금, 투자 등의 경제활동과 인도인들의 인권 옹호, 법률적 지원, 정치적 후원 등 각 분야에서 긴밀히 관계를 맺고 있다. 세계인도혈통인기구(Global Organization of People of Indian Origins: GOPIO)는 해외 거주 인도 혈통인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로서 1989년 뉴욕에서 1회 대회를 가진바 있다. GOPIO는 해외 거주 인도인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창립되었지만, 현재는 거주국과 인도 및 인도인의 이익을 위해 재정적, 전문적인 풀을 풍부히 형성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체는 적극적으로 내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이를 통해 인도와 유럽연합의 관계를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모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인도인 디아스포라의 최대 회합으로 ‘세계 재외 인도인의 날’이 있었는데 최근 2004년도에는 뉴델리에서 열렸다. 이 모임은 세계 속의 인도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관심과 열망 등을 이슈로 다룬다. 또한 인도인 과학·공학 분야 전문가 풀로 인도혈통과학기술자협회(Scientists & Technologists of Indian Origin based abroad: STIOs)가 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전문 과학 공학도들은 STIOs를 중심으로 산업체, 연구소, 대학, 과학 관련 부처에서의 구직은 물론 과학 기술의 강세를 보이는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벤처 자본가로서도 활약하고 있다. STIOs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과학·공학 인적자원의 연구능력 개발과 인도 출신 고급 인력의 국제 단위 과학 연구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도가 연구인력 개발의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Ⅲ. 국내체류 해외 한민족청소년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내용
3. 실태조사 비교 분석
4. 요약 및 소결

Ⅲ. 국내체류 해외 한민족청소년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해외 한민족청소년 중에 한국에 입국하여 장(단)기 체류 하면서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에 대하여 배우며 체험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생활과 한국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을 주 설문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모국을 방문하여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국외에만 체류하고 있는 청소년들보다 모국과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며, 향후 모국과의 네트워크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모국과 본국 사이에서 정책적 다리를 놓는데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각 기관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설문 조사 시 고려해야 할 점과 설문 내용의 구성에 대한 의견을 상호교환 하여 설문조사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설문 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각 나라별로 민감한 설문 내용이라든가, 조사 방법상의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설문 조사는 경희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국제교육진흥원,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에 등록하고 있는 해외한인 동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각 기관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인원 에 대한 <표Ⅲ-1>에 제시되어 있다.

<표Ⅲ-1> 국내체류 해외 한민족 연수생

(단위: 명)

	국제교육 진흥원	고려대 한국어 교육센터	서울대 한국어 교육센터	연세대 한국 어학당	이화여대 언어 교육원	외국어대 한국문화 교육원	기타	합계
북미	4	43	13	193				253
CIS	15	12	3			1	8	39
일본	65	15	2	4	4	1		91
중국	27	5	25	1		1		59
기타*	17	2	9	8		1		37
	128	77	52	206	4	4	8	479

*네덜란드, 독일, 홍콩, 영국, 호주, 프랑스, 과테말라, 태국,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브라질, 모로코, 그리스,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2. 조사 내용

설문조사에 포함된 내용은 기본 인적사항, 부모와 가정 형편에 대한 내용(부모와 가정형편), 가정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부모님의 한국에 대한 가치관과 한국인으로서의 자녀에 대한 기대(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한국에 대한 관심),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한민족 정체성 관련),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에 대한 내용(네트워크 구축 관련) 등 총 59문항이다 (<표Ⅲ-2> 참조). 국내 체류자에게 사용한 설문지는 현지 체류 해외 한민족 청소년들을 위한 설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몇몇 문항은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적합하지만, 모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부적절한 문항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문항 진술을 수정하였다(예: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귀하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현지 체류 해외 동포 학생들을 위한 설문지의 마지막 부분인 해외 청소년정책 관련 문항은 4개 국어로 번역되어 설문 조사가 실시된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항의 수가 일치하지 않음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국내 체류 해외 동포 학생을 위한 설문지에서는 삭제되었다. 이렇게 수정·삭제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해외 체류자와의 비교를 위하여 수정 없이 사용하였다. 해외동포 학생들이 한국어에 미숙할 것을 고려하여, 설문 조사 대상자의 각 나라 언어로 설문지를 번역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II-2〉 설문지 내용과 문항 수

설문지 내용 점유율	문항수
기본 인적 사항	7
부모와 가정 형편	7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 생활	7
한국에 대한 관심	15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6
한민족 정체성 관련	7
네트워크 구축 관련	10
합계	59

3. 실태 조사 비교 분석

1) 분석 방법

(1) 기술통계치

각 문항에 대한 반응 결과를 토대로 국내 체류 해외 동포 학생들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다. 기술통계치는 소속 국가 별로 분류하여 산출하였다. 문항의 응답 형태가 유목변인인 경우는 빈도 자료를 산출하였고, 응답형태가 연속변인인 경우에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2) 국가 간 비교

각 문항마다 구해진 기술통계치를 바탕으로 국가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문항의 응답형태가 유목변인인 경우에는 χ^2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각 셀 당 사례수가 5보다 작은 경우는 χ^2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빈도 자료만을 제시하였고, 빈도자료를 바탕으로 한 그래프를 함께 제시하였다. 응답형태가 연속변인인 경우에는 F-test를 실시하였고, F-test결과가 유의미한 경우에는 Scheffe의 사후검증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국가 간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2) 분석 결과

(1) 기본 인적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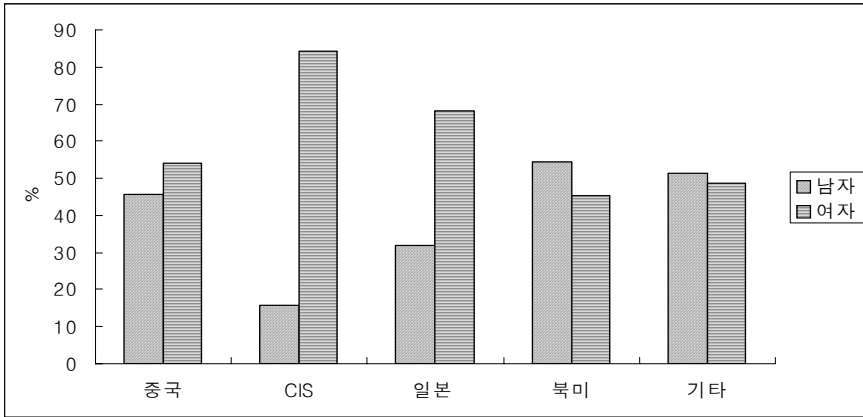
① 성별

본 연구에 참여한 국내 수학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성별 구성은 중국과 북미 지역은 남자와 여자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CIS 지역은 여자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지역은 여자가 남자의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chi^2=29.16, p<.001$).

<표 III-3> 나라별 성별 인원

(단위: 사례수(%))

나라	남자	여자	합계
중국	27(45.8)	32(54.2)	59(100)
CIS	6(15.8)	32(84.2)	38(100)
일본	29(31.9)	62(68.1)	91(100)
북미	138(54.5)	115(45.5)	253(100)
기타	19(51.4)	18(48.6)	37(100)
합계	219(45.8)	259(54.2)	478(100)



[그림 III-1] 국가 간 남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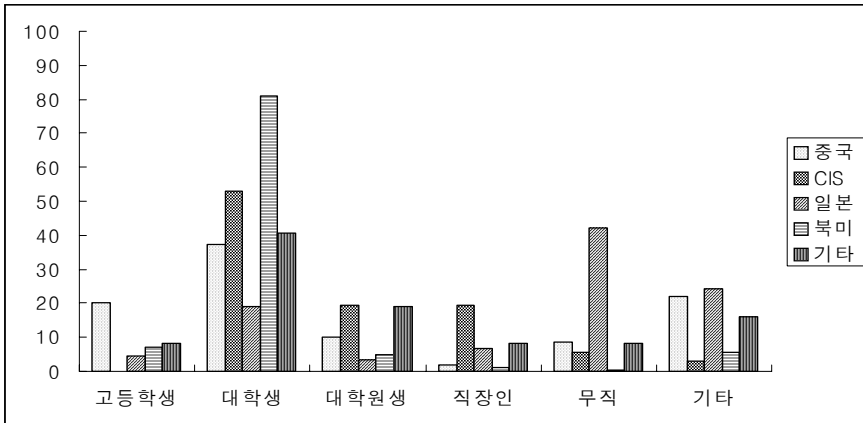
② 현재 신분

국내에 입국하여 수학하고 있는 청소년의 반 이상이 대학생(58.4%)으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표III-4>, [그림III-2]참조).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대학생이 가장 많았다. 일본에서 방문한 청소년 중에는 무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타에 응답한 비율이 많았다. 기타의 경우는 자영업이나 대학원 취학 준비생, 어학연수생이라는 응답이 있었고, 자신이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유학생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표 III-4> 현재 신분

(단위: 사례수(%))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직장인	무직	기타	합계
중국	12(20.3)	22(37.3)	6(10.2)	1(1.7)	5(8.5)	13(22.0)	59(100)
CIS	0(0)	19(52.8)	7(19.4)	7(19.4)	2(5.6)	1(2.8)	36(100)
일본	4(4.4)	17(18.9)	3(3.3)	6(6.7)	38(42.2)	22(24.4)	90(100)
북미	18(7.1)	204(81.0)	12(4.8)	3(1.2)	1(0.4)	14(5.6)	252(100)
기타	3(8.1)	15(40.5)	7(18.9)	3(8.1)	3(8.1)	6(16.2)	37(100)
합계	37(7.8)	277(58.4)	35(7.4)	20(4.2)	49(10.3)	56(11.8)	474(100)



[그림 III-2] 현재 신분

③ 장래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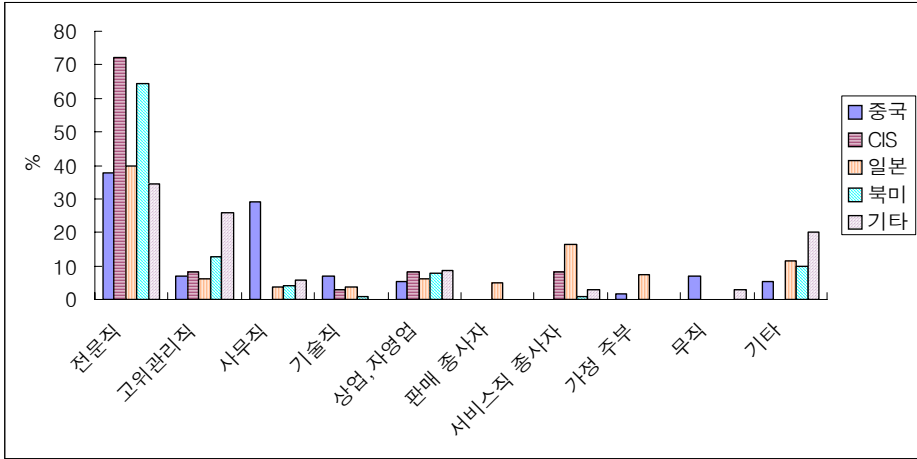
대부분의 국내체류 해외한민족청소년은 사무직이나 고위전문직, 전문직 등을 장래 직업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III-5>, [그림III-3]참조). 각 나라별로 사무직 이상의 장래 직업 희망을 살펴보면, 중국지역청소년의 경우는 74.1%, CIS지역 청소년이 80.4%, 북미 지역 청소년이 81%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지역 청소년의 경우는 장래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전문직(40.0%)을 제외하고 다른 직업영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고위관리직과 사무직을 포함시켜 살펴보면 50%의 청소년들이 사무직

이상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외 동포 청소년이 앞으로 국가경쟁력 고취를 위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훌륭한 재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돌아가 자신이 속한 각 지역의 요직에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재외 동포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장·단기로 체류하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하여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윤인진 외(2005)의 재미동포 차세대 연구에 따르면 재미한인 1.5세와 2세들의 경우 이민1세대에 비해 비교적 전문직, 관리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자영업보다는 사기업의 고용인 또는 공공직의 공무원으로 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인사업체의 고용인이나 민족경제에 참여하기보다는 주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다. 이들은 아직 연령이 어리며, 1세대에 비해 영어능력이 높고 미국식 교육을 받았으며 미국사회문화에의 적응 정도를 감안하면 미국 주류 사회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중요하게 고려할 만하다.

〈표 III-5〉 나라별 장래 희망 직업

(단위: 사례수(%))

나라	전문직	고위 관리직	사무직	기술직	상업 자영업	판매 종사자	서비스직 종사자	가정 주부	무직	기타	합계
중국	22 (37.9)	4 (6.9)	17 (29.3)	4 (6.9)	3 (5.2)	0 (0.0)	0 (0.0)	1 (1.7)	4 (6.9)	3 (5.2)	58 (100)
CIS	26 (72.2)	3 (8.3)	0 (0.0)	1 (2.8)	3 (8.3)	0 (0.0)	3 (8.3)	0 (0.0)	0 (0.0)	0 (0.0)	36 (100)
일본	32 (40.0)	5 (6.3)	3 (3.8)	3 (3.8)	5 (6.3)	4 (5.0)	13 (16.3)	6 (7.5)	0 (0.0)	9 (11.3)	80 (100)
북미	159 (64.4)	31 (12.6)	10 (4.0)	2 (0.8)	19 (7.7)	0 (0.0)	2 (0.8)	0 (0.0)	0 (0.0)	24 (9.7)	247 (100)
기타	12 (34.3)	9 (25.7)	2 (5.7)	0 (0.0)	3 (8.6)	0 (0.0)	1 (2.9)	0 (0.0)	1 (2.9)	7 (20.0)	35 (100)
합계	251 (55.0)	52 (11.4)	32 (7.0)	10 (2.2)	33 (7.2)	4 (0.9)	19 (4.2)	7 (1.5)	5 (1.1)	43 (9.4)	456 (100)



[그림 Ⅲ-3] 나라별 장래 희망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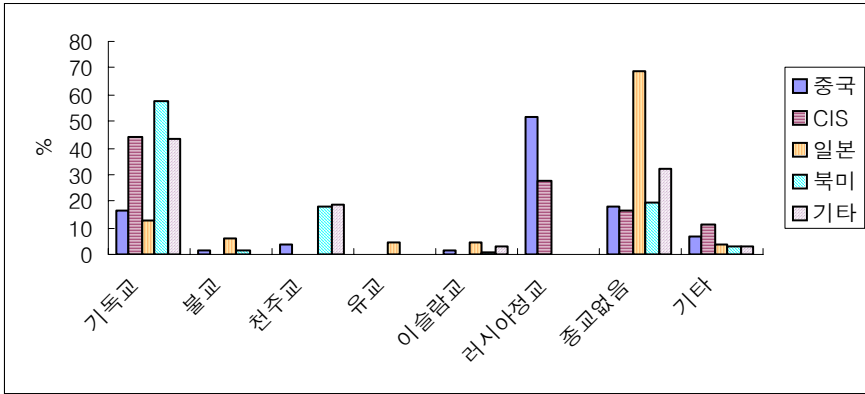
④ 종교

국내 체류 재외 한인 청소년의 종교 분포는 각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중국과 CIS 지역은 기독교와 러시아 정교가 많았고, 일본은 특정 종교가 없는 청소년들이 많았으며, 북미 지역은 기독교와 천주교가 많았다(<표Ⅲ-6>, [그림Ⅲ-4]참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종교 없음”이 29.3%로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이들 역시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정체감형성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Ⅲ-6> 종교

(단위:사례수(%))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이슬람교	러시아 정교	종교없음	기타	합계
중국	9(16.1)	1(1.8)	2(3.6)	0(0)	1(1.8)	29(51.8)	10(17.9)	4(7.1)	56(100)
CIS	16(44.4)	0(0)	0(0)	0(0)	0(0)	10(27.8)	6(16.7)	4(11.1)	36(100)
일본	11(12.6)	5(5.7)	0(0)	4(4.6)	4(4.6)	0(0)	60(69.0)	3(3.4)	87(100)
북미	145(57.8)	3(1.2)	45(17.9)	0(0)	1(4)	0(0)	49(19.5)	8(3.2)	251(100)
기타	16(43.2)	0(0)	7(18.9)	0(0)	1(2.7)	0(0)	12(32.4)	1(2.7)	37(100)
합계	197(42.2)	9(1.9)	54(11.6)	4(9)	7(1.5)	39(8.4)	137(29.3)	20(4.3)	467(100)



[그림 III-4]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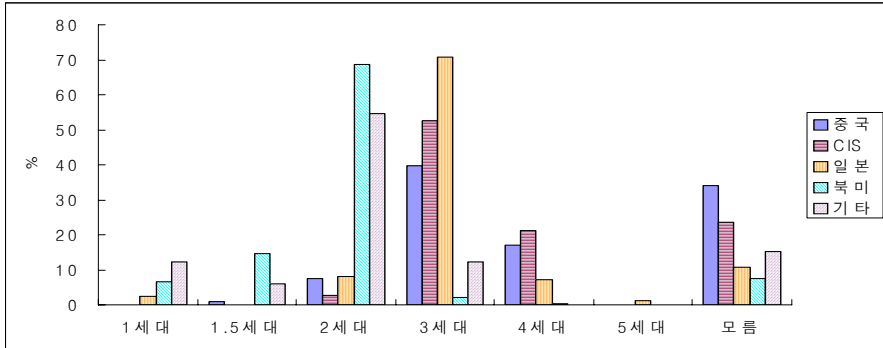
⑤ 이민 세대 현황

각 지역별로 이민세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중국과 CIS, 일본 지역은 이민 3세대인 재외 동포 청소년이 많았지만, 북미는 이민 1.5세와 2세대가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III-7>, [그림III-5]참조). 이러한 결과는 중국과 CIS, 일본 지역은 해외 이민의 역사가 긴 반면, 북미 지역의 이민 역사는 짧은 것과 관련되어진다. 아울러 자신이 이민 몇 세대인지 모르고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이 상당수 있다는 것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중국은 34%, CIS지역은 23.7%로서 본인이 이민 3세대라고 응답한 비율 다음으로 큰 비율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민 세대가 흘러감에 따라 거주국 사회로 동화되어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III-7> 나라별 이민 세대 현황

(단위: 사례수(%))

나라	1세대	1.5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모름	합계
중국	0(0.0)	1(1.9)	4(7.5)	21(39.6)	9(17.0)	0(0.0)	18(34.0)	53(100)
CIS	0(0.0)	0(0.0)	1(2.6)	20(52.6)	8(21.1)	0(0.0)	9(23.7)	38(100)
일본	2(2.4)	0(0.0)	7(8.2)	60(70.6)	6(7.1)	1(1.2)	9(10.6)	85(100)
북미	17(6.7)	37(14.6)	174(68.8)	5(2.0)	1(0.4)	0(0.0)	19(7.5)	253(100)
기타	4(12.1)	2(6.1)	18(54.5)	4(12.1)	0(0.0)	0(0.0)	5(15.2)	33(100)
합계	23(5.0)	40(8.7)	204(44.2)	110(23.8)	24(5.2)	1(0.2)	60(13.0)	462(100)



[그림 III-5] 이민 세대 현황

(2) 부모와 가정 형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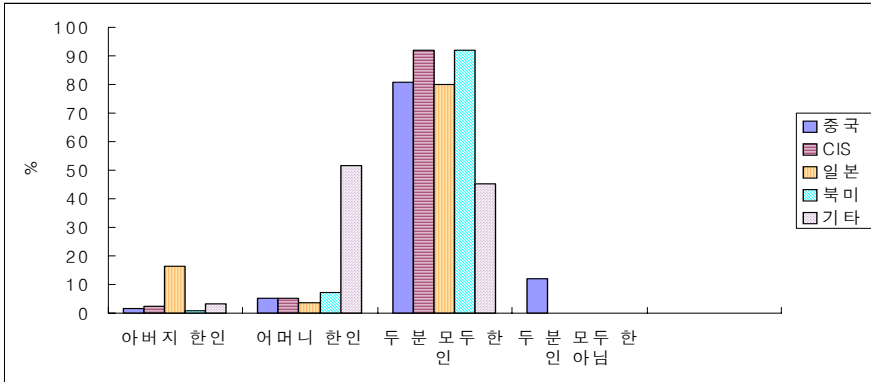
① 부모의 민족 배경

한국에서 수학하고 있는 재외 동포 청소년 경우, 부모님의 한 쪽만 한인인 경우 보다는 두 분 부모님 모두 한인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III-8>, [그림III-6]참조). 한국에서 수학하게 된 경위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한국에서 수학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해본다면, 부모님 중에서 어느 한 분만이 한국 사람인 경우보다는 두 분 부모님 모두 다 한국 사람일 경우, 자녀역시 한국 사람으로의 정체성을 지니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아버지만 한인인 경우도 비율이 높으므로, 재일 청소년의 경우는 자녀의 한국 연수에 한인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함을 또한 알 수 있다.

<표 III-8> 부모의 민족 배경

(단위: 사례수(%))

나라	아버지 한인	어머니 한인	두 분 다 한인	두 분 모두 한인 아님	합계
중국	1(1.7)	3(5.2)	47(81.0)	7(12.1)	58(100)
CIS	1(2.6)	2(5.3)	35(92.1)	0(0.0)	38(100)
일본	13(16.3)	3(3.8)	64(80.0)	0(0.0)	80(100)
북미	2(0.8)	18(7.3)	228(91.9)	0(0.0)	248(100)
기타	1(3.2)	16(51.6)	14(45.2)	0(0.0)	31(100)
합계	18(4.0)	42(9.2)	388(85.3)	7(1.5)	455(100)



[그림 III-6] 부모의 민족 배경

② 본국에서의 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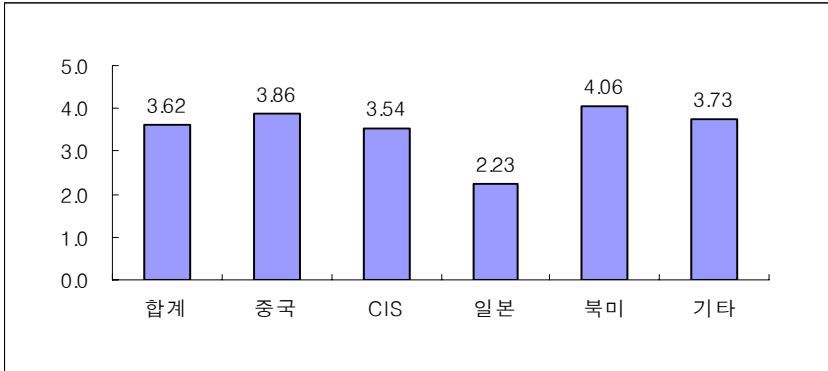
본국에서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물어 본 설문에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보통 이상의 만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9>, [그림 III-7] 참조). 그러나 사후 검증 결과를 보면, 일본이 타 지역과는 비교될 정도로 본국에서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만족도라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으므로 각 나라의 자료를 객관적으로 비교함에 있어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지만,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일동포 청소년의 경우, 타 지역 특히 북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에 비하여 자신의 현재 생활에 매우 불만족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재일동포 청소년의 경우는 이들의 불만족이 단순 생활고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재일동포이기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심리적 혹은 정서적 어려움인지 세밀한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III-9> 본국에서의 생활 만족도

(단위: 평균(표준편차))

	전체	중국	CIS	일본	북미	기타	F값
본국에서의 생활 만족도	3.62	3.86a	3.54a	2.23b	4.06a	3.73a	56.42***

*** p<.001, 사후검증: Scheffe test



[그림 Ⅲ-7] 본국에서의 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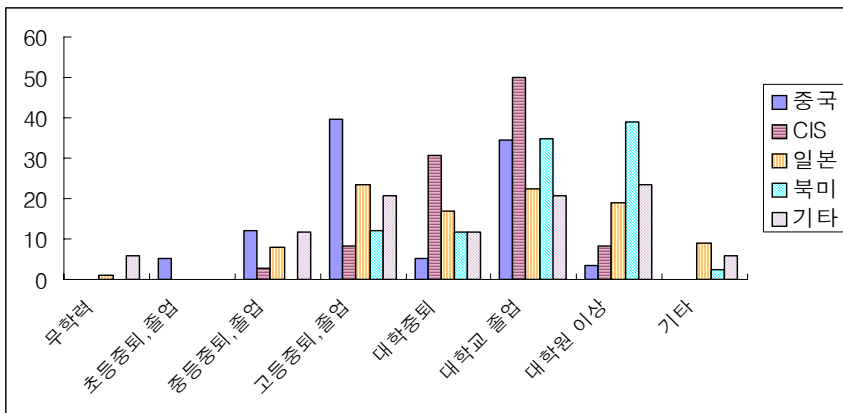
③ 아버지의 학력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중퇴 이상이 55.9%를 차지함으로써 국내에서 수학하고 있는 해외 한민족청소년은 본국에서 고학력의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Ⅲ-10>, [그림Ⅲ-8]참조). 특히 북미 지역의 청소년은 사례수의 약 90%에 해당하는 아버지들이 대학중퇴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비교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학력 소지 현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는 57%의 아버지들이 고졸이하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두 국가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졸업 학력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CIS 지역에서 온 한인 청소년이었고, 아버지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는 북미지역에서 온 청소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본은 고졸부터 대학원졸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표 III-10> 아버지의 학력

(단위:사례수(%))

	무학력	초등중퇴, 졸업	중등중퇴, 졸업	고등중퇴, 졸업	대학 중퇴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기타	합계
중국	0(0)	3(5.2)	7(12.1)	23(39.7)	3(5.2)	20(34.5)	2(3.4)	0(0)	58(100)
CIS	0(0)	0(0)	1(2.8)	3(8.3)	11(30.6)	18(50.0)	3(8.3)	0(0)	36(100)
일본	1(1.1)	0(0)	7(7.9)	21(23.6)	15(16.9)	20(22.5)	17(19.1)	8(9.0)	89(100)
북미	0(0)	0(0)	0(0)	30(12.1)	29(11.7)	86(34.8)	96(38.9)	6(2.4)	247(100)
기타	2(5.9)	0(0)	4(11.8)	7(20.6)	4(11.8)	7(20.6)	8(23.5)	2(5.9)	34(100)
합계	3(0.6)	3(0.6)	19(4.1)	84(18.1)	62(13.4)	151(32.5)	126(27.2)	16(3.4)	464(100)



[그림 III-8] 아버지의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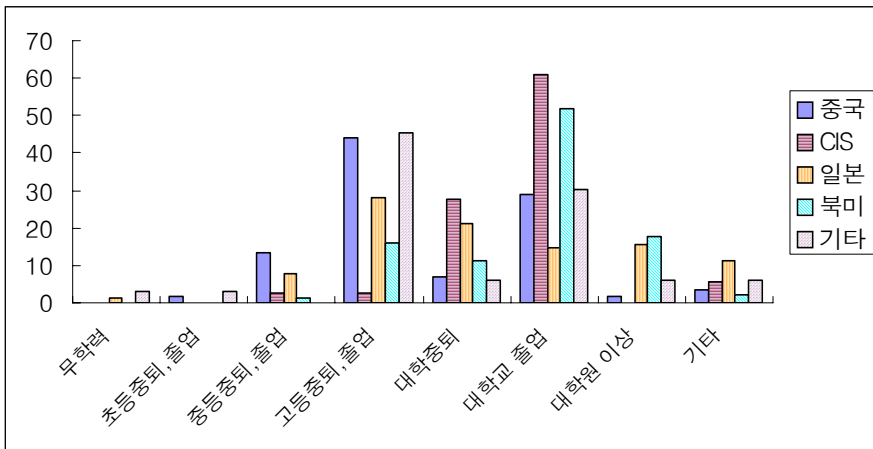
④ 어머니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 중퇴 이상이 48.6%를 차지함으로써 아버지의 학력보다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III-11>, [그림III-9]참조). 그러나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북미는 대학 중퇴 이상이 80.8%를 나타내었지만, 중국의 경우는 고졸이하의 학력이 59.4%를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학력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북미에 거주하는 한인 청소년의 대부분은 부모의 학력이 고학력이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한인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부모의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어머니 학력

(단위: 사례수(%))

	무학력	초등중퇴, 졸업	중등중퇴, 졸업	고등중퇴, 졸업	대학중퇴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기타	합계
중국	0(0)	1(1.7)	8(13.6)	26(44.1)	4(6.8)	17(28.8)	1(1.7)	2(3.4)	59(100)
CIS	0(0)	0(0)	1(2.8)	1(2.8)	10(27.8)	22(61.1)	0(0)	2(5.6)	36(100)
일본	1(1.1)	0(0)	7(7.9)	25(28.1)	19(21.3)	13(14.6)	14(15.7)	10(11.2)	89(100)
북미	0(0)	0(0)	3(1.2)	40(16.0)	28(11.2)	130(52.0)	44(17.6)	5(2.0)	250(100)
기타	1(3.0)	1(3.0)	0(0)	15(45.5)	2(6.1)	10(30.3)	2(6.1)	2(6.1)	33(100)
합계	2(0.4)	2(0.4)	19(4.1)	107(22.9)	63(13.5)	192(41.1)	61(13.10)	21(4.5)	467(100)



[그림 III-9] 어머니의 학력

⑤ 아버지의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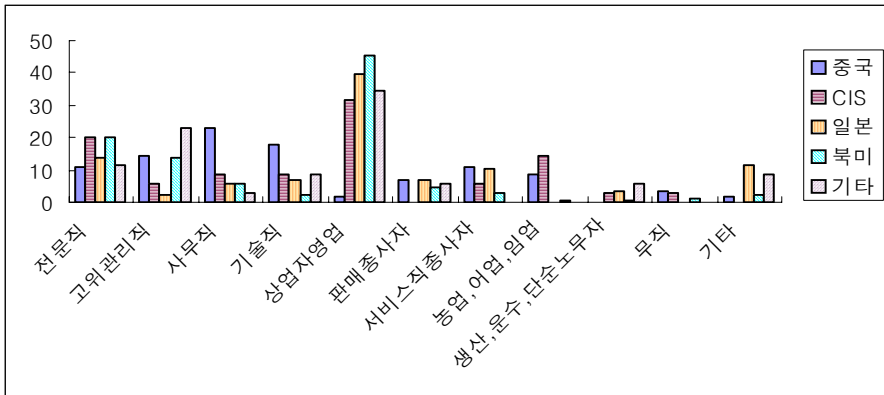
아버지의 직업은 4개국 모두 상업이나 자영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직과 고위관리직의 순이었다(<표III-12>, [그림III-10]참조). 이것은 아마도 이민 1세대의 주된 생활 수단이 자영업을 통한 것이었고, 이민 2세대의 전문직이나 고위관리직, 사무직과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늘어

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소수민족으로서 주류집단과의 진출이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 III-12> 아버지의 직업

(단위: 사례수(%))

	전문직	고위 관리직	사무직	기술직	상업자 영업	판매 종사자	서비 스직 종사자	농업, 어업, 임업	생산, 운수, 단순 노무자	무직	기타	합계
중국	6 (10.7)	8 (14.3)	13 (23.2)	10 (17.9)	1 (1.8)	4 (7.1)	6 (10.7)	5 (8.9)	0 (.0)	2 (3.6)	1 (1.8)	56 (100)
CIS	7 (20.0)	2 (5.7)	3 (8.6)	3 (8.6)	11 (31.4)	0 (.0)	2 (5.7)	5 (14.3)	1 (2.9)	1 (2.9)	0 (.0)	35 (100)
일본	12 (13.6)	2 (2.3)	5 (5.7)	6 (6.8)	35 (39.8)	6 (6.8)	9 (10.2)	0 (.0)	3 (3.4)	0 (.0)	10 (11.4)	88 (100)
북미	51 (20.3)	35 (13.9)	14 (5.6)	6 (2.4)	114 (45.4)	12 (4.8)	7 (2.8)	1 (.4)	2 (.8)	3 (1.2)	6 (2.4)	251 (100)
기타	4 (11.4)	8 (22.9)	1 (2.9)	3 (8.6)	12 (34.3)	2 (5.7)	0 (.0)	0 (.0)	2 (5.7)	0 (.0)	3 (8.6)	35 (100)
합계	80 (17.2)	55 (11.8)	36 (7.7)	28 (6.0)	173 (37.2)	24 (5.2)	24 (5.2)	11 (2.4)	8 (1.7)	6 (1.3)	20 (4.3)	465 (100)



[그림 III-10] 아버지의 직업

⑥ 어머니의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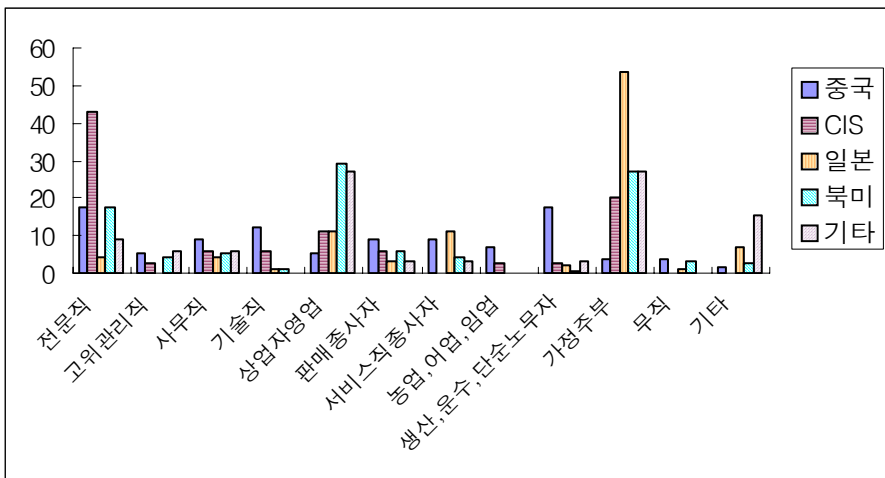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 주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II-13>, [그림III-11]참조). 일본지역이 가정주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

며 놀랍게도 CIS 지역은 42.9%의 어머니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어머니의 직업

(단위: 사례수(%))

	전문직	고위 관리직	사무직	기술직	상업자 영업	판매 종사자	서비스직 종사자	농업, 어업, 임업	생산, 운수, 단순 노무자	가정주부	무직	기타	합계
중국	10 (17.5)	3 (5.3)	5 (8.8)	7 (12.3)	3 (5.3)	5 (8.8)	5 (8.8)	4 (7.0)	10 (17.5)	2 (3.5)	2 (3.5)	1 (1.8)	57 (100)
CIS	15 (42.9)	1 (2.9)	2 (5.7)	2 (5.7)	4 (11.4)	2 (5.7)	0 (.0)	1 (2.9)	1 (2.9)	7 (20.0)	0 (.0)	0 (.0)	35 (100)
일본	4 (4.5)	0 (.0)	4 (4.5)	1 (1.1)	10 (11.4)	3 (3.4)	10 (11.4)	0 (.0)	2 (2.3)	47 (53.4)	1 (1.1)	6 (6.8)	88 (100)
북미	44 (17.5)	11 (4.4)	13 (5.2)	2 (.8)	73 (29.1)	14 (5.6)	10 (4.0)	0 (.0)	1 (.4)	68 (27.1)	8 (3.2)	7 (2.8)	251 (100)
기타	3 (9.1)	2 (6.1)	2 (6.1)	0 (.0)	9 (27.3)	1 (3.0)	1 (3.0)	0 (.0)	1 (3.0)	9 (27.3)	0 (.0)	5 (15.2)	33 (100)
합계	76 (16.4)	17 (3.70)	26 (5.6)	12 (2.6)	99 (21.3)	25 (5.4)	26 (5.6)	5 (1.1)	15 (3.2)	133 (28.7)	11 (2.4)	19 (4.1)	464 (100)



[그림 III-11] 어머니의 직업

⑦ 현재의 가족 수입에 대한 충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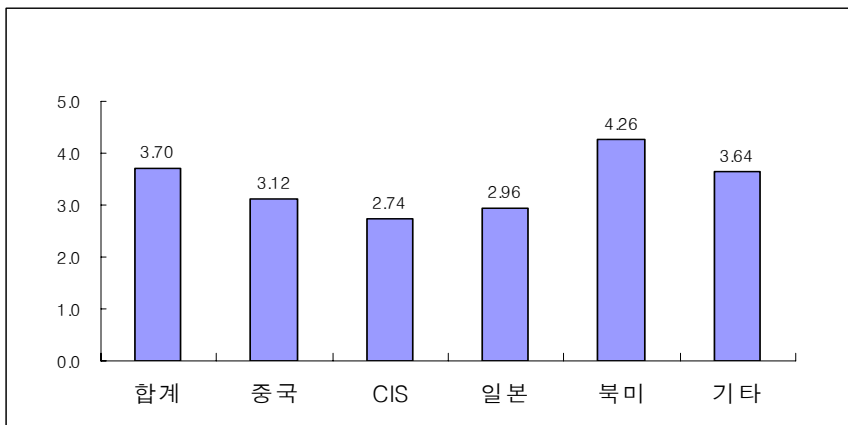
본국에서의 가족 수입에 대한 충족도 조사에서는 지역별 차이를 나타내었다. 가족 수입에 대한 충족도의 차이는 북미지역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Ⅲ-14>, [그림Ⅲ-12]참조). 북미 지역(M=4.26)의 청소년은 가족의 수입으로 생활하기가 넉넉하다고 보고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 CIS지역(M=2.74)과 일본지역(M=2.96)의 청소년은 가족 수입으로 생활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중국지역도(M=3.12)도 북미 지역보다 충족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북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가족의 수입으로 생활하기가 넉넉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Ⅲ-14> 가족 수입 만족도

(단위: 평균(표준편차))

	전체	중국	CIS	일본	북미	기타	F값
현재의 가족 수입에 대한 만족도	3.70 (1.13)	3.12 (0.75) _{a,b}	2.74 (0.76) _a	2.96 (1.01) _a	4.26 (0.99) _c	3.64 (1.05) _b	50.67 ^{***}

*** p<.001, 사후검증: Scheffe test



[그림 Ⅲ-12] 가족 수입 만족도

⑧ 주변 가정과 비교한 가족 소득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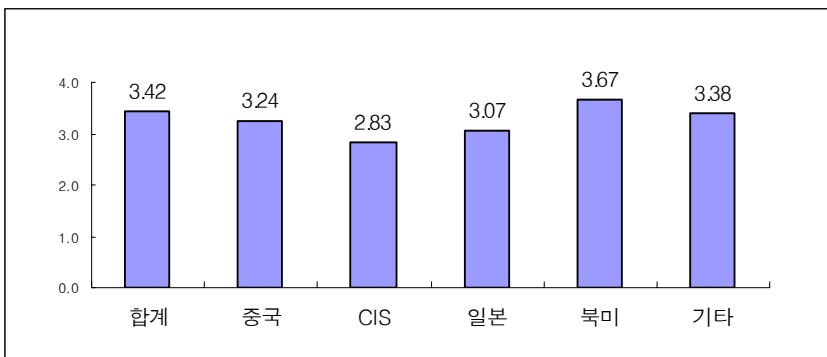
자신의 가족 소득을 다른 가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인식하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북미 지역(M=3.67)의 청소년이 평균보다 약간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지역은 북미지역의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소득 격차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Ⅲ-15>, [그림Ⅲ-13]참조). CIS 지역은 그 지역 내에서의 다른 가족보다도 수입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생활에서도 낮은 수입으로 인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족 수입의 격차는 한국에서 수학하고 있는 기간 중의 생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여러 나라에서 온 해외 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에서는 경제적인 격차를 고려한 모국 수학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Ⅲ-15> 상대적 소득 만족도

(단위: 평균(표준편차))

	전체	중국	CIS	일본	북미	기타	F값
가족 소득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	3.42 (0.83)	3.24 (0.72)a,b,c	2.83 (0.62)a	3.07 (.89)a,b	3.67 (0.77)c	3.38 (0.79)b,c	16.67***

*** p<.001, 사후검증: Scheffe test



[그림 Ⅲ-13] 상대적 소득 만족도

(3)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표Ⅲ-16> 참조)

① 부모님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정도

부모님과 본국에서의 생활상에 대한 질문은 부모님이 한국 문화를 유지하려는 노력과 자녀에게 한국 관련 정체성을 심어주려는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님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정도는 북미지역(M=3.3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본(M=1.62)과 CIS 지역(M=1.46)은 가정에서 한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14] 참조).

② 부모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 언급과 자녀의 한국어 교육 원하는 정도

또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한국에 대하여 좋게 이야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15] 참조). 이와 더불어 자녀가 한국어를 배우기를 소망하는 정도는 일본 지역(M=3.88)이 다른 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게 나타났고, CIS 지역(M=4.85)과 중국(M=4.59), 북미(M=4.55)지역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16] 참조). CIS 지역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아주 낮은 반면,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는 한국어를 배우기를 희망하는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 한인청소년을 위한 한글교육 지원 정책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③ 자녀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 갖기를 원하는 정도

CIS 지역(M=4.49)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소망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와 반대로 북미지역(M=2.55)과 일본지역(M=2.79)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소망하는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그림Ⅲ-17] 참조). 이러한 결과는 재외 한인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나라의 경제 수준이 한국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자녀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지만, 한국보다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는 것을 덜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부모가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정도

부모님이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는 정도는 북미 지역(M=3.50)과 중국(M=3.20)이 높게 나타났고, 일본(M=2.19)과 CIS지역(M=2.08)이 낮게 나타났다([그림Ⅲ-18] 참조). 북미의 경우 부모의 이민 세대가 1세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국은 조선족 자치구가 있어 한국어 사용이 가능한 반면, CIS의 경우 이민세대가 길어짐에 따라 부모의 한국어 구사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부모가 가정에서 한국음식을 먹는 정도

부모님이 가정에서 한국음식을 즐겨 먹는 정도는 각 지역에서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북미지역이(M=4.63)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19] 참조). 북미 지역이 다인종 사회로서 타국의 물자가 풍부한 사회임을 감안해 본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CIS지역처럼 한국과의 국제교역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한국음식을 즐겨 먹는 것을 보면 해외 동포들의 한국의 음식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⑥ 자녀가 한국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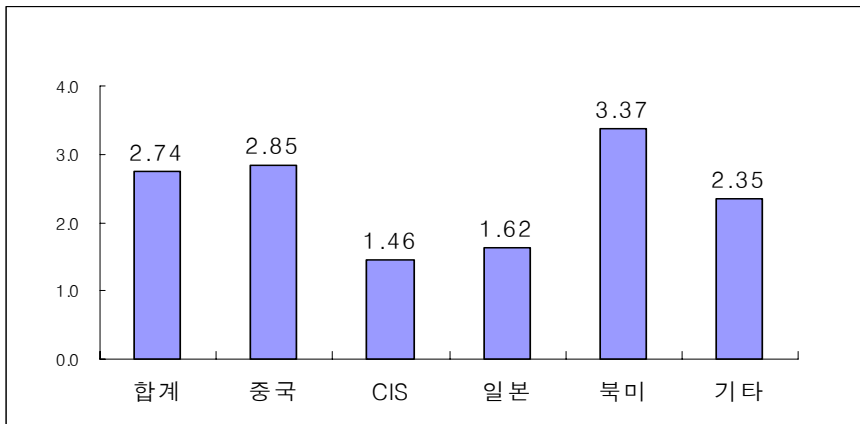
자녀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를 희망하는 정도는 북미(M=4.04)와 CIS 지역(M=3.8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본(M=3.23)과 중국 지역(M=2.95)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어떤 생각으로 자녀가 한국 사람들과 결혼하기를 희망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없으므로 결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북미나 CIS 지역 같은 경우는, 부모는 자녀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지만 자녀가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부분임은 짐작할 수 있다.

<표 III-16>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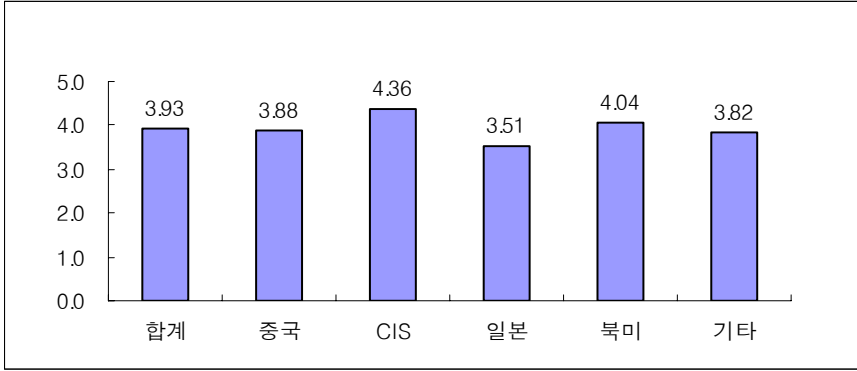
(단위: 평균(표준편차))

	전체	중국	CIS	일본	북미	기타	F값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2.74 (1.52)	2.85 (1.46)c,d	1.46 (0.82)a	1.62 (0.94)a,b	3.37 (1.42)d	2.35 (1.47)b,c	40.829*** *
부모님은 대체로 한국에 대해 좋게 말씀 하신다	3.93 (1.04)	3.88 (1.16)a,b	4.36 (1.16)b	3.51 (1.10)a	4.04 (0.93)a,b	3.82 (1.00)a,b	6.51***
부모님은 내가 한국어 공부하길 원하신다	4.41 (0.90)	4.59 (0.70)b	4.85 (0.59)b	3.88 (1.06)a	4.55 (0.77)b	4.06 (1.15)a	15.43***
부모님은 내가 한국 관련 직업을 갖기를 원하신다	2.93 (1.21)	3.80 (1.17)b	4.49 (0.82)c	2.79 (1.15)a	2.55 (1.00)a	2.79 (1.07)a	40.90***
부모님은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신다	3.02 (1.43)	3.20 (1.52)b	2.08 (1.44)a	2.19 (1.16)a	3.50 (1.26)b	2.44 (1.46)a	24.42***
부모님은 한국음식을 즐겨 만드신다	4.29 (1.10)	3.95 (1.12)a	4.23 (1.06)a,b	3.69 (1.30)a	4.63 (0.81)b	4.00 (1.44)a	16.76***
부모님은 내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길 원하신다	3.65 (1.24)	2.95 (1.18)a	3.85 (1.31)b,c	3.23 (1.25)a,b	4.04 (1.06)c	2.85 (1.33)a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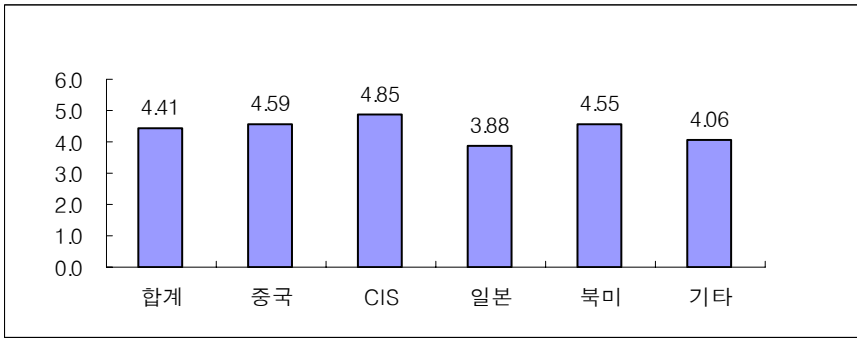
*** p<.001, 사후검증: Scheffe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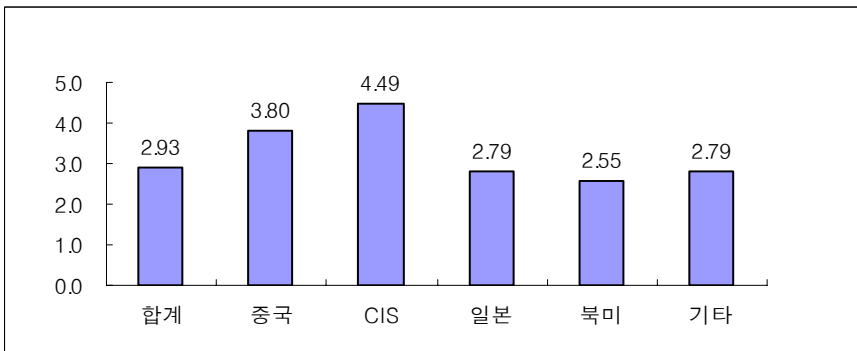
[그림 III-14]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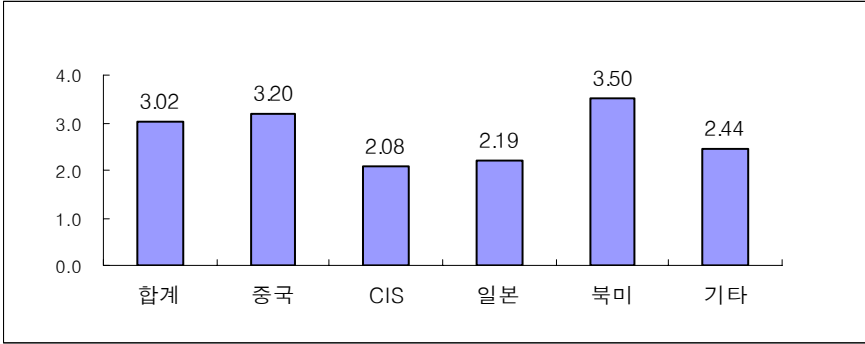
[그림 III-15] 부모님은 대체로 한국에 대해 좋게 말씀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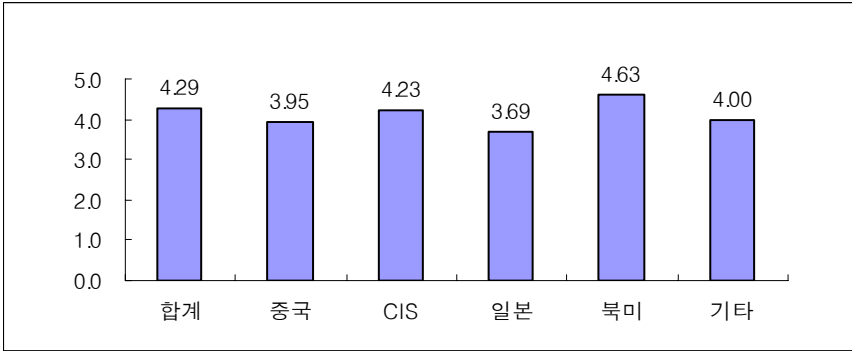
[그림 III-16] 부모님은 내가 한국어 공부하기를 원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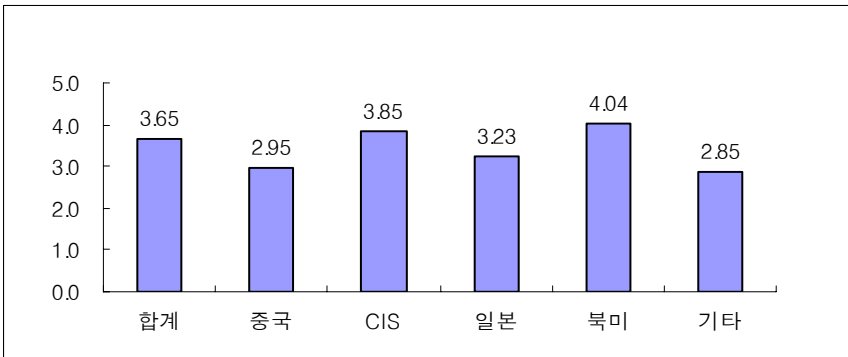
[그림 III-17] 부모님은 내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림 III-18] 부모님은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신다



[그림 III-19] 부모님은 한국음식을 즐겨 만드신다



[그림 III-20] 부모님은 내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라신다.

(4) 한국에 대한 관심(<표Ⅲ-17> 참조)

① 한국관련 뉴스에 대한 관심

한국 관련 뉴스에 대한 관심은 각 지역이 공히 보통이상의 관심은 나타내고 있었고, 각 지역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림Ⅲ-21]참조). 인터넷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기회의 확대가 관심의 확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② 한국에서 연수나 공부를 더 오래 하고 싶은 정도

한국에서 연수나 공부를 더 오래 하고 싶은 정도는 CIS지역(M=4.5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북미지역(M=3.71)이 가장 낮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4 지역 모두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연수의 기회를 더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22]참조).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의 대부분이 단기 체류의 형식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6개월 정도 체류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데 불충분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 한국을 또 방문하고 싶은 정도

앞으로 한국을 또 방문하고 싶은 정도는 통계적으로 국가 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모든 지역이 4점 이상의 매우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그림Ⅲ-23]참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CIS지역이 4.82라는 아주 높은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향후 한국을 더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지금의 연수기간에 대한 불만족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한국인으로서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더 용이하며, 한국인들 사이에서 문화적·인종적 동질감을 느끼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향후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마음으로 표현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④ 한국친구들을 더 사귀고 싶은 정도

한국친구들을 더 사귀고 싶은 마음도 각 지역 공히 아주 높은 수치를 나타냄으로써, 한국의 청소년들과 우정을 쌓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Ⅲ-24]참조). 그 중에서도 CIS지역(M=4.84)의 청소년들은 한국청소년들과의 우정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북미 지역(M=4.22)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날 따름이지 각 지역 모두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북미 지역도 그 정도가 아주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 또래 청소년들과 대화하고 싶은 정도

같은 또래의 한국 청소년들과 대화하고 싶은 정도 역시 위의 문항과 비슷한 반응 양상을 보이고 있다. CIS지역(M=4.82)의 청소년들이 한국 청소년과의 대화를 가장 높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북미 지역(M=4.10)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25]참조). 그러나 이 부분 역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날 따름이지 각 지역 모두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각 지역 청소년 모두 한국청소년들과의 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한국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고자 하는 정도

배우자로 한국 사람을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는 CIS(M=3.54)와 북미 지역(M=3.4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국 지역(M=2.8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그림Ⅲ-26]참조). 앞에서 부모님의 견해와 비교해 보면 CIS와 북미 지역의 부모님들이 자녀의 배우자로 한국 사람을 희망하는 정도가 높았고, 중국지역의 부모님들이 가장 낮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성이 자녀의 배우자 선호도에도 그대로 나타남으로써, 부모의 배우자 선호가 자녀의 배우자 선호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⑦ 한국과 관련 있는 직업 선호 정도

한국과 관련이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CIS지역(M=4.4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북미 지역(M=2.86)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27]참조). 이 문항 역시 앞에서 다룬 부모님의 견해와 비교해 보면 CIS 지역의 부모님들이 자녀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었고, 북미지역의 부모님들이 그 정도가 가장 낮았음을 알 수 있는데, 부모의 이러한 경향성이 자녀의 한국 관련 직업 선호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⑧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은 CIS지역(M=3.61)의 청소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북미지역(M=2.38)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그림Ⅲ-28]참조). 이와 비슷하게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가 부모님보다 큰 경우도 CIS 지역의 청소년과 북미지역 청소년에서 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그림Ⅲ-29]참조). 북미 지역(M=1.42)은 그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CIS지역(M=3.76)은 북미 지역의 약 3배 정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CIS지역 청소년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타 지역의 청소년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부모님보다도 자신이 한국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아 CIS 지역 청소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한국 관련 정보에 더 민감함을 알 수 있다.

⑨ 한국어 습득과 장래 직업 선택 관련성 정도

한국어를 배워두면 장래 직업이나 진로 설정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각 지역이 모두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그림Ⅲ-30]참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국가 간 차이를 변별해 낼 수 없을 정도로 각 지역에서 온 청소년은 한국어 습득이 장래의 직업이나 진로 설정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어를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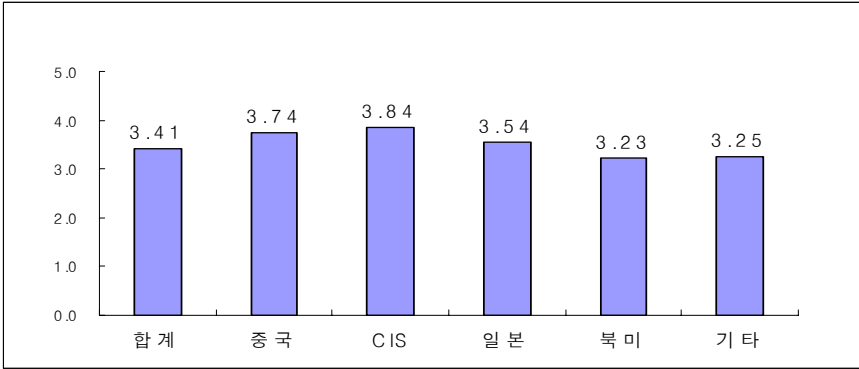
우고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외국에 살면서 한국인으로
 로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장래의 진로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
 단한다는 것은 이들이 장래에 한국 관련 일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도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수학하고 있는 재외 동포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네트워크 형성은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판단할 수 있다.

<표 III-17> 한국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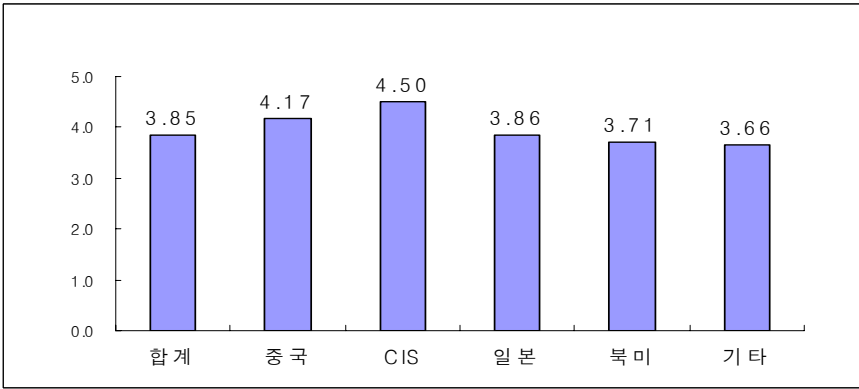
(단위: 평균(표준편차))

	전체	중국	CIS	일본	북미	기타	F
한국 관련 뉴스에 관심이 있다	3.41 (2.57)	3.74 (0.93)	3.84 (1.24)	3.54 (1.04)	3.23 (3.37)	3.25 (1.13)	.90
한국에서 연수나 공부를 더 오래 하고 싶다	3.85 (1.07)	4.17 (0.93)a,b	4.50 (0.73)b	3.86 (1.06)a	3.71 (1.09)a	3.66 (1.21)a	6.48***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또 방문하고 싶다	4.51 (0.82)	4.42 (1.00)	4.82 (0.46)	4.33 (0.86)	4.53 (0.78)	4.61 (0.87)	2.73
한국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고 싶다	4.34 (0.85)	4.41 (0.90)a,b	4.84 (0.44)b	4.40 (0.76)a,b	4.22 (0.89)a	4.42 (0.81)a,b	5.06**
한국에 있는 내 나이 또래 청소년들과 대화하고 싶다	4.24 (0.89)	4.39 (0.81)a,b	4.82 (0.39)b	4.25 (0.82)a	4.10 (0.94)a	4.30 (0.94)a	6.30***
나는 배우자로 한국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3.30 (1.17)	2.81 (1.06)a	3.54 (1.37)b	3.11 (1.03)a,b	3.48 (1.16)b	3.03 (1.25)a,b	5.71***
한국과 관련성 있는 직업 갖기를 계획하고 있다	3.22 (1.15)	3.72 (1.15)b	4.43 (0.96)c	3.33 (1.08)a,b	2.86 (1.04)a	3.41 (1.01)a,b	23.14***
나는 부모님보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이 많다	2.72 (1.17)	3.29 (0.95)b,c	3.61 (1.22)c	2.96 (1.10)a,b	2.38 (1.06)a	2.59 (1.37)a	17.30***
나는 부모님보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2.05 (1.32)	2.84 (1.15)c	3.76 (1.55)d	2.52 (1.24)b,c	1.42 (0.84)a	2.20 (1.45)b	57.50***
한국어를 배워두면 장래 직업이나 진로 설정에 더 유리할 것이다	3.99 (2.41)	4.34 (0.92)	4.55 (0.72)	3.66 (1.08)	4.00 (3.16)	3.62 (1.16)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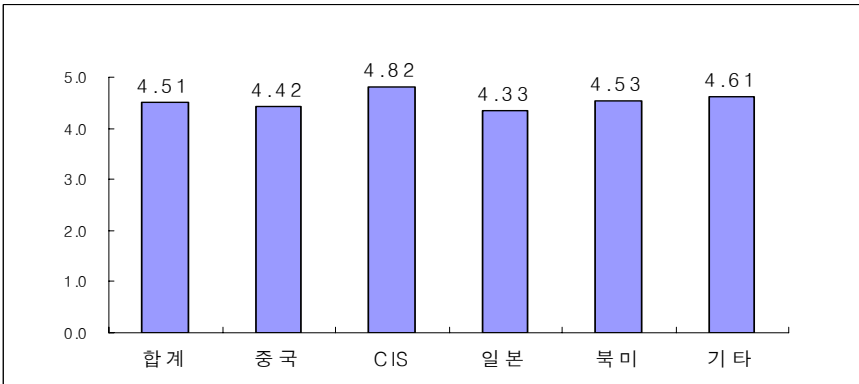
** p<.01, *** p<.001, 사후검증: Scheffe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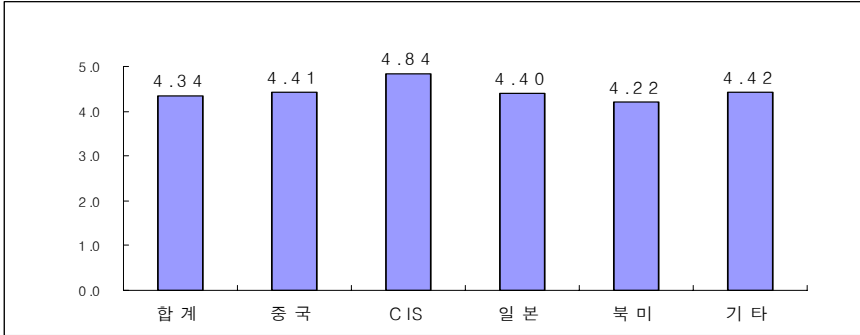
[그림 III-21] 한국 관련 뉴스에 대한 관심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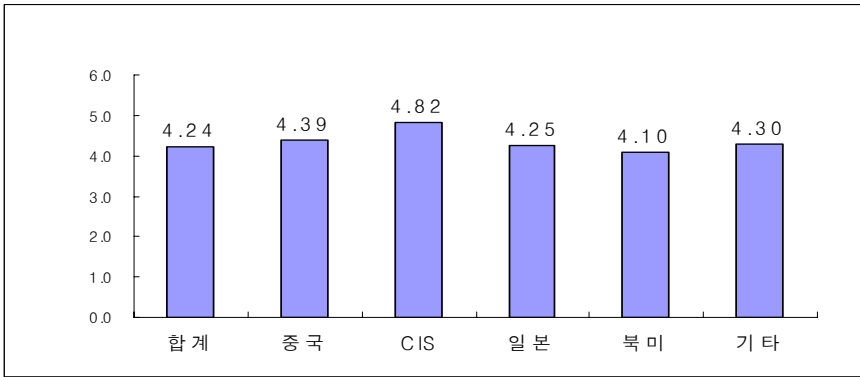
[그림 III-22] 한국에서 연수(공부)를 더 오래 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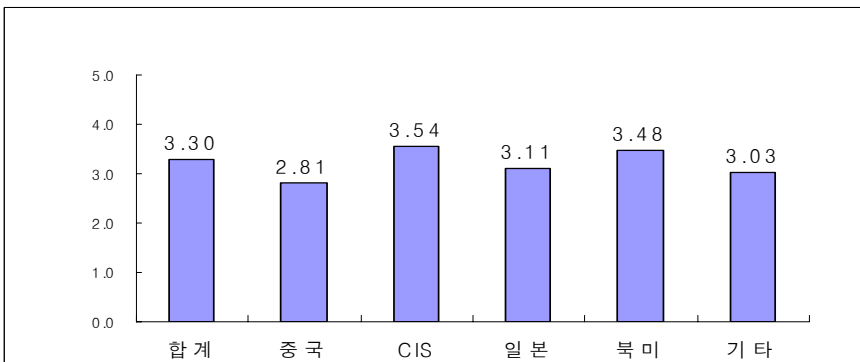
[그림 III-23]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또 방문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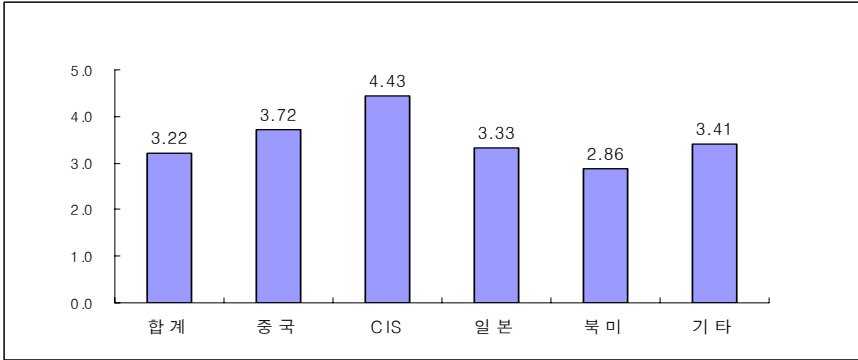
[그림 Ⅲ-24] 한국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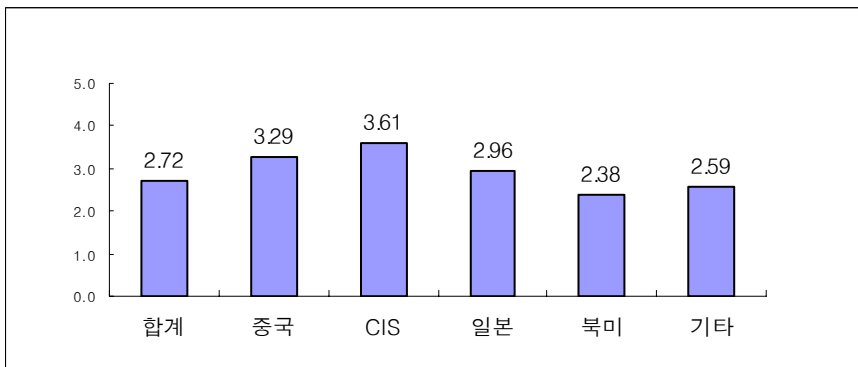
[그림 Ⅲ-25] 한국에 있는 내 나이 또래 청소년들과 대화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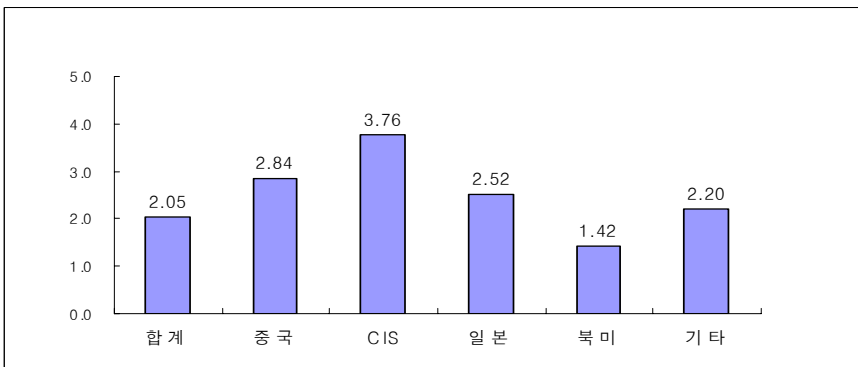
[그림 Ⅲ-26] 나는 배우자로 한국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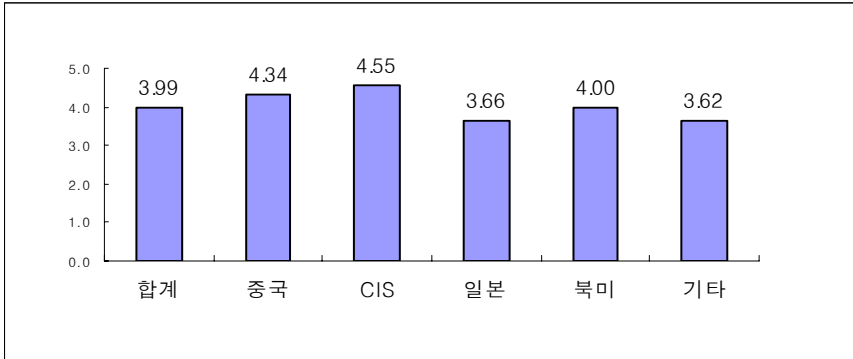
[그림 III-27] 한국과 관련성 있는 직업 갖기를 계획하고 있다



[그림 III-28] 부모님보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이 있다



[그림 III-29] 나는 부모님보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림 III-30] 한국어를 배우두면 장래 직업이나 진로 설정에 더 유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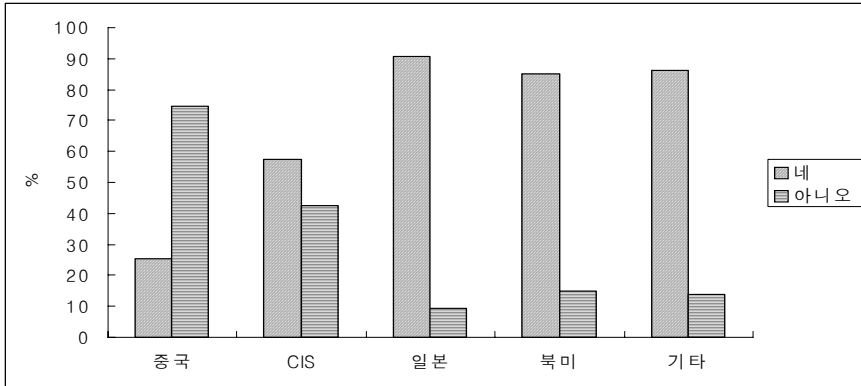
(5) 한국 방문 경험

한국에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에는 중국만 이전 방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일본과 북미지역은 대부분의 청소년이 이전 방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15.39$, $p<.001$). CIS 지역은 이번이 처음인 경우와 이전에도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표III-18>, [그림III-31]참조).

<표 III-18> 한국 방문 경험

(단위: 사례수(%))

	있다	없다	합계
중국	15(25.4)	44(74.6)	59(100)
CIS	19(57.6)	14(42.4)	33(100)
일본	79(90.8)	8(9.2)	87(100)
북미	213(85.2)	37(14.8)	250(100)
기타	31(86.1)	5(13.9)	36(100)
합계	357(76.8)	108(23.2)	465(100)



[그림 III-31] 한국 방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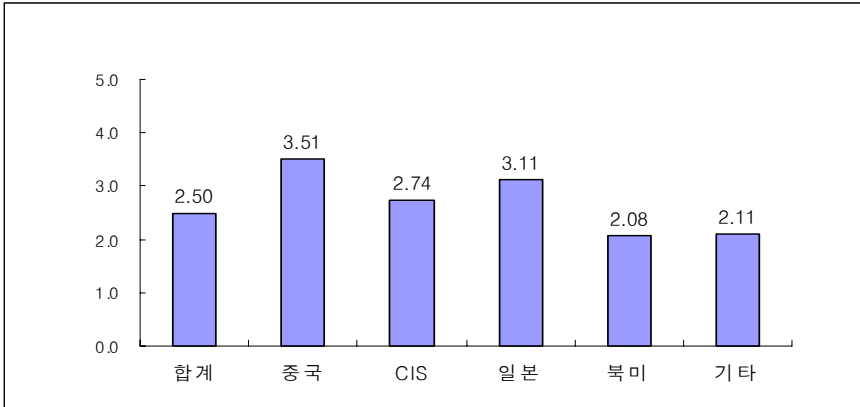
(6) 한국 뉴스 시청

한국 뉴스 시청은 중국지역(M=3.51)의 청소년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미 지역(M=2.08)의 청소년이 가장 적게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III-19>, [그림III-32]참조). 한국에 대한 관심에는 높은 비율로 응답한 것과 비교하여, 한국 뉴스를 시청하는 정도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아마도 질문의 형태가 “귀하는 평소에 한국 뉴스를 얼마나 시청합니까?”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TV시청을 제외한 다른 방법이 배제됨으로써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다음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한국 뉴스를 접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이나 신문, 잡지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9> 한국 뉴스 시청

(단위: 평균(표준편차))

	전체	중국	CIS	일본	북미	기타	F
한국뉴스를 시청 한다	2.50 (1.20)	3.51 (1.14)c	2.74 (1.04)b	3.11 (1.21)b,c	2.08 (1.02)a	2.11 (1.02)a	3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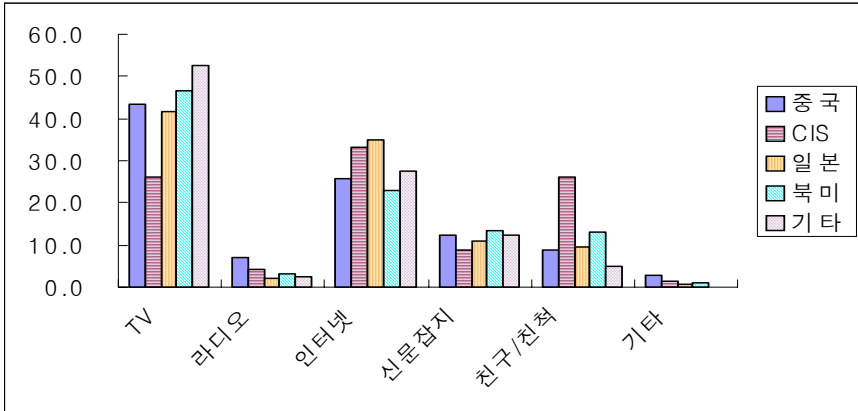
[그림 III-32] 한국 뉴스 시청

한국 뉴스를 접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TV와 인터넷을 통한 뉴스 접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III-20>, [그림III-33]참조). TV를 통한 방법은 이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면, 향후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주로 이용하는 매체는 인터넷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인터넷 구축이 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표 III-20> 한국 뉴스 접촉 방법

(단위: 사례수(%))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잡지	친구/친척	기타	합계
중국	49(43.4)	8(7.1)	29(25.7)	14(12.4)	10(8.8)	3(2.7)	113(100.0)
CIS	18(26.1)	3(4.3)	23(33.3)	6(8.7)	18(26.1)	1(1.4)	69(100.0)
일본	57(41.6)	3(2.2)	48(35.0)	15(10.9)	13(9.5)	1(0.7)	137(100.0)
북미	118(46.5)	8(3.1)	58(22.8)	34(13.4)	33(13.0)	3(1.2)	254(100.0)
기타	21(52.5)	1(2.5)	11(27.5)	5(12.5)	2(5.0)	0(0)	40(100.0)
합계	263(42.9)	23(3.7)	169(27.6)	74(12.1)	76(12.4)	8(1.3)	613(100)



[그림 III-33] 한국 뉴스 접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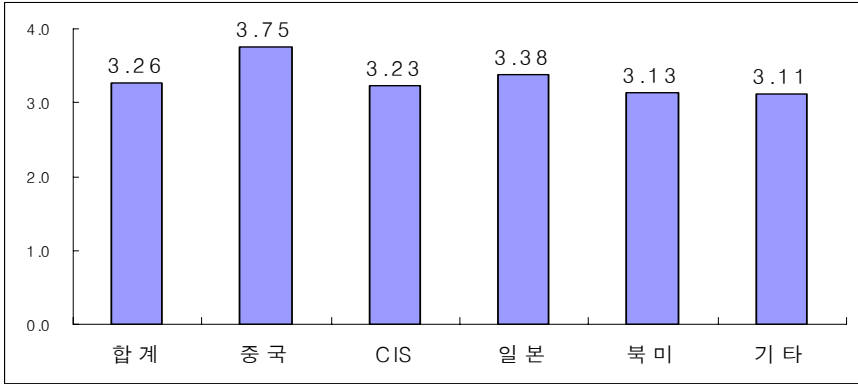
(7) 한국의 연속극이나 오락 프로 시청 정도

한국의 연속극이나 오락프로 시청은 중국지역(M=3.75)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미지역(M=3.13)의 청소년이 가장 적게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의 한류효과를 엿볼 수 있다(<표III-21>, [그림III-34]참조). 한국 TV 프로그램의 시청 정도는 한국 프로그램에 대한 호감도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TV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하는 중국 지역(M=3.69) 청소년의 경우 한국의 TV 프로그램을 재미있다고 판단하였고, 다른 지역 청소년들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표III-22>, [그림III-35]참조). 그러나 모든 지역에서 한국의 연속극이나 오락프로에 대한 시청률은 높은 편이었고 시청 소감도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21> 한국 연속극과 오락 프로그램의 시청률

(단위: 평균(표준편차))

	전체	중국	CIS	일본	북미	기타	F
한국의 연속극이나 오락프로를 시청 한다	3.26 (.69)	3.75 (.58) ^b	3.23 (.90) ^a	3.38 (.55) ^{a,b}	3.13 (.68) ^a	3.11 (.66) ^a	11.3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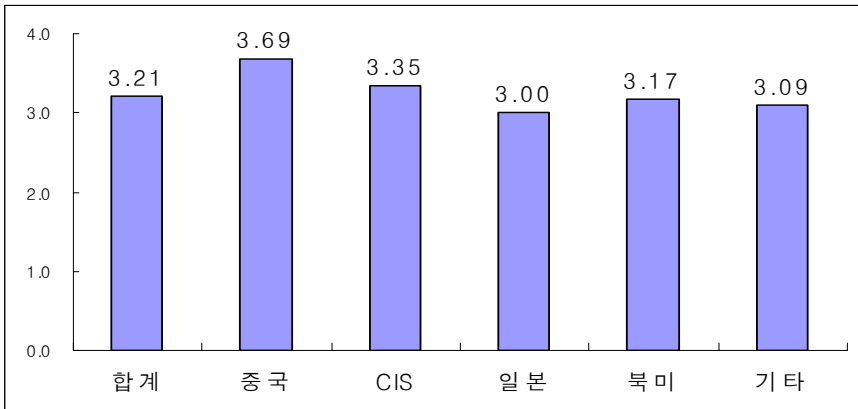


[그림 III-34] 한국 연속극과 오락 프로그램의 시청률

<표 III-22> 한국의 연속극이나 오락프로에 대한 느낌

(단위: 평균(표준편차))

	전체	중국	CIS	일본	북미	기타	F
한국의 연속극이나 오락프로가 재미있다	3.21 (.88)	3.69 (.56) ^b	3.35 (.75) ^{a,b}	3.00 (.86) ^a	3.17 (.94) ^a	3.09 (.71) ^a	6.59***



[그림 III-35] 한국의 연속극이나 오락프로에 대한 느낌

(8)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표Ⅲ-23> 참조)

① 한민족 배경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정도

한민족 배경이 각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정도는 중국(M=3.70), CIS(M=3.62), 북미(M=3.68)지역의 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M=2.93)지역은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그림Ⅲ-36] 참조).

② 한국 전통 명절을 쇠는 정도

한국 전통 명절을 쇠고 있는 정도는 중국(M=4.34)지역의 청소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CIS(M=3.08), 일본(M=3.46), 북미 지역(M=3.28)의 청소년이 약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그림Ⅲ-37]참조). 그러나 4지역 모두 가정에 한국 전통 명절을 쇠고 있는 정도가 비교적 높다고 말할 수 있다.

③ 한민족 문화에 대한 인지도

한민족 문화에 대한 인지도는 각 지역 모두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전체 평균=2.99) 이루어지고 있었다([그림Ⅲ-38]참조). 특히 일본지역(M=2.70)의 청소년은 전체 평균보다도 낮게 나타남으로써, 다른 지역의 청소년 보다 한민족 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민족 문화를 많이 알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다분히 주관적이라는 사실과, 본인이 자기 자신의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판단할 때 인색하게 판단할 여지도 있음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이 비록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한국 문화를 많이 알고 있다는 자긍심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④ 한국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 및 말할 수 있는 정도

한국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중국(M=3.74), CIS(M=3.79), 북미 지역(M=3.86)의 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M=2.64)지역의 청소년

년은 한국어를 듣고 이해하는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39]참조). 한국어를 말할 수 있는 정도도 중국 지역(M=3.60), CIS 지역(M=3.38), 북미 지역(M=3.48)의 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M=2.55) 청소년은 한국어를 말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40]참조).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정도는 CIS 지역(M=4.41)의 청소년이 일본 지역(M=2.68)의 청소년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그림Ⅲ-4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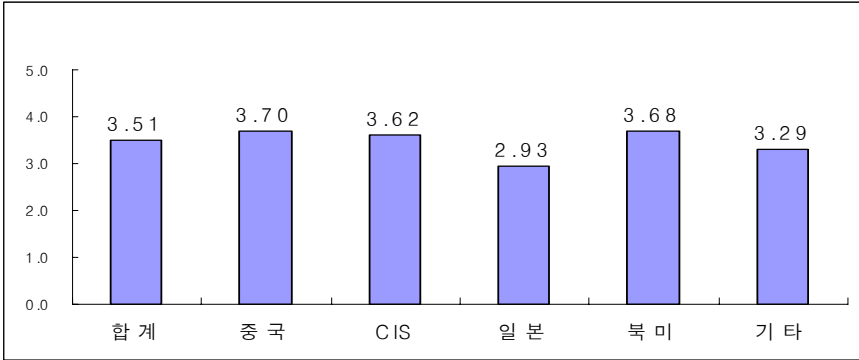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는 일본 지역이 대체로 가장 낮은 수준임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성향은 일본에서 한민족 배경을 지니는 것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과 함께, 일본 청소년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 지역 청소년이 타 지역의 청소년보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채 타국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표 Ⅲ-23>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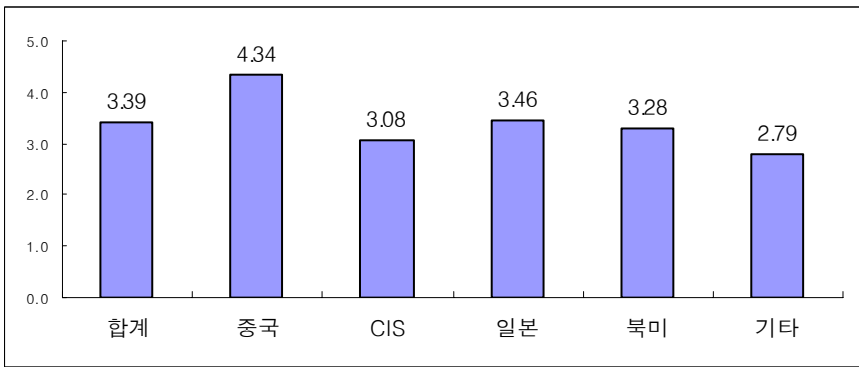
(단위: 평균(표준편차))

	전체	중국	CIS	일본	북미	기타	F
한민족 배경은 내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3.51 (1.06)	3.70 (1.05)b	3.62 (1.11)b	2.93 (0.91)a	3.68 (1.00)b	3.29 (1.19)a,b	9.85***
한국의 전통명절을 쇠고 있다	3.39 (1.25)	4.34 (0.83)b	3.08 (1.13)a	3.46 (1.19)a	3.28 (1.24)a	2.79 (1.41)a	12.68***
나는 한민족 문화를 많이 알고 있다	2.99 (0.95)	3.21 (0.95)	3.05 (1.05)	2.70 (0.84)	3.02 (0.96)	3.09 (0.89)	3.10*
나는 한국어를 듣고 이해한다	3.52 (1.17)	3.74 (1.10)b	3.79 (1.03)b	2.64 (1.02)a	3.86 (1.03)b	2.71 (1.18)a	29.24***
나는 한국어를 말할 수 있다	3.24 (1.20)	3.60 (1.04)b	3.38 (1.35)b	2.55 (0.97)a	3.48 (1.15)b	2.60 (1.29)a	15.73***
나는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다	3.23 (1.12)	3.57 (1.06)b	4.41 (1.04)c	2.68 (0.95)a	3.20 (1.05)a,b	3.00 (1.06)a,b	2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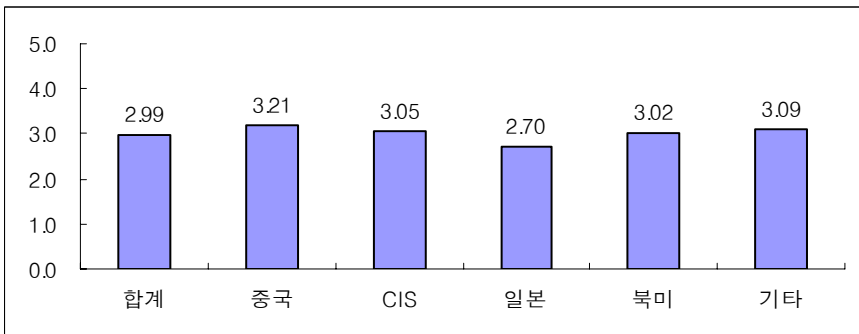
* p<.05, *** p<.001, 사후검증: Scheffe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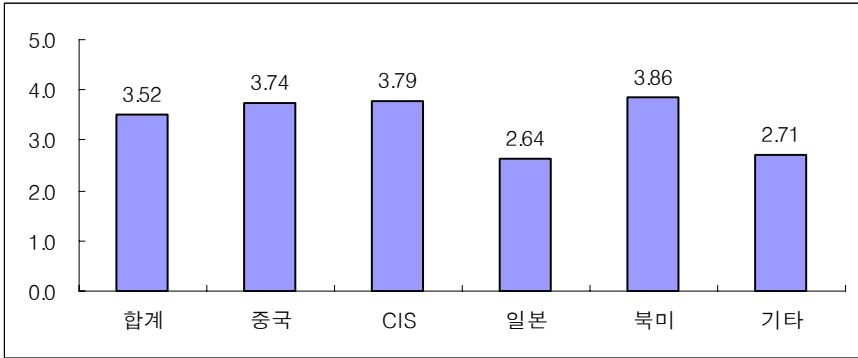
[그림 III-36] 한민족 배경은 내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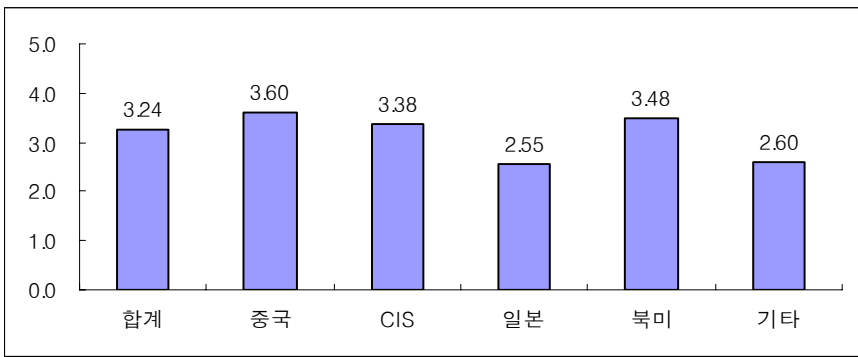
[그림 III-37] 한국의 전통명절을 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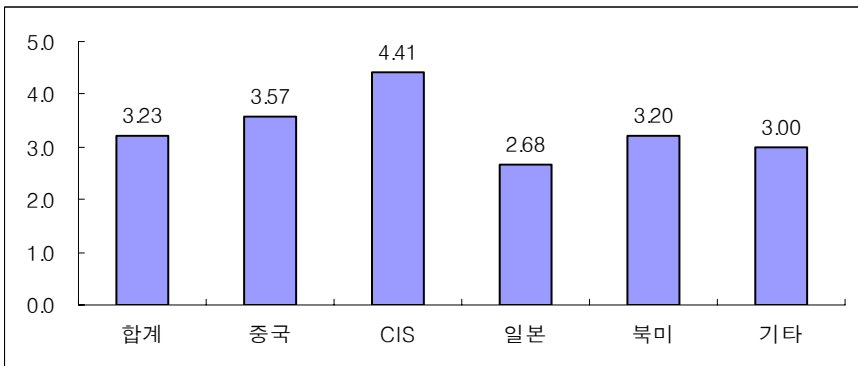
[그림 III-38] 나는 한민족 문화를 많이 알고 있다



[그림 III-39] 나는 한국어를 듣고 이해한다



[그림III-40] 나는 한국어를 말할 수 있다



[그림III-41]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다

(9) 한민족 정체성(<표Ⅲ-24>참조)

①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자부심 정도

자신이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중국(M=4.09), CIS(M=4.54), 북미(M=4.33)지역의 청소년은 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본 지역(M=3.27)의 청소년은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그림Ⅲ-42]참조). 일본 지역의 청소년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는 현상과 함께 일본 내에서 본인이 한국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도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IS지역의 청소년은 타 국가와 비교될 정도로 자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알려는 정도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 관습 등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는 것은 CIS(M=4.36)와 중국(M=4.02)지역의 청소년이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M=3.56)과 북미 지역(M=3.73)의 청소년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43]참조). 비록 통계적으로 국가 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4국가 모두 평균 점수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 이들 모두 한국의 역사나 전통에 관하여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높으며,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한인 단체에 참여하는 정도

각 지역 공히 한인들로 구성된 조직이나 사회단체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정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44]참조).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각 지역에 사는 재외 동포 청소년들이 한인들로 구성된 모임이나 단체에서 활발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인들끼리의 모임이나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 보다는 자신이 속한 나라의 문화에 적응해서 그들의 사회 속으로 섞여 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인 중심의 단체 활동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해석은, 재외 동포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단체가 미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인 단체는 여럿 있을지라도 청소년들만을 위한 한인 단체는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인 단체에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들 주변에 접근 가능한 한인 청소년 단체가 여의치 않을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다.

④ 한민족 배경에 대한 지식 정도

자신의 한민족 배경에 대한 지식은 중국 지역(M=3.09)의 청소년이 가장 높았고, 일본 지역(M=2.43)의 청소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45]참조). 통계적으로는 각 지역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 평균이 낮은 것을 고려해 보면 각 지역의 청소년들이 대체로 자신의 민족 배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모자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 지역의 청소년들은 전체 평균보다도 낮아 타 지역의 청소년과 비교하여 자신의 민족 배경에 대한 지식이 낮음을 알 수 있다.

⑤ 한민족 일원으로서의 자부심, 소속감, 배경에 대한 언급 정도

자신이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해 CIS 지역(M=4.26)의 청소년이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가 가장 높았고, 일본 지역(M=3.25)의 청소년이 가장 자부심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46]참조). 이와 비슷하게 CIS 지역(M=3.89)의 청소년이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도 가장 높았으며, 일본 지역(M=2.77)의 청소년은 자신이 한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소속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47]참조). 이러한 성향은 다른 사람들에게 한민족에 대하여 언급하는 정도에도 연결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CIS 지역(M=3.69)의 청소년은 다른 사람들에게 한민족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 지역(M=2.84)의 청소년은 잘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48]참조). 이러한 결과는 앞서 지적한 CIS 지역 청소년의 한민족 문화를 지키고 한민족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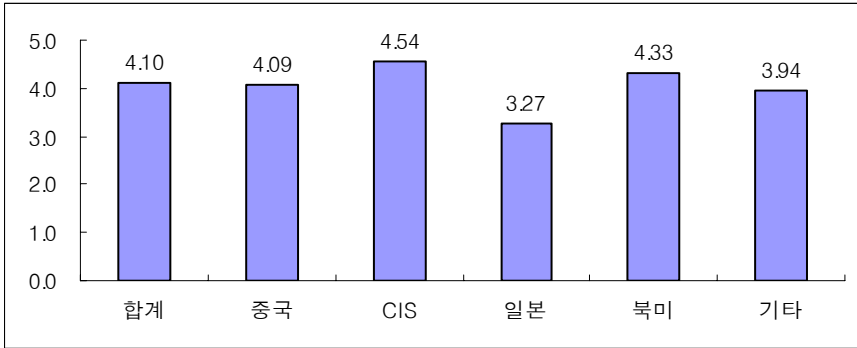
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 청소년의 경우는 자신이 한민족이라는 사실이 일본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숙지도의 부족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측정하는 문항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낸 이유가 될 수도 있다.

<표 III-24> 한민족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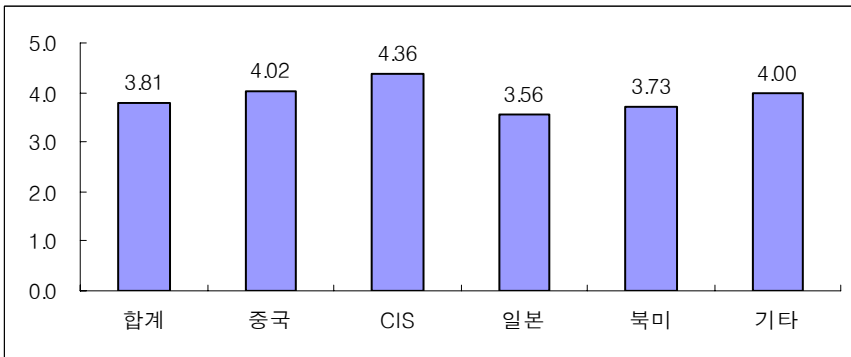
(단위: 평균(표준편차))

	전체	중국	CIS	일본	북미	기타	F
나는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4.10 (0.99)	4.09 (0.90) _{b,c}	4.54 (0.82) _c	3.27 (1.05) _a	4.33 (0.85) _{b,c}	3.94 (0.92) _b	25.18***
나는 한민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고 노력한다	3.81 (1.01)	4.02 (0.93) _{a,b}	4.36 (0.71) _b	3.56 (0.86) _a	3.73 (1.08) _a	4.00 (0.99) _{a,b}	5.80***
나는 주로 한인들로 구성된 조직체 또는 사회단체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2.73 (1.26)	3.12 (1.01) _b	2.67 (1.34) _{a,b}	2.42 (1.18) _{a,b}	2.83 (1.29) _{a,b}	2.25 (1.25) _a	4.61**
나는 나의 한민족 배경에 대해 잘 안다	2.81 (1.05)	3.09 (1.00) _b	2.72 (1.38) _{a,b}	2.43 (0.94) _a	2.91 (1.01) _{a,b}	2.71 (1.00) _{a,b}	4.89**
나는 내가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3.87 (1.11)	3.75 (1.14) _{a,b,c}	4.26 (0.91) _c	3.25 (1.10) _a	4.09 (1.02) _{b,c}	3.50 (1.24) _{a,b}	12.60***
나는 한민족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3.46 (1.18)	3.33 (1.37) _{a,b}	3.89 (0.89) _b	2.77 (1.06) _a	3.64 (1.18) _b	3.43 (1.04) _{a,b}	11.28***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민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3.03 (1.19)	3.35 (1.04) _{a,b}	3.69 (1.32) _b	2.84 (1.10) _a	2.88 (1.21) _a	3.34 (1.00) _{a,b}	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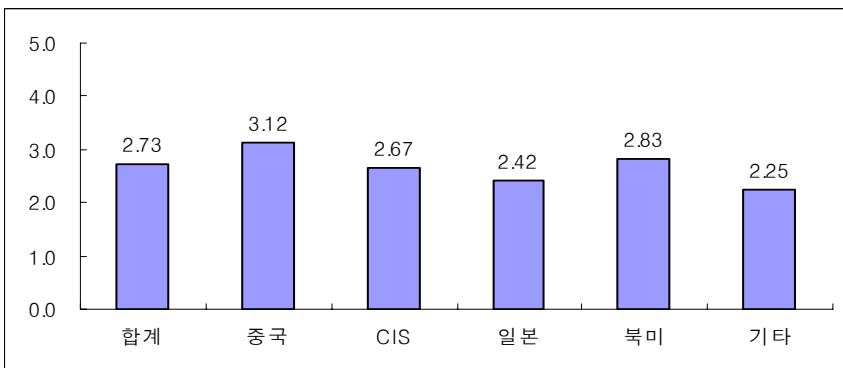
* p<.05, *** p<.001, 사후검증: Scheffe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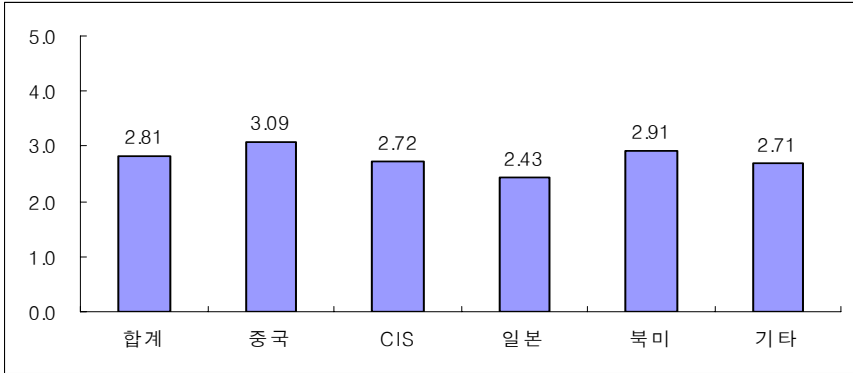
[그림 III-42]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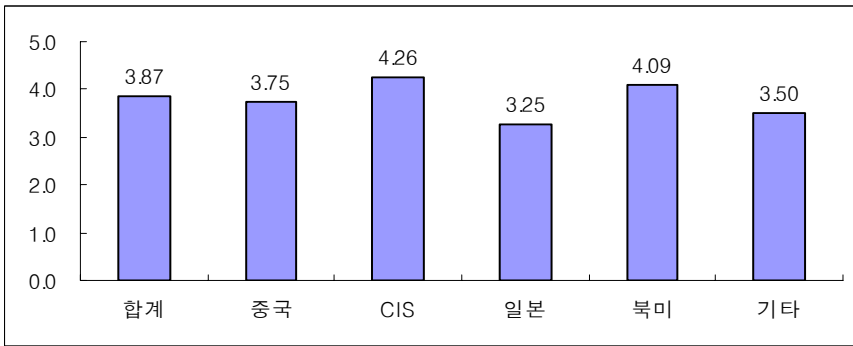
[그림 III-43] 한민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고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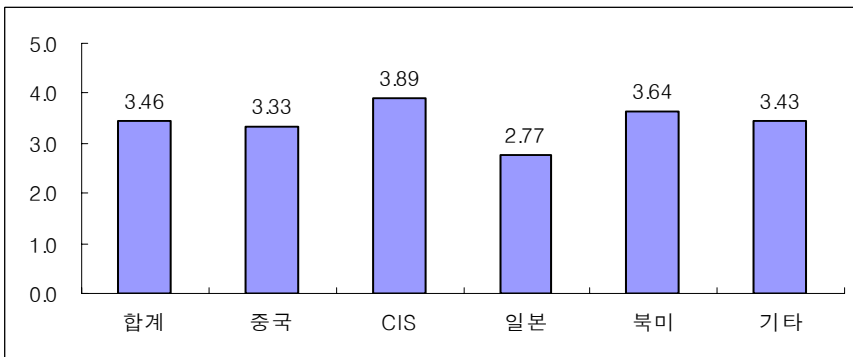
[그림 III-44] 한인들로 구성된 조직이나 단체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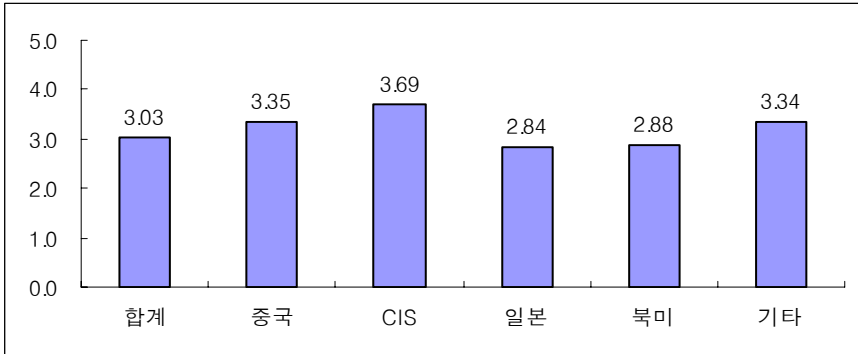
[그림 III-45] 나의 한민족 배경에 대해 잘 안다



[그림 III-46] 한민족 일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림 III-47] 한민족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그림 III-48] 다른 사람들에게 한민족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

(10) 네트워크 구축(<표III-25>참조)

① 지역의 한인단체 및 한국에 있는 단체와의 연락 정도

한인 단체에서의 활동 여부는 앞서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각 지역 모두 활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III-49]참조).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III-50] 참조). 그러한 중에도 중국 지역(M=3.18)의 청소년은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와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가 가장 높았고, 북미 지역(M=2.45)의 청소년은 별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한국에서 재외동포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

CIS지역(M=3.67)의 청소년은 한국에서 재외동포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문항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중국 지역(M=2.84), 일본 지역(M=2.37), 북미 지역(M=2.70)의 청소년은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그림III-51] 참조). 그러나 전체 평균이 2.73임을 감안해 보건데, 각 지역의 해외동포 청소년들은 한국에서 재외동포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한국 청소년들과의 교류 기회 확대에 대한 희망 정도

한국 청소년들과의 교류 기회 확대에 대한 희망에서는 CIS 지역(M=4.74) 청소년들이 원하는 정도가 아주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지역의 청소년들도 높은 수준에서 한국 청소년들과의 교류 기회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52]참조). 이러한 희망 사항은 한국에서 수학하는 동안 한국의 청소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서도 교류의 지속을 원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재외 동포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양한 계층의 한국청소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④ 한국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 사용 및 필요성 정도

중국(M=3.66)이나 CIS 지역(M=3.51)의 청소년들은 일본(M=2.56)이나 북미 지역(M=2.56)의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한국에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Ⅲ-53]참조). 또한 중국(M=4.14)이나 CIS 지역(M=4.46)의 청소년들은 일본(M=2.94)이나 북미 지역(M=2.90)의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그림Ⅲ-54]참조). 비록 일본이나 북미 지역의 청소년들은 인터넷 사이트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청소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해 놓음으로써 서로 정보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유대감도 느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것도 재외 동포 청소년을 위한 네트워킹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⑤ 한국 유학생들에 대한 인상

한국 유학생들에 대한 인상은 대체로 좋게 나타났지만([그림Ⅲ-55]참조), 중국(M=2.81)이나 북미 지역(M=2.90)의 청소년들은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로 인하여 한국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되는 정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

다([그림Ⅲ-56]참조). 중국이나 북미 쪽으로의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소비 행위 양상 등이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녀를 유학 보낼 수 있는 한국 가정의 경제적 여유가 결려지지 않은 채 그대로 드러남으로써 이민사회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⑥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유학이나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인지

CIS 지역의 청소년들은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유학이나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숙지도가 타 지역의 청소년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57], [그림Ⅲ-58]참조). 그러나 전체 평균이 낮은 것을 고려해 보건데, 대체적으로 재외 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 유학과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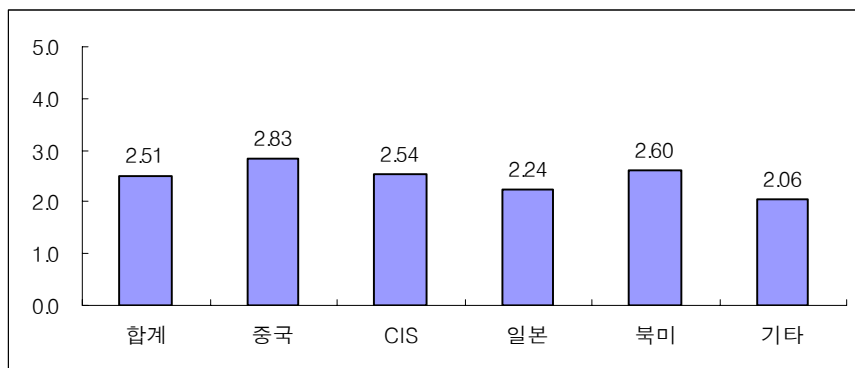
<표 Ⅲ-25> 네트워크 구축

(단위: 평균(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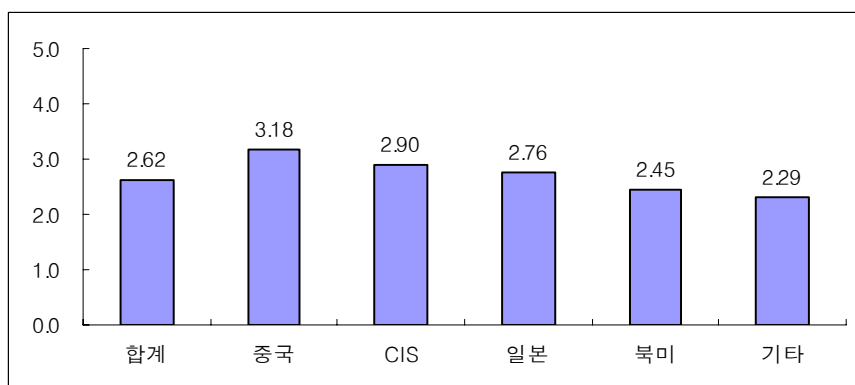
	전체	중국	CIS	일본	북미	기타	F
한인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51 (1.22)	2.83 (1.15)c	2.54 (1.23)a,b	2.24 (1.12)a,b	2.60 (1.26)a,b	2.06 (1.13)a	3.65**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2.62 (1.27)	3.18 (1.15)b	2.90 (1.33)a,b	2.76 (1.37)a,b	2.45 (1.22)a	2.29 (1.19)a	5.38***
한국에서 재외동포에게 유용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2.73 (1.06)	2.84 (1.21)a	3.67 (1.15)b	2.37 (0.93)a	2.70 (0.95)a	2.65 (1.23)a	11.27***
한국 청소년들과의 교류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3.79 (1.07)	4.26 (0.86)b,c	4.74 (0.55)c	3.86 (1.01)a,b	3.49 (1.08)a	4.03 (0.94)a,b	18.55***
나는 한국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한다	2.81 (1.37)	3.66 (1.16)b	3.51 (1.57)b	2.56 (1.19)a	2.56 (1.35)a	3.11 (1.16)a,b	12.60***
한국 청소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21 (1.18)	4.14 (0.96)b	4.46 (0.94)b	2.94 (0.98)a	2.90 (1.08)a	3.21 (1.18)a	32.38***

한국 유학생들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3.41 (1.03)	3.76 (0.96) _{b,c}	4.21 (0.83) _c	3.40 (0.87) _{a,b}	3.24 (1.05) _{a,b}	3.10 (1.03) _a	10.76 ^{***}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로 인해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	2.99 (1.05)	2.81 (1.22) _a	3.92 (1.15) _b	3.10 (0.91) _a	2.90 (1.00) _a	2.62 (0.78) _a	10.24 ^{***}
나는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한국 유학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	2.49 (1.25)	2.66 (1.16) _{a,b}	3.36 (1.39) _b	2.36 (1.22) _a	2.35 (1.18) _a	2.56 (1.46) _a	6.22 ^{***}
나는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한국 취업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	2.05 (1.13)	2.56 (1.21) _b	2.62 (1.39) _b	1.67 (0.81) _a	2.02 (1.09) _{a,b}	1.76 (1.12) _a	9.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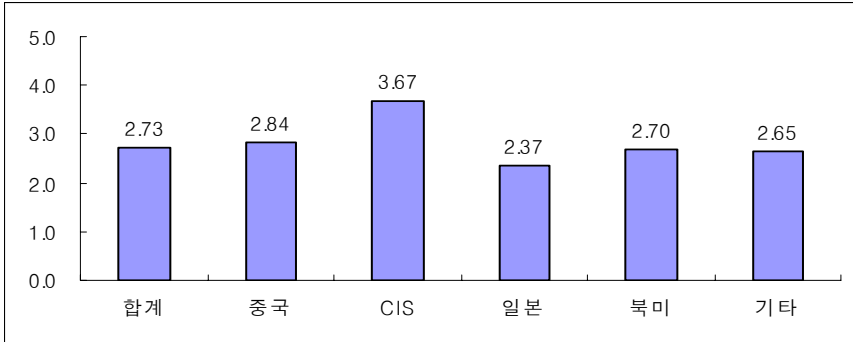
** p<.01, *** p<.001, 사후검증: Scheffe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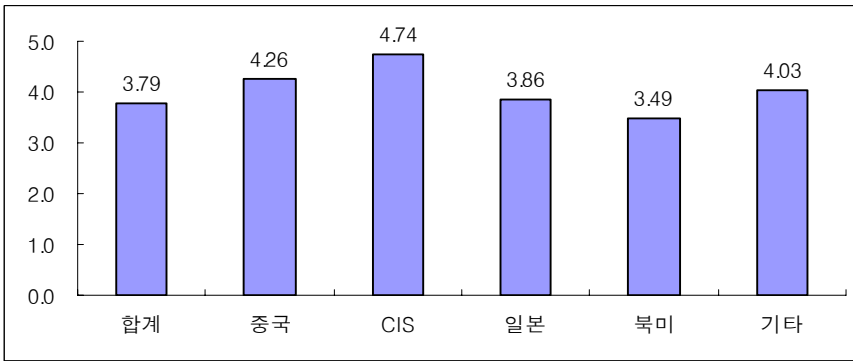
[그림 III-49] 한인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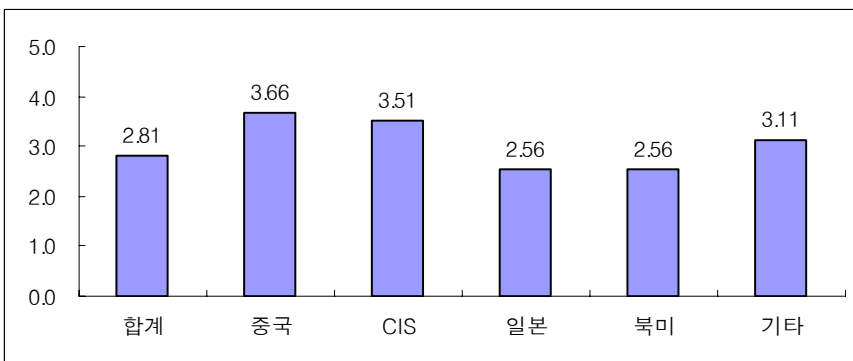
[그림 III-50]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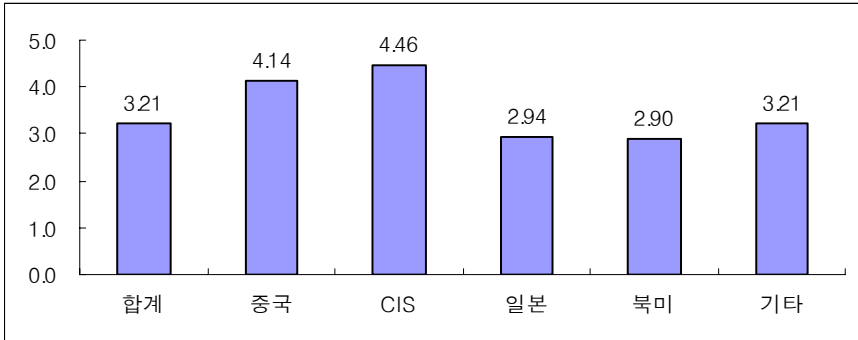
[그림 III-51] 재외동포에게 정보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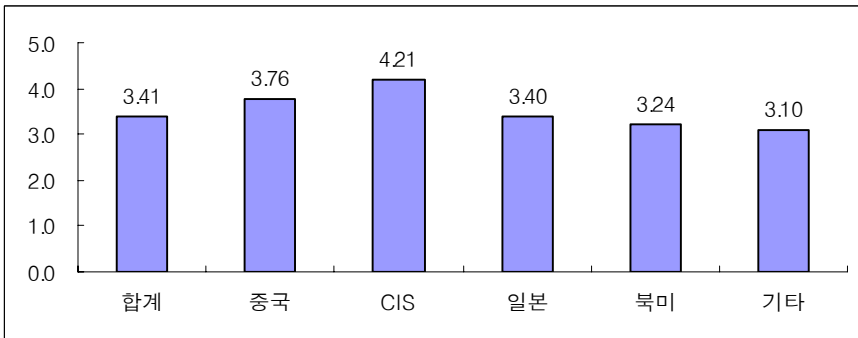
[그림 III-52] 청소년과의 교류 기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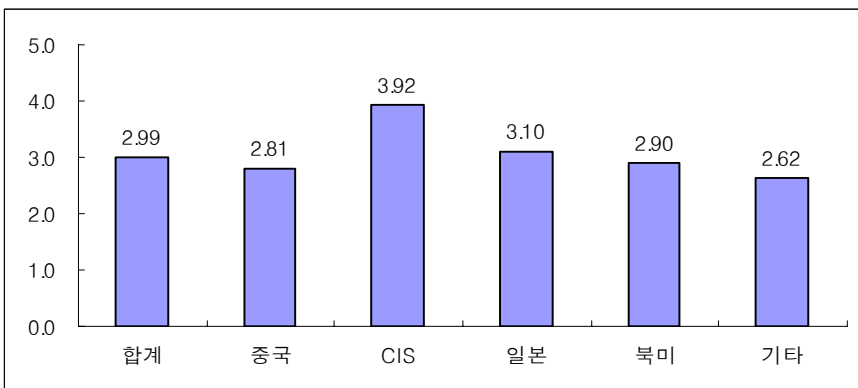
[그림 III-53] 한국 인터넷 사이트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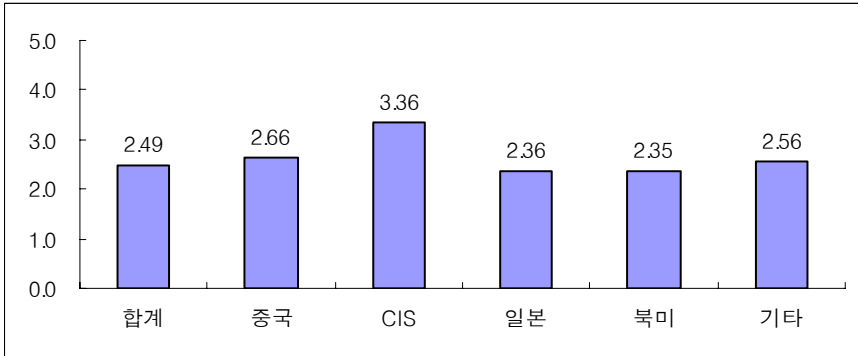
[그림 III-54] 한국청소년과의 대화 가능 인터넷 사이트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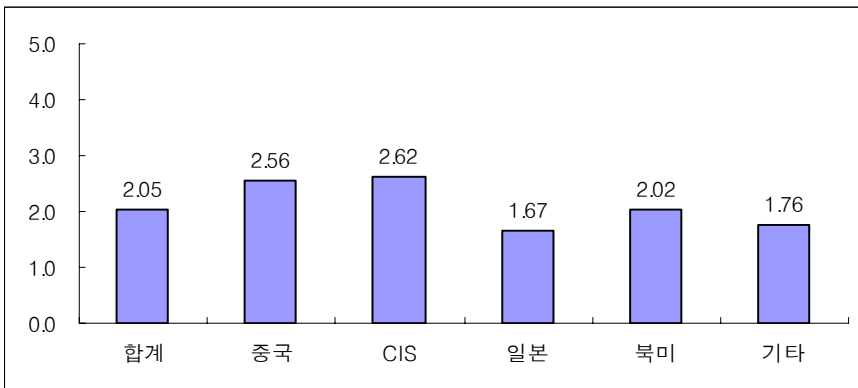
[그림 III-55] 한국 유학생들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III-56]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로 인해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



[그림 III-57]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한국 유학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



[그림 III-58]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

4. 요약 및 소결

지금까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첫째, 이들 중의 많은 수가 대학생 신분이었으며, 장래 직업으로는 사무직이상의 전문직이나 고위관리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지역의 한인 청소년은 이민 2세대가 넘지 않는 청소년이 많이 입국해 있었고, 중국과 일본, CIS지

역은 이민 3세대와 4세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와 가정형편’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한국에서 수학하고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은 부모님 중에서 어느 한 분만 한국 사람인 경우보다는 두 분 모두 한국 사람인 경우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 쪽 부모님만 한국 사람인 경우보다는 양 쪽 부모님 모두가 한국 사람일 때 자녀도 한민족으로서 정체감을 지니고 살아갈 것을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연수나 교육 기회를 한인 배경을 공유하거나 한국을 알도록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중국, CIS, 일본, 북미 4지역 중에 일본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청소년이 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재일동포 청소년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설문 결과로는 재일동포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지, 일본 사회에서의 인종차별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재일 한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다. 추후에 생활만족도의 차원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아버지의 직업은 중국과 북미지역이 가장 대조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북미지역의 아버지 직업은 약 90%이상의 경우가 대학중퇴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국 지역의 경우는 57%의 아버지들이 고졸 이하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도 아버지의 학력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어 북미 지역의 경우는 어머니의 80%이상이 대학중퇴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중국지역은 약 60%의 어머니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4 지역 모두 상업이나 자영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가서 처음부터 고위관리직이나 전문직에 들어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 중에는 이민 3세대 이후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모님이 이민 몇 세대인지를 파악한 후에 이민 세대가 더해가면서 전문직으로 유입되는 정도를 파악하는 것도 유용한 정보가 되리라고 본다. 현재의 가족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북미지역의 청소년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CIS와 일본 지역은 조금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의 가정과 비교한 상대적 수입 만족도도 북미 지역의 청소년이 높게 나타났고 CIS와 일본지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IS지역은 경제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활하는 고려인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일본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거주하는 재일동포 청소년이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에서 한국인의 입지조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조명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설문에서 한국어 사용과 관련된 설문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각 나라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북미와 중국 지역의 청소년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부모님은 자녀가 한국어를 배우기를 희망하며 또 부모님 자신이 자녀에게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IS지역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하는 빈도도 매우 낮게 나타났고,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한국어를 가르치는 횟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가 한국어를 배우기를 희망하는 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부모님 자신은 한국어를 못하지만 자녀는 한국어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지역도 가정에서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하는 정도가 낮고 부모님이 직접 한국어를 가르치는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가 한국어를 배우기를 희망하는 정도도 4 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한국에 대하여 언급할 때 대체로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에서 한국음식을 즐겨 만드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한국의 음식문화를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CIS지역의 부모들은 자녀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 정도가 상당히 높지만, 일본과 북미 지역은 보통 이하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과 북미 지역처럼 한국보다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나라에 거주할 때는 본국의

주류사회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정하는 추세이지만 한국보다 경제적인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한국에 대한 관심’을 알아본 결과 4지역 모두 한국뉴스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 한국에서 연수나 공부를 더 오래하고 싶은 마음도 높았으며,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또 방문하고 싶다고 응답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고 싶은 마음도 상당히 높았고, 한국의 청소년들을 만나 대화하고 싶은 마음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우자로 한국 사람을 선택할 것이라는 진술에 대한 응답은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한국 사람을 누구로 판단했느냐에 따라 응답 양상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한국어를 배워두는 것이 장래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판단이 이들로 하여금 한국에서 수학하고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76.8%는 이전에 한국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한국을 한 번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한국을 방문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국뉴스를 어느 정도 시청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많은 수의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뉴스 시청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 연속극이나 오락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보다 낮은 것으로, 뉴스가 연속극이나 오락프로그램보다 재미도 없고, 또 한국어 수준이 높아야 뉴스내용을 잘 전달받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대체로 한국 연속극이나 오락프로그램에 대하여 재미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뉴스를 접하는 통로로는 TV외에 인터넷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로 된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해 놓는 것도 향후 네트워킹에 유효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살펴보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전통 명절을 지키려는 그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4개국 모두 설

이나 추석 같은 한국의 전통명절을 최고 있는 정도가 보통이상으로 나타났고, 한민족 문화를 많이 알고 있다는 진술에도 보통 수준으로 응답하고 있다. ‘한민족 문화를 많이 알고 있다’는 진술이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을 요하는 진술문이고, ‘많이 알고 있다’는 표현에 재외동포로서 어느 정도는 인색하게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통의 수준으로 나온 것은 실제로는 보통 이상의 정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국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은 일본 지역의 청소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CIS와 북미, 중국 지역은 중상(upper middle)정도의 실력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반응은 일본 지역의 청소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 동포 청소년은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민족에 대해서 잘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과 CIS, 북미지역의 청소년은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자부심도 강하게 느끼고 있고, 본인이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동포 청소년의 경우 미묘한 한일관계 상의 여러 문제가 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리정서적으로 예민한 청소년기에 이러한 문제가 더 부각되면서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앞으로 이들을 인적네트워크로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 4개국 모두 한인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먼저 각 지역에 있는 한인단체들을 살펴본 후에 해석해야 할 부분이다. 본 설문에 참여한 한인학생들 주변에 이들이 쉽게 접근하여 참여할 수 있는 한인단체가 희박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있다손 치더라도 단체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정보부족으로 활동률이 저조할 수 있다. 또한 유명무실한 기관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사람들의 참여도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한인단체에서의 활동률이 크나 적으나를 논하기에 앞서, 왜 한인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았는지, 왜 홍보가

미비했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은 또한 한국에 있는 청소년과 교류기회가 증가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지만, 일본과 북미지역의 재외동포 청소년은 한국의 청소년과 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구축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 상에서의 교류가 아닌 직접적인 교류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해외 동포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진술문에는 CIS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3지역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재외동포 청소년의 요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CIS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세 국가의 청소년들은 한국 유학생에 대한 호감도가 보통정도였고, 중국지역의 경우는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형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지 동포 청소년과 유학생과의 사이에 일종의 긴장감이 형성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유학생을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 삼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일인 것 같다.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유학 프로그램과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의 홍보 정책이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유학프로그램보다 취업프로그램의 정보에 대한 노출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국내체류 재외 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국내체류 해외 한민족청소년 면담조사

1. 조사개요
2. 국내체류 재미한인 청소년 면담조사 분석
3. 국내체류 조선족 청소년 면담조사 분석
4. 국내체류 재일한인 청소년 면담조사 분석
5. 국내체류 고려인 청소년 면담조사 분석
6. 국내체류 기타국가 거주 한인 청소년 면담조사 분석
7. 요약 및 소결

IV. 국내체류 해외한민족청소년 면담조사

1. 조사개요

1) 연구과정 개관

심층면담에서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내를 방문하고 있는 재외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모국에 대해 보다 특별한 감정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향후 이들의 진로 및 한국사회와의 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모국방문 계기, 모국에 대한 관심 및 연계 가능성, 향후 진로, 정체성 등에 대해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참가자 섭외는 한국어 연수 기관의 협조를 얻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심층면담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면담에 응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섭외하여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연구진의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면담참가자를 섭외하였다. 이들과의 심층면담은 출신국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연구진과 보조원이 수행하였다.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구사하는 연구진과 중앙아시아 출신의 연구보조원이 참여하였다.

면담은 2007년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되었다. 면담 장소는 주로 면담 참가자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나 연수기관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면담 진행시간은 1-2시간 정도였으며, 면담 회수는 2회 이내로 실시되었다. 면담은 참가자의 동의를 구하여 녹음되었으며, 녹음자료는 전사되어 분석에 활용되었다.

2) 면담 참가자 개관

면담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주로 국내 대학의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이나 국제교육진흥원, 한국의 대학 및 대학원에서 유학하고 있었으며 총 면담

참가자 수는 44명이다. 출신국별로 미국이 11명, 중국 8명, 일본 7명, 독립 국가연합 출신 9명, 기타국가 출신 청소년 9명이다. 기타국가 출신 청소년들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독일, 캐나다 브라질에서 주로 성장한 청소년들이었다. 면담참가 청소년의 연령층은 20대 초반이 주를 이루었다. 면담 참가자의 국가별, 연령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보다 자세한 면담참가자의 배경은 각 절별로 소개하기로 한다. 각 절에 소개되는 면담 참가자의 이름은 가명이다.

〈표 IV-1〉 면담참가자 분포

	참가자 수	성별	연령
재미한인 청소년	11명	여(8명) 남(3명)	18세(3명), 19세(3명), 20세(1명), 22세(1명), 24세(1명), 26세(1명), 27세(1명)
조선족 청소년	8명	여(6명) 남(12명)	20세(2명), 21세(2명), 23세(1명), 24세(2명), 26세(1명)
재일한인 청소년*	7(10)명	여(6명) 남(1명)	20세(1명), 21세(3명), 24세(1명), 25세(1명), 26세(1명)
고려인 청소년	9명	여(8명) 남(1명)	19세(2명), 22세(1명), 23세(5명), 24세(1명)
기타국가출신 청소년	9명	여(4명) 남(5명)	17세(1명), 18세(4명), 19세(2명), 20세(1명), 21세(1명)
전체참가자 수	44(47)명	여(32명) 남(12명)	17세(1명), 18세(7명), 19세(7명), 20세(5명), 21세(5명), 22세(2명), 23세(6명), 24세(5명), 25세(1명), 26세(3명), 27세(1명)

* 재일한인 청소년의 경우 면담에 참가한 사람은 10명이지만 3명의 나이가 30대에 해당되어서 분석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2. 국내 체류 재미한인 청소년 면담조사 분석

1) 면담참가자 개요

면담에 응한 재미 한인 청소년들은 총 11명이다. 이들은 주로 대학생이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의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있었다. 어학연수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다.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비용은 두 명 빼고는 대부분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두명은 한국에 계신 할머니가 지원을 해 주셨다고 한다. 이들과의 인터뷰는 한국어와 영어가 혼용되어 이루어졌고, 영어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영어 대화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인용되거나, 직접 인용이 필요한 단어의 경우 직접 사용되었다.

면담참가자들의 이민세대는 2세가 9명으로 대부분이었으며, 2명은 1.5세였다. 한국 방문 경험은 모두 2회 이상이었으며, 성장과정에 한인교회를 다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 IV-2> 재미한인 청소년 면담 참가자 개요

	성별	국적	연령	현재신분	종교	이민세대	한국방문	현재 체류방식	
유제롬	남	미국	18	대입 예정	기독교	2세	2번째 (5세때)	대학여름언어연수	한국교회 (한글학교)
정경은	여	미국	18	대학1	기독교	한국에서 출생만 2세에 이민	3번째방문	대학여름언어연수	한국교회 (한글학교)
김제인	여	미국	19	대학1	기독교	2세	3번째 방문 (2살, 작년)	대학 여름학기 언어연수	아버지가 목사
주현진	여	미국	20	대학2	기독교	1.5)세 (15세때 이민)	처음	대학여름학기 언어연수	한국교회
권주원	여	한국 (Green Card)	19	대입 예정	성당	1.5세	2-6세 미국거주, 중1때 미국행	언어연수	Korea town

이혜진	여	미국	18	대입 예정	기독교	2세	3번째	언어연수	한글학교
최필립	남	미국	19	대2	기독교	2	4번째	언어연수	한국교회 (한글학교)
홍은하	여	미국	27	대학원	기독교	2	3번째	언어연수 (자취)	한국교회 (한글학교) Korea town
박규영	남	미국	26	대졸	기독교	2	2번째	국제교육 진흥원	한국교회 (영어사용)
이화평	여	미국	22	대4	기독교	2	5번째	연세대 언어연수	아빠 중국계 엄마 한국계 (한국교회 가본 적 없음)
Caren Lee	여	미국	24	대졸	기독교	2세	2번째	서울대 (한국에서 초등영어 교사활동)	아빠 한국계 엄마 멕시코계 (미국교회)

2) 한국방문 동기

(1) 부모 및 가족의 권유

재미한인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동기는 부모의 권유가 많았다. 부모가 한국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습득을 권유하고 있다. 주로 엄마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자녀의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이 알려지고 있었고, 먼저 갔다 온 자녀를 둔 엄마가 친구들에게 전파하는 식으로 자녀의 한국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과거 이민 1세대들은 이민사회에 적응을 강조하며 모국어 습득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게 지배적이라면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한인 부모들은 한국어 습득을 권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제롬: 일단 우리 엄마가 친구들하고 말하다가 이걸 newspaper에서 찾았어요. 신문에서 거기에서 본 다음에 저한테... 한국 우리 어머니

- 5) 1.5세에 대한 접근은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7세에서 18세 사이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자세한 내용은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과 실태 보고서 참조)

친구들 애들도 여기에 많이 왔다 갔어요...고등학교 재학했으니까 친구들하고 그냥 놀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는 멀리 가니까 놀라고 했는데 엄마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배워야 하니까 여기 왔어요.

최필립: 부모님이 내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말 잘 못해서 한국말을 배우고 가족들하고 부모님과 친구들하고 KLI(Korean Language Institute) 프로그램 보구... 여기서 보내구... 네. 하구 제가 한국말 잘 못하니까 여기 많이 배우고 나중에 내 아들하고 말할 때...

질문자: 네. 나중에 필립씨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한국말을 해보라구?

최필립: 네.

질문자: 그거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김제인: 작년에 우리 오빠가... 오빠가 왔을 때 저도 생각에 내년에도 저도 와봐야지...

질문자: 오빠는 어떻게 해서 알게 됐어요?

김제인: 오빠 지금 GW. George Washington, D.C.에 있는 거기서 한국말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름 되니까 한국말도 공부하고 싶었는데 GW가 서울 university 연결 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대학교는 한국말 안 가르쳐 줘요. 너무 조그마서...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한국말 배운 적 하나도 없구요. 이번 여름에 배우려...

질문자: 아빠는 왜 여기 와보라고 그랬어요?

김제인: 아빠두 제가 대학교 가서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대학교가서 한국말 배워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없으니까... 저도 슬프고, 아빠도 슬프고, 엄마도 슬프고, 다 인제 한국말 어떻게 배울까 고민했는데 오빠가 갔다 오니까 좋다고 말해서 저도 이번에 왔어요.

(2) 자신의 의지

부모의 권유와 함께 한인 청소년들은 한국문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문화에 대해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외모에서부터 비롯된다. 또한 같은 처지의 교포들과 대화,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자신이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 연수를 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민족적 배경에 따른 한국어 연수 뿐 아니라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학 동안 한국어 연수과정을 등록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현진: 프로그램 5개를 추천을 받았었거든요. 그게….

질문자: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주현진: 저희학교에 가면 website가 있는데 Asian language니까 3나라가 있어요. 보통 중국, 일본, 한국어를 보통 해주거든요. 중국은 실제로 오면 스폰서를 해서 데려가는 거라서 다른 choice가 없고…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대학을 선택을 해서 proposal을 쓰내면 그걸 허락하면서 주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5개 중에 선택 하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서울대가 있었고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schedule이 맞았던 게 고려대와 연세대였는데 아무래도 뭔가를 대학생활을 보고 할려면은 그러니까 연세대쪽이 좀 더 변화가라고 그쪽을 추천을 해주셨구요. 개인적으로 친척이 이쪽에 살아서 이쪽에 있는 게… 가까이 있는 게 편할 거 같아서 그쪽으로 했어요.

실질적인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학점을 따기도 하지만 자신의 외모를 통한 정체감 고민, 부모와의 대화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한다.

정경은: 네. 그냥 거울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한국 사람인지… 근데 그것도 그렇구요. 우리 다른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다른 교포들이랑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것 때문에 오고 싶고… 우리 부모님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것 때문에 왔어요.

이혜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연세 program… 한국말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국말을 배우고

싶으니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말을 하고 싶으니까...

질문자: 그러면 부모님은 집에서 한국말로 쓰는 거예요?

이혜진: my dad. 아빠는 영어가 편해요. 엄마랑 똑 같아요

대학교 입학 전이나 대학교 재학 중에 한국어 연수를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다니다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부모의 고향인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한국어를 몰라서 부모님과 대화할 수 없었는데 한국을 방문하여 문화와 역사를 배움으로써 부모와의 원활한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다. 국제교육진흥원의 장기 연수 프로그램에 등록했던 박규영의 경우 주변에 백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오클라호마 시에서 살며 경영학을 공부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의 반복되는 일상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일이 아님을 깨닫고 그 일을 그만두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3) 주변인들의 권유

또한 한인 커뮤니티에 사는 경우는 친척의 권유나 주변 선배들의 경험에 의해 한국어 연수에 대한 좋은 점을 전해 듣고 자신도 한국어 연수를 결정하기도 한다. 재미한인이 많이 다니고 있는 뉴저지의 고등학교를 다녔던 권주원의 경우 연세 프로그램을 다녀온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들의 추천으로 한국어 연수를 받으러 왔다.

권주원: 그냥 대학 들어가기 전에 한국어 표준말도 배우고 쓰기가 못하니까 그런 걸 배우면서... 6년 만에 나오는 거니까 놀러...

질문자: 좋은 부모님이시네... 연세 프로그램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런 프로그램 있는 거?

권주원: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연세 프로그램 다녀온 언니들을 알아요. 좋았다고 재밌었다고 전하기에... 그리고 아빠도 거기 괜찮으시다고...

질문자: 그 언니들이라고 하면 뉴저지의 계시는...

권주원: 같은 학교요.

질문자: 같은 학교 고등학교 때….

권주원: 네.

3) 한국체류 과정에서의 경험

(1) 한국체류와 한인과의 교류

한국에 체류하면서 재미한인 청소년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온 한민족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같은 재미한인들 중에서도 다양한 지역에서 온 학생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며 다른 국가에서 온 한민족청소년들을 만나기도 한다.

유제룡: 여기 프로그램에 들어 올 때요. 걱정이 뭐 친구들 많이 없으면 그거 걱정이 있었는데 애들이 다 미국에서 왔으니까 친구들 만드는 것도 쉽고….

질문자: 좋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많은 Korea-American 친구들 만나서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유제룡: 네.

유제룡: 미국관련 다 아니까. 맨날 같이 나가요 재미있어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는 재미한인 친구들과 교류할 기회가 없었지만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재미한인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향후 미국에 가서도 이들과 친하게 지낼 생각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 각지에서 온 한인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일부는 유흥을 즐기는데에 관심이 있는 반면, 일부는 전통한국문화를 즐기며, 또 일부는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이다.

권주원: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방에 있거나 집만 왔다갔다하는 애들

있고…. 어떤 사람은 한국문화 좋아해서 박물관도 가보고 인사동도 가보고 싶어 하고 그래요….저는 그냥 주로 저희 반 친구들이나 대학 갈 사람들하고 정기모임 가졌고, 그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구나 알게 된거고…. 이 연세 프로그램은 저희 반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노는 거가 pub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건전하게 놀고…. 자기 일들 충실하게 자세도 똑바르고….

또한 재미한인 청소년들뿐 아니라 한국에서 타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청소년들을 만나 이들에 대해 알게 된다. 국제교육진흥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았던 박규영은 러시아와 일본에서 온 한민족청소년들을 접하게 된다. 이들을 통해서 다양한 성향을 지닌 한민족 차세대들에 대해 알게 되고, 이들의 이민사, 국가 상황에 대해 알게 된다. 하지만 다른 국가 출신끼리 쉽게 어울리지 못함을 지적한다. 일본에서 온 한민족청소년들은 자기들끼리, 러시아에서 온 친구들은 또 러시아 지역 끼리 그룹(**clique**)이 형성되어 있어서 서로 섞이지 않음에 대해 지적한다.

어학연수를 받고 있는 재미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의 대학에서 이들의 한국어 습득을 돕기 위한 제도로 도우미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언어교환 프로그램으로 재미한인 청소년들은 한국 친구로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친구는 영어를 배우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은 한국인과의 교류를 하게 된다.

김제인: 솔직히 말하면 제 도우미는 아니에요. 원래 여기서 신청해서 서울대에서 도우미를 짝으로 만드는데 저는 신청할 때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생기니까 친구 도우미가 한번 만났어요. 근데 도우미 오빠가 그 영어 대화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deal 했어요. 저는 한국말 배우고 오빠는 영어 배우고 그래서 같이 연습하고 같이 도우미 하게 됐어요.

질문자: 그래서 도우미를 하니까 많이 도움이 되요?

김제인: 네. 오빠랑 같이 한국말 하니까 재밌어요.

(2) 한국 방문 이전과 방문 이후의 인상 및 느낌 차이

① Hi Tech사회, Modern 사회

한국을 방문하여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이들은 한국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사회라는 인식을 갖는다. 특히 서울생활은 이들로 하여금 한국이 매우 현대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도시 생활과 일상화된 테크놀로지의 사용은 이들로 하여금 한국이 보다 선진적이라는 인상을 받게 한다.

유제품: 근데 이거 **technology** 같은 건 제일 좋고 **cell phone**도 다 있고 택시도 타는 것도 싸요. 안 좋은 거는 한국에는 차들이 안 비켜주고 막가고 냄새도 조금 심해요.

최필립: **It's more modernized.**

질문자: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최필립: **technology**가 그 전화하고, 택시, 지하철 **system**이가 **very modernized**. 컴퓨터 하고 다 다 빨라서 **everything is really advanced...** 한국 사람 가끔 컴퓨터 많이 하는 거하고, 공부 많이 하고, **math** 잘 하는 거...

② 유교적 관행이 지배적일 것 같았으나 보다 “liberal”하다

또한 미국에서 이들은 한국사회는 유교적인 관습이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보다 자유분방(**liberal**)함을 느낀다. 특히 홍대 앞의 풍경들은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수용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품기도 한다.

정경은: 아... 그럼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은 되게 자유로운 곳이고 한국은 약간 그렇지 않다. 노인이 어린아이들 무시하고... 이렇게 남자들도 여자를 무시하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엄마도 그런 생각을 한 거 같아요. 그런 것도 그렇구요. 가정에 대한 생각도 아주 중요하다고... 아니 친척하고의 가정에 대한 생각이 아주 강하다고 생각하고...여기 와서 그게 제일 **liberal**한게 걱정했어요.... 뭐 홍대

앞에는 이렇게 조금 특이한 사람도 많고 이렇게... 사람 종류가...
종류?

질문자: 그렇죠. 흥대는 한국에서도 특이한 경우죠.

정경은: 미국에서도 그건 특이한데요. 미국에서는 그렇다 그냥 accept
받아들이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기도 그런가요? 아닌가요? 그런 이
상한...

질문자: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정경은: 그러면 생각보다 이렇게 더 liberal... 근데 미국보다는 조금
더 귀엽게 차리고 다 높은 신 신고 그건 맞는 거 같아요.

③ 재미있다

특히 미국에서 조용한 교외에 살다 서울에서 어학 연수를 받는 학생들은
할 것도 많고 재미있는 것이 많다고 좋아한다. 특히 한국 드라마를 통해
본 사람들의 걸모습은 실제와는 많이 다름을 느끼지만, 대체로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인다.

김제인: 제 고향은요 조그만 하구요. 뉴욕가려면 30분~ 40분 걸려요.
저 차 없고 운전도 못하니까 가기 귀찮아요. 가면 재밌지만 가기 귀
찮아요. 그래서... 하고 대학교도 조그마서 보스턴 큰 도시 갈려면
한 시간 걸려요. 되게 불편해요. 그래두 한국은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할 게 많아요. 어... 뭐 제가 한국 아는 것은요. 그냥 드라마하고 텔
레비 볼 때 그거밖에 몰라서요. 한국 오기 전에 남자들 다 멋있고 옷
다 잘 입고 막 재밌고 깨끗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남자들
이 다 안 멋있고 그냥 근데 더 재밌어요.

이혜진: 그런 거 아직 있는데요. 한국에 온 친구들... 미국에 공부하
러 가잖아요. 미국이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와보
니까 알겠어요... 할 꺼가 많잖아요... 노래방도 있구요. 갈 데도 많구
요. 한국이 너무 재밌어요. 대학교 끝나면 여기 와서 살고 싶어
요...teach English something... 살고 싶어요.

④ 부모님의 관행을 이해하게 되었다

한국계 아버지와 멕시코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Caren의 경우 미국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일상생활에서 예의범절을 강조하였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예컨대 방에 앉아 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일어서서 맞이하라고 강조하였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체류하면서 이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그녀는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하였고 초등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윗사람에게 지켜야 하는 예절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4) 정체성

(1) 한국어 사용, 한국 방문을 통한 정체성 확인

면담에 참가한 재미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가 한국어 사용을 강조하는 편이다. 미국에 살지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에 입학하기 전이나 대학의 여름방학 기간 중에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유제롬: 어 엄마가 저한테 맨 날 한국말을 못하면 어떻게 해 한국 사람이니까 전 가족하고 말하면 맨 날 미국말을 하니까 우리 엄마가 한국말을 좀 해라라고 말해줬어요.

질문자: 부모님하고 얘기 할 때는 그냥 영어로 하시고? 아니면...

유제롬: 한국말로 다해요.

질문자: 그럼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한국말로 하셨어요?

유제롬: 네. 부모님한테.

특히 윗 형제가 한국어 연수를 받는 경우 동생들도 같이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제롬의 경우 누나와 함께 연수를 받고 있었으며, 최필립의 경우는 내년엔 동생이 연수를 받으러 올 계획이다.

이민 1세대인 부모는 한국말에 익숙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인 자녀는 미국학교에서 교육 받고, 미국사회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영어가 제1언어가 된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 대화에서 부모는 한국말을 사용하지만 자녀들은 영어로 대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대간 많은 단절감을 느끼던 재미한인 청소년들은 한국어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보다 친밀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장래의 직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된다.

정경은: 네. 근데 예전에는 제가 영어로 말하고 부모님이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질문자: 아 미국에서 같이 살 때는?

정경은: 네. 그래서 특히 화날 때는요. 제가 미국말로 바꾸고 우리 엄마하고 아빠는 한국말로 바꾸죠.

질문자: 이번에 오고 나서 부모님이랑 통화하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 그러지? 한국어가 많이 늘었던가 프로그램 온 거를 좋아하세요?

정경은: 네. 좋아해요. 우리 아빠는요 조금 한국에 대한 생각이 나쁘거든요. 어렵게 살아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이 안 온 거 같아요. 안 왔는데요. 우리 엄마는 아주 자랑스러워해요. 한국에 대해서….

질문자: 그러면 한국어 배우라고 부모님이 하시지 않아요? 아버님의 경우는 안 하실 수도 있겠네요? 어머니의 경우는….

정경은: 네. 아니 그래두 우리 아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질문자: 경은씨가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정경은: 네. 아빠도 특히 한국 사람들이랑 생활하거든요. 일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취직할 때 그것도 중요하고… 내가 동양 사람이

니까 미국회사에 취직을 해도 동양 사람하고 대화를 더 많이 할 거 같다고 생각해요.... 일 때문에도 중요하고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네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제인: 네. 우리는 부모님은 계속 한국말로 쓰고요. 어렸을 때 오빠랑 저 한국말 잘 몰랐을 때 영어로 같이 대화했는데요. 엄마아빠는 한국말. 우리는 영어. 그런데 이제 좀 배우니까요. 한국말로 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 사용과 함께 한국 방문은 한국문화를 습득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주변에 재미한인 친구들이 많은 권주원의 경우 미국에 사는 한인으로써 한국문화를 아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특히 1.5세로서 한국어에 익숙하다는 점도 한국문화에 대한 거리감 없이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질문자: 그리고 연세 프로그램 같은 거가 주변에 같은 교포 친구들이나 선배 언니들이나 다 한번 썩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 같아요? 한국에? 한국에 여름방학 때...

권주원: 네. 다들 나왔다... 제 친구들도 연세 프로그램 안 해도 나왔다 들어가거든요. 주로...

질문자: 나와 보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권주원: 그런 거 같아요. 한국인인데 한국 문화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있어도 한국인인데...

아버지가 중국계 이민 2세(4세 때 미국으로 이민)이고 어머니가 한국계 이민 1.5세인 이화평의 경우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2학년 때 한국방문 경험을 통해 한국문화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엄마의 가족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는 계기가 된다.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부분이 엄마의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것임을 알게 되고, 자신의 외가 방문을 통해 자신과 엄마의 연결고리를 찾고 싶어 한다.

(2) 외모, 음식, 가족을 통한 정체성 인식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재미한인 청소년들은 한국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미국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느끼고 한국인의 후손이라고 느끼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꿈을 갖고 있는 박규영의 경우 자신도 한국에서 한국어를 하게 될 때 “외국인”이 아님을 느끼게 될 것 같다고 말한다. 한국에서는 자신에게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할 것을 요구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지고 있다.

일부 재미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체류기간 동안 한국에 적응을 하게 되기도 한다. 일단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데서 편안함을 느끼며, 가장 기본적으로 음식이 마음에 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경은: 제가 미국에서 하는 생활보다는 나은 거 같아요.

질문자: 왜요?

정경은: 제가 미국에서는 제가 말하듯이 서양친구들만 사귀었거든요. 2명 한국 애들 있었는데 걔네들도 별로 친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오니깐 음….

질문자: 편해요?

정경은: 네. 편해요. 살다보니까 아니 여기서 5주간 살다보니까 여기 한국이 좋은 거 같아요.

질문자: 어떤 점이 살기 좋은 거 같아요? 경은씨를 편하게 느끼게 해주는 점이?

정경은: 그냥 얼굴 동양 얼굴….

질문자: 아. 경은씨랑 유사하게 생긴 얼굴들….

정경은: 네 .그것만 봐도 보는 것도 편하게 느껴지고….

근데 그것도 좋구요.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질문자: 경은씨랑 유사하게 생긴 사람이 많은 게 좋아요?

정경은: 네. 그렇구 음식도 좋고 물론….

질문자: 예를 들어 어떤 음식 좋아해요?

정경은: 그냥 한국 음식 다.

특히 부모님의 한인 정체성 강조와 함께 한국식 음식에 대한 자연스런 애착은 자신이 한인 정체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된다.

김제인: 저는 부모님이 미국에 있을 때 미국사람 아니라고... 꼭 한국 **Korean-American**이라고 그렇게 키우셔서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구 한국 음식이 더 맛있구... 네. 대학교가서 대학교 식당에 진짜 음식이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갈 때 라면하고 핫반하고 도시락 김하고 같이 싸먹고 고추장하고 그거 먹을 때 아~ 한국 사람이구나...

멕시코계 엄마와 한인계 아버지를 둔 **Caren**의 경우도 한국식 음식을 먹을 때, 한인계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날 때는 코리안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고 했다. 특히 한인들은 강한 가족유대와 보다 닫힌 커뮤니티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한인 배경과의 연결을 인식시켜준다.

Caren: 한인들은 매우 긴밀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강한 가족의식은 그래서인지 다른 집단이나 문화, 다른 인식들을 거부하기도 해요.

특히 **Caren**은 자신의 한국 이름을 이야기 하면서 남자 이름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한다. 위로 언니 둘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아들을 원해서 한국식 아들 이름을 지어놓고 있었다고 말한다. **Caren**은 미국에서는 전혀 몰랐던 아버지의 가족들이 한국에 많이 살아계셔서 방문 기간동안 이들을 만나느라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한다.

역시 중국계 아버지와 한국계 엄마를 둔 이화평의 경우도 한국 음식을 먹을 때, 또 한국 농담을 이해할 때 자신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고 하였다.

5) 이민사회에서의 위치

(1) 미국사회에서 유색인종으로 살아가기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재미한인 2세들의 경우도 자신의 외모에서부터 “이방인”의 취급을 당하고 있다. 다양한 이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시아계 외모는 이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며 그에 따라 스스로도 한국말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유색인종의 경우 미국인으로 단지 국가 언어인 영어만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완전함을 느끼게 하는 환경임을 알 수 있다.

유제룡: 한국말 잘 못하니까 한국사람이니까 한국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못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미국애들이 한국말 좀 말해라 그렇게 막 하니깐 한국말 아니까 괜찮아요.

외모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방문 경험이 없이 미국 주류 집단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을 때는 한국적인 외모나 관습 등에 대해 “채피함”을 느끼기도 한다. 거울을 볼 때 마다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느낀다는 정경은은 10대 초반에는 한국과 관련된 문화요소들에 대해 숨기고 싶었지만 한국 방문 후에 나뉠대로 한국 문화와 관습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된다. 미국에서 사는 동안 서양 친구들과 어울릴 때 뭔가가 빠졌다는 느낌이 들거나 같은 “교포들”에 대한 생각도 그리 좋지 않았지만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런 생각이 바뀌는 것 같다고 말한다. 즉, 주류집단이 아닌 소수집단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민족적 배경이나 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았던 반면, 자신의 민족적 문화적 근원지를 방문하고 경험하면서 또 다른 방식의 문화가 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정경은: 네 11살 때 제가 그때쯤에는 한국에 대한 첩피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점심때 이렇게 밥 싸갈 때 한국음식 싫다고 그래서 샌드위치랑 샐러드만 싸달라고 그랬는데 거기 갔다오니까….

질문자: 한국 6개월 갔다오고 나서?

정경은: 네. 한국에 대한 프라이드 이렇게 자랑스러운것을 느꼈어요.

질문자: 6개월 동안 뭘 했길래….

정경은: 아무것도 안했는데 그냥 제가 이게 나의 생활이다. 이렇게 서양사람들 앞에서는 안 바뀌도 되는 거라고 느꼈어요.

질문자: 존중받아도 되는 권리고….

정경은: 네. 하고 이제 나뉘요 이렇게 음식도 나누고….

질문자: 서양친구들이랑….

정경은: 네. 우리집에 맨 날 갈비하고 새로운 거… 빈대떡도 해보고….

질문자: 전도 해주고 좋아해요?

정경은: 네. 그래서 이제는 창피한거는 없는데요. 나누는 걸 한국스러운걸 자연스럽게 못 나누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떨때에는 뭔가가 없어요. 서양친구들하고 있을 때 뭐가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

질문자: 채워지는 거 같아요?

정경은: 네 채워지는 거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 교포들에 대한 생각도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더 그러는 거 같아요.

정경은: 네. 저는 미국에서 하는 거는 교육을 미국에서 받았으니까 편한데요. 뭔가 빠진 거 같아요. 미국에 살면서….

질문자: 그런 걸 한국에서 채우고 싶은 거예요?

정경은: 네… 뭐 서양친구들은 괜찮은데요. 이렇게 한국적인 조금만 일을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김치나 아니면 한국에 대한 농담 같은 것도 못하고….

특히 이민1세대인 부모들의 영어 장벽 때문에 이민사회에서 무시당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는 외모적 차이와 더하여 인종차별적인 경험으로 이어진다. 한편, 아시아계 이민자 자녀들이 학업성취우수자라는 이미지는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정경은: 인종차별 어떨 때는 느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영어를 완벽하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때는 엄마가 무시되니까 그것도 창피하고 어떤 때는 그거하고 그게 제일 어려웠던 거 같아요.

질문자: 내가 한국인으로 살면서 프라이드를 느꼈다던가 그런거는..?

정경은: 아... 프라이드라던가 그런 건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동양 사람들이 공부 잘한다고 맨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떨 때는 괜찮았어요.

반면 주류집단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뿐 아니라 스스로 한국의 민족적 배경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문화만 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미국문화 이면에 자리잡은 한국문화를 아는 것은 더 넓은 시야를 갖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김제인의 경우는 자신의 두 가지 문화적 배경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더 넓은 시야를 갖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김제인: 뭐, 그...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문화만 아는 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다른 여기 background가 있으면 좀 더 open mind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갔을 때 가더라도 더 뭐 open mind로 봐줄 수 그 문화의 문화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고 또 다른 미국 생각 뒤에 한국 생각이 있잖아요. 그 것 때문에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2) 한인 집단과의 교류에 어려움

재미한인 청소년들은 주류집단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이민자 자녀들 간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인 이민자 2세들의 정형화된 이미지에 대해 반감을 가지면서 스스로는 이들과 차별을 두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는 한국계 학생들과 자신을 차별 화시키고자 노력한 경우도 있었다.

정경은: (교포들의 경우) 조금 남자들은 마초하고 여자들은 귀엽고 그런게 조금 싫어서…. 그렇고 그래서 교회에 가면 교회말씀 성경말씀도 안 듣고 이렇게 장난치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랑 어울린 거 같아요. 하고 저는 드라마같이 조금 이렇게 낮게 있잖아요. 높은 생각이 아니라 조금 낮은 생각이…. 그리고 스스로 좋은걸 찾지 않고 다른 사람 따라가고…. 그렇게….

저도 어떨 땐 저도 교포들은 다 똑같은 사람같이 보여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아닌 거 같이 보여요. 종류도 있잖아요. 스타일….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연세 프로그램에서 날마나 클럽가고 장난치고 술 마시는 애들 많은데 …나 같은…. 우리도 나가서 노는데 그렇게 심하게 노는 건 아닌 거 같아요. 한국말도 배우고 이렇게 하고 문화도 배우고….

한인교포 자녀들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자신이 미국에서 경험한 사람들과는 다른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음을 알게 되어 바뀌기도 한다. 주현진의 경우는 중학교 1학년에 이민을 가서 이미 미국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이민 온 한인학생들과 어울리는 데서 어려움을 겪었다.

주현진: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고등학교 기숙사를 2년 살다가 다시 대학교 기숙사를 갔는데…. 한국인 유학생이라던가 갓 이민 온 1.5세대가 굉장히 많았고…. 그 뒤에는 2세가 많았거든요. 처음에 1.5세대가 많았을 때에는 한국인들이 한국말을 더 많이 썼고 끼리끼리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외국 학생들이랑 다니니까는 좀 관계가 안 좋았던 건 아닌데 친하게 지내질 못해서…. 어떤 면에서 보자면은….아마 그 당시에 한국말 굉장히 안 썼어요. 그리고 한국인 교회도 다니

다가 옮겼었고 미국교회를 다녔었고 그래서 첫 2년 정도 한국인이랑 굉장히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대적으로 생각이 되었어요.

질문자: 미국사회에 잘 적응해보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주현진: 그렇다기보다는 첫 2년 동안은 한국 사람이랑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간 뒤에는 어떻게 보면 가치관의 차이가 생긴 거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울리지 못하고 한국인들은 모여서 ESL도 같이 듣고 같이 몰려다니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를 다니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영어도 정규과목을 듣고 하니까 그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과목부터가 다 달라지고 하니까...

(3) 1.5세의 어려움

중, 고등학교 시절 이민을 간 1.5세의 경우에는 미국 사회 적응에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 당연한 상식이겠지만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받다가 언어가 다른 환경에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사실은 이들의 적응과정을 극도로 힘들게 한다.

권주원: 중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와서 처음에는 적응 잘 못했어요.

질문자: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얼마쯤 지나고 나니까 괜찮아졌어요?

권주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요.

질문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권주원: 들어가면서 그때 선생님이 숙제 주시는 것도 다 알아듣겠고 수업도 제대로 알아듣고 미들스쿨 2년 다닐 때에는 간단한 거 친구들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는...

주현진: 미국도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든 게 언어... 언어 때문에 힘들었어요... 언어는 제가 들어갔을 때가 ESL이 처음 생긴 학교인 데다가 90%가 백인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들이 그러니까 외국문화를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호기심도 많았고

잘해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없었는데... 제 자신의 콤플렉스가 문제가 된 거 같아요. 일단 학년이 1년이 늦었으니까 나이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구... 그리고 언어보다는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잘 하던 것들도 거기 가서는 도움을 주던 제가... 도움을 주던 쪽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제가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게 힘들었어요.

6) 거주국에서의 한인단체 및 한국문화 관련 생애경험

(1) 한국대중문화 향유

재미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 대중문화를 즐기는 경우가 많았다. 2세들의 경우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친숙도는 부모나 형제 등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가정에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시청하고, 한국제품을 선호하는 경우 자녀들은 한국 대중문화를 접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유제롬의 경우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고 있으며, 한국 대중음악을 즐기는 누나의 영향으로 에픽하이, NRG, 슈퍼주니어 등 웬만한 한국 가수들을 다 알고 있었다. 이메일 아이디도 자신이 좋아하는 그룹인 NRG를 따서 만들었다. 역시 2세인 김제인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 한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 인터넷 사이트 검색보다는 유튜브 검색을 통해 나오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

질문자: 그럼 Korea 드라마 같은 거는 어떻게 해서 봐요?

김제인: 유튜브. 유튜브 같은 거 구글에서 치고 찾아요.

질문자: 그럼 구글에서 치면 코리안 드라마가 나와요?

김제인: 네. 왜냐면 지금 다른 나라에서 한국 드라마가 최고잖아요.

질문자: winter-sonata 치면...

김제인: 네. 나와요. 영어로 치면 한국말로 나오고 영어로 서치하면 또 나와요.

이민 2세인 이혜진의 경우도 한국 드라마나 대중가요를 좋아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만나게 된 한국인 남자친구의 영향으로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고 한다.

질문자: 또 Korean drama 중에 뭐가 재미있었어요?

이혜진: 다 재밌죠. 저는….

질문자: 예를 들면….

이혜진: 저는 ‘내 이름은 김삼순’, ‘파리의 연인’, 저기 ‘winter….’

질문자: winter sonata? 배용준 나오는 거… 최지우….

이혜진: I think so. 네. 그게 되게 재밌었구요. 영화도… 한국영화가 저한테는 너무 재미있어요. 정확하게 타이틀은 모르겠는데요.

질문자: 그러면 Korea pop-song 들어봤어요?

이혜진: 네.

질문자: 그럼 Korea pop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혜진: 친구들이요. 제가 제일 친한 친구들이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때문에 좋아졌어요.

반면 1.5세의 경우는 한글과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한국드라마나, 영화, 대중가요 등을 접하고 있었다. 1.5세인 주현진의 경우는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한국영화 DVD를 빌려 보고 있었다.

주현진: 저는 근데 가요를 봤을 때도 12학년 때 시간이 많을 때에만 봐서 그 당시만 노래만 알고 그 전후로는 잘 모르는 편이고… 한국 프로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한번 놓치면 계속 놓치니까 안 보는 편이고… 영화는 많이 봐요. 학교도서관에 많이 있어서 빌려다 봐요.

질문자: 한국 영화가 CD로 있어요?

주현진: 굉장히 많아요.

질문자: DVD가….

주현진: 한 100개 가까이 있는 걸로 알아요. 책도 East Asian library라고 이라고 해서 짝 모아놨어요. 한국어 책이 꽤 많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권주원의 경우도 미국에 살면서 한국 드라마나 대중가요를 꾸준히 즐기고 있었으며, 한국 청소년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싸이월드도 사용하고 있었다.

권주원: 싸이월드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연락 끊긴 친구들 연락 됐어요.

질문자: 미국에서도 계속 한국 드라마나 가요나 이런 것들 듣고 그랬어요.

권주원: 네. 한국가요 되게 좋아해요. 제가 특히 에픽하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컴퓨터에서 드라마 보시니까 가끔 그런 거 보고 계속 드라마보고...

질문자: 본 드라마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권주원: 김삼순. 시트콤에서요. 안녕 프란체스카... 거침없이 하이킥.

자신이 다른 교포들에 비해 더 외국적인 것 같다는 정경은의 경우도 유명한 한국 드라마인 겨울연가, 천국의 계단, 패션 70 등을 보고 재미있었다고 말한다.

(2) 한국학생 클럽, 한국어 학교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재미한인 청소년 2세들의 경우 어린 시절 한국교회를 다니며 교회 부설 한글학교에서 한글을 배운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어렸을 때의 한글 학습에는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1.5들의 경우 한국에서 교육을 받다가 이민을 갔기 때문에 교회에서 2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미국인이나 2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준 경험도 있었다. 한국에 대한 관

심은 학교에서 한국어 관련 수업을 만들거나 관련 클럽 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주현진: 그래서 그 2세대끼리 모아다가 2세대이랑 외국 애들이랑 해서... 저희들이 한국말을 가르치다가 저희들이 independent class 같은 거를 해서 저희들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주변에서 교수님들 모셔와서 강의 같은 것도 가끔 해주시고 한국에 관한 게 아니더라도 그런 걸 했었어요.

권주원: Japanese club은 있었어요. Korean club은 없었구요. Korean이 더 많았는데두요. Japanese club에서도 주로 다 한국 사람이었고 유일한 Asian club이었어요.

질문자: 근데 왜 이름이 Japanese club이예요?

권주원: 몰라요.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제가 club에 있으면서 언어를 배우는 건 그런 거 아니구요. 어떤 movie나 animation 보여주기도 하고 나중에 게임을 하거나

질문자: 원래 있었던 게 Japanese club이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면서 Korea 애들이 많았으니까...

권주원: 네.

7) 진로 선택을 위한 전략

한국어를 배우면 향후 진로 선택에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사업 분야에서 국제적인 업무를 담당하면 한국에서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때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유제룡의 경우는 한국어를 배워서 향후 사업이나 건축 분야의 진로에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최필립의 경우도 한국과 관련된 국제 비즈니스 분야로 진출하고 싶어한다. 또 미국 뿐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이혜진의 경우도 중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국제 업무에 종사하고 싶어한다.

유제룡: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면 그러면 나중에 다시 돌아 올거죠.
business 같은데... business랑 architecture 들어가면 거기서 잘하면 한국에 와서 뭐 여기서 하던지 잘 모르겠는데...미국에서 배우고 한국말 아니까 같이 되면 좋게 생각 되요.

질문자: 뭐 그러면은 필립씨가 생각하기에... 이런 Korea cultural background 같은 거가 좀 나중에 advantage가 될 꺼 같아요?

최필립: 네. business하면 international 그렇죠.

질문자: 그렇죠. global business니까...

최필립: 한국지금 11th trade

질문자: 네. 11th... 그래서 Korea culture나 language 배워두면...

그게 인제 your future career 에 좀 장점 advantage가 된다...?

최필립: 그리고 한국 사람들 한국말 못하면 안 되니까...

질문자: 아까 international business. 한국에서의 경험이 career에 미래의 직업이랑 relationship 있을 거 같아요?

이혜진: 네. 그럼요. 중국 경제가 막 일어나고 있구요. 내 한국 배경이 중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사업과 관련된 일 뿐 아니라 장차 한국과 미국을 연계시키는 외교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하였고 미국에 살더라도 한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한다.

정경은: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미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을 돕구 교포들을 도우는 일도 하고 싶어요. 한국말을 사용하고 한국사람과의 관계를 일으키고 싶어요. 만들어 가는 거죠. 언어를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민 온 사람한테 그래서 외교적인 일을 안 해도 미국에서는 그런 이민 온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Biostatistics를 공부하고 향후 관련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주현진의 경우 장래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몰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경우도 있다. 향후 취업을 했을 경우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역시 1.5세인 권주원의 경우도 장래 직업을 약사로 설정하고 있지만 한국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어한다.

주현진: 연결은 별로 안 될꺼 같은데...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제가 한국에서 국사를 배우고 싶었는데... 국문학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꿈은 바뀌었지만 그때 생각했던 걸 마저 마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모르면 안 될 거 같은 게 굉장히 많을꺼 같아요. 제가 1가지 언어를 더 한다는 게 어차피 제가 연구소를 가면 미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도... 그런데 그런 걸 해서 언어가 통한다는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질문자: 그렇고. 그러면은 좀 이런 Korea... 한국문화 라든지 어떤 이런 한국의 background 이런 거 아는 거하고 장래에 career하고 그다지 연결되지는 않죠?

권주원: 약대를 가려면 약사가 되려니까... 약사가 되면 한국에서 하던지 미국에서 하던지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질문자: 진로를 한국에서 할지 미국에서 할지 가능성은 열어놓고...

권주원: 네.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한국말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질문자: 그래서 약사를 할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가능성도 생각하고 만약에 다른 medicine science 그냥 미국에서...

권주원: 미국에서 해도 되고...

한국에 체류하며 한국에서 교사 일을 하고 싶어하는 박규영의 경우 한국어를 더욱 유창하게 하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MIS관련 전공을 마치고 회사에 취업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 둔 경험에 있는 그는 한국에서의 교직에 관심을 두고 있다.

향후 작가를 지망하고 있는 김제인의 경우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적 정서를 개발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재미한인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하는 그녀는 한국에 와서 자신이 진짜 한국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의 민족 정체성이 진로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로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홍은하의 경우 한인계 배경을 부정할 수 없음을 인식한다. 특히 그녀의 전공분야는 냉전시대 역사로 한국전쟁에 대한 사료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에 따라 한국에 와서 언어연수를 받고 한국역사에 대한 이해가 배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사회에서 소수민족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 및 문화가 학계에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민족적 배경을 아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자 진로 결정시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8) 고국과 해외 한민족 연계 방안

(1) 한국인들과의 캠프 프로그램 제공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재미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고국에서 이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인들과의 캠프 프로그램이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한국을 알고 한국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교포들”끼리 모여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한국인들과 교류하며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캠프가 유용할 것이라 제안한다.

정경은: 네. 캠프 할려면요. 근데 혼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교포가 한사람이구 한국 사람이 많고 그렇게 되어 될 거 같아요. 지금 교포들이랑 있으니까... 자꾸 미국말로 하고 한국어 공부도 잘 안되고 연습도 못하고 하니까...

(2) 고국 방문을 위한 정보 제공

또한 고국 방문을 위한 정보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한다. 가족이나 친지가 한국방문 관련 정보를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김제인: 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있으면 한국에 오고 싶지만 어떻게 와야 할지 모르잖아요. 저는 다행히 가족이랑 오빠가... 가기 전에 없으면 부모님들이 한국에 모르면 저 혼자 해야 되잖아요. 도와줄 사람이... 아는 사람이 저를 도와주던지 이메일이라던지... 같이 미국은 이렇다 한국은 이렇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3)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해외 한민족으로서 각 거주국에 살아가면서도 고국에 대한 이미지는 이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에 따라서 고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이미지 개선 사업이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한다. 재미한인 1.5세인 주현진의 경우 “교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그런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거 같아요.”라고 말한다. 그녀는 2007년 4월에 재미한인 1.5세인 조승희 총격사건이 있고 난 뒤의 한국 정부의 처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주현진: 왜냐하면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살잖아요. 그때 조승희 사건이 터졌을 때예요. 버지니아잖아요. 어떤 의미로 따지자면 한인 교포기 때문에 게다가 시민권이 한국에 있는 교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는 거는 당연하데... 그런 거는 말해도 되나...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사적으로 이 사람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게... 우리가 돕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는 몰라도 공식적으로... 한국 사람이라고 품어주는 사상이 생기니까 품어주는 사상만큼이나 격리되는 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되게 잘하는 게 자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많이 숨기잖아요. 배타적이고... 방에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인은 어떻다 어떤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런 거 개발하는 게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질문자: 전반적으로 국가의 이미지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주현진: 그런 거 같아요. 만약 국가의 이미지가 많이 알려지면 한국 국민으로서 더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친해질 수밖에 없고... 인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발전해도 국가가 그걸 홍보 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다라고 말하는 자세가 부족하니까 그 만큼 더 모르는 거 같고... 역사적으로도 왜곡되는 사실이 굉장히 많은 거 같고... 그래서 일본이랑 역사왜곡 같은 것도 나라에서 뉘가를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바꾸고 했어야 하는데 너무 수동적으로 대응을 한 거 같아요.

주현진: 제가 굉장히 화났던 사건이 요코야기라는 책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일본정부에서는 굉장히 이건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대처했는데... 한국은 한국 국민들이나 이런 데는 서명운동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랬는데... 국가적으로 한국 정부가 공식적인 서명을 한 게 없더라구요. 그게 굉장히 실망적이었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손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문화적인 것은 지켜줘야지 나중에 그만큼을 따라 갈 수가 있는데... 문화적으로 열등하다 그런 게 너무 우유부단하게 넘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경제적으로도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미지잖아요. 같은 제품 있을 때 일본 거를 사는 이유는 좋고 강하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4) 행사 개최

먼저 한국의 주요 인사들이 재외한인 커뮤니티를 방문하여 행사를 여는 것을 제안한다. 공연이나 강연 등을 통하여 재외한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모으고 고국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주현진: 제가 제일 많이 봤던 게 행사거든요. 아무래도 제일 컸던 거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인의 행사라는 게 한국인의 무기잖아요. 보통 보편은 공연을 한다거나 음식을 한다거나 유명한 사람이 와서 좋은 말을 해주고 같다거나 그런 거 하면은...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것을... 특히 제가 사는 곳은 굉장히 조용하고 또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심심해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느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한인들이 모여서 하는 큰 장소가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으니까... 어떤 교회에서 무슨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그런걸 보면 모이는 건 좋아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안 만나게 되는 거 같아요.

(5) 대사관 홈페이지에 한국방문관련 정보 제공

한국 대사관에 한국에 관한 정보를 더 강화하는 것도 제안된다. 보통 한국 방문 관련 정보는 교민 사회의 한국 신문을 통해 알려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한국 관련 정보의 구체성과 신뢰성, 장학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방문한다고 하였다. 홍은하의 경우 한국 방문 프로그램이나 장학금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해 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주로 방문하게 된다고 하였다.

(6) 네트워크 활용

한국에 방문한 재미한인 청소년들은 주로 Face book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교류하고 있었으며, 한국에서 새롭게 만난 재미한인 청소년들과도 Face book을 공유하고 있었다. 한국어에 비교적 익숙한 1.5세들의 경우는 싸이월드를 통해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교류하고 있었다. Face book이나 싸이월드 등 인기 있는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고국 방문 프로그램 홍보를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3. 국내 체류 조선족⁶⁾ 청소년 면담조사 분석

1) 면담참가자 개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 청소년들과의 면담은 총 8명과 수행되었으며, 이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한국의 대학이나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조사자가 만난 이들 20대 초/중반의 조선족 청소년들이 현재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한국유학, 취업, 그리고 해외경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어린 시절 한국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이미 한국을 방문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었다. 면담 참가자의 이민 세대는 3세와 4세에 해당되었다.

이들이 한국에서 유학을 준비하는 동안의 체제 비용은 부모님의 도움에서 나왔고 한국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엔 대학의 장학금에 많이 의존했다. (한국에서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한국정부의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조선족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점은, 이들의 부모들 가운데는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면담 참가자 중 강혜는 수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임성의 경우엔 부모님이 모두 한국에 체류 중이다 (물론 임성은 따로 살고 있다.). 그리고 삼겹살 집이나 식당 서빙 등 “알바”를 통해 용돈을 버는 경우도 많다.

〈표 IV-3〉 조선족 청소년 면담 참가자 개요

	성별	국적	연령	현재신분	종교	이민세대	한국방문	현재 체류방식
임성	남	중국	26	대졸(중국); S대 언어교육원 연수 후 현재 구직 중	없음	3세대	4번째 방문	S대 언어교육원 수료 후 취업준비

6) 중국동포 청소년을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선족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조선족 표현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기서는 일상적으로 이들이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하기로 한다.

권서화	여	중국	24	대졸(중국); A대 대학원생	개신교	3세대 (외가쪽 4세대)	2번째 방문	A대 정보통신전문대학 원 석사과정
강주	남	중국 (한국 국적 신청중)	20	고졸(중국); S대 언어교육원	개신교	4세대	2번째 방문	S대 언어교육원; 한국 대학 진학 준비 중
최영미	여	중국	23	대재(중국); 사천성 S민족대학 3학년	없음	3세대	첫 방문	국제교육진흥원 단기교육과정
최선화	여	중국	21	고졸(중국); 어학연수생	없음	4세대	첫 방문	국제교육진흥원 단기교육과정; 한국 대학 진학 준비 중
김화연	여	중국	20	고졸(중국); 어학연수생	개신교	4세대	첫 방문	국제교육진흥원 단기교육과정; 한국 대학 진학 준비 중
이수군	여	중국	24	대졸(중국); S대 언어교육원	없음	3세대	첫 방문	S대 언어교육원; 한국 대학원 진학 준비 중
황진	여	중국	21	고졸(중국); S대 언어교육원	개신교 (현재 안다남)	3세대	첫 방문	S대 언어교육원; 한국 대학 진학 준비 중

2) 한국방문 동기

(1) 한국에 유학하기 위해 왔다

인터뷰의 대상들이 대부분 S대 언어교육원과 국제교육진흥원에 소속된 청소년들이라는 이유 때문이라서 그런지 이들의 주요 한국 방문 목적은 한국 대학에의 진학이었다. 물론, 이러한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들 가운데는 다른 방문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한국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20세 전후의 중국 조선족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도 교육이란 매우 중요한 삶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유학이라는 이들의 방문 목표는 결코 소수의 청소년들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S대 언어교육원에 다니는 두 여학생의 방문 동기이다.

질문자: 한국에 오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황진: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한국에 왔습니다.

이수균: 저는 대학원을 한국에서 다니고 싶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질문자: 이수균씨는 중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한국에 오셨습니까?

이수균: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 전공은 어떤 것이었나요?

이수균: 중국언어문학이었습니다.

질문자: 중국에 있을 때 한국어를 많이 아셨습니까?

이수균: 거의 하지 않았습니니다.

황진: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중국에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 좋은 직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하지 못해서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게 되면 한국말도 배우고 대학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질문자: 전공을 하고 싶은 것은 있습니까?

황진: 저는 패션디자인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자: 이수균씨는요?

이수균: 저는 신문방송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S대 언어교육원에 다니는 한 남학생(강주)도 대학진학을 위해서 한국에 왔다. 이들에게 있어 한국 유학은 몇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 먼저 한국은 중국보다 학문적 수준이 높고 또 한국 대학들은 정월 외의 외국인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 대학의 세계화 전략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면접만으로 대학진학을 할 수 있다. 한국에 유학을 오는 이러한 조선족 청소년들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 출신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대학에 입학하려고 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좋은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유학이라는 기회를 선택한 이들이었다.

질문자: 그러면 이번에 작년 12월에 거기에서 대학을 안가고 한국에 온 이유는 뭐예요?

강주: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는 수능시험을 본 후에 대학교를 골랐죠?

질문자: 예. 그렇죠.

강주: 중국에는 수능시험을 보기 전에 대학교를 골라야 해요. 저는 잘못 골라서 가고 싶은 대학교에 가지 못해서 한국에 왔어요. 약간 안 좋은 대학교가 갈 수 있어서요.

질문자: 어디 가고 싶었어요?

강주: 원래가 연길대학교인데 다른 학과이예요. 그런데 연길 기술대학교, 총장님은 한국 분이예요.

질문자: 연길과학기술대를 말하는 것인가요?

강주: 예. 맞습니다. 거기에요. 지금 누나도 거기에서 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 학교 다니고 싶은데 학과를 잘못 골라서 연길 연변대학교 가게 됐어요.

질문자: 연변 과학기술대가 더 가고 싶은데 연변대학교가 됐으니깐 그렇군요.

강주: 그러니까 어머니와 상의해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질문자: 전공은 뭐하고 싶었어요?

강주: 그때는 경영학과에 가고 싶었어요.

질문자: 경영학과군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러 온 것인가요? 한국에서 대학을 입학하려고요?

강주: 예.

질문자: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보면 되나요?

강주: 외국사람 같은 경우는 시험을 안 봐도 돼요. 서류를 내면 학교에서 골라서 면접이 있어요.

질문자: 면접만 보면 되는군요.

강주: 면접만보면 되요.

질문자: 그러니까 한국어만 잘 하고 면접 잘하고 그러면 되는구나.

강주: 네. 그런데 학교마다 달라요.

질문자: 그렇겠지? 지금 어느 학교 어느 과를 가고 싶으세요?

강주: 학교는 지금 외국어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질문자: 무슨 외국어를 하고 싶어서요?

강주: 영어입니다. 제 생각에는 중국어를 할수 있고 한국에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도 하면서 세계에서 영어가 중요하니까 전공으로 영어로 하고 싶어요.

질문자: 그렇군요. 외국어 대학을 빼고 몇 군데에 원서를 낼 수 있죠? 몇 군데 남았어요?

강주: 내년에도 성균관대 영문과나 다른 학과에 신청하고 싶어요.

국제교육진흥원 단기 연수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대부분(최선화, 김화연) 한국에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입국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최영미는 중국에서 대학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한국에서 제공하는 재외교포장학금을 받게 되어 한국에 연수를 오게 된 것이다. 최영미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한국에서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다.

이들은 중국의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한국 방문/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한국에 머물고 있는 자신들의 부모를 통해서 한국 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들 사이에서는 한국유학에 대한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 (다른 곳에서는 얘기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한국 유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학원들도 여럿이 있다고 한다.)

질문자: 어떤 계기로, 어떻게 여기 국제교육진흥원에 오게 되었는지 말해주세요.

최영미: 첫 번째로는 부모님이 한국에 계십니다.

질문자: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는군요?

최영미: 네. 부모님이 한국에 있고 두 번째는 문화를 접촉해보고 싶어서입니다.

질문자: 한국을 좀 알고 싶어서요?

최영미: 네.

질문자: 그런데 특별히 여기 국제교육진흥원에 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영미: 일단 영사관에서 소식을 알았습니다. 영사관에서 일단은 그 소식을 학생들에게 전파를 해요. 이런 활동이 있다는 것어요.

질문자: 북경에 있는 영사관입니까?

최영미: 사천에 있는 영사관입니다.

질문자: 사천에 있는 한국영사관에 가보니까 어학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전해주었나요?

최영미: 네. 그리고 재외 동포들에게는 장학금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을 주는 학생들에 우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많이 알아서 무슨 기회가 생기게 될지 모르잖아요.

질문자: 그러면 다 장학금을 받고 오신 것입니까?

최영미: 저는 1년 재외동포장학금을 받고 왔어요.

질문자: 그러니까 1년 동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최영미: 아니요. 석 달입니다.

최선희: 3개월입니다.

김화연: 90일. 어학원은 3개월밖에 안돼요.

질문자: 그런데 1년 장학금을 받은 것어요?

최영미: 대학 재학 중 2학년 때 1년 장학금은 중국에서 받았어요.

질문자: 그러면 그것은 한국 영사관에서 받았어요?

최영미: 네. 재외동포 장학금입니다.

질문자: 그런 게 있군요. 그 때 받으면서 여기 한국에 오면 이런 어학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최영미: 네.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가 많습시다.

질문자: 그러면 중국에서는 휴학을 하고 오신 것인가요?

최영미: 그렇죠.

최선희: 저는 부모님이 여기에 있고 가족도 다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 부모님이 다 여기에 계시군요.

최선희: 그리고 교육진흥원에는 그전에 한번 온 친구가 있어요.

질문자: 그렇군요.

최선화: 친척이라서 그렇게 알게 되었고 나는 주로 대학을 가려고 왔어요.

김화연: 예. 한글 공부를 하고 싶어서요. 이제 대학교도 들어가서 한국어를 하려고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정말로 너무 한글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질문자: 교육이 잘 안돼 있어요?

김화연: 아닙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배우기가 너무 부족하고 우리 민족의 전통하고 문화가 있잖아요. 그것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사라지고 있어요.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많이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말했더니 잘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중국에서 대학을 마친 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의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거나 이미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가 있었다. 앞서 제시한 이수군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현재 S대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권서화라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미 올해 A대 대학원에 입학해서 수학하고 있었다. 권서화에 따르면, 한국에 유학 나오고 싶어 하는 중국의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질문자: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입학할 하게 되었습니까?

권서화: 제가 북경에 있었는데, 연길에서 대학을 마치고 북경공업대학에서 조교로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 학교와 제가 다니고 있던 북경공업대학교와 자매학교로 교환학생으로 다녀왔어요.

질문자: 그러면 그전에도 한국에 와 봤어요?

권서화: 그때 교수님들께서 오셔서 제가 아시는 분이 북경공업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을 통해서 학교를 신청하게 되었어요.

질문자: 그런 방법들은 어렵지 않나요?

권서화: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오게 되었네요.

질문자: 잘되었네요. 북경공업대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이 오게 되나요?

권서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26세 언니도 같이 오게 되었어요. 그 언니도 북경공업대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질문자: 여기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권서화: 네. 많이 있습니다.

질문자: 조선족들이 있고 한족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아요?

권서화: 조선족들이 더 많아요. 한족친구들도 차츰차츰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2)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다.

조선족 청소년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취업이다. 이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그리고 한국에 이미 부모가 입국해서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귀화했거나, 귀화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살펴본, 한국에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가운데서도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서 취업을 고려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질문자: 지난번에 언어연수를 위해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성: 중국에서 취직을 했었는데 한국사람을 많이 만나고 조상이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에 입니다. 지금은 취직하고 싶습니다. 한국문화를 배우고 싶고 기회가 있다면 중한무역 분야에 종사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한국 언어도 조금 통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 언어를 예전에 알아듣기는 했었죠?

임성: 제가 취직하는 동안에 한국어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중국에서 대학졸업 후에 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무역회사에서 한국사람들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질문자: 그 회사가 한국회사는 아닙니까?

임성: 한국회사는 아닙니다. 중국사람이 법인으로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의 신기술, 전자파차단과 같은 기술을 수입하는 일도 하였습니다.

(3) 한국 유학과 취직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다.

면담을 통해 만난 청소년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어학연수 과정에 있었다. 이들이 어학연수를 하는 목적은 한국에서 공부를 계속하거나 취직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장기적인 체류가 목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임성과 강해의 경우에는 각각 한국으로 귀화를 고려중이거나 이미 귀화를 신청한 경우도 있다.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은, 이들 조선족 청소년들이 중국에서 주로 한족들이 다니는 일반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즉, 조선족만을 위한 민족학교가 아닌) 한국어에 서툴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은 중국의 주류 문화 - 일반 한족과 같은 - 를 따라 살았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부모들은 모두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로서 한국어를 특별히 강조하지도 않았고, 이들을 조선족이라는 소수민족으로 키우기 보다는 일반적인 중국인으로 교육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국제교육진흥원에 있는 최영미, 최선화, 김화연은 중고등학교까지 조선족 학교를 다녔다. 따라서 한국어를 비교적 자연스럽게 구사할 줄 알았다.

3) 한국체류과정에서의 경험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조선족 청소년들은 어학연수나 국제교육진흥원의 단기연수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친구를 사귀고 한국에 적응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한국에서 “알바”라고 하는 파트타임 일거리를 하면서 한국사회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여럿이 있었다. 임성의 경우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이다. 지금 한국에서 친구들이 여럿이 있지만 중국에 남아 있는 친

구들과도 연락을 자주 하고 있다.

(1) 한국 사람들의 조선족 무시에 대한 실망

조선족 청소년들은 한국에 와서 그들이 가졌던 한국인들과의 막연한 동질감이 무너지거나 무시당한다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실망하게 된다. 이런 실망의 경험은 이들이 처음 방문한 사람들일 수록, 그리고 민족적 동질감을 더 많이 의식하고 있었던 경우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최영미: 한국 분들이 소질(중국어의 “소질”이란 의미는 한국어에서 “교양,” “교육수준” 등의 의미이다.)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친절하고, 열정적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했어요.

질문자: 그렇군요.

최영미: 솔직히 저희가 다 조선족이고, 조선족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는 기뻐했는데 정작 이렇게 부딪히게 되니 너무 실망을 했었어요.

질문자: 실망스러운 게 많다는 것이군요.

최영미: 한국에 와서 ‘이것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 좀 실망했어요.

질문자: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

최영미: 예를 들어서, 제가 남대문에 갔어요. 남대문에 가서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물어보았어요. 50대 중반의 아저씨가 저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서는 순간 옆에 아주머니가 “그것을 왜 가르쳐 주냐고, 쓸데없어”라고 말해서 제가 놀랐어요.

질문자: 그 아주머니는 그분의 부인이네요?

최영미: 네. “그것을 왜 가르쳐주느냐고, 잘 못되면 당신이 책임지겠냐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같은 민족이라면 가르쳐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당시는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제가 또 처음으

로 왔고 아무 것도 몰라서 가르쳐주는데도 그것을 왜 가르치냐고 말
씀을 하시니 제가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이것이 아닌데’라는 느낌
이 들었고 지하철 탈 때도 잘못해서 부딪힐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
다.”라고 말하면 “잘 보고 다녀야지!” 소리칠 때도 있어요. 당연히 그
분도 급하겠죠. 그래도 이해는 가는데 서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소리치면 안 되는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던 한국 분위기가 직접 와서 체험해본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느
낌이 실망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질문자: 그것이 내가 한국인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한
국 사람들끼리도 그런 것 같아요?

최영미: 두 개 다 있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도 있지요. 솔직히 말하면 죄송스럽지만, 무시하는 것도 있지요. 교
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서 그런 느낌이 들
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분들끼리도 그래요. 그리고 이런 서로
충돌 생길 때는 그 분은 제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중국인인지
모르잖아요. 말을 안 해서 중국인인지 모르는데 한국 사람들끼리 충
돌해도 ‘한국 분들도 그렇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최선화: 저도 오기 전에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한국은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질문자: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최선화: 네. 모두 한국을 좋다고만 하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한
국에 와보니 아니에요. 언니처럼 실망을 많이 했어요.

최영미: 제 생각에는 그 문제가 한국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을 너무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
었기 때문이죠.

질문자: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최선화: 모르고 있었어요.

최영미: 네. 그만큼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분명 한
국 분들도 다 감정과 정서가 있기 마련인데 그래서 얼마만큼 이해가
가고 저희들도 잘못된 것이 있지요. 다시 말하면 너무 아름답다고 생

각한 것은 환상이 있지요. 희망이 크면 실망이 크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너무 아름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실망이 큰 것 같아요.

김화연: 저는 지금 두 달 동안 여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친절하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한국에 오기 전의 경험인데, 한국하고 옆에 조선민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조선족들은 중국인들이지 교포가 아니더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신문에서 봤었는데 그것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질문자: 그랬군요. 그런데 김화연씨는 중국에 있을 때 두 분처럼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생각을 가졌나요?

김화연: 텔레비전을 볼 때 마음으로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최선희: 우리가 한국과 같은 피를 나누고 있기 때문이고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이 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질문자: 어떤 사랑?

최선희: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사랑인 것 같아요.

최영미: 좋은 분들도 많아요. 제가 중국에서 가정교사를 했었어요. 그 한국가정 분들은 항상 ‘우리는 같은 동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름을 안 부르고 우리와 같은 교포는 너무 감동받았고 고마웠어요. 좋은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보면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선족 청소년들은 그들이 무시당하는 이유를 “돈”이나 “경제력”의 이유로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근대화의 정도나 부의 크기를 통해 국가나 민족을 서열화하는 현대 한국인들의 의식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이 미국인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태도가 조선족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될 때 분명히 드러난다.

질문자: 외국인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강주: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들 미국 친구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 학교가면 한편으로 부럽고, 잘 대해 주는데, 동남아 친구들 아니면 중국 친구들 나가면 조금 안 좋은 눈으로 바라봐요.

질문자: 유럽이나 미국친구들에게는 한국사람이 잘해주고, 동남아라든가 조선족 친구들에게는 잘 안 해준다는 말이죠?

강주: 그렇게 눈에 띄는 것은 아니에요.

질문자: 일단 경향이 그렇다는 거죠?

강주: 예. 맞아요.

질문자: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차별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강주: 차별이 없으면 좋은데 아마 어느 나라나 다 있을 것 같아요.

질문자: 중국은 적다면서요?

강주: 네. 요즘 중국은 괜찮지만 원래 고대 당나라나 그때도 소수민족을 무시하죠. 조선이나 일본이나 몽골 그런 사람들 무시하죠. 아니면 계속 이 세계에서 돈 많으면 그런 사람들 이미지 좋고, 돈 없으면 이미지 나빠요.

질문자: 돈이 문제네요.

강주: 아마 그럴 것 같아요.

(2) 환상과 실망을 넘어 있는 그대로의 장단점을 동시에 보게 된다.

한국에 와서 실망을 하면서 이들의 의식은 다시 확장되게 된다. 하나는 한국인들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인정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들의 중국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권서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국에 살 때에는 한국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많이 낙후되어있는 나라이고 사람들이 많이 더럽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 했습니다. 같이 살고 있으니까 생각하지 못했는데 한국에 와서 들

으니까 기분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니까 그런 결점들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집을 피우면서 맞는 것을 아니라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질문자: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권서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부터 한국사람들과 많이 접촉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만났던 교수님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저희 학교에 오신 분들은 발룬티어를 하러 오셨기 때문에 너무 친절하시고 그런데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질문자: 실망을 많이 하셨겠네요.

권서화: 처음에 왔을 때는 실망이 많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살면서 '이것이 문화구나 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4) 정체성

조선족 청소년들의 사회문화적 위치를 이해함에 있어 정체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보건대, 아래 세대로 내려올수록 중국의 조선족들은 중국 내에서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다. 따라서 스스로 중국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족이란 개념이 이들의 정체성에 크게 중요시 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조선족 학교를 다닌 학생들의 경우에는 확실히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좀 더 깊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사에 대한 교육과 한국어의 교육을 통해 민족의식을 더욱 새롭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나는 중국인” - 조선족이지만 한국어를 잘 못한다

20세 전후의 조선족 청소년들은 중국에서 태어난 부모 밑에서 자라났으며 중국의 주류사회에 편입하기 위해 일반 한족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성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은 조선족 학교에 다니는 것

이 아니라 일반 학교에 다니고 집에서도 중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어를 잘 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의 상상속에서 한국과의 연결은 매우 희미하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를 “중국인”으로 여기고 있으며,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스스로 “조선족”이라는 생각을 하면 살아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한족 친구들과 섞여 살면서 자신이 조선족이라는 것을 확인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와 민족의 경계선이 일치한 상황속에서 살아 온 한국 사람들이 “민족”이란 정체성을 통해 중국 조선족을 바라보려고 하지만, 조선족 청소년의 경우엔 중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이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 정체성보다 훨씬 중요한 정체성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질문자: 조선족 친구들을 보면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조선족이라고 하는 민족 정체성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서화: 예전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들었을 때 기분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질문자: 어떤 문제들이요?

권서화: 나를 보고 한국인이라고 했을 때 그랬습니다.

질문자: 그렇군요. 왜요?

권서화: 내가 왜 한국인이냐고 나는 중국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중국에서 자라서 ‘나는 중국인이다’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한국사람들을 많이 접하고 나니까 한국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건너가고 우리가 말이 통해서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래서 ‘한국인이다’라고 말했는데, 중국에 사는 조선족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은 56개의 민족이 있는데 모든 민족을 합쳐서 중국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 중 하나가 조선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배우고 접하기 때문에 나는 중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이

접해보았는데 여러 가지로 한인들을 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국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국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국적이 있고 중국 법에서도 한 개의 민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중국조선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조선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수균, 황진: 중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자: 서류상으로는 조선족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까?

이수균, 황진: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 평소에는 조선족이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할 필요가 없겠네요? 친구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나요?

황진: 저는 조선족친구가 전혀 없고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질문자: 그러면 평소에 어떤 기회로 인해 ‘내가 조선족이다’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황진: 저는 한족과 같은 중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2) 조상이 한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과 관련이 있다

조선족 청소년들이 이렇게 강한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이유는 바로 중국 내에서의 국민교육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과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두 가지 모두를 크게 의식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에 귀화해서 진짜 한국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하기도 한다.

질문자: 한국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까. 보통 ‘내가 누구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할 때 한국인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나는 중국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임성: 지금은 주로 중국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상은 한국 사람이니까 어떤 때는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한국 국적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 본인께서도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임성: 저희 부모님까지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자: 한국 국적을 가질 생각이 있으니까?

임성: 예. 그렇습니다.

조사자가 면담한 청소년들 가운데 조선족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비교적 강한 민족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김해연이 가장 강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국제교육진흥원에서 한국사 강의를 듣는 동안 이런 의식이 더 강해진 것 같았다. 이들은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중국에서 배웠던 역사와 충돌하는 것을 알고 갈등을 느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모습도 나타난다.

최영미: 주변에서 항상 질문을 받는 부분이네요. 국적은 중국이에요. 지금으로 봐서 국적은 중국이고 혈통, 민족은 조선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적하고 민족이 다른 것이지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사람들이 ‘너는 중국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항상 ‘국적은 중국이다. 그런데 민족과 피는 조선족이다.’라고 항상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감정이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화연: 네.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지금 중국에서 조선 민족이 많이 없어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은 타민족 없이 딱 한 개,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같은 다른 외국을 봤을 때도 다 이민해서 간 것이고, 다 그렇게 단일민족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미국 같은 곳에서도 다 한국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살면 다 한국사람인지 알지 미

국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민족도 그런 것 같아요.

질문자: 중국에 살지만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김화연: 네. 중국에서 살지만 이 마음속에서는 모국을 향한 그 마음이 있죠.

최영미: 우선 제가 중국 역사라고 배웠는데, 한국에 와서 볼 때는 역사 선생님들은 한국 역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발언 안 해요. 혼자 내 입장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중국에서 너는 이렇게 배웠지? 이것은 한국 역사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선생님은 선생님도 말하세요.’ 그러면 밑에만 보고 제 입장만 생각해요.

질문자: 특히 발해의 대조영 같은 것은 어렵죠.

최선희: 대조영 말고 백두산 문제도 있습니다.

최영미: 연변에 살았던 곳도 다 고구려였잖아요.

최선희: 다 고조선이었잖아요.

질문자: 그렇지요.

김화연: 지금 한국에 와서 역사시간에 알게 된 것이 우리가 살았던 곳이 옛날에 고조선 땅이라는 것이 정말로 좋았어요.

질문자: 그러면 중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최선희: 아니요, 있어요. 그런데 그 때는 특별히 힘을 갖지 않았어요. 몰랐으니까요.

질문자: 고조선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이 한국 민족이고, 조선족에 연결되고 이런 이야기는 못 들었다는 것이죠?

김화연: 우리 민족과 연결이 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어요. 알고 넘어갔으니까요.

질문자: 역사 문제가 참 민감하겠네요.

최영미: 어떤 때는 난처해요. 저번에 독립 기념관에 갔었어요. 독립 기념관이라는 곳은 일본 식민지 때 그것이야요.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많이 고문당하던 배경을 통해 그 당시를 상상할 수 있어요. 그때는 한국에 대한 애정을 느꼈어요.

질문자: 그러면 역사를 배우면서, 사극을 배우면서 어떤 것을 느끼는 것입니까?

최선화: 우리 옛날 조국, 한민족도 조선족도 위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3) 한민족 정체성 인식 계기

① 조부모와의 만남을 통한 과거에 대한 관심

이들이 중국에서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경험할 기회는 매우 적었다. 단지 중국어를 잘 못하는 조부모를 만났을 때 자신들의 선조가 한국 땅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기회가 된다.

한국에 와서 중국 국가교육의 틀을 넘어서면서 자신들이 한민족이라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된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과거가 이제까지 거의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 자신들의 선조가 어떻게 중국에 오게 되었는지를 사실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찾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다.

질문자: 앞으로 자기가 ‘조선족이라고 하는 것을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잊어야겠다 조금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황진: 아니에요. 알고 싶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중국에 오시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지금 할아버지만 살아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저희 외할머니는 북한사람이었습니다. 12~3세에 북한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외할머니의 아버지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으러 중국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외할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우리 어머니가 태어났습니다.

이수균: 저는 스스로 친척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조상들이 어떻게 중국에 오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런 역사에 대해서 저희 가족이 대가족이기 때문에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저희 큰 고모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하고 자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꼭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②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갈 때

중국 내에서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소수민족의 자치구역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역 내에서 민족 언어와 풍습을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이 모여사는 기회가 없어지면서 이들의 민족 정체성도 점차 약해지게 된다.

질문자: ‘내가 조선족이다’라는 것을 언제 느끼게 됩니까?

강주: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의 고향은 시골인데 그 시골은 동네가 거의 다 조선족이에요. 다 조선족인데 한국말이 제일 많아요.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가는 사람들 많아서 거기에 가면 중국말 들을 수 없어요. 거의 다 한국말 써요.

질문자: 다 알아들어요?

강주: 제가 늦게 알아들어요. 기본적인 것은 알아듣는데 어려운 것은 못 알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조선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계속 있었어요. 그때는 노인들이 다 한국분이어서 그렇게 관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음악이나 음식이나 생활습관, 온돌방 안에 어떻게 배치하는 것 등이 한족과 아무튼 달라서 그래요.

질문자: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보통 한족이랑 다르고 만나는 사람이 조선족이고, 집이라든가 쓰는 언어라든가 음식 같은 것이 좀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노는 것도 다르군요.

강주: 노는 것도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시골 동네가면 거기서 친구들 잘 안 놀아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니면 혼자 놀아요.

③ 행사/경기

이들이 한국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계기는 축구 경기와 같은 각종 행사를 통해서이다.

김화연: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중국에서 게임 같은 것 있잖아요. 축구시합, 월드컵 같은 것 할 때는 중국이 다른 나라와 할 때는 중국을 많이 응원하고 한국이 다른 나라와 할 때는 한국을 많이 응원해요. 그런데 중국과 한국이 경쟁할 때는 망설이지 않고 그냥 봐요.

질문자: 누가 이겨도 좋다는 말씀인가요?

김화연: 누가 이겨도 다 좋지요. 그리고 중국에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제 기분도 따라서 좋고, 한국에서도 이제 북한문제가 많이 해결되어갈 때 그런 것이 많이 좋았어요.

질문자: 그러면 최미화씨는요?

최선화: 저는 여기 와서 특히 크게 느끼게 되었어요.

질문자: 중국에 있을 때는 많이 못 느꼈나요?

최선화: 중국에 있을 때는 조선인, 조선족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알고 있어요. 한국과 경기 같은 것을 하면 어떤 때 중국을 응원하고 있을 때가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인데 왜 한국 응원하지 않느냐고 물어볼 때도 많았어요. 그래도 그 때는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여기 와서 크게 느꼈어요.

황진: 특히 축구경기를 할 때 한국팀과 다른 나라가 경기를 하게 되면 항상 한국팀이 이겼으면 하는 마음과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게 될 때 항상 한국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들에서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한국의 축구경기를 보게 되면 함께 한국을 응원합니다.

질문자: 그러면 중국과 한국이 경기하게 되면 어떤 팀을 응원하게 됩니까?

황진: 저는 중국 팀을 응원하게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국팀을 응원합니다.

질문자: 조선족으로 살 때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한족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강주: 축구를 할 때입니다.

질문자: 조선족이 더 잘해요?

강주: 그럴 것 같은데요.

질문자: 한국이 잘하니까요? 한국이 축구를 잘하니까 조선족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강주: 한국이 월드컵을 하기 전에 축구경기를 하면 조선족 학교 대표팀이 항상 이겨요. 항상 챔피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조선족이 진짜 축구를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교포 친구들에게도 들었어요. 거기도 조선족학교 있고 교포들도 잘한다고 들었어요.

질문자: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군요.

강주: 네.

이처럼 축구 경기를 통해 단순한 정체성을 넘어선 조선족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기도 한다.

5) 이민사회에서의 위치

(1) 자신이 조선족이라는 것을 느낄 기회가 적다.

앞서 서술한 대로 조선족 청소년들은 중국에서 자신이 조선족이라는 의식을 심각하게 하지 않는다. 한족 학생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음식도 평소에 조선족 음식만을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자신을 소수민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기회가 적은 것이다. 그렇다고 한족과 똑같다는 것은 아니다. 조선족으로서 조선어도 말하고/알아듣고 김치를 먹을 줄 안다는 것은 그래도 한족과는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점들이 의식 속에 투영되어 중요한 정체성의 원천이 되거나 자신들의 삶 속에서 정치적 의미로 살아있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족의식은 철저히 탈정치화 되어 있다.

질문자: 중국에서 조선족이라는 것이 살아가는데 유리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소외를 받는 것 같습니까?

임성: 중국에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냥 한족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조선족들은 중국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 그분들도 차별을 안 느끼는 것 같나요?

임성: 중국에서는 별로 차별이 없습니다. 한족과 똑같아요.

질문자: 음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권서화: 저는 중국음식과 한국음식을 모두 잘 먹는 편이라서 김치를 집에서 해 먹습니다.

질문자: 중국인들은 김치를 따로 집에서 해먹지 않지 않습니까?

권서화: 중국한족이요? 그 친구들은 김치를 못 먹어요.

질문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조선족이라고 느낄 때 언어에서 많이 느낀다고 하셨는데 언어 말고 이런 음식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권서화: 그것은 크게 모르겠습니다. 밖에 나가면 김치를 안 먹어도 되니까 딱히 집에서 먹던 음식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음식 가지고는 크게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질문자: 한국에 와서는 한국사람들과 대할 때 내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까? 저 사람은 한국사람이다 나는 중국사람이다 국적을 더 느끼게 됩니까?

권서화: 저는 아직 국적을 많이 느낍니다.

권서화: 저희 세대는 많은 득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회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여러 가지로 교류가 증가하면서 통역이 필요하고 중국의 조선족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두 가지 언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부에 들어가려고 하면 전혀 제일 높은 위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한족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부분에

서는 많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 그런데 그런 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한족이어야 된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소수민족일 때 손해를 본다고 짐작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그런 차별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없고 단지 한족이 많아서 확률적으로 그런 기회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을 본적이 있는지요?

권서화: 본적은 없습니다. 중국에는 다양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족에 대한 정책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족이나 신장자치구 쪽은 한족을 엄청 싫어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이 차별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한이 맺힌 민족이라고 그런 말도 쓰곤 합니다. 조선족은 차별 같은 것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조선족들이 조금 한족들보다 영리한 것 같습니다. 연변 자치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민족심이 강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 살지 않고 한족들이 많은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2) 소수민족(조선족)으로서 한족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조선족이란 소수민족이 중국에서 명시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족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소외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심하지 않았다. 여러 조선족 청소년들이 한족들로부터 “까오리 빵즈”(高丽棒子: 마치 한국사람들이 중국사람들을 “짱깨”라고 부르듯이, 중국인들이 조선족을 비하하여 부르는 호칭)라는 말로 불린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말은 그리 비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경험이 많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중국 학교에서의 교육 - 중국 민족들은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 이 나름대로 중요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 보인다.

질문자: 또 조선족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운 점 같은 것은 없고요?

강주: 연길에 갔을 때인데 조선족이 좀 많잖아요. 그때 한족하고 어

떤 사람과 조선족이 싸우고 있었어요.

질문자: 그런 적이 있어요?

강주: 그것을 본적이 있어요.

질문자: 개인적으로 다툰 것인가요? 조선족이고 한족이기 때문에 다툰 것인가요?

강주: 그 사람들 시작했을 때는 그냥 개인적으로 싸웠겠죠.

질문자: 그러다가 민족이야기가 나왔겠네요.

강주: 예. 그렇게 말이 계속 나와서 중국에서 한족이 조선족에게 쓰는 나쁜 말도 있어요.

질문자: 그렇지. 서로 그런 것이 있겠네요. 뭐가 있어요? 한족이 조선족한테 쓰는 나쁜 말을 왜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강주: 한 개만 있어요.

질문자: 어떤 것입니까?

강주: ‘까오리 빵즈’

질문자: ‘까오리 빵즈’는 나쁜 말이에요?

강주: 좀 그런 편이죠.

질문자: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군요?

강주: 기분 조금 나빠요.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 분들도 중국사람에게 나쁜 말을 써요.

질문자: 그것이 뭐예요?

강주: ‘짱개’입니다.

질문자: 그것은 한국사람들은 많이 있고 조선족이 한족에게 쓰는 나쁜 말이죠.

강주: 조선족이 한족에게요?

질문자: 한족을 욕할 때, ‘저놈들’ 하면서요.

강주: 글썽요. 한국은 없어요.

질문자: 게으르다거나 뭐 그런 말은 없어요?

강주: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욕해요.

질문자: 민족이라는 것 가지고 욕하지 않고 개인적인 욕을 쓰나요?

강주: 말씀 드린 ‘까오리 빵즈’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농담

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친하기 때문이죠.

(3) 오히려 한국에 와서 차이를 더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 청소년들에게는 민족적 차이 (한족 vs 조선족) 보다는, 국가의 근대화 정도에 따른 차이 (중국 vs 한국)의 차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에 와서는 중국에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한 정도의 소외를 경험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바로, 세계화를 통해 중국에서도 경제적 차이에 따른 차별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민족이란 변수는 한 개인이 중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 개인이 어떤 경제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서, 조선족 청소년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민족적인 감정이나 정체성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킬 기회를 갖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민족적/집단적인 차원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인 것이다.

6) 한인단체, 한국문화 관련 생애 경험

최영미, 최선화, 김화연은 조선족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러나 그 밖의 청소년들은 중국에서 살아오는 동안 조선족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특별히 조선족 학생회에 가입해서 활동하지 않았다. 이런 조선족 관련 단체는 이들의 민족정체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한국과의 교류 시에도 정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다.

최영미: 제가 사천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조선족 단체라고 있었어요. 조선족 학생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조직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 참가도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도 같이 토론해보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은 좋은 것 같았어요.

질문자: 사천에 있는 학교 학생회네요?

최영미: 학교 학생회가 아니라 사천에 조선족 집단이 있어요.

질문자: 사천성에 있나요? 학교조직이 아니고 학교 바깥에 있는 것인가요?

최영미: 학교 조직은 중학교 때 많이 참가해봤지요.

질문자: 조선족 학교에서요?

최영미: 네, 조선족 학교를 다녔어요.

조선족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혜군은 북경에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조선족들의 모임에 나가 본 적이 있었는데 언어 소통이 불편해서 (이수군의 조선어/한국어가 서툴러서) 도중에 그만 두었다.

이수군: 저희 북경사범대학교에서는 조선족 동창회가 있는데 처음 1학년 때에는 참석했었으나 말도 통하지 않아서 어떤 게임도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는 안 갔습니다.

질문자: 언어 소통의 문제 때문이었습니까?

이수군: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 그런데 그 사람들도 모두 중국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수군: 거기에 가면 모두 한국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못했습니다.

청소년들 가운데는 자신은 직접 조선족 관련 단체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윗 세대 어른들이 조선족 모임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질문자: 황진씨에게 물겠습니다. 중국에 계실 때 중국에 있는 조선족 또는 관련된 분들과 한국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웹사이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황진: 무슨 단체요?

질문자: 의견을 나눌 조선족사이트라든가 한민족사이트라든가 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황진: 잘 모르지만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아리랑이

라는 이름의 모임에서 조선족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모이셔서 노래와 춤을 즐기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임에 참가하십니다.

질문자: 어디에서 모이시나요?

황진: 저희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곳의 옆 빌딩에서 모입니다.

질문자: 근처에 있는 분들만 모이나요? 아니면 멀리 계시는 분들도 함께 모이나요?

황진: 멀리 살고 계시는 분들도 오시기도 합니다.

질문자: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그런 조선족으로 이루어진 모임들이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는 많이 없고 여러분 세대에서는 조선족이라는 느낌도 별로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네요?

이수균, 황진: 네.

한국에도 조선족 관련 모임이 인터넷 싸이월드에 있다. 하지만 면담에 참여한 청소년들 가운데는 이런 사이트를 잘 몰랐고 참여하지도 않았다. 조선족이라는 것을 매개로 인간관계를 할 필요를 크게 느끼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7) 진로 선택을 위한 전략

(1) 향후 진로의 대한 생각

향후 진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한국의 일반 청소년들의 모습과 큰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들은 좋은 대학, 전망 있는 학과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꼭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었다. 가능하다면 한국보다 더 나은 사회, 더 가능성 있는 사회를 선택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민족의식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들이 중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가능한/손쉬운 통로였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현실에 가까운 설명일 것이다.

황진: 이번에 두 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전공이 달라서 부모님께서 어제 밤에 서로 상의하시고 학과 선택에 대해서 저녁에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와 홍익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질문자: 아주 좋은 학교들에 합격하셨네요. 기분이 좋으시겠네요. 좋아하시는 패션디자인도 공부할 수 있겠네요.

황진: 제가 원하는 것은 패션디자인 공부인데 저희 부모님께서도 나중에 졸업하면 빨리 좋은 직업을 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방송 쪽을 원하십니다.

이수균: 중앙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모두 신문방송학과 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가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됩니다.

황진: 이수균씨는 정말 뛰어난 분 인 것 같아요. 언어교육원에서 항상 1등만 하시고요.

이수균: 감사합니다.

질문자: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취직하고 싶어요? 아니면 중국에서 취직하고 싶어요? 생각해 본적이 있어요?

강주: 다른 나라에 가고 싶어요.

질문자: 한국이나 중국 말고 다른 나라요? 어느 나라입니까?

강주: 유럽 쪽으로가고 싶어요. 스웨덴에 가고 싶어요.

질문자: 스웨덴은 어떻게 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강주: 텔레비전 보니까 거기가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일하는 것을 봐도 별로 힘들지않고요. 저는 젊으니까 여러 곳에 다녀야 하고 많이 보고 지식을 많이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질문자: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능력을 기반으로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군요?

강주: 나중에 거기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싶어요.

질문자: 학위를 또 그런 곳에서 받고 싶다는 얘기네요? 유럽에서요?

강주: 아니면 거기서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임성은 중국의 한 무역회사를 다니면서 한국에 몇 차례 왔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현재는 한국에서 회사를 찾고 있다. 임성의 부모는 한국에 귀화하고자 하는데, 따라서 임성의 부모는 그가 한국에서 취업하기 바라고 있다.

질문자: 부모님은 임성씨가 한국에 머무는 것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임성씨가 원하신다면 중국에 가서 다시 일하기를 원하세요?

임성: 부모님은 한국에 있는 것을 원합니다.

(2) 향후 진로에서의 한민족/한국과의 관련성 활용 가능성

이들이 장래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한국과의 관련성, 조선족이라는 위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자신이 조선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조선족이라는 지위는 한국어 습득, 한국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한국 유학을 위한 각종 정보에 있어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능력은 이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질문자: 만약에 돌아간다면 어떤 일들을 하고 싶습니까?

임성: 한국과 관련된 무역업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강주는 (비록 현재 한국 국적을 신청하고 있지만)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능력을 굳이 자신의 미래로 연결시키고 싶어하지 않았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나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이 결코 그에게 매력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스웨덴 같은 곳 - 계급과 민족의 위계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곳 -으로 가서 한국어 이외의 자신만의 또 다른 능력을 통해 살아가면 좋겠다는 상상을 하고 있다.

질문자: 그런데 스웨덴에 가면 강주씨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능력,

한국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는 것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강주: 네.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른 언어를 배워야 되니까요.

질문자: 다른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언어적인 능력을 꼭 발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인가요? 이것을 갖고 내가 살아갈 때 취직할 때 더 유리하니까 그것을 내가 꼭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은 꼭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강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언어는 그냥 도구라고 생각해요. 일 하면서 쌓이는 능력 같은 것이예요. 제가 중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질문자: 나만의 다른 능력을 키우고 전공을 갖겠다는 것이군요?

강주: 확실하게 기술이 있으면 좋겠어요.

권서화의 경우에도 사실 조선족이라는 지위는 연변과학기술대를 입학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한 대학으로 유학 나오는 과정에서 조선족이라는 것 때문에 한국과의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었고 결국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나오게 된다. 하지만 권서화는 자신이 조선족이라는 것을 결코 자원으로 이용하고 싶은 생각을 갖지 않고 있으며, 자신이 조선족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취직할 생각도 없다. 그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성취를 이루는 기회로 삼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한국을 넘어서 더 큰 세계로 유학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다.

질문자: 그러면 여기에 얼마 동안 머무르게 됩니까?

권서화: 2년 정도 머무를 것 같아요. 제가 졸업하면 떠날 것 같아요.

질문자: 그러면 1년 반 정도 더 남아 있는데요. 그것을 마치면 중국으로 귀국할 생각입니까?

권서화: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한국을 떠날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 다른 곳은 어디요?

권서화: 다른 곳에서 유학을 좀더 하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조선족 학교를 졸업한 최영미, 최선화, 김화연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조선족이라는 위치와 능력을 이용해서 중국과 한국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생각하고 있다.

질문자: 앞으로 진로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자기가 조선족이라는 것, 자신이 한국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는 것을 이용해서 진로를 선택하고싶으세요? 아니면 중국으로 돌아가서다시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최영미: 이용해요.

질문자: 그래요? 그러면 김화연씨는요?

김화연: 네.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고요.

질문자: 전공을 어떤 것으로 하고 싶어요?

김화연: 국어국문학과요. 그래서 그것을 배워서 돌아가서 이제 많이 교류를 하고 싶어요.

질문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실 것입니까? 졸업 이후예요?

김화연: 네. 돌아가야죠. 돌아가서 중국과 한국의 교류를 위해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어요. 이제 많이 교류를 시키고, 서로 이해관계를 마련하려고요.

질문자: 그러면 최선화씨는요?

최선화: 저는 원래 한국에서 대학교를 경영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중어중문과로 가서 중국어를 다시 배우려고요.

질문자: 그래요?

최선화: 중국에 산다고 해도 중국어를 잘 배우는 것은 아니니까요. 한국에서 배워두는 것도 배우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열심히 해서 박사공부까지 하려고요. 그래서 본래는 사업가를 하고 싶었어요. 일단은 먼저 열심히 해서 박사 공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중국하고 한국 사이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요.

질문자: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최선휘: 네, 중국에서요.

질문자: 최영미씨는요?

최영미: 저는 자기 성격과 취미를 결합해서 일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사람 사귀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단 중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대학원을 지망하려는 생각입니다. 외국어 대학 통역관련 학과를 다녀서요. 이제 통역을 잘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충분히 알아서 여러 가지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또 일본어를 포기하지 않고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잘 배워서 통달하게끔 그렇게 생각해서 작은 힘이라도 이바지 하고 싶어요.

최선휘: 좋은 생각이네요.

질문자: 그렇군요. 일단 중국에 가서 마치고, 다시 한국에 와서 대학원을 가고 싶군요. 직장은 한국에서잡고 싶으세요? 아니면 중국에서잡고 싶으세요?

최영미: 그것은 지금 결정할 수가 없어요. 졸업한 후에 결정하려고요..

결론적으로, 이들 청소년들은 실제로 한국 방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장래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과의 연관성/조선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생활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민족의식”이나 “한민족”의 연대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자신의 처지에서 자기 개인의 성취를 위한 최선을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한민족이라는 통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그리고 조선족 청소년들에게 조선족이라는 정체성은 그리 매력적인 정체성이 아니다.

물론, 김화연, 최선휘의 경우처럼 조선족 학교를 다녔고 (민족의식에 입각한) 한국 역사 강의를 들은 경우에는 좀 더 강한 민족의식을 갖게 되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최영미의 경우에는 이 두 사람만큼 강한 한민족으로서의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다. 그녀에게는 국가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

8) 고국과의 연계 방안

위에서 살펴본 조선족 청소년들의 경험과 의식을 통해서 보건데, 이들과 “고국”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먼저 이들에게 “고국”이란 의식이 거의 없다. 이들이 비록 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면서도 이것을 민족의식과 연결시키지 않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이들은 고국과의 연계를 왜 맺어야 하는지, 그런 연계가 왜 필요한지 의문시 하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민족으로 연결된 어떤 동류의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들의 개인적 성취에 도움이 되는 자원들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어떤 자원을 조선족에게만 특별히 제공해 주는 것도 이들은 부담스러워 한다. 권서화의 경우, 조선족들만을 골라서 어떤 혜택을 주거나 그들과 특별히 교류하는 것 보다는 그냥 중국인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질문자: 한국에서 조선족에게 지원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유학의 기회를 준다거나 아니면 초청을 해 준다거나 연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관광을 한다거나 특별한 사람들과 연계를 만들어서 새로운 교류를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국가가 개입을 해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권서화: 그런 것이 있으면 좋지요.

질문자: 그런데 그런 것을 민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중국 사람들에게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 한국동포라고 생각되는 조선족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권서화: 좋지요. 그런데 한민족이라고 하면 조금 마음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국입장에서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더라도 말을 할 때에는 중국조선족에 대한 것으로 말을 하면 조금 편해질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국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그들이 한국어를

말하고 한국의 역사를 알고 한국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조선족 청소년들에게 이런 민족의식을 경험시키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 학교를 나온 이들에게는 민족의식이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국 내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키워갈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역사나 언어 교육에 관련된 자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분야의 지원이 민족 의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질문자: 서로 방문 하는 것이 제일 좋겠네요?

최영미: 네. 서로 방문하는 것이 좋지요.

질문자: 조선 친구 들어올 때 젊은 친구들이 오면 학교 친구들과하고 같이 사귀어보고 만나보고.

최영미: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슨 사물놀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춤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국에서 준비하고, 한국에서 준비하고 같이 문화 같은 연출도 하고 하면서 서로 즐기고요.

최영미: 제 생각에는 책도 보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변 외에는 한글로 된 책이 별로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흑룡강 하얼빈에 살았기 때문에 한글로 된 책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연변에서는 찾을 수 있지만 내륙에서는 힘들어요. 두 번째로는 단체 교환, 다시 말하면 한국의 어떤 학교의 몇 십 명의 학생과 중국의 어느 학교의 몇 십 명의 학생을 한국 분이 중국에 가거나 중국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서로 함께 생활해보고 함께 체험해보면서 ‘아, 한국 애들이 이렇구나, 중국 애들이 이렇구나’라는 인식이 있게 문화교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열흘씩, 보름씩 방학을 이용해서 교류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족 청소년들은 대부분 한민족 네트워크의 구성에 무관심하다. 이들

에게 있어 민족은 “국가”나 “민족주의”와 같은 무겁고 거북스러운 존재 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민족의식”이니 하는 무거운 주제로 인식될 때는 거의 관심이 없거나 거부감을 갖지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제공된다거나 그것을 통해 현실적인 성취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괜찮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민족은 그냥 자신들의 독특한 전통, 따라서 다른 민족의 성원들과 재미있게 다른 점들을 확인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정도의 특징 정도로 받아들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질문자: 전 세계에 한국 조선족 말고도 ‘한국인이다 korean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가지면 관심 있게 볼 수 있어요?

강주: 네.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질문자: 만약에 스웨덴에 갔을 때도 ‘korean이다’ 그래서 웹사이트가 있거나 정보를 주면은 관심 있게 볼 것 같아요?

강주: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니면 전세계 korean이나 그런 단체가 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단체요.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미국 교포나 일본 교포나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본 교포가 어떻게 살고, 중국교포가 어떻게 사나 이야기를 하면 재미있어요.

질문자: 궁금한 것을 서로 교류하면 괜찮을 것 같다?

강주: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재미있어 보여요.

결론적으로 볼 때, 조선족 청소년들과 공식적인 민족적 연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민족”이란 말로 다가오는 정보가 아니라 단지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자원들”이다.

민족이란 정서/개념을 갖기에는 중국 조선족 청소년들은 중국인이라는 국가 정체성이 너무 강하고, 조선족이라는 (한국에 오면 소외를 경험하는) 정체성이 너무 부담스럽다.

4. 국내 체류 재일한인 청소년 면담조사 분석

1) 면담참가자 개요

면담을 위해 한국에 유학이나 연수를 하고 있는 재일한인들을 섭외하였고, 면담에 응한 사람들은 총 10명이다. 하지만 연령대가 30대인 3명을 제외하고 20세에서 26세까지의 면담 참가자들만 분석에 포함하기로 한다. 따라서 분석에 포함된 재일한인 청소년들은 총 7명이다.

이들은 주로 유학이나 연수를 위해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거주하고 있는 곳은 경향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풍족한 유학생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어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으면 기숙사를 이용한다고 한다. 개중에는 기숙사 시설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일부러 밖에서 생활하기도 한다고 한다.

체제비용은 단기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대학 재학 중인 경우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어학연수나 학부 유학인 경우는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매우 적고,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축을 쓰거나 부모의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다.

<표 IV-4> 재일한인 청소년 면담 참가자 개요

	성별	국적	연령	현재신분	종교	이민세대	한국방문	현재 체류방식
김조국	남	한국	24	석사과정	없음	3세	2회	대학재학
야마모토 미찌코	여	한국	20	교환학생	없음	3세	3회	대학재학
최은희	여	한국	26	박사과정	없음	3세	3회	대학재학
장희성	여	한국	21	학부생	없음	3세	3회	대학재학
송경순	여	한국	21	학부생	없음	3세	2회	대학재학
카와하라 마유미	여	일본	21	어학연수	없음	3세	6회	언어연수
초큐 사즈키	여	한국	25	어학연수	없음	3세	4회	언어연수

2) 한국방문 동기

재일교포 청소년들은 부모나 주위의 권유보다는 자신이 한국 방문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보 교류가 비교적 쉽고 어렵지 않게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언어 연수라면 결정이 쉬운 듯이 보인다.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비교적 자기결정을 가볍게 한다는 것이다. 남자의 경우는 가정과 부모로부터 받는 기대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결정도 보다 어렵게 내리는 것 같다.

(1) 부모의 권유

먼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계기로 강력한 부모의 권유를 들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석사과정 유학을 하고 있는 김조국의 경우, 아들의 이름을 조국⁷⁾으로 지을 정도로 한인 정체성을 강조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아버지는 일본사회의 차별은 심하게 경험한 세대로 1970년대에 한국 유학의 경험이 있는, 2세로서는 인텔리에 속한다. 김조국은 동경대학의 공대를 갈 수 있는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가 동경대학보다 좋다는 아버지의 ‘강권’으로 한국 유학을 결정했으며 대학원은 문과로 진학했다.

질문자: 그 한국을 방문하게 된... 한국에서 지금 장기...오랫동안 생활하고 있는데 방문하게 된 계기라든가 그런 특별히 있습니까?

김조국: 계기요? 일단 부모님이 강력히 제가 한국에 가기를 원하셨어요.

질문자: 특히 어느 부모님이 그러던가요?

김조국: 특히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고.

질문자: 어머니는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가요?

김조국: 어머니는 아버지처럼 강하게 가라고는 말씀하지는 않았는데 갔으면 좋겠다 제가 계속 일본에 있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저도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7) 본명은 조국이 아니며, 한민족의 분위기를 풍기는 단어이지만 여기서는 조국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본명의 이름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다.

(2)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용

특히 한국인이나 한국에 대한 정체성과 관련하여 최선의 선택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기 보다는 외국으로의 유학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이 한국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경우도 있다. 미찌코의 경우 한국 방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관련된 정체성이 먼저 고려되었다기 보다는 언젠가는 할 수 있지만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질문자: 뭔가, 특별한 동기가 있었나요?

미찌코: 한국에서 살고 싶단거나, 한국인과 결혼하고 싶단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자신은 한국인이지만 되도록 피하려는 마음이었어요. 그렇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동기가 뭐였지?

질문자: 뭔가, 한류라든지 좋아하는 텔런트는 있어요?

미찌코: 원빈 좋아해요. 한류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실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서 망설였어요. 토익 점수도 그렇고. 한국인이니까 언젠가는 한국어 공부한다고 생각했지만 하기 쉽다고 생각해서 계속 뒤로 미뤘죠. 중국어 공부를 먼저 공부했어요. 이번 유학을 계기로 지금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질문자: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죠?

미찌코: 학교에 세메스터 유학이라는 게 있어서 반년간 학교의 학점 교환으로 가고 싶은 대학교 갈 수 있습니다.

질문자: 어학연수라면 연세대학교도 있고, 학교에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까?

미찌코: 학교가 이화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 大阪女学院와 자매관계군요. 학비 면제는?

미찌코: 교환학생이라서 일본의 대학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3) 한국 유학에 대한 관심

일부 청소년들은 한국에서의 연기나 예술을 배우는 것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유학을 선택하였다. 연극에 관심이 있어서 일본에서 연극

을 하던 송경순과 조선학교에 다니며 한국무용을 했던 장희성의 경우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관련 전공을 선택하여 유학을 하게 된다.

질문자: 유학이 큰 문제인데 거기엔 정보도 있어야 하고 앞으로 계획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소스들은 어떻게 구했어요?

송경순: 부모님과 같이 구했어요.

질문자: 중앙대를 결정한 것은 어떻게 결정했어요?

송경순: 제가 한국에서 연기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중앙대 연극영화과가 제일 좋다 그래서.

질문자: 일본에서 연극을 했었고 한국에서 작품 출연 같은 걸 했었어요?

송경순: 네. 한국에서는 아직...

질문자: 유학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송경순: 계기는요. 한국말로 연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질문자: 장희성씨는 얘기 들으면서 본인과는 좀 다른 것 같나요? 무용이나 연극영화과 같은 경우에 분류를 한다면 문화예술 계통이잖아요? 어떻게 지원하게 됐나요? 장희성씨는?

장희성: 저는 조선학교 다닐 때요. 소조활동으로 조선무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조선무용을 하고 싶었는데 조대에 갈까 한국으로 올까 고민하다가 조선대학에 가도 교포식 우리말이잖아요? 그리고 대학으로 인정도 안 해주니까. 말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것도 있었고.. 조선무용을 알면서도 한국무용, 한반도의 무용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질문자: 조선대학도 무용과가 활성화 돼 있나요?

장희성: 무용과는 없고 소조활동으로 해야 돼요.

질문자: 만약에 조선대학에 간다면 일반 학과로 들어가서 소조활동으로?

장희성: 네.

질문자: 부모님들이 그런 활동에 대해서, 소조 활동을 하는 것과 학과를 지원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반대는 없으셨나요?

장희성: 반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학교는 어떤 시스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삼촌처럼 지내는 아는 분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질문자: 정보입수하고 이런 거요?

장희성: 예. 한예종과 한양대, 이화여대 몇 개를 찾아주시고, 그래서 한양대로 들어왔어요.

3) 한국체류과정에서의 경험

(1) 한국체류와 한인과의 교류

어학연수를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는 같은 동료들과 교류를 많이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기숙사에 살 경우에는 만나는 사람들이 동료들로 크게 제한된다. 재일교포들의 경우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더라도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인터뷰를 하면서 가정 사정이나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머지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재일교포 중에는 일부러 다른 동료들을 피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동료들끼리 만나면 일본어로 대화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어를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에 어학연수를 하면서 다른 지역의 한민족청소년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이들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한다. 같은 한민족이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성향이 다르며 지역에 따라 한민족 집단을 다르게 분류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아래의 사례에서는 어학연수 중에 만난 조선족 청소년들의 재일한인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질문자: 중국 교포라고 하는 친구들은 좀 만나봤어요?

김조국: 조선족을 만나봤어요.

질문자: 아 조선족이죠. 조선족을 중국교포라고 한국에서 표현을 합니다.

김조국: 예. 만나봤어요. 되게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아주 한국을 원망하는 것 같고.

질문자: 원망한다... 원망은 어떤 면에서 원망하는 것 같은데요?

김조국: 뭐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만 했죠. 그리고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옛날에, 외국인을 위한 교양한국어라는 수업이었는데, 계속 선생님한테 반발만 했고 뼈틀어진 느낌을 받았어요.

질문자: 개인적으로 뭐 좀 부당한 대우라도 있던 거 아닌가요?

김조국: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선족 학생들도 거의 뭐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었다고 느꼈어요.

질문자: 서울대 안에서요?

김조국: 안에서.

질문자: 뭐 저기 기대하고 기대했던 거하고 처우가 달랐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나요?

김조국: 글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역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조선족은 힘들었다. 그리고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조선족들은 당신 제일조선인들처럼 도망간 민족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했었어요.

질문자: 굉장히 의외네요.

김조국: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 말이.

(2) 한국 체류 과정에서의 인상 변화

재일교포들은 최초의 인상부터 장기간 생활한 후에까지 한국은 역시 자신들이 이전까지 살던 환경과는 다르다는 인상을 뚜렷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이 때로는 긴장감이 되기도 하고 편안함이 되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외국이라는 느낌을 놓지 못하는 것 같다.

① 환영받는 분위기

먼저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환대해주고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긍정적인 느낌을 받는다. 또한 부모로부터 한국에 대한 낭만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전해 듣고 한국을 방문한 경우 초기의 인상은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된다.

사츠키: 여기 오면 제일교포라고 하면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이 많아요. 제일교포예요, 하면 하나 더 준다든지 봐 주니까 편해요. 한국에 오면 이렇게 편할 지 몰랐으니까, 매일 즐거워요.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게 많아요. 정말 잘 왔다고 생각해요.

질문자: 중학교 때 한 번 오고, 대학교 때 바로 유학을 온 거네요.

김조국: 예.

질문자: 그러면 꽤 변화도 있었고 낯설었을 텐데.

김조국: 낯설었어요. 엄청. 제가 중학교 때 한국에 왔을 때는, ‘우리 학교’를 보셨잖아요? 그때 북한에 처음으로 내려갔을 때 감동만 해서 조국의 사람들은 눈이 맑았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눈이 맑구나.

질문자: 응. 순박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첫 방문이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김조국: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동안 아버지한테서 조국은 대단한 나라다 아름다운 나라다 그걸 너무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환상들 때문에 그렇게 느꼈었는지도 몰라요.

② 한국 사회의 이방인으로서의 인식

특히 김조국의 경우 중학교 때 모국 방문 프로그램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방문단의 일환으로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한국 방문에 대한 감동의 기억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이후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체류하게 되면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한국 사람들은 환영 일색의 분위기가 아닌 “왜 왔냐”는 탐색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한국에서의 귀속감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갖는다.

질문자: 중학교 때 그 한국에 처음 왔는데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김조국: 예.

질문자: 그 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주 감동적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때 감동적이었다는 것은 자기가 상상했던 것과 일치하는 거였나요?

김조국: 그렇죠. 뭐 그냥 제가 보고 싶은 대로 봤던 것 같아요.

질문자: 이후에 대학에 진학해 왔을 때는 뭔가 객관적으로 보였다는 이런 애긴가요?

김조국: 왜냐면 중학교 때 제가 한국으로 왔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그 여러 사람을 만났잖아요. 여행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다들 저를 한국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아줬어요. 잘 왔다...대학교 때 한국에 왔더니 일단 다들 왜 왔냐?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질문자: 근데 왜 왔냐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김조국: 그냥 학부생 친구들이요.

질문자: 음. 중학교 때 왔을 때는 모국방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 거고 예를 들어 명찰에다 모국방문 학생이라고 적혀있었을 테고, 여기에 왔을 때는 동료들로서 사람들을 만난 거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도 있겠네요.

김조국: 그러니까 제가 그 때 느낀 게 저는 나는 어디까지나 손님이지 우리의 한 명이 될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③ 한국 체류 과정에서의 불안감

조총련 계열 출신은 지금도 여전히 사상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한국 국적을 받고 한국에서 살면서 일상적으로는 느끼지 못해도 그러한 인식이 완전히 불식되지는 않은 것 같다.

질문자: 아마 그렇게 해도 조선학교 출신으로 처음에 한국적으로 바꾼다는 등 한국을 여행이던 방문하는데 대해서는 저항감이든가 위화감 같은 점이 있을 텐데 그런 점은...

최은희: 저항감이라고 할까요, 한국 분들이 반공교육을 많이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많이 사상교육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사람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공포감이라고 할까...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서명 같은 것도 해 달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도 혹시나 국정원 사람이 아닐까?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저항감 같은 건 전 별로 없었어요.

질문자: 한국 들어오고 나서는 인상이 어떠세요?

최은희: 인상 있는 게, 공항 내려서 정말 입국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을 느꼈고요, 그때는 공항 마중 와주실 분이 계셨는데, 그 분 잘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나머지는 공항에 군인들이 다니잖아요. 일본에서는 군인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아 군인이 있다는...

질문자: 공항에서 군인을 봤어요?

최은희: 경찰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어요.

질문자: 그러면 그게 혹시 월드컵 땐가요? (최은희: 2002년이요.)
2002년이면 월드컵 때요. 경계 강화. 평소에는 군인은 없죠, 공항에. 그러면 한창 일본하고 한국을 왔다갔다 할 그런 무드가 있을 때, 그때였네요.

최은희: 평소에 일본에서 안본 그런 느낌이었으니까요, 우리 잡으려 온 게 아닌가? 뭔가 의심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한국에 왔다는 기대된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④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본국에 있을 때 한국사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특히 재일교포의 역사는 일본사회로부터의 차별뿐 아니라 한국 정부의 냉대를 받아 온 역사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 사실들은 좁은 재일교포 사회에서 재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청소년들이 한국에 들어와 살아가면서 이런 편견들은 열어지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재확인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국적을 가지면 한국인이므로 당연히 한국어에 능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며 그래서 한국어가 어눌한 교포는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비단 일반 사회 뿐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그러하며, 심지어 어학당의 교사들 중에

도 이런 태도는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학연수생 중 출신지역별 한국어 능력은 재일교포가 가장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점을 들어 재일교포에게 편찬을 주는 교사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김조국: 뜬 영화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자면 월드컵 때. 월드컵 때 재일조선인에 관한 다큐멘터리나 여러 가지 방송프로들이 많아 나와서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주제가 굉장히 유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재일조선인들에게 가하는 일본인들의 차별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질문자: 그건 달리 말하면 재일교포에 대한 차별은 일본 내적인 것보다는 한국이나 고국과의 관련 하에...

김조국: 아직은 많은 한국인들만이 재일교포들은 차별받고 있다. 일본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재일교포들을 차별하는 건 한국인인 것 같아요.

질문자: S대 들어오고 나선 어땠어요? 제가 듣기로는 사람들이 왜 한국 사람인데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 등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최은희: S대 사람 중에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사학과 짱아요. 국사학과가 아직도 학생 운동 하는 분위기라서 원래 소수자나 재일교포에 관한 관심도 많거든요. 그리고 때가 좋았던 게 “우리학교” 영화가 제가 오자마자 개봉 됐거든요. 같이 영화도 보러갔고 따로 영화 보신 분들도 제가 그 학교 출신이라고 하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적응이 잘 됐거든요. 그런데 S대 밖으로 나가면 그런 말을 많이 당했죠.

질문자: 예를 들어서 어떤?

최은희: 예를 들어서 발음이 완전이 일본식이라니 그런 말을 한국인들이 자꾸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학교 출신이라고 하면 조총련이다 그런 말도 당했고요.

질문자: 바깥이라는 게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희: S대 국사학과 틀 밖이에요.

4) 정체성

(1) 부모님의 정체성 강조 유형

정체성 문제에 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가 있지만 재일교포 중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김조국의 예에서 보듯이 이름부터 ‘조국’이라고 붙이고 거의 강압적으로 한국인임으로 강조하고 자식의 일생을 결정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식이 한국 핏줄이라는 것은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부모 세대에서 자식의 아이덴티티를 교육하면서 스스로 심각한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볼 수도 있다.

일부 재일한인들은 고교생이 되어서야 자신이 재일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부모의 소극적인 은폐가 보이며, 자식이 알아채도 할 수 없다는 태도 정도로 생각된다. 면담 대상자였던 사츠키의 부모도 자식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생각하는 데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어 오히려 반발을 사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부모 세대가 겪는 아이덴티티의 혼란을 자식에게 투영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차별을 실감하며 자란 부모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는 보다 적극적이고 유리하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문자: 최초로 왔을 때 뭔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보조는?

김조국: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따로 정착하게끔 만들어주는 기관이나 그런 건... 왜냐면 특히 아버지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다. 어학당도 다니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저는 언어도 부족했는데 그냥 수업에 들어가고.

질문자: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김조국: 다른 재일동포 친구들하고 사귀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넌 한국인들과 잘 어울려서 한국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사츠키: 환경도 중요하죠. 우리집은 원래 총련계인데 한국인에 대한

집착이 굉장해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일본인과 결혼한 형제도 있는데, 아버지는 한국인과 결혼해야 된다고 합니다. 고교까지는 아버지가 한국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여 본명을 사용했습니다. 고교생이 되고부터는 제가 정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교부터는 취직과 관계있기 때문에 일본명으로 바꾸라고 해서 반발했습니다. 어머니도 고교 때 통명에서 본명으로 바꾸었는데 아버지는 조선학교 출신입니다. 맘에 들지 않았어요. 부모의 염려는 이해가 가요. 차별을 직접 경험했으니까. 우리 3세가 되면 차별은 거의 없어졌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대로 살면 된다는 거죠.

사츠키: 피는 한국인인데 일본에서 태어났다. 그 뿐이지 깊이 생각 안 해요. 살아가는 데 어릴 때는 한국인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귀찮으니까 그냥 지나친 거죠. 시대도 변하고 나이도 먹어서인지 어떻게 상관없다고도 생각하고 한국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질문자: 알 것 같아요.

사츠키: 부모에게 계속 년 한국인이란 소리를 들어 왔는데, 모순은 그러면서도 한국어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한국에 데리고 가 주지도 않고, 엄청 모순 아닌가요? 어릴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름도 본명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고교생이 되니까 통명을 쓰라고 하고.

(2) 한국의 친척과의 교류

재일교포는 남한 출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친척들을 찾거나 방문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재일교포들은 한국의 친척들이 생활이 어려울 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고 자식들의 교육을 도와주기도 했다. 그런 경우에는 후손들끼리도 교류가 지속되어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친척을 찾거나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것 같다. 부모 세대에서 청소년들에게 친척과 적극적으로 만나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친척과 만나지 않도록 하기도 한다.

질문자: 혹시 본관은 아세요?

최은희: 본관은 경주 최 씨예요.

질문자: 거창에는 경주 최 씨가 있긴 있을 텐데 할아버지 고향하고의 접촉은 혹시...

최은희: 거의 없어요.

질문자: 시도 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도요?

최은희: 네. 가정상황이 복잡해서...재일교포 경우 그런 게 많아서요. 이모 시대에서 이모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저희 외할아버지가 시아버님 유골을 한국으로 가져가셨는데요. 그때에도 복잡한 일이 생겼던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재일교포 중에 강제로 끌려오신 분들도 많은데, 어쩌다가 일본에 남게 되신 분들은 가정사정이 복잡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저희 집도 그런 것 같아요.

최은희: 외가 집 쪽하고는 있어요.

질문자: 외가 쪽은 어디?

최은희: 어머니는 경남 창녕이시고요,

질문자: 창녕이요? 동네네요.

최은희: 네. 다 경남 산골이죠.

질문자: 어머니 쪽은 한국하고 연락을 하셨어요?

최은희: 네. 게다가 외할아버지가 많이 지원을 하셔서, 어머니 사촌 오빠, 언니들 다 외할아버지가 돈을 보내셔서 대학교까지 졸업하셨거든요.

질문자: 그럼 은인이네요.

최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몇 년 간 연락을 안했다가 어쩌다가 또 연락을 하게 돼서 (친척들이) 서울에 계시니까 자주 보러가거든요.

질문자: 창녕에는 가봤어요?

최은희: 창녕에는 아직 못 가봤어요.

질문자: 외가 쪽은?

최은희: 함안 조 씨예요.

질문자: 함안 조 씨예요? 함안 조 씨면 큰 양반인데?

장희성: 제가 우리 집에 제주도에 있는 친척들을 다 불렀거든요? 그

때 제가 어렸을 텐데 그 이후로는 없었고, 제가 한국에 오면서 제주도
도에 놀러가기고 했어요.

(3) 혼란스러운 정체성

한국의 해외교포 중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 가장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재일교포인 것 같다. 그 이유는 혼란스러울 정도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정체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에 들어와서도 이런 혼란은 반복된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어를 잘 구사하고 못하고, 주민등록법상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여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생활경험은 한국에 체류하면서 자신은 더 한국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해지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질문자: 한국인이라고 할 때 한국인이라는 범주를 어떤 식으로 판단 하나요?

김조국: 예. 우선 저는 스스로 지금은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은 잘 안 해요. 왜냐면 저는 군대를 안 가고 그리고 여기에 일 년 이상 연속적으로 체제를 못하거든요? 일 년에 한번 꼭 외국에 나가야 되요. 여권 행정상.

질문자: 그건 왜 그러나요? 재외국민이라서 그러는 건가요?

김조국: 재외국민이라서 그래요.

질문자: 재외국민이라는 건 한국여권을 가지고 있지요?(예) 근데 호적은 한국에 없나요?

김조국: 호적은 한국에 있어요.

질문자: 근데 주민등록증이 없나요?

김조국: 예.

질문자: 주민등록번호 발급 신청이라는 이런 것도 없나요?

김조국: 있어요. 근데 제가 발급신청을 하면 군대에 가야 되요.

질문자: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건 어떻게?

김조국: 없어요. 지금.

질문자: 의료보험도 없나요?

김조국: 예.

질문자: 병원에 갈 때 어떻게 해요?

김조국: 다 냈어요.

질문자: 원래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건가요? 원래 의료보험 가입할 수 있는 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김조국: 그니까 외국인으로서 아니면 해외동포로서 거소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주는. 그걸 작성하면 된대요. 저도 몰랐는데 얼마 전까지.

질문자: 의료보험은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김조국: 그걸 작성해서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번호를 받아야 가입할 수 있죠.

질문자: 가입할 생각은 없는가요?

김조국: 가입해야죠. 빨리. 요즘에 알아가지고. 저도.

질문자: 아이고 지금까지 그러면. 하긴 젊어서 병원에 갈 일이야 거의 없겠지만.

김조국: 꽤 갔는데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질문자: 그럼요. 의료보험이 없으면 엄청 비싸죠.

김조국: 몇 십 만원이 금방 날라 갔어요.

사츠키: 한국에 와서 의외였던 건, 일본에 있을 때가 제일한국인이라는 것은 의식하고 있었어요. 양친의 영향으로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게 동기가 돼서 자신은 한국인답게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 나는 역시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사실은 내가 여기 와서, 한국인이라는 생각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말을 배우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변해 갈 것인가가 기다려지는군요.

이들은 한국에서도 귀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일본에서도 정주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중의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다. 김조국은 일본에서 일본 국민

으로 살아가기 위한 공식적 절차를 밟고 살아가는 경우에도 일본에 속하지 못하고 고국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사례를 들고 있다.

김조국: 제가 한 기업인을 만났어요, 옛날에. 귀화를 한 재일조선인인데.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분이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교육을 해요. 너는 뿌리가 어차피 한국이기 때문에 귀화를 하더라도 어차피 이 땅에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결국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유목민처럼 존재의 본질을 찾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지만 이들의 여권,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 다양한 법적, 제도적 정체성은 이를 쉽게 허락하지 않고 있다.

김조국: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같등하게 되면 저도 그랬지만 유목민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유목민이라는 아이덴티티에 걸 맞는 행동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면 해외여행에도 가고 싶고 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고 그런 욕구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요건이 안 되가지고 못했는데.

(4) 한인 정체성 인식 계기

재일교포들은 자신이 한국인이면서 일본인이기도 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조선학교에 다니면서 매일 매순간을 한국인이라고 각성시켜주는 환경이 아니면 한민족과 관련된 자의식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조총련에 소속하고 조선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도 가정 내에서는 모두 일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자신이 학교 밖에서까지 항상 재일한인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다.

일본학교에서 같이 다니는 친구들과 사이에서 국적의 차이는 그리 의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으며 이것이 의식되는 것은 특별한 장면에서만이다. 가령 출입국관리국이나 국적이 표시된 서류에서이다. 국적이 현실적인 장애가 되는 것은 취직을 할 때인데 기업에서 국적 차별이 없어졌다고는 하지

만 항상 의식이 되는 문제인 것 같다.

질문자: 한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미찌코: 친구와 여권이 다르죠. 수학여행 때도 그랬고. 저는 고교에서 영어 코스를 선택해서 뉴질랜드로 갔어요. 여행 수속에서 다른 아이들과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16세가 되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크죠. 그리고는 운전면허증에 국적이 한국으로 되어 있고, 이럴 때 나는 역시 한국인이구나 하고 다시 실감하죠. 그리고 친구와 대화 중에 제사 이야기를 하면 일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죠.

질문자: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는? 혹은 긍지는?

미찌코: 긍지라고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요전에 축구를 보는데 청소년 결승전 때 심판이 일본인이더군요. 심판이 결승까지 가는 건 처음이라, 그게 굉장하다는 걸 듣고 역시 일본이다 하고 생각했죠. 보통은 한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생각하는 게 많지만.

송경순: 저는 집안에서도 조선 사람으로서 교육을 받았고, 일본사람과도 조금 다른..

장희성: 그래도 민족정신은 갖고 있어요.

송경순: 축구에서 보면 월드컵이 있잖아요. 한국 대 일본의 시합을 하면 한국을 응원하고 한국 대 조선이 하면 조선을 응원해요.

질문자: 일본하고 중국하고 축구하면?

장희성, 송경순: 그건 일본.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제일한인 청소년들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총련계냐 아니냐에 따라서 축구 경기에서의 응원 국가도 남이냐 북이냐가 선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선적을 가졌던 청소년들은 실리적인 목적 때문에 한국 국적으로 바꾸기도 한다. 조선학교에서 민족의식을 강하게 교육받았던 장희성과 송경순

은 취업과 출입국 상의 편리를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질문자: 국적은 한국 국적을 가졌어요?

장희성, 송경순: 한국이에요.

질문자: 여번에 들어올 때 바꿨어요?

장희성, 송경순: 월드컵 때.

질문자: 한국국적으로 북조선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죠?

장희성, 송경순: 네

질문자: 조선국적으로 한국에 들어올 때 싫은 소리가 있었죠?

장희성: 네.

(5) 양국을 매개할 수 있는 위치

재일한인으로서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신은 두 나라를 매개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위치에 있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최은희의 경우 자신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인식 갈등을 중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은희: 제가 지금 역사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게, 역시 역사인식 문제의 갈등이 많이 생겼잖아요. 위안부문제 그렇고 강제연행 문제 그렇고...한일 간의 안 좋은 분위기가 있는데요, 그런 걸 해결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일본에서 태어났고 혈통은 한반도에 있고 하니까 둘 다 자기 나라라고 생각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양국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게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인 입장도 일본인 입장도 어느 정도 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중개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요.

질문자: 일본에서 대학원 다니면서 일본학생들하고 특히 근대사 공부를 하며는 얘기할 기회는 있을 것 같은데, 했어요?

최은희: 재일교포 중에도 물론 북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남한 입장에서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일본 입장에서 얘기하

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중간에 서서 객관적 입장으로 봐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일본의 우익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그것은 잘 안다. 하지만 그것은 이렇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만약에 야스쿠니 문제 같은 것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야스쿠니 신사에 조선인들이 합사가 되어 있잖아요. (합사취소를 주장하기위해서) 그것을 항의하는 이희자 선생님이 야스쿠니에 가셨을 때 우익들이 ‘더러운 조센징 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야스쿠니에 있는 더러운 조선인은 어떠냐고요. 라고 하니깐 그 사람이 입을 닫았거든요. 제가 역사를 공부하고 또 재일교포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할까 책임을 느껴요.

5) 이민사회에서의 위치

일본사회에서 재일교포 사회는 오랫동안 차별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해방 이후 한국이나 일본으로 귀국하지 않은 재일교포들은 일본사회의 소수자 집단으로 살아가면서 매년 체류자격을 갱신하면서 지문날인을 강요당하고 사회복지 혜택에서의 제외, 직업 선택의 제한은 물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구조적 차별을 받아 왔다.

1980년대 이후 사회적 상황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고 현재는 이런 차별을 피부로 느끼기는 어려울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한다.

(1) 재일교포집단에 대한 일본사회의 인식

한편 젊은 세대들은 재일교포들에 대한 일본사회의 차별의 역사에 대해 알기는커녕 재일교포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조차 있다. 오히려 영화 ‘GO’나 ‘박치기’ 등을 통해서 새롭게 재일교포의 존재를 알게 되는 세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재일교포 사회 속에서 차별의 역사에 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부모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은 매우 충격적이다.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데 대한 분개와

차별 대상에 대한 범주 속에서 재일교포가 사라지고 있다는 안도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최은희: 제가 일본인이라고 생각한 게 기억에 있는 한에는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조선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나는 조선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선학교를 졸업해서 일본 대학교로 들어갔잖아요. 그때부터 갈등이 생겼거든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일본인을 접하게 된 거잖아요. 일단 학원 친구 같은 것도 있었는데, 학원 친구들은 제가 조선학교 다니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학원친구니까 그냥 공부 얘기만 하잖아요. 어떤 대학 갈 것인가? 공부 어떻게 하나? 그런 얘기만 했는데, 평소에 어울리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대학으로 가서 처음으로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최은희입니다. 홋카이도 출신입니다. 재일교포 3세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재일교포 자체를 몰라요. 그게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모르지? 너무나 재일교포의 틀 안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몰랐거든요. 그때부터 많이 충격을 받았었어요.

질문자: 일본에서도 자이니치 그러면은 뉴스에 등장하니까...

최은희: 요즘 같으면 영화에서 GO나 박치기 통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그때는 아직 그런 상황 아니었거든요. 그때부터 많이 갈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나는 재일조선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2) 재일교포들의 교류

재일교포들간의 교류 중에 친지들 간의 교류 이외에는 민단이나 조총련과 같은 단체를 매개로 하는 교류와 직업을 매개로 하는 교류가 있다. 민단 소속과 조총련 소속의 경우 과거에는 본국에서의 남북의 대치와 마찬가지로 어울리기 어려운 관계였으나 지금은 한 집안 내에 조총련과 민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동거하기도 한다. 아버지는 민단, 아들은 조총련이라는 식이며 여기에 대해 위화감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 남북 간의 대립, 조총련과

민단의 대립 같은 것은 청소년들에게는 피부에 닿는 개념이 아니라고 한다.

일부 교포들은 재일교포들과의 접촉을 꺼리기도 해서 청소년들이 재일한 국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한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어려서부터 통명을 쓰는 경우, 다른 재일교포들과의 접촉이 없이 성장할 때는 외국인등록을 할 때 비로소 재일한국인임을 실감하는 경우도 있다.

질문자: 아마 재일교포가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조총련계하고 민단하고 다를 거고 게다가 민족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또 다를 텐데, 그런 차이는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최은희: 제 생각에는 조선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조선학교 다녔다는 이상한 자부심이라고 할까 그런 자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총련 쪽에서는 우리학교 가라, 우리학교가 좋다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자기들이 우리학교를 하나의 Brand다 라는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단 쪽에서 보면 거의 민족학교를 안 다니던 분들이시잖아요. 일본사회에 살면서 일본 이름을 쓰는 분들이 거의거든요. 조총련 쪽이 민족주의적이고 민단 쪽은 민족의식이 희박하다고 까진 할 수가 없는데, 조총련에 비하면 희박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나요.

(3) 사회적 차별

실제로 차별이 크게 개선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사회적 차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이런 경향은 민단계 청소년보다 조총련계 청소년들에게 더 강하게 보이며, 일본학교를 다닌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본인 친구를 사귀거나 사회적인 차별에 대한 불안감이 적다.

질문자: 일본 사회에서 살아나갈 때 재일교포로서 그리고 총련계로서의 입장을 포함해서 일본에서 살아나간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경순: 불편한 것들은 앞으로 많을 거예요.

질문자: 어떤 면이?

송경순: 취직할 때도 외국인취급을 당하고.

장희성: 조선학교를 졸업해도 인정이 안 되고 차별이 아직도 있고.

질문자: 근데 민단 쪽은 그런 생각은 덜 하지 않나요?

송경순: 아마 그럴 거예요.

질문자: 일본에서 취직할 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조선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장희성, 송경순: 있어요. 커요.

질문자: 어떤?

송경순: 조선 국적을 갖고 있는 것은 국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그저 재입국허가증이니깐. 국적이 없는 것과 한국이라는 국적을 갖고 있을 때와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커요. 일본에서는 납치도 있었고 조선학교, 총련에 관한 문제가 많기도 해서요. 그래도 한국 국적이면 지금 일본에서 한국이 인기가 많고 괜찮을 것 같아요.

질문자: 언니들이나 선배들 얘기 들어봤을 텐데, 조선적으로는 취직이 안 되고 한국국적으로는 취직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나요?

송경순, 장희성: 네.

6) 거주국에서의 한인단체, 한국문화 관련 생애경험

(1) 한국학생 클럽, 한국어 학교

재일한인 청소년들의 한국문화와 관련된 활동의 경우 재학하는 학교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먼저, 일본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학교 특성에 따라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학교가 있다. 미찌코의 경우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에 재일한인이 다수 재학하고 있었으며 이들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말한다.

질문자: 한국에 오게 된 특별한 계기는 있어요?

미찌코: 저로서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죠. 미국 유학이 하고 싶었죠. 일단 중학교 고교는 사립을 다녔는데 그 학교가 우연히 재일에 관해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

었는데 그게 조선문화연구회라는 것이었어요. 재일이 많이 있었죠.

질문자: 학교 이름은?

미찌코: 소노다학원. 중학교 때부터 무용, 장구 등을 하고 문화제 때는 관중 앞에서 춤추고. 그 후 재일로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중학교 1년부터 고교 3년까지 재일 모임 중에서 우리 문화제라는 게 있었어요.

질문자: 그럼 중학교 때부터 재일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어 온 거네요?

반면, 총련계의 경우 조선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민족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질문자: 조선국적이든 한국국적이든 장점이 있다면?

장희성: 조선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는 것.

질문자: 일본인들은 조선학교에 못 들어가요?

장희성, 송경순: 네.

질문자: 귀화를 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일본 국적으로 귀화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장희성: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질문자: 일본 국적을 갖고 있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송경순: 그래도 순수일본사람은 안 돼요.

질문자: 아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장희성, 송경순: 네.

송경순: 할아버지가 조선 사람, 아빠는 일본 사람이지만 엄마는 조선 사람이든지 이런 경우면 돼요. 피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2) 한인 단체

또한 한인단체로 지부가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은 민단이다. 민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한인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재일한인 청소년들이 참가하고 있다. 특히 미찌코의 경우 재일한인 청소년들과 함께 했던 한인단체의 한국식 성년식이 인상 깊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미찌코: 성인식 때 제일 모임이 있었어요. 다른 제일 아이들과 모여서 굉장히 즐거워서, 그게 한국에 가게 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 성인식이 계기군요.

미찌코: 일본의 성인식은 기모노를 입지만 한국의 성인식은 치마저고리를 입고 갑니다. 내가 그 때 간 곳은 고베입니다. 그 모임에서 만난 아이가 정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가끔 만나요.

7) 진로 선택을 위한 전략

(1) 진로와 한국어(유학경험)의 직접 연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제일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대체로 한국에 남거나 한국 관련 일을 하는데 긍정적이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 좋지 않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경우에도 이후 한국과 지속적인 접촉을 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하며, 한 곳에 정착하기 보다는 “왔다갔다”하는 삶을 살고 싶어한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서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을 선택한다는 쪽이 우세하다는 느낌이다.

김조국: 저는 원래 꿈이 교수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박사는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질문자: 그럼 뭐 일단 저기 그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김조국: 그거야 뭐.

김조국: 저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분야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뭔가 학술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대중적으로든 간에 일본과 한국을 맺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질문자: 공부하고 나서 대학에서 교수가 되는 게 좋을 텐데 그러면 활동하고 싶은 데는 있어요?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다른 데라든가.

김조국: 구체적으로는 없네요.

질문자: 그니까 교수가 된다면 한국 대학에서 하고 싶어요? 혹은 일본 대학에서 하고 싶어요?

김조국: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질문자: 한국에 남고 싶다는 기분이나 계획은?

미찌코: 남고 싶지만. 일본 학교 그만두고 여기 편입하고 싶은데요, 이화의 수준이 높아서 졸업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일본의 대학 졸업하고 일본과 한국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질문자: 일단 말이 익숙해지면 수준은 관계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는 건가요?

미찌코: 예.

질문자: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지금 박사과정 들어가서 한다는 게 학자로서 하겠다는...

최은희: 네.

질문자: 학자로서 산다고 해도 취직은 해야 할 텐데, 대학의 학자가 하기 좋은 거잖아요. 아마 대학에 들어가는 게 목표일 텐데, 그러세요?

최은희: 그래요.

질문자: 한국이나 일본 어느 쪽으로 생각하세요?

최은희: 그건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질문자: 양쪽에 똑 같이 기회가 생긴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은희: 아마도 한국으로 갈 것 같아요. 똑 같이 기회가 생겼다면.

질문자: 한국어를 공부하는 목적은?

마유미: 나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요. 홋카이도에 오는 한국인들의 관광을 도우는 회사를 차리고 싶어요.

(2) 진로와 한국어의 간접 연결

한국에서 배운 언어나 관련 분야를 살려 직접적으로 한국에 취업하기보다는 일본에서 직업을 가질 생각을 하고 있다. 또 직접적으로 진로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향후 사회생활에서 재일한인으로서 한국어와 한국사회에서의 경험을 살려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의 오해를 감소시키거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질문자: 대학을 졸업하면 한국에서 취직을 할 건가요?

장희성: 한국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질문자: 무용을 하게 되면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제일교포라는 위치는 특별하잖아요? 조선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장희성: 네.

질문자: 일본에서 조선무용을 배워서 일본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장희성: 근데 일본 대학에 무용학과가 없어요.

질문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대학교수보단 무용단이 제일 가깝네요.

장희성: 무용단은 많은데.

질문자: 조선무용을 전공해서 들어갈만한 무용단은 어디 있어요?

장희성: 교포의 무용단이 있어요.

질문자: 교포회?

장희성: 금강산극단이라고 해서..

질문자: 총련계?

장희성: 네.

질문자: 민단체는 있어요?

장희성: 없어요.

질문자: 어렵게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데 이것을 살려서 앞으로 진로를 정한 것은 있습니까?

미찌코: 제일이니까 한국인이 하는 말도 알지만 일본인의 기분도 알죠. 예를 들어 독도 이야기를 할 때 일본인과 한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전 그런 것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한국인 친구가 말을 하고, 역사를 잘 아는 일본인 친구가 얘기를 하고 다투는 거죠. 양쪽 기분을 다 아니까 그럴 때 제가 사이에서 조정을 할 수 있죠.

미찌코: 비즈니스나 거래를 할 때 나는 한국인과 일본인과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 고국과 해외 한민족 연계 방안

(1) 고국 방문을 위한 정보 제공

재일한인 청소년들은 고국방문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유용하다고 말하고 있다.

질문자: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네트워크들은 좀 만들어지거나 유지된 게 많이 있나요? 재일교포와 한국을 연결하는.

김조국: 그런 건 민단 사이트 말고는 잘 못 봤네요.

질문자: 재일교포 사회에서 만든 그런 홈페이지가 한국어로 되어 있든지 혹은...

김조국: 개인 홈페이지 수준에서는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건 못 봤어요.

질문자: 혹시 한국의 정부기관이나 혹은 민간단체가 만든 홈페이지를 일본어로 해서 타깃을 재일교포로 한다는 그런 것도 없나요?

김조국: 재일교포에만 한정해서 만들어진 홈페이지는 못 봤어요. 그냥 그건 재일동포를 포함한 일본인을 타깃으로 한 홈페이지는 많이 봤지만, 재일동포자체를 타깃을 한 건 잘 못 봤네요.

질문자: 혹 재일교포 네트워크를 위한 그런 것도 혹시 있나요?

김조국: 민단 홈페이지나 코리언 넷...

질문자: 코리언 넷이란 게 있어요?

김조국: 거기를 보면 재일동포들이 일본에서 취직할 수 있는 곳의 리스트도 쭉욱 나와 있고 재일동포를 환영해주는 회사들의 리스트들이 다 나와 있고 좋은 것 같아요.

(2)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보급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한국의 국가 이미지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근래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이미지가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그리 높지 않다고 여긴다.

질문자: 재일한인 지원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지원을 한다면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나요?

김조국: 음. 지원을 한다면... 당연히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질문자: 현지에 한국어 학원이라든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김조국: 예. 굉장히 일본에 있으면서 느낀 건데 일본에서 살고 있거나 미국에서 살고 있거나 한국 사람들한테는 한국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조금 가치가 없다고 그런 느낌마저 들 때가 있거든요.

질문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나요? 지금도...

김조국: 그래서 왜 배워야 하지? 라는 느낌이 들어요. 조금 더 한국어나 한국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을 해외교포들한테 좋게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이야 한류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많이 배우죠.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근데 저 때만 해도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와중에 저 혼자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에 조금 열등감이 있다는 것도 느꼈어요.

(3) 외국인을 위한 생활 편의 제공

한국과 재일한인들 나아가 다양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들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한국 체류 기간에 외국인으로서 생활하는 이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해 줄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나 인터넷 등록 과정에서 외국인 등록증이나 재외국민거소신고증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이러한 소소한 불편들은 이들의 체류를 힘들게 하고 있다.

질문자: 한국에서 살면서 불편한 점이라든가 혹시 있어요?

최은희: 외국인에 대한 이해라고 할까요, 인터넷 등에서 실명확인을 하잖아요. 그게 재일교포경우, 안될 경우가 많거든요.

질문자: (주민번호의) 2000000 하면 안 되고요?

최은희: 제가 재외국민거소신고증이라고 해서 주민등록증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번호를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오류가 생겼다고 나올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는 인터넷 쇼핑을 해서 카드로 결제를 하잖아요. 제가 1년만 여기서 지내니까 한국에서 발급된 카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서 발급 된 카드로 결제를 하면 또 오류가 생겨요.

질문자: 해외 비자 경우도 오류가 생겨요?

최은희: 네. 생길 경우도 있어요. 회사마다 좀 틀리는데요. 그러면 좀 불편하죠.

5. 국내 체류 고려인⁸⁾ 청소년 면담조사 분석

1) 면담참가자 개요

면담에 응한 독립국가연합 출신 한인 청소년들은 총 9명이다. 이들은 한국의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중 한명은 교환학생 신분이었으며, 또 다른 한명은 어학연수를 받고 있었다. 이들의 유학 경비는 모두 정부나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교환학생의 경우는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면담은 독립국가연합 출신의 조사원에 의해 주로 러시아어로 수행되었으며, 한국어가 가능한 1명은 연구진에 의해 한국어로 수행되었다.

면담 참가자들의 이민세대는 4세가 주를 이루었으며, 부모 중 한명이 한인 출신이 아닌 경우는 이민세대에 대한 개념이 명확치 않았다. 연령대는 19세에서 24세까지이다. 이들은 한국방문 경험이 1회에서 2회 정도가 대부분이었으며, 유학을 위해 한국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체류기간은 4개월부터 2년까지 다양했다. 출신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4명, 카자흐스탄 2명, 러시아가 3명이었다.

8) 여기서는 독립국가연합에 거주하는 한민족청소년을 일반적으로 독립국가연합의 한인들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용어인 고려인 청소년이라고 사용하기로 한다.

〈표 IV-5〉 고려인 청소년 면담 참가자 개요

	성별	국적	연령	현재신분	종교	이민세대	한국방문	현재 체류방식	
쏘나	여	우즈베키스탄	23	대학원생	기독교	4세대	2번째 (9개월째)	유학 (재외동포재단)	
정올라	여	카자흐스탄	22	대학원생	기독교	4세대	10개월째 체류 중	유학(재외동포재단)	
김이리나	여	우즈베키스탄	23	대학생	없음	4세대	1년째 체류중	유학	
파나	여	러시아	19	교환학생	무종교	잘모른다고 함(2세대 아니면 3세대라고 함) 아버지 고려인 엄마 현지인	4번째 방문	교환학생 (몽골대학과의 교류)	부:고려인 모:야쿠찌 야인
장안젤라	여	러시아	23	대학생	기독교	4세	2년째 체류	유학(재외동포재단)	
박니카	여	우즈베키스탄	23	대학생	기독교	4세	10개월째 체류	유학(재외동포재단)	
김안드레이	남	카자흐스탄	23	대학생	기독교	4세	8개월째	유학(재외동포재단)	
김안젤라	여	우즈베키스탄	19	어학연수	기독교	4세	4개월	정부지정학부 장학생	
장안나	여	러시아	24	대학생	무종교	4세	10개월	재외동포재단	

2) 한국방문 동기

(1) (지인의 소개로 인한) 유학

독립국가연합에서 온 한민족청소년들의 경우 주로 재외동포재단을 통한 유학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에서 유학을 간 유학생들이나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들과의 교류 등으로 한국에서 제공하는 유학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질문자: 그럼 한국에 유학으로 왔습니까?

쏘냐: 네

질문자: 그럼 유학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쏘냐: 저는 재외동포재단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왔고요. 그 프로그램을 아는 선생님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공부하고 있으신 중이라서 그 프로그램 대해서 얘기해주셨어요. 아까도 말하듯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에 갈 꿈이 있었어요. 너무 너무 한국에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때문에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한국에 갈 방법으로 찾고 있었어요. 여기 교류 프로그램이나 유학 프로그램을 인터넷 통해서 찾아보고 아는 선생님들한테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KOICA 선생님한테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어떤 서류를 준비할 지 그것을 다 준비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첫째 여행은 2주 동안 구경을 많이 했어요. 문화 경험하고 한옥을 구경하고 경복궁 같은 것을 방문해서 한국 대해서 아주 좋은 인상이 생겼어요. 저 몸 속에서 한국 사람하고 같은 피가 흐른다고 느꼈어요. 우즈베크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한국에 다시 오고 싶었어요. 첫째 여행에 갔다 와서 한국어를 계속 배웠고 한국에 갈 방법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선생님들한테 많은 정보를 받아가지고 재외동포재단 프로그램을 찾았어요. 그 프로그램 통해서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리나: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는 선생님 계시는데 유학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시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신청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2) 현지 학교의 프로그램을 통한 방문

현지 학교에서 마련하는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교수나 선교사 등이 한국방문을 주선하거나 한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경우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도 있다.

따냐: 제가 한국에 3번째입니다. 고등학교부터 시작하고 대학교 때도 실습 프로그램으로 왔습니다. 한번은 어머니하고 오빠와 같이 와본 적 있습니다. 지금 4번째로 유학으로 왔습니다.

질문자: 고등학교 때는 무슨 프로그램으로 왔습니까?

따냐: 그것은 실습 프로그램인데 공부를 잘 한 학생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야쿠찌야에서 한글학교가 있는데 한국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한국대학교 교수님들이 야쿠찌야 즉 우리 학교하고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1학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6학년 때 우등 학생으로서 한국에 보냈습니다. 우리 학교는 매년마다 우등 학생들을 한국으로 보냅니다. 2번째 실습프로그램은 몽골국제대학교에서 보내고요. 이 대학교를 한국선교사들이 만들었습니다. 몽골국제대학교는 여러 교육교류 프로그램으로 여러 한국대학교들과 같이 일하고 매년 겨울마다 우등학생들을 한국에 보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생활 즉 한국문화를 잘 알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이 프로그램에 참석해보았습니다.

질문자: 그 후에 가족 같이 한국에 다녀왔어요? 아마 관광으로 갔었죠.

따냐: 네.

질문자: 그리고 이번에도 교류 프로그램으로 왔어요?

따냐: 네, 이번에는 1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한동대학교에서 공부를 할겁니다.

질문자: 한국에 2번이나 왔었는데 어떤 기관에서 조직해서 왔어요? 아니면 따냐가 아주 공부를 잘 하니까 보냈습니까?

따냐: 첫째 여행은 학교에서 모두 다 조직했습니다. 비용까지 모두 다 학교에서 냅니다. 그 것은 학교의 이익이 됩니다. 대학교에서도 우리는 비행기 표 값만 냅지만 나머지는 생활비 등등 대학교에서 냅니다.

3) 한국 체류 과정에서의 경험

독립국가연합 출신 한인 청소년들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생활면에서는 점점 적응되어가고 있지만 한국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인들이 여전히 해외한민족을 같은 민족으로 보지 못한다는 의견을 말하고 있다.

소냐: 한국 인상이 굉장히 좋고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23살이니까 그 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 있으면서 갑자기 외국으로 와서 문화적 어려움이 있었고 한국음식 배우니까 그것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9개월이나 되니까 점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졌어요.

울라: 한국에서는 점점 익숙해집니다. 거의 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질문자: 그래도 제일 좋은 거 있습니까?

울라: 좋은 빠른 서비스 불편함이 없는 교통 그런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안 좋은 편은 한국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를 같은 민족으로 보지 못 합니다.

한국인이 같은 민족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말하는 것과 함께 자국에서 익숙해진 관행 때문에 한국의 사회적 관행이 낯설고 이해되지 않음에 대해서도 말한다. 특히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사람들에 대한 인상이 대체로 좋았지만 한국에 방문하고 난 뒤에는 실망하기도 하며, 한국의 대학에서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행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한다. 특히 교수와 학생이 함께 음주를 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장 안젤라: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거고 그냥 느끼는 거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데 여기 오기 전에

아, 한국사람은 그런 그런 사람이구나! 대부분 좋은 사람이구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왔을 때 좀 실망하고 그런 사람도 있구나!

질문자: 그럼 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좀 실망도 하고

장 안젤라: 그리고 게다가 교수님이랑 선생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 왜냐하면 우리 러시아에서 선생님이랑 술 한 잔 하면 좀 안돼요. 그리고...

질문자: 술 한 잔 하면 안돼요?

장 안젤라: 왜 그러냐면 러시아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나랑 술 먹는 사람 친한 친구야...그런데 어떻게 아마 학생들이랑 선생님한테 어떻게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친한 친구라면 시험 때 봐줄 때 있고...

4) 정체성

(1)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

한국 상품의 품질이 좋아지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한국 유학생의 러시아 진출이 늘어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장 안젤라: 예. 고려인도 많고 요즘에 고려인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질문자: 안젤라가 생각하기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왜 많아지는 거 같아요?

장 안젤라: 여러 가지 LG나 삼성 되게 유명한 회사데 게다가 유학생도 많고 좋은 편이죠...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드라마, 음악, 문화 등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니카: 한국 드라마, 음악, 문화 같은 것은 젊은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래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한국어 그리고 한국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고려인들은 오늘날 잘 사는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려인들이 잘 사는 민족으로 여깁니다. 아마도 옛날에는 살기가 좀 힘들었지만 그래서 고려인들이 잘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습관이 남았습니다.

(2) 한민족 정체성 인식 계기

한국어를 배우면서 점차 자신의 민족정체성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기도 한다.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다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같은 민족임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음식도 비슷하고 김치를 먹는 것도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민족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지 한국인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정체성은 고려인으로 대표된다.

질문자: 본인이 고려인으로서 강하게 느낀 적 있으세요?

쏘냐: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민족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지 5년 되었습니다. 처음엔 외국어로 배웠고요. 그런데 점점 자기 모국어로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얼굴도 비슷해서 아, 많이 닮았구나! 그런 느낌도 느끼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식도 많이 비슷하지 않지만 같은 점이 있습니다. 김치 보면 고려인들도 김치라고 하지 않고 ‘침치’라고 하고 국수 같은 것도 반찬도 많이 비슷해요.

이들의 고려인 정체성, 즉 자신이 한민족이라는 의식은 본국에 있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나며 오히려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한다. 러시아에서 생활할 때는 외모에서부터 오는 차이, 음식, 부모의 한국어(고려말) 사용 등을 통해 완전히 러시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지내지만 막상 한국에 오면 한국음식을 먹는다고 한국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장 안젤라: 태어났을 때부터 김치 먹으면 한국인이죠.

질문자: 그러니까 집에서 아직도 김치 해서 먹어요?

장 안젤라: 한식….

질문자: 한식 먹고 그럼 집에서 한국말….(여기는 한국사람 사용하는 한국어가 아닌 고려사람 사용하는 말은 고려말이다.)

장 안젤라: 부모님들끼리….

질문자: 부모님들이….

장 안젤라: 저한테는 안하시고 왜냐면 옛날에 고려말 못했을 때 부모님들이 고민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질문자: 아. 자식 못 알아들게….

장 안젤라: 예. 이제 알아듣잖아요. 혼내세요. 비밀 이야기도 못하시고….

질문자: 그러니까. 부모님도 한국 왔다 간 적 있으세요?

장 안젤라: 아버지가 사업하셔서 옛날에 한국이랑 관련해서 다녔구요. 그러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어머니는 여기 오신 적이 없어요.

질문자: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자신이 Korean 한민족… Korean ethnic 한민족이라는 걸… 고거를 언제 제일 강하게 느끼세요. 난 이제 한국 사람이다. 그런 느낌….

장 안젤라: 러시아에 있을 때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 사람만 있으니까 무시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느낌이 나오죠. 내가 완전히 러시아 사람 아니다. 그런 느낌도 나오고. 외모도 다르고 그런데 여기 오면 내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런 느낌….

질문자: 여기 와서는 한국 사람이라는 느낌보다는 좀 러시아 쪽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장 안젤라: 솔직히 말을 하면 여기엔 김치만 먹으면 한국사람 아니죠.

(3) 한국인과 다른 고려인 정체성

고려인이라는 정체성은 이들이 살고 있는 본국이나 현재 체류하고 있는

한국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들이 사용하는 고려인 정체성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들은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에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별 의문없이 고려인이라고 말했지만 제3국에서 자신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직면했을 때는 러시아인이라고 말하게 된다고 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정체성이 다르게 정의되는 것과 관련된다. 외국에 나갔을 때는 자신의 출신국가 국민임을 내세우는 게 더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올라: 항상 나는 고려사람이라고 강경히 주장했습니다. 항상 고려인으로서 자랑스럽게 봅니다. 아무데나 고려인으로서 자랑스럽게 봅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에서도 고려사람이라고 주장해야 되고 한국에서도 제가 고려사람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 있기 때문에 주장합니다.

파냐: 고려인에 대해? 음..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저를 고려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에 이사해도 모두 물어보았을 때 무슨 민족이냐? 제가 "나는 고려인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가지 뿌리를 고려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몽골에 왔을 때 늘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던 "나는 고려인이다."라는 말을 자신 없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언어, 문화 그리고 전통이든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 때는 "나는 러시아인이다."라고 하면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의 고려인 정체성은 한국에 와서도 한국이나 북한 사람과는 다른 제3의 정체성으로 드러난다. 아래의 사례도 자신의 거주국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고려인 정체성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인과 동일시되지 않고, 한국인이 아닌 고려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인다.

니까: 저는 북한 사람도 아니고 남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고려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우즈벱 아이들이 일본으로 중국으로 아니면 한국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때 제가 나는 고려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에 왔어도 한국사람으로 느끼지 않아요. 언어 그리고 문화 때문에 한국사람으로 느끼지 않고 외국인으로 느낍니다.

역시 한국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은 외국인이며, 언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인과 다르다고 말한다. 단지 한국은 조상의 고향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며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안드레이: 제가 “나는 한국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국에서 외국인입니다. 외모만 비슷하지 언어이든가 문화든가 많이 다르죠. 카자흐스탄에서 카작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한국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우리 역사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으로 거의 대부분 봅니다. 저도 제가 고려인으로서 자랑스럽다 아니면 실망스럽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 조상 고향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재미로 알고 싶습니다.

(4) 다중정체성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처음에는 이것도 저것도 확실치 않은 부정적 정체성이었지만 한국에 와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보다 풍부한 정체성으로 거듭나게 된다. 자신의 국적은 우즈베키스탄, 사용하는 언어는 러시아어, 민족 배경은 고려인이며, 이름은 러시아식 이름이지만 성은 한국식 성이어서 명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대답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다양한 배경은 유럽식, 동양식, 한국, 북한, 고려인 등을 아우르는 풍부한 사고방식을 갖게 해준다는 장점을 깨닫게 된다. 아래 김안젤라의 진술은 혼란스러운 정체성이 거듭나는 과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김안젤라: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있었는데 많은 한국인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왔습니다. 항상 한국사람들하고 만나면 그들의 질문에 “넌 누구야?”라고 하면 대답할 때마다 망설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정확할건가? 여권을 보면 국적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민족은

고려인으로 되어 있고 러시아말로 합니다. 이름을 볼 때 마찬가지로입니다. 성은 한국성인데 이름은 러시아 이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올바른 대답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어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우즈벡 고려인으로 부르고 어떤 한국사람들이 고려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왜 고려인으로 하느냐? 고려인은 한인이다라고 했습니다. 민족은 똑같은데 그냥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땐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우리는 진짜로 하늘 땅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피하고 싶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 그런 질문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냥 저는 고려인 4세입니다라고 합니다. 한국에 왔을 때 아주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한국에 왔는지 집에서 부모님들하고 있을 걸 후회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을 생각났습니다. ‘넌 혼자 그런 길을 선택하고 한국어를 꼭 배워야해. 한국에 꼭 가야 되. 한국은 네 조상고향이다.’라고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 대학교에 외국학생들 위한 말하기 콩클이 있었습니다. 제가 1등 했습니다. 제 말하기 제목은 ‘어느 청소년의 이야기’이었는데 그 내용은 어느 날 한 청소년은 고려말, 조선말, 한국말 단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같은 질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한국에 유학으로 왔습니다. 그 청소년은 바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랑스럽게 안녕하세요라고 할 수 있고 우리 할아버지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청소년이 저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자랑스럽게 그 얘기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그 때 우리 할아버지가 도와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에 진짜 고려인으로서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한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한 가지 사고방식이 아니라 여러 동방, 서유럽, 유럽적인 방식입니다.

5) 이민사회에서의 위치

(1) 독립국가연합에서 고려인으로 살아가기

독립국가연합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강제이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한인들은 스탈린 정권하인 1937년에 18만 명에서 20여만 명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다. 이들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우즈베크, 카자흐 등의 집단 농장에 분산 배치되어 2차 대전 직전까지 한파와 질병 등과 싸우면서 정착하였고, 구소련이 와해되기 전까지 127개 소련 거주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족으로 알려졌다. 스탈린 사후 공민권 회복조치(1956년)로 거주지 제한이 완화되면서 주로 농업에 종사하던 한인들은 1960년대 이후부터 교육 기회를 찾아 도시로 진출하는 등 동포 사회가 안정기에 접어들게 된다(이광규, 1999).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이 면담대상자들도 가족 중 연장자들은 농촌에서, 젊은이들은 도시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한다.

질문자: 우즈베키스탄에서 살고 있다고 했죠? 1937년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던 이리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리나: 어떤 고려인들은 잘 살고 있고 그런데 농촌에서 살고 있는 할머니들은 그리 잘 살지 못 합니다. 작은 밭에서 농사하면서 마음에 든 일을 합니다. 지방마다 노인회관 덕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한 달에 한번 두 번 모이면서 즐겁습니다. 제 생각엔 그런 기관은 아주 도움이 많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대도시에서 공부하고 있고 취직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 위상이 어떻습니까?

이리나: 아주 유명하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습니다.

현지의 한인의 위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려인들은 공부를 많이하여 대학교 졸업 비율이 높으며, 성실

성을 인정받고 있다. 사업에 성공하거나,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도 있으며, 학문적으로 성공한 고려인들이 많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질문자: 오늘날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들이 어떤 위치를 갖고 있습니까?

안드레이: 고려인 디아스포라 아주 똑똑한 디아스포라로 여깁니다. 과학에서도 연구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 고려인이고 대학교 졸업생 퍼센트가 아주 높습니다. 사업에서도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고려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카작인들이 고려인들을 아주 좋은 사업가로 생각합니다. 우즈베크인과 고려인을 비교하면 10명 중에서 7명이 고려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고려인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즈베크스탄에 지금 대사관 덕분에 노인들 위해 학생들 위해 그리고 대학생들 위해 모국방문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고려인들이 아주 큰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주 높은 자리에서도 고려인을 볼 수 있습니다.

장 안젤라: 고려인들 오랫동안 러시아에 살고 있잖아요. 좋은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로 고려인들도 열심히 일하는 이미지잖아요. 잘 살고 있는 편이죠. 왜 그러냐면 러시아사람들 보다 다른 사람들 보다 더 열심히 일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좋은 이미지 가지고 있는데 특히 극동에서요. 고려인들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정부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 자기 사업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독립국가연합의 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이미 이민 4세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고국인 한국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인재단과 한국어센터 등의 존재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한국어과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면서 자신이 고려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자랑스러움을 느끼기도 한다.

안드레이: 지금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에서 10만명입니다. 그것은 1937년도에 강제 이주로 왔을 때부터 변하지 않았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한인재단이 있습니다. 오늘날 고려인 젊은 사람들이 한국, 한국어든가 문화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들보고 같이 한국어를 배우자라고 하면 싫어하고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국 센타 덕분에 점점 관심이 생깁니다.

안나: 어렸을 때 아이들이 놀렸습니다. 자랑스러운 것은 아마도 제가 대학교 때였습니다. 저는 한국과였으니까 모두 학생들이 한국 대해서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고려인이면 사이가 달랐습니다. 고려인들은 거의 대부분이어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 때는 고려인으로서 아주 좋았습니다. 자랑스럽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고려인은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고려인이면 ‘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고려인으로서 좋았어요.

장 안젤라: 많이 이사 잤잖아요. 근데 중앙아시아에서 자랐을 때 고려인들 많잖아요. 고려인들 중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러시아 쪽으로 옮겼을 때 러시아 사람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마쳤을 때 까지 러시아 사람만 만나고 얘기하고 부모님 뵙고...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고려인 많지 않고 한국사람 많죠. 유학하러 온....

질문자: 유학생들 많죠. 유학생들이랑 좀 왕래를 했어요? 서로 대화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랬어요?

장 안젤라: 네. 유학생들 힘들죠. 러시아에서 러시아말도 잘 못하고 러시아사람들이 속일수도 있고 위험하고 도와줬죠. 그 사람들도 저한테 한국말 가르치고 제가 러시아어 도와주고....

(2) 두 문화 사이에서 살아가기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타 민족과의 혼인이 증가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두 문화 사이에서 혼란을 겪기도 한다.

따냐: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릴 시절에 아무 책임 없었는데 점점 커 가면서 우리 아버지는 고려인이고 우리 어머니는 야쿠쯔 사람이라서 보면 상당히 문화차이가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적어도 고려사람들이 만든 음식이나, 전통 의례나, 기념이나 다 가르쳤어요. 그런 두 민족에 문화 생활이 섞인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아버지 편 친구들이랑 친족이랑 음식을 만들었을 때 전혀 다른 음식이고 두 편 사이 처음에 조금 어려웠습니다. 오늘날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않습니다. 아마도 많은 문화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들이 이혼사이입니다. 오늘날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살지 않아도 우리 가족에서 고려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하고 삽니다.

질문자: 가족간에 러시아말로 합니까?

안드레이: 네, 비록 아버지가 고려말을 잘 하는 편이지만 러시아말로 합니다.

질문자: 부모님끼리 하지 않습니까?

안드레이: 아니요, 우리 어머니는 러시아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고려말을 못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러시아말을 전혀 못 합니다.

6) 거주국에서의 한인단체, 한국문화 관련 생애경험

(1) 한국대중문화 향유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들의 경우 이미 4세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한국어(고려말)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한국 관련 사업이나 한국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거의 대부분 고려 가정에서 1세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2세대와 고려말로 하고 2세대와 3세대 러시아말로 한다. 1세대와 3세대 대화시 3세대가 고려말을 이해는 하는데 대부분은 못 한다.) 이러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일상적으로 한국 관련 영화나 TV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젤라: 우리 가족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국어교사고요. 아버지는 한국식당에서 요리사입니다. 실습하기 위해 한국말로 했는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합니다. 집에서 한국 영화나 한국채널 보고 있습니다.

(2) 한국단체, 한국어 학교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독립국가연합 출신 한민족청소년들은 한국어 관련 단체나 교육원에서 한글을 배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소련연방이 붕괴되다 나서 한국 정부가 독립국가연합의 여러 국가들과 수교를 맺게 되었고, 한국교육원의 설립으로 한국어 및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에서 방문하는 공연팀이나 교류단들을 통하여 한국문화에 대해 접하게 되었다.

쏘냐: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를 배운 단체들은 많이 없어요. 두 가지 단체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한국교육원입니다. 거기서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한글학교가 있습니다. 사범대학교에서 한국어문학 학과 있습니다. 타슈켄트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도 있고 여름 방학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물놀이 팀이 가끔씩도 오고 교류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와서 풍물도 배울 수도 있고 한국노래 한국가요 같은 것을 배울 수도 있고요. 2005년에 타슈켄트에 있을 때 교류문화재단에서 팀이 왔는데 2주 동안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열었는데 한국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특히 유럽 쪽에 위치한 러시아 출신 한인 청소년들은 한국과의 거리가

더욱 멀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들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국어나 한국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지만 대학 전공을 한국어 학과로 선택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글 학교 및 한국 문화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질문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러시아에 계시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계시면서 그 쪽에 고려인 단체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던지….

장 안젤라: 네, 있어요. 거기 한국학교도 있고 학생이 거의 다 고려인이에요. 러시아 사람들은 관심 없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유럽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너무 멀어서 관심도 별로 없고 한국회사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려인들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은 팀인데 거의 다 까먹었으니까 아쉽다고 생각하고 해서 한글학교에서 문화수업도 있고 공연이나 풍물패도 있고 한국말도 배우고….

질문자: 그러면은 한국학교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녔어요?

장 안젤라: 아니요. 대학교 입학했을 때. 동시에. 한글학교도 다니고 대학교도 다녔어요.

질문자: 그러면은 대학교 입학해서 다니고 그 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는 안 다니고….

장 안젤라: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마디도 못했어요.

질문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데 왜 한국어 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장 안젤라: 글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나도 고려인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러시아 사람들 고려인에 대해서 잘 받아줄 수 없으니까 답답했어요.

비교적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앙아시아나 연해주에서는 한국의 상업관련, 국제협력관련 대표부들이 설치되고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문화행사등을 개최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고려인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게 된다.

김 안젤라: 첫째로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대사관이 있고 한국교육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KOTRA라는 기관이 있는데 한국상업기관입니다. 또는 KOICA 있는데 한국국제협력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통령하고 한국대통령이 3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조약 통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의원센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회사 사업회사, 관광회사 이와 같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국립국어원, 코리아파운데이션에서 와서 여러 전람회들 엽니다. 재외동포재단 등등 동포들 위해 한국재단이 많습니다.

안나: 블라디보스톡 한인재단이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연해주 한인재단도 있습니다. 고려인들이 많으니까 그런 재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라디보스톡 한인재단은 해마다 설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때 어떤 건물을 빌리고 모입니다. 그 때만 블라디보스톡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인들이 흩어지고 삽니다. 이사로 얼마 안 된 고려인들이 모이고 하는데 블라디보스톡에서 태어난 고려인들은 대부분 모이지 않고 흩어지고 삽니다. 그분들이 된장, 간장 대해서 모르고 마치 러시아 사람처럼 삽니다. 그리고 교육원도 있습니다.

7) 진로 선택을 위한 전략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독립국가연합 출신 한민족청소년들은 한국어를 더 배우고 한인들의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싶어한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한국과 관련된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한다. 러시아에서의 구직 가능성이 낮은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러시아 관련 기업에 취직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소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석사 과정 공부하면서 한국어를 더 배울 생각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랑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

떤 방법으로 이를 수 있는지.. 앞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번역 필요
한다면 번역해 줄 수 있습니다.

장 안젤라: 왜 그러냐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한국말 잘하는 사람
별로 관심 없고 필요하지도 않고 필요 없고... 러시아 그냥 한국이랑
관련 한 것도 많지 않구요. 왜냐하면 있기는 한데 한국에서 뽑아요.
직원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 그러니까 승진도 할 수 없구요.
게다가 우리 한국과 졸업한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우리 선배들 취직
해야 되잖아요. 저도 취직해야 되는데 딱 보면 선배들이 한국말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취직할 수 있을까요.

질문자: 그럼, 한국에서 취직 하는 게 더 좀 가능성은 많은 거예요?

장 안젤라: 네, 많죠.

질문자: 한국에서 러시아 말을 필요로 하는 이런 회사...

장 안젤라: 여기에 회사는 많죠.

질문자: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려는 회사들에 취직하는...

장 안젤라: 러시아뿐 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도 있잖아요.

질문자: 그러면은 선배들 중에 고려인 선배들 중에 이렇게 한국회사
에 취직한 선배들은 있어요?

장 안젤라: 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려인들 러시아 사람이지만
외모는 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어요. 사고
방식 거의 비슷비슷하고 좀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8) 고국과 해외 한민족 연계 방안

(1) 문화, 역사 교육 지원

한국에서 독립국가연합의 한인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문
화적인 지원을 우선시하고 있다.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보다는 재단을 만들
어 청소년세대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하고, 문화와 역사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문화 중 특히 민족 음식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고려인 청소년들의 경우 언어, 역사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음식은 먹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 정체성의 명맥을 이어가는 상징으로서 음식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올라: 아주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아까전에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400 나라에서 한인재단에서 회장들이 왔었는데 저도 통역자로 참석했지만 거기에서도 어떻게 해서 한국이 동포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가? 제일 많이 들었던 강의인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엔 한국은 아주 짧은 기간의 지원하기 보다는 그리고 돈 주기보다는 차라리 문화적인 지원 할까요? 돈 관련 있는 부분은 차라리 어떤 기관이나 재단을 만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양편 문화든가 배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한글학교를 세우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정체성에 속하는 것은 3가지 부분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역사, 언어 그리고 음식입니다. 그것이 모두 다 있으면 뭐 한국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에서 거의 대부분 고려인들이 고려음식을 먹는데 그런데 자기 역사나 언어를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 그들이 고려음식을 먹기를 중지하면 그들한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 안에서 가족 역사를 거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있는지 모릅니다. 러시아, CIS 지방에서 사는 젊은 사람들이 한국역사 대해서 관심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니까: 제가 재외동포재단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재단 통해서 한국에 이렇게 와서 특히 유학으로 왔는데 구경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아주 영광스럽게 봅니다. 그리고 그런 재단, 회사 뭐 교육센터 통해서 헛된 시간 되지 않고 한국 우즈베키스탄, 한국 카자흐스탄 서로 아주 좋은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한국에 유학을 와 있는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장학금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현재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지만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형편이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가 불법이지만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는 통역이나 번역, 식당일 등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위한 교재와 사전 등도 충분치 않다고 한다.

질문자: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더 편할 수 있겠다.

장 안젤라: 첫 번째는 유학하러 온 학생들 장학금 받잖아요. 모자르는 거고 왜 그러냐면 공부만 하고 싶지만 돈 모자르니까 알바도 해야되니까... 그러니까 공부 집중 할 수 없고요.

질문자: 알바는 어떤 알바해요?

장 안젤라: 여러 가지 알바 해야죠. 식당이나 통역이나 번역이나 가이드나 그런 학생들도 있죠.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좋겠구요. 게다가 여러 가지 교재도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상트페테르부르크 한글학교에 여러 가지 교재도 없고 사전도 없고. 사전... 사전 만들어야 돼요. 좋은 사전 없어요. 그런 거고 여러 가지 새로운...

질문자: 장학금 하고 한글학교. 책, 사전...

장 안젤라: 더 관심 많이 생기기 위해서 뭐 글썬요. 그냥 어학당 연수 연구 이런 거 하러 여기 오면 좋겠다.

질문자: 그쪽에서 한국어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연수 올 수 있는...

장 안젤라: 그런거 있잖아요. 한국에 오고 싶으면 꼭 한국어 알아야 되잖아요.

질문자: 알면 좋죠.

장 안젤라: 알면 좋죠. 근데 많지 않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여기 오면. 그런 것도 좋은 거 같아요.

질문자: 그러니까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연수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장 안젤라: 관심 생겨요. 여기 오면 바로 관심 생기고 열심히 할 수 있죠.

(3) 한국 방문 프로그램 지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독립국가연합 출신 한민족청소년들은 보다 많은 한국 방문 프로그램이 지원되었으면 한다. 자신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만 주변의 친구나 노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김 안젤라: 오늘날 한국은 아주 많은 도움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것은 유학으로 보내고 요즘 동포들 위한 새 법이 5년짜 비자 나왔잖아요. 그리고 특히 CIS지방에서 우리 같은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 것을 한국이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유학으로 왔지만 다른 제 친구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그분들 한국문화도 잘 알고 여러 프로그램을 찾고 있는데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쏘냐: 연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1세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계시니까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한국을 자기 고향으로 여기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에 가고 싶어해요. 그분들한테 한국에 갈 계획을 만들면 좋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말을 배울 수도 있고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4) 향후 한국과의 연계 가능성

향후 한국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국과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 고려인들의

한인 정체성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인터넷을 통한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쏘냐: 글로벌 네트워크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자기 언어, 자기 모국어 자기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글로벌 네트워크 통해서 아마도 한인 정체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통해서 온 세계 살고 있는 동포들이 어떻게 사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한민족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으니까 인터넷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통해서 사이트를 만들고 그 사이트에서 포럼을 만들면 그 포럼에서 여러 나라에서 동포들이 모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군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즈베크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도 한국 사람하고 같은 피 흐르니까 문화, 윤리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라: 그런 네트워크 필요합니다. 인터넷 통해서 뭐 어떤 field 만들고 그것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아니면 온 세계의 동포들 대해서 정보가 있는 재단을 만들든가 아니면 저번에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온 세계 재외동포 대표자들을 모이고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자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자랑만 하지 말고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찌다가 한번만 모이는 거 아니라 차라리 정보모임이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도와줄 수 있고 자기 아는 것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 틴코리아 재외동포재단에서 하는 거….

장 안젤라: 솔직히 말하면 배울 수 없어요.

질문자: 프로그램이 나빠요?

장 안젤라: 완벽하지 않고 글썩요. 이걸 어떻게 직접 여기에 오면 관심

도 생각하고... 딱 보면 이쁘기는 한데 화려하고 귀엽고 쓸모가 없어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국에서 또는 독립국가연합 현지에서 고려인 청소년과 한국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서로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유학 후 직업을 구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으로는 네트워크 구축이 힘들다고 말한다.

질문자: 네트워크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니카: 그것은 동포들이 그냥 관광으로 가도 좋습니다. 다만 어떤 프로그램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룹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같은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떤 문화적인 프로젝트에서 참석하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무 프로젝트에서 같이 일하면 더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우즈베크로 온 젊은 사람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같이 참석하고 그 안에서 언어도 배우고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유익한 도움이 되지 다른 방법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한국에서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집에 와서 취직생활을 합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여러 나라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한 네트워크는 한국과 본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질문자: 한국하고 카자흐스탄 어떤 연결이든가 있어야 되나요?

안드레이: 네, 꼭 있어야 합니다. 제 생각엔 고려 디아스포라 양국간의 국교의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안나: 경제 시작하고 문화 연결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블라

디보스톡은 한국하고 가깝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회사 많고 유학으로 온 한국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 연결이 되어 있으면 지속케 해야 합니다.

한국과 본국의 연계 뿐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면서 세계 각국에 퍼져 살고 있는 한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 한국에 와서 아르헨티나 교민을 만나기도 하고, 중국이나 미국에서 온 해외한인 청소년들과 접하기도 한다. 이들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살고 있는 한민족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김 안젤라: 한국에 와서 아르헨티나 교포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교포들도 연결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나라 교포들하고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면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생들, 청소년들 요즘은 노인들을 한국에 초대합니다. 더 많이 한국에 갈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나라 동포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주 중국 그리고 일본 동포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아르헨티나 동포들하고 전혀 대화를 나누지 못 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 고려인들이 있잖아요. 만나고 서로 대해서 많이 알고 싶고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런 프로그램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압니다.

6. 국내 체류 기타 국가 거주 한인 청소년 면담조사 분석

1) 면담참가자 개요

기타국가에 거주하는 한민족청소년들의 경우 주요지역 이외의 외국에서 성장해 온 경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면담을 실시했다. 해외한민족이 거

주하는 주요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 이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면담이 실시되었다. 이들의 주요 체류국은 유럽,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다양했다. 국가를 살펴보면 독일, 케냐,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이다. 이들의 체류 신분은 주로 유학이었으며,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여 대학을 다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대학 입학 준비하며 어학연수를 받고 있는 청소년도 2명 있었다. 연령대는 17세에서 21세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총 면담에 참가한 청소년은 9명이며, 국적은 6명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독일이 2명, 캐나다가 1명이었다.

〈표 IV-6〉 기타국가 출신 해외한인 청소년 면담참가자 개요

	성별	국적	연령	현재 신분	종교	이민세대	한국방문	현재 체류방식	기타
이호영	남	한국	18	대학2	기독교	한국 출생 6세 때 이민		대학에서 학업	아버지가 목사 인도네시아 거주 12년
소형준	남	한국	17	대학1	기독교	한국에서 출생 7세 때 이민		대학에서 학업	아버지가 목사 필리핀 거주 10년
박진영	여	독일	19	대학2	기독교	독일 2세		대학에서 학업	독일8년, 미국 10년
이정현	여	캐나다	18	대학1	기독교	15세대		대학에서 학업	캐나다
김혜리	여	한국	20	대학3	무	6세 -18세 케냐거주		대학에서 학업	케냐
장현석	남	독일	21	대학4	무	15세대	11세에 독일로 이민	대학에서 학업	독일
서효진	여	한국	19	대2	기독교	주재원 자격	3살에 파나마 9살에 다시 브라질-15 세에 돌아옴.	대학에서 학업	파나마, 브라질

박종순	남	한국	18	고졸 (태국); 어학연수	개신교	1.5 (2살 때 태국으로 감)	3번째	국제교육 진흥원 단기교육과정; 한국 대학 진학 준비 중	태국
손규찬	남	한국 (태국 태생)	18	고졸 (태국); 어학연수	개신교	1.5 (태국에서 태어남)	3-4번째	국제교육 진흥원 단기교육과정; 한국 대학 진학 준비 중	태국

2) 한국방문 동기

(1) 부모님의 권유

대체로 인터뷰한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네가 한국인이니까 언젠가는 한국에 들어와야 할 것 아니냐. 타국에서 직장을 잡더라도 적어도 한국에서 대학생활은 해야지 한국을 배운다’면서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아무리 외국에서 살았다 해도, 향후 진로를 외국에서의 직장생활로 잡는 것으로 결정한다 해도 한국에서 대학 생활 정도는 함으로써 ‘한국인의 정체성’을 획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반드시 모든 이들이 부모님의 권유 혹은 강요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게 된 것만은 아니지만 대체로 제보자들은 대학만큼은 부모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였다.

이정현: 그리 돌아오고 싶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께서 미국 대학이 비싸니까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면 어떠냐고..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부터 미국에서 다니면 어떻겠느냐고 하셨다.

이호영: 우리 부모님께서도 내가 ‘한국인’임을 알아야 한다 하셨다. 그리고 나 자신도 물론 오고 싶었고. 물론 해외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낫지만, 한국에도 오고 싶었다. 또 군대 문제 때문에 와야했다.

박진영: 우리 아빠가 그랬다.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리고 한국에 접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한국에 가라”. 하지만 엄마는 그냥 머물라 하셨다. 그러면 재정적인 면은 어떻게 해보시겠다고... 그래서 미국에 머물라 하셨지만, 이제는 내가 여기 있는 걸 다행이라 여기신다.

다음의 제보자 경우, 국적이 독일이다. 유럽 혹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권유로 한국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 생활에 그리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한국에 온 후 맺은 관계, 그리고 대학 생활에 익숙해진 나머지 다시 다른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장현석: 우리 아빠께서, 저보고 한국에 한번쯤 살아봐야 한다고, 제가 한국을 너무 싫어하니까.

질문자: 언제부터 한국을 싫어하게 되었지?

장현석: 독일에 도착하는 순간부터요. ‘왜 진작 여기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시스템도 다르고,..마치 천국 같았어요. 한 반에 20명 정원에다가, 방과후 활동도 많고. 방과후 활동에 농구 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빠께서, ‘넌 한국인이 아니니. 그러니까 적어도 대학 만큼은 한국에서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셨죠. 대학도 여기서 안다니면, 한국에 한번 돌아올 기회가 언제 있겠냐면서 한번 살아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질문자: 그런데 왜 KAIST를 선택했지?

장현석: 뭐, 수학, 물리학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사실 그런 분야로 영국의 한 학교에 붙었는데, 우리 엄마께서 ‘네가 과학, 공학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카이스트도 괜찮겠다’ 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럼 1년만 해보고 만약 별로이면 미국의 대학을 선택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좀 귀찮기도 하고, 친구도 여기서 좀 사귀었고 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했죠. 새로운 학교에 가면 또 새로 모든 걸 시작해야 하니까....

질문자: 한국에 한국방문을 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죠?

박종순: 대학을 여기에서 다니려고요.

손규찬: 대학은 다른 나라에서도 합격은 했는데 부모님이 한국사람은 한국어를 해야 하고 한국어는 공부해야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2) 자신의 선택

그러나 다음의 제보자의 경우 부모의 권유만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귀국에 오히려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 향후 진로를 계속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려면 한국에서의 인맥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자신 스스로 결정을 하였다고 한다.

김혜리: 제 경우는, 제가 대전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태어났어요. 카이스트에 와본적이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다 카이스트 와야돼.” 케냐에서는 international school, British school에 다녔어요. 우리 엄마께서는 저를 미국의 학교로 옮기고도 싶어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의 교육 조건 중 저한테 주어진 옵션은 공립학교 밖에 없었거든요. 한 번 미국의 공립 고등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엄마, 이걸 영 안되겠는데” 왜냐면 천명이 넘는 학생들, 한 반에도 백명씩이나 있고...그래서 결국 케냐의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이후 미국의 대학으로 갈까 했는데, 엄마께서 “너 아직도 카이스트 아직 생각있냐”고. 그래서 저는, “해보죠.” 그래서 카이스트에 지원했고,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사라졌죠. 하지만 우리 아빠께서는 대단히 실망하셨어요. 아빠는 케냐에서 미국으로 가셨는데, 저도 거기서 머물기를 원하셨거든요.

질문자: 아버지께서 미국에 계시나?

김혜리: 네, 부모님 모두 현재 미국에 계시요. 미국에서 대학을 가기가 어려운 점 하나는 비용 문제예요. 한국이 훨씬 싸거든요. 거기다가 부모님께서서는 한국에는 인맥 같은 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 만들려

면 대학을 다녀야 한다고... 한국 사회에선 어느 학교에 갔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카이스트에 지원하는 방식이 미국 학교 지원방식과 유사해요. 그냥 토플 점수, GPA, personal statement...

질문자: 그럼 ‘수능’을 칠 필요가 없었네?

김혜리: 맞아요, 미국 학교와 똑같아요..

3) 한국 체류과정에서의 경험

제보자들의 대부분이 한국의 대학 생활을 일종의 ‘단기 체류’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방학 때 잠깐 어학연수로 오는 정도의 단기 체류적 경험은 아닐지라도 대학 생활 4년 이후 반드시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을 ‘방문’한다는 생각이 강하며,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다음의 몇가지가 바로 제보자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인상인데, 주로 ‘이질감’ 혹은 그와 유사한 경험들이 많다.

(1) 한국에서 아쉬운 점

한국에 체류하면서 이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인상은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이라 할 수 있는 지나치게 빠른 정보의 확산, 그로 인한 독창적인 목소리 부재, 브랜드와 외모에 대한 관심 등이다. 이들은 다양성에 대해서 비교적 관용적인 사회에서 살았던 경험 때문에 한국사회의 획일화된 정보 수용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질문자: 한국에 대해 그 밖에 가졌던 인상은?

소형준: 이걸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알아차린 게 뭐냐면, 그 ‘네티즌’이란 거 있죠. 뭐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정보가 너무 빨리 퍼져 나간다고 할까요. 특히 한국에서는, 내 생각에, 어...한국말로 하면 ‘급하다’? 성격이 급하고, 어.. 어쨌든 뉴스가 너무 빨리 퍼져간다는 거예요.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박진영: 사람들이 너무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브랜드 네임이랄까,

어떤 핸드백을 가지고 다니냐 하는 것 있죠. 비싼 것을 차고 다녀야 하고 뻐뻐 말라야 하고. 이런 것 관심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살려면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죠.

이호영: 한국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어요. 자기만의 독특한 목소리. 그게 바로 부정적인 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뭔가 떴다 하면 다음 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죠. 질문자: 맞아. 한국인들이 차이에 대해 좀 오픈되어 있지 않은 편이지. 나만의 방식을 표현하기가 어려워.

박진영: 가령, 왼손잡이는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소형준: 미국인들은 다양성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 한국과 반대죠. 미국인들은 독특한 것을 좋아하죠.

(2) 문화적 이질감 혹은 문화 충격

제보자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한국인, 한국문화로부터 느끼는 이질감이었다. 물론 몇가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또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지라도 직접 방문하여 한국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 느끼는 것은 문화적 충격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이다. 가령 다음의 소형준, 이호영의 경우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감’을 느낀다고 한다.

질문자: 한국에 와서 기대와 달랐던 점은?

소형준: 좀 소외감을 느꼈어요 그런 걸 기대하진 않았는데... 외국인들과 같이 있을 때는 제가 좀 더 오픈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왠지 외국인 같아요. 맞는 말을 하는 건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고..

질문자: 필리핀에서는 한국에 대한 것을 접할 기회가 없었나?

소형준: 뭐 한국에 대한 걸 좀 보기는 했어요. 한국 드라마, 쇼 같은 것. 그리고 저는 international school을 다녔는데 거기에는 한국학생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면 오히려 ‘한국인화’되는 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 있는 것에 비해) 그 곳에서

오히려 한국인인 것 같았어요.

이호영: 저는 일반적으로 볼 때 제가 예상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가령 선후배 관계 같은 것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보니까 들었던 그대로더라구요.

그리고 다음 장현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한국을 관광하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학생활을 하면서 직접 사회관계를 맺으며 느끼는 일종의 문화충격을 기술하였다. 특히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적 분위기는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장현석: 내가 볼 때 한국인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좀 피상적인 것 같아요. 좀 솔직하지 않다고나 할까. 가령, 저는 내가 뭘 안좋아하면 안좋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반응을 기대하구요. 그런데 여기 와서 만난 한국 친구들은 뭐 예를 들어 ‘우리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어? 피자 어때?’ 하면 좋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막상 피자 식당에 가서 먹을라 하면 ‘사실 피자 별로 안좋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질문자: 재미있네. 어쩌면 그건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한국인들은 진짜 느끼는 것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것 아닐까.

장현석: 한국인들은 마치 ‘내가 널 위해서 이걸 한다’ 하는 식이에요. 전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작년에 한 회사에서 인턴쉽을 할 때도 그랬어요.

질문자: 그럼 어떤 면에서는 문화 충격이었겠네.

장현석: 네, 맞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첫 번째로 느낀 문화충격은 문 사이즈예요.

질문자: 작아?

장현석: 문 높이가 너무 낮아서 자꾸 머리를 부딪혀요.

질문자: 어쩌면 네가 너무 큰 걸지도.

장현석: 전 그리 크지 않거든요. 그냥 평균 정도랄까.. 그런데 문 높이, 천장 높이가 대체로 낮아서 자꾸 구부정하고 다니게 되요. 그래서 한국에 온 이후 첫 여름 방학 때 독일에 돌아갔는데, 우리 아빠께

서 ‘너 자꾸 왜 구부정하고 다니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저
도 모르게 버릇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회관계에 있어서 상하 위계가 강함을 느낀 것도 또 다른 문화충격이
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권위적인 분위기와 나이에 따른 언어사용 방
식 등이 이들에게는 적응하기 어려운 요소로 느껴진다.

질문자: 한국에 와서 그다지 큰 불만은 없었어? 차라리 외국에 있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서효진: 불만은 있죠. 교육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좀 딱딱하게...선생
님은 얘기하고 애들은 그냥 앉아서 듣고 있는 그런 권위적 분위기가
좀 그렇고, 또 선배들한테 인사를 해야 하고.

질문자: 고등학교 때?

서효진: 네, 그러니까 존댓말 쓰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따지는 게 많
아요. 그랬어요. 교회에 간다든지 학원에 간다든지 하면 무조건 나이
가 많으면 반말을 할 수 없고...

질문자: 대학 와서는 어때?

서효진: 대학와서는 어..좀 편해요. 제가 나이가 많은 편이니까. 여기
는 고2 때 들어오는 애들이 많아서...처음에는 나이를 좀 속이려고 했
어요.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언니, 언니 하면 친구도 잘 못사귀고,
부담스러워 할까봐.. 아, 그래서 물어볼 때까지는 나이를 말하지 말자
했죠. 그래서 애들이 나이가 어려도 학년만 같으면 그냥 야,야 하는
것도 괜찮다 했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처음 만나자마자 너 몇 살이
야, 몇 년생이에요,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질문자: 카이스트 애들만 그러나?

서효진: 네, 애들이 일단 나이를 확인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같은 학년이지만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나이는 좀
많으니까 호칭은 언니로 해야하고, 이렇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
는 거죠. 아니면 반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와 함께 한국 사회의 일상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모습들이 이들에게는 낯선 요소들로 보여진다.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 손을 잡고 다닌다든지, 대중교통이나 거리에서 사람들 사이의 공간이 너무 좁다는 점, 사람들이 급하다는 점 등이 이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지는 요소였다.

질문자: 여기와서 외국인 같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나? 특히 언제?

박진영: 그냥 여기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없을 때요. 처음 왔을 때 정말 여자애들이 손잡고 다니는 걸 보고 놀랐어요. 아마도 personal space issue인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을 타고 사람들이 너무 가깝다는 느낌도 있구요.

질문자: 맞아, personal distance는 정말 문화적인 요소이지.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좀 달리 어찌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

소형준: 그런데 줄 서있을 때는 그나마 personal distance에 대해서 choice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중간에 끼어든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좁힌다든지 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손규찬: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3살 때 그때 오고 정말로 잠깐만 왔다 갔어요. 다 모르고 왔는데 여기 좀 이상한 것은 한국아줌마들이 일을 많이 급하게 하고 전철타면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이상했어요.

(3) 청소년 문화(특히 대학문화에 대한 인상): 술, 마약

특히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한국 학생들의 음주 문화에 대해서 놀라는 반응을 한다. 반면에 한국 학생들이 마약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놀라고 있다.

이정현: 술문화. 정말 쇼킹했어요. 한국 오기 전에는 술을 안마셨거든요. 여기 오니까 학생들이 정말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질문자: 난 카이스트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마시는 줄 몰랐는데. 시

간이 없지 않나?

이호영: 많이 마셔요. **they drink a lot.**

질문자: 뭐 다른 것은 안하나?

이호영: 절대 안해요. 사실 한국에서 대학생활 하면서 그게 정말 놀라웠어요. 마약 안하는 거...

질문자: 뭐 구하기 어려워 그런 거 아닌가?

소형준: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무료 샘플도 구할 수 있어요.

이호영: 한국 와서 그거 하나는 정말 좋게 봤어요.

질문자: 미국에서는 대학생들이 마약 많이 한다는데.

소형준: 적어도 마리화나는 할 거예요.

질문자: 맞아. 뭐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

(4) 귀국과 애국심

다음의 제보자 김혜리의 경우 오히려 타국에 있을 때보다 한국에 돌아와서 ‘애국심’이 생겼다고 한다. 한국에 돌아와서 외국인들을 바라볼 때 오히려 더욱 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김혜리: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이 정말 싫었거든요. 기후도 다르고, 친구도 없고... 거기다가 한국어도 잘 못했으니까요. 지난 2년 동안 한국어를 정말 못했어요.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이에요.

질문자: 케냐에서는 한국어를 안 배웠나?

김혜리: 안배웠어요. 지금은 물론 나아졌지만, 스펠링은 아직도 헛갈려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애국심이 자라는 거 있죠.

질문자: 어떻게 해서..?

김혜리: 아마도 카이스트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대학 총장부터 시작해서 교수님들도 우리가 이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거든요. 그리고 “유학 가지말아라. 유학가봤자다. 카이스트에서는 너희가 있어야 우리가 더 좋은 학교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살면서 오히려 외국인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질문자: 왜?

김혜리: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 특히 백인들이 싫어요. Southeast Asians는, 그쪽에선 opportunity가 없으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 아빠도 타국에선 마찬가지로 마이너리티잖아요. 그니까 이 사람들한테 니네 우리나라에 왜 왔냐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sympathize하는데, 이 백인들은 보면, 좀 맘에 안드는게 많아요. 우리 수업 듣는데 교수님이 백인인데, he doesn't explicitly express it, but 근데 가끔씩 그게 보여요. 한국 사회를 좀 아래로 보는 게 좀 보여서.

4) 정체성

(1) 모호한 정체성

여러 나라에서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제보자들은 각기 국가에 명확히 속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한국에 대해서도 유아, 청소년 상당 기간을 떨어져 살아서 그런지 국가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정체성을 느끼기는 어려운 듯 하였다. 다음의 제보자들은 자신이 한국도 다른 나라에도 절대적으로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소형준의 경우 필리핀에서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international school에서 친하게 지낸 친구들은 거의 미국 친구였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미국 친구들과 더 공유하는 부분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미국인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이호영의 경우엔 인도네시아에도, 미국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속하지 않는 모호한 정체성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제3의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Third Culture Kids)”이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출신국이나 성장국이 다르며 성장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그 국가의 대표적인 학교가 아닌 외국인 학교에서 교육받은 경우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모호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아예 “글로벌사회의 시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소형준: 음... 맞아, 전 거의 대부분 미국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 저 자신이 ‘미국인’은 아닌 거예요. 한국인이죠. 전 항상 미국애들과 같다고 생각했는데, 생김새가 다른 거죠.

이호영: 전 어떤 ethnic group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 단지 TCK일 뿐이죠.

질문자: TCK가 뭐지?

이호영: TCK. Third Culture Kids. 자기 자신만의 ethnicity라 할 수 있죠. 어느 한 문화에 속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인도네시아에도 제 주변에 보면 저와 비슷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정의를 내리자면... 그냥 대충 아무다 다 들어갈 수 있는 범위이지요. 부모의 출생 국가가 아닌 곳에서 성장기를 보낸 사람이라면 다 이러한 집단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독일을 국적으로 하는 장현석의 경우에도 굳이 독일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 독일적이지도 않고 한국적이지도 않은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것을 이유로 들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하였다.

장현석: 전 독일에서 자랐지만, 한국 가족 밑에서 자랐죠. 그리고 American Institution에서 교육을 받았구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이것저것 다 섞어놓은 것 아닐까요. 누군가가 저보고 어디 출신이냐고 물으면 그냥 전 a citizen of the global society라고 대답하죠.

(2) 법적 지위, 재정, 그리고 정체성 간의 관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별 생각없이 살아가던 경우도 막상 자신의 법적 지위나 제도가 동원되어야 할 상황에서는 정체성에 대해 의식하게 된다. 어린시절 독일에서 보내고, 이후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미국의 한 지역에서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곳의 아시아계 이민자들과 별 차이없이 지내던 박진영의 경우, 막상 대학입학과 학비 재정지원 자격에서 미국시민

권이 없었던 자신은 외국인임을 깨닫게 된다.

박진영: 독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중, 고등학교는 미국의 Orange county에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Orange county에는 아시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문화가 섞인 곳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다양한 문화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종차별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라든가... 특히 저는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저 보다 짧거나 거의 같은 기간 동안 있었지만,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에 속한다는 느낌은 없어요.

질문자: 하지만 그런 법적 지위는 그냥 공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나? 자기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한 거 아냐?

박진영: 그렇긴 하지만 정작 대학에 지원하려고 보니까 저는 단지 ‘외국인’에 불과하더라고요. 미국 시민에게는 굉장히 열려있는 시스템이지만, 외국인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가령 장학금이라든가 하는 게 전혀 주어지질 않아요. 사실 버클리에 지원해서 되긴 했는데, 재정적인 문제로 그냥 포기했어요. 학생 대출이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년에 \$35,000 이나 내야 하는데... 저 말고도 이런 문제에 당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9/11 이후에 외국인을 배척하는 분위기라서... 그래서 인종차별과 이러한 법적 지위 문제 때문에 그곳에 속한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질문자: OK,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이라는 걸 느꼈다.

박진영: 네.

질문자: 내가 보니까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그럼 현재 KAIST에 대해 만족하는지

박진영: 처음에는 좀 걱정도 했었죠. 여기 적응할 수 있을까 하고. 그런데 처음에 예상했던 것에 비해 괜찮은 것 같아요.

(3) 한인 정체성 인식

문화적으로 한국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의견은 주로 ‘음식’과 관련된 것이었다. 다음의 제보자 장현석, 김혜리 모두 다른 건 몰라도 음식 만큼은 한국음식을 선호하게 되는 것을 기술하였다.

질문자: 한국과 떨어질 수 없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는 없나?

장현석: 음... 잘 모르겠지만... 음식에 있어서는 한국 문화와 절대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질문자: 집에서 한국 음식을 먹으며 자랐기 때문에?

장현석: 네, 고등학교 다닐 때, 서양음식을 하루 세 끼 다 먹었거든요. 그래도 별 문제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부터는 한번 피자나 햄버거 먹으면 그 다음 식사는 꼭 한국음식을 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김혜리: 저도 입맛은 2년 전에 비해 많이 변했어요. but 요즘 들어서 맵고 시원한 게 땡기는 거예요. 뭐 어디가자 하면 ‘네가 웬일로 한식을 찾냐’하고.

음식과 함께 스포츠 경기에서 한국을 응원 할 때 한국인 정체성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으며, 일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서도 한국인 정체성을 공유한다고 생각하였다.

손규찬: 월드컵 같은 때 응원하고 그럴 때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야구도 한일전 같은 경기를 할 때 응원하고 할 때 내가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같아요.

박종순: 일본을 싫어하게 되는 것도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일본인을 별로 안 좋아해요.

다음의 두 학생(서효진, 김혜리) 모두 문화적으로 절대 한국과 떨어질 수 없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문화적

으로 한국과 묶여 있다는 생각이다. 김혜리와 서효진 모두 ‘외국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한국인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만 외국 문화와 절대 소통될 수 없는 점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김혜리: 그리고 저희 엄마가 유교에 대한 TV program이 있다고, 이거 꼭 보라고..

질문자: 유교?

김혜리: 네, there was a 심리테스트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뭐, it was explaining how Orientals 서로 relationship을 되게 강조한다고... 서양사람들 보다. There is cow, chicken, grass, which one will go together.

장현석: cow and grass.

김혜리: exactly. 근데, 서양인들이 하면 cow 하고 chicken을 같이 한데요.

질문자: 아..고기니까.

김혜리: 동양인들은 cow와 grass의 relationship을 두 개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나도 그랬거든요. ‘나는 한국 사람들과 사상이 다르다. 나는 외국에서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근데 나는 테스트 결과가 틀리게 나올 거야 했는데, Asian으로 나오더라구요.

요즘 그런 거 느껴요. 애국심이 많아지고...근데 그 테스트하니까. 아.. 한국인은 어쩔 수 없구나 했어요.

질문자: 근데 한국에서 계속 있을 거예요?

김혜리: 예, 근데 늙어서는 다시 나갈 거예요.

질문자: 언제가 늙은 거야?

김혜리: retire하고.

김혜리가 이와 같이 문화적으로 한국인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반면, 서효진의 경우는 문화적인 면 외에 ‘제도적 편입’의 예로 ‘수능’을 들었다. 단순히 언어, 문화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포함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절차를 밟았기 때문일 것이다.

서효진: 내가 한국인이라고 특별히 느낄 때는...수능 봤을 때, ‘나 내가 한국인이구나’,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를 느꼈어요. (웃음)

질문자: 하하..드디어 제도권에 순응하는 것으로..

서효진: 네

질문자: 그 밖에는?

서효진: 그리고 남자 친구. 남자친구는 절대 외국인과 사귄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브라질에서도 학교 친구가 몇 명 있었지만, 웬지 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 있죠. 같은 언어를 써도 의사소통이 힘들어요. 한국에서도 물론 ‘외국물 먹은 애’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질문자: 외국에서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점이 있는지?

서효진: 그게 이상한게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걸 되게 느꼈던 게..연애에 대해서 저는 외국남자친구를 사귀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외국 남자한테 관심이 안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랄까. 좀 막혀 있는 느낌을 받아요. 외국인들을 만날 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좀 더 깊은 관계에서 의사소통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그게 외국에 살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꼈었어요. 브라질에 있을 때도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리기는 해도, 궁극적인 선에 있어서는 넘어가기 힘든 점이,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

질문자: 애하고 나하고는 대화가 안된다..?

서효진: 예, 그런 게 있어서...

질문자: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 힘들지는 않았는지?

서효진: 네,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학업도 너무 다르니까, 힘들어가지고 성적도 안좋게 나오고, 친구사귀는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질문자: 한국 학생들과 좀 다른 점을 느끼나?

서효진: 전혀 한국학생들과 다르다는 느낌 없어요. 오히려 현재까지 브라질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 거기서 아버지들이 정착한 경우, 개네들과 모이면 애들이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고등학교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오히려 전 한국 애들과 동질감을 더 느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고방식 부분은 한국과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일 수 있어요. 제가.

(4) 한국 관련 자부심

이들은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과 관련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부모의 한국 선호 때문에 은연중에 한국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게 된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 브랜드 가전이나 통신제품이 외국에서 광고되고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 행사에서 한복이나 한국 음식이 나왔을 때 자부심을 갖기도 한다.

질문자: 언제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는지...

소형준: 한번은 아빠와 함께 미국에 갔는데, 라스베이거스요. 카지노에 놀러갔어요. 천장에 아주 커다란 스크린이 있고, 멋있는 쇼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쇼 중간중간에 LG 광고가 뜨는 거예요. 거기있는 모든 이들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기분 좋았어요.

질문자: 하지만 LG는 그냥 한 회사에 불과하지 않나?

소형준: 네, 하지만 그렇게 큰 비즈니스 도시에, LG가 떴다는 것은... 어쨌든 그런 걸 보면 ‘그래, 나는 한국인이야’.

이정현: 저도 LG 핸드폰만 보면 자랑스러워요. 한국에만 있었으면 잘몰랐을 텐데..

김혜리: 저희 부모님 때문에 그런가봐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한국에 관련된 이름이 어디 나오기만 하면 좋아하시거든요. 아마 부모님과 친하다 보니까 저도 영향을 받았는지, “어, 삼성, 엘지 들어왔네” 하고 그렇게 조금씩 코멘트하는 게 세뇌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케냐에서도 뭘 보면 “어 삼성이 서포트해줬네”하고 느껴요. 근데, 막상 그게 삼성 이름을 못하는 게, 왜냐면 owners are not Koreans. 그래서 한국 거라는 걸 잘 몰라요.

서효진: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때는 보통 international festival 같은 거 할 때, 한복이라든가 음식이 독특하다고 느끼는 때였다. 다른 데 보면 다 비슷비슷한데, 한국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았다. 한국

은 예쁜 부채도 있고, 부채춤도 추고..그럴 때 자부심을 느꼈죠. 애들이 오...하면서 관심을 가져주니까. 저는 어렸을 때라서 이런 거 밖에 생각이 안나요.

5) 이민사회에서의 위치

제보자들이 거주했던 곳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대규모 한인사회가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서 그런지 한인사회가 그 곳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독일, 브라질, 케냐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기도 해서 제보자들이 이민 사회의 위치를 느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 커뮤니티가 없이 소수자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 사회의 주류집단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도 있다.

질문자: 한국인이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 뭐 살기 힘들다던가..

소형준: during IMF, 학교에 다녔는데, 좀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한국 아이들은 그 상황에 대해 좀 달리 생각하기 때문에.

이호영: 학업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특히 언어 문제. 그리고 나서는 일단 사람들과 사귀게 되자 나하고 좀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죠. 그래서 그런지 속내를 보여줄 수 있는 깊은 관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질문자: 한국인이어서 차별을 겪었다던지 그런 게 있었나? 나쁜 경험..?

서효진: 예, 있었죠.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 브라질 사람들도 살았었어요. 브라질 사람들 중 젊은 남자들이 있었는데, 어..뭐 일본, ‘자포네’ 하면서 일본인이라고 했어요.

질문자: 일본 이민자들이 브라질에 많아서 그런가?

서효진: 그렇게 놀렸어요. 근데 한 번은 제 동생이 없어진 거예요. 제 동생을 그 사람들이 데려간 거예요. 뭐 데려가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어..그래서 우리는 너무 놀라서 교회 아저씨들하고 같이 찾으러

가서 동생이 잡혀갔다고, 브라질 사람들이 잡아갔다고 그래가지고... 동생을 찾기는 했는데, 그 사람들은 없고 동생만 남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냥 놀래켜 주려고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그 때 우리는 ‘애한테 너무 심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그 외에는 뭐 그다지 차별이나 어려움 느낀 적이 없어요.

질문자: 거기서 한국인이어서, 아니면 아시아 사람이어서 이상한 눈으로 본다든지 하는 것도 없었고? 멕시코 같은 데에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서효진: 근데 그 때 이후로는 뭐 그다지 크게 느낀 적은 없어요.

케냐에서 거주했던 김혜리는 그 곳의 한인 사회 자체가 작아서 그랬는지, 한국어, 한국문화를 따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 케냐라는 나라 자체, 그리고 그 곳의 한인 사회는 단지 잠깐 머물러 가는 곳에 불과할 뿐, 오히려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 조상의 손길이 닿아있는 한국의 대전을 ‘홈타운’으로 여기고 있다.

질문자: 한국어교육을 받은 일은 없는지?

김혜리: 케냐에는 약 500명 가량의 한국인이 있었거든요.

질문자: 500명?

김혜리: 아마 지금은 7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인 사회는 좀 시끄러워요. 가깝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엄마는 별로 한국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질문자: 교회도 안다니고?

김혜리: 다니긴 했지만, 다니다가 그만 두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서 한국친구들을 사귄 기회도 없었죠.

6) 거주국에서의 한인단체, 한국문화 관련 생애경험

브라질에서 장기간 거주했던 서효진의 경우 브라질 사회에의 적응 보다 는 한국인 사회에 적응하여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교회 중심의 한인 사회,

그리고 학교 친구들 모두 한국인이었다.

질문자: 파나마, 브라질에서 한국 교육 기관에는 없었어요?

서효진: 한글 학교 있었어요. 교회에 연관이 있는지는 어릴 때는 몰랐고, 그냥 어머니들이 자원봉사하는 식으로 한국문화, 한글 교육이 있었어요. 브라질에서는 한글학교 많이 안다녔던 것 같고, 브라질에서는 이제 주로, 교회에 나가서 어른들 예배는 한국말로 했는데, 애들 예배는 교포가 많으니까 포르투갈어로 했어요. 그런데 주재원 애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을 위한 예배를 따로 만들었어요. 한국어로. 반도 나누고. 그렇게 교회에서 한국 친구들 많이 만났어요. 그 때도 교포애들이랑 주재원 애들이랑 좀 분리되는 게 있었어요.

질문자: 브라질에 있을 때 한국에 대해 알 기회가 있었어?

서효진: 네, 언어는 집에서 한국말 쓰고, 일년에 한번씩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텔레비전도 많이 보고.

질문자: 브라질에서는 안봤어?

서효진: 그냥 비디오로 복사해가지고. 요즘엔 채널이 나온다는데.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고. 그냥 전 만화를 많이 봤어요.

질문자: 그럼 한국어를 까먹지 않게 되었네.

서효진: 오히려 한국에 오면 외국물 먹은 거 같지 않다고.. 한국어 너무 잘한다고.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랑 한국말 하죠, 그리고 한국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친구들이랑 다닐 때 물론 콩글리쉬로 섞어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질문자: 외국친구들은 없었나?

서효진: 그냥 동네가요. 학교에서 집에 갈 때.. 그 동네가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거든요. 어찌다 보니 학교랑 가깝고 한국인이 많이 살게 되었는데,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어울리는 친구들이 한국친구들이었어요.

질문자: 대중매체에서 한국을 알린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나?

서효진: 브라질까지 한국에 대해서 알려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브

라질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일본에 대해서는 알죠. 일본은 꼭 차이나 타운 처럼, 재팬 타운이 있었어요. 차이나 타운 보다 재팬 타운이 더 컸어요. 식품점 이런 게 있어서 일본쌀이 한국 거랑 비슷하니까 거기서 사고 그랬죠.

질문자: 한국 식품점이나 레스토랑은?

서효진: 있었어요. 오뚜기 이런거 한국식품점 있었어요. 그런데 다 비싸죠. 과자도, 쌀도 비싸죠.

질문자: 거기 사는 동안 다른 한국인들과의 교류가 있었나? 교회나 다른 것?

이호영: 사실 전 한국 교회에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도 별로 없었어요. 한국 친구들은 그냥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었죠.

소형준: 네, 선교사 집안이 많았어요. 내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 선교사 집안 자녀들이죠.

박진영: 독일에는 한국인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냥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만난 한국인들이 전부였죠.

독일이 국적인 장현석의 경우 공식적인 교육 기관 자체는 **American school**이었지만 어머니의 도움으로 한국적 교육을 개인적으로 받았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 커리큘럼에도 익숙했다. 그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사귀는 한국 친구들이 한국에 돌아가면 한국의 음악 시디를 보내주고는 해서 한국의 대중 문화에도 익숙해져 있었다.

질문자: 독일에서 한국어, 한국문화를 익힐 기회가 있었나?

장현석: 사실 한국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정석 같은 거 다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께서 선생님이었거든요. 우리 아빠와 결혼당시. 그래서 전 용비어천가 같은 거 거의 다 읽었어요, **Awesome**.

그리고 독일에서 사귀는 한국친구들이 한국에서 음악 CD를 보내주고는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음악 등에 익숙했죠. 사실 한

국 음악을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많이 알지도 몰라요.

질문자: 그럼 한국에도 친구들이 있나?

장현석: 네, 독일에서 사귀 친구들이죠. 한국에 다시 돌아온 친구들.

7) 진로 선택을 위한 전략

많은 제보자들이 대학 이후 한국에서 진로를 계속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 특히 대학원을 외국에서 선택하는 경우에는 거의 그 곳에 영구히 머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인도네시아 출신 이호영의 경우, 한국에서의 진로도 고려를 하고 있었다. 한국에도 인도네시아에도 속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에서 자신이 진로를 결정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질문자: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마친 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한국에 계속 있을 생각도 있나? 30살 정도 되었을 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호영: 아마 한국에 머물 거예요. 대학원도 가고. 왜냐하면 한국에서 일하고 싶거든요.

질문자: 한국에서 어떠한 직장을 잡고 싶어?

이호영: 스포츠 의학을 하고 싶어요. 여기서 일하려면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미국으로 가게 되면 아마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한국에서 생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만약 대학원을 해외에서 가게 된다면 계획이 달라질 것이다.

질문자: 한국에서 직장을 잡으면 좋은 게 있나?

이호영: 네, 하지만 잘 모르겠기도 하고.. 하지만 하고 싶기도 해요. 한국이 변해가고 있으니까 가능할지도 몰라요.

이 밖에도 진로 결정에 있어서 한국 문화에 익숙한 점을 들면서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제보자도 있었다.

질문자: 대학 졸업 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서효진: 생각 중이에요. 유학을 갈까 생각도 하고...

질문자: 부모님은 뭐라 하시는데?

서효진: 부모님은 유학가는 거 찬성하시는데,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저희는 딸이 둘이나 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다 쓰면 안되서..

질문자: 유학을 가는 게 더 좋을 거 같애, 아니면 여기 남는 거?

서효진: 카이스트 대학원은 왠지 가기 싫어요. 차라리 배울 거면 다른 환경에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자: 유학 갔다가 한국에 돌아올 생각인지?

서효진: 만약 외국에서 직장을 얻게 되면, 기회가 되면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한국이 편한 것도 있으니까.

질문자: 한국에서 뭐가 편해?

서효진: 아무래도 익숙하잖아요. 많이 생각을 안하고 다녀도, 뭘 먹는다는지 사러 다닐 때... 외국에서는 아무래도 신경을 써야하잖아요. 행동하는 거라든지 사람한테 말할 때도 사실 모국어가 아니니까 신경이 쓰이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진로를 한국에서 정하고 싶어 하기도 한다. 물론 이들의 거주국이 한국과 관련하여 경제 수준이 어떠한가도 이들의 향후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태국에서 온 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 국적으로 한국에서 직업을 구하고 싶어하며, 군대에 복무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또한 여러 언어를 잘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기업에서 통역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으며, 양국을 매개하는 문화 중개인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손규찬: 네. 직업은 한국에서 구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싶어요.

박중순: 저는 직장보다 군대 쪽으로 가고 싶어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ROTC를 해서 장교로 가고 싶어요.

질문자: 그러면 전공을 무엇을 하고 싶어요?

박종순: 저는 기계공학을 하고 싶어요.

손규찬: 저는 경영을 하고 싶어요.

박종순: 군대에서는 통역병을 하고 싶어요. 영어도 할 수 있기 때문
이죠.

손규찬: 저는 삼성이나 다른 대기업에서 제가 태국어도 할 수 있으
니까요. 저는 다음달에 삼성에서 3주 동안 통역하기로 했어요.

박종순: 저도 처음 왔을 때 삼성에서 3일정도 통역했어요.

손규찬: 태국에 삼성이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손규찬: 저는 태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 도움을 주고 싶
어요. 한국사람이 태국어를 잘 하지 못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고, 한
국이 태국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런 문화중개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8) 고국과 해외한민족 연계 방안

(1) 고국과의 연계를 가로막는 것: 군대 및 교육 문제

해외의 한인 청소년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교육을 받고 싶지만 이에 대한
장애물로 남자의 경우 군대를 들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이들도 대학원은 미국 등으로 진학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의 교
육의 질이 훨씬 좋아진다면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청소년들이 한국을 더
많이 찾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호영: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요? 해외에서 남자들이 돌아올
때요.

질문자: 아, 군대 문제!

이호영: 네, 군대 문제 때문에 학위를 받거나 좋은 교육을 받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인적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한국에서 아무
문제 없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않겠

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위해서도 그게 더 낫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자: 남자는 그렇다 치고, 여자의 경우는?

박진영: 이게 관련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요즘 교육 때문에 외국에 나가잖아요. 한국 교육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많다고 생각해요.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미국 시민권을 얻고 싶은 이유가 제 자녀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오히려 좋은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다음의 장현석의 경우에도 대학 이후의 교육은 한국에서 계속할 계획이 없었다. 대학 교육 정도면 한국에 머문다는 일종의 의무감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듯, 대학 이후는 타국을 생각하고 있다.

장현석: 사실은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닐까 생각 중이에요.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저 여기에 있으니 4·5년 늦어진 것 뿐이에요. 그리고 장차 직장도 미국에서 잡을 생각도 있어요.

(2) 정부 차원의 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한인 청소년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한국문화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좋겠다고 말한다. 한국의 전통예절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이호영의 경우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호영: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올 때 한국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걸 가봤어요. 문화관광부에서 제공했나? 그럴 거예요. 재외 거주 한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아마 이번 해에 테스트로 해본 것 같은데 매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자: 오, 이번 해에 갔었다고?

이호영: 네, 7월달에 2주 동안 갔어요. 공짜였죠. 세배하는 법도 배우고.

질문자: 세배하는 걸 배워야 한국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나?

이호영: 뭐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살려면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면 좋으니까.

질문자: 그렇다면 한국에 머물 사람들한테만 좋겠군.

소형준: 반듯이 그렇지만은 않아요. 외국에서 살더라도 한국인이라면 일종에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살면서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잘 표현할 수 없다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어요?

(3) 고국 방문 시 ‘외국인’으로서 겪는 어려움 해소 노력

국적이 외국인 경우 아무리 고국이라 해도 법적인,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히 한국을 알거나 한국어를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행정적인 차원의 관심 혹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질문자: 한국 정부로부터 바라는 바가 있나? 재외동포로서, 혹은 외국인으로서?

장현석: 사실 바란다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기본적인 것만 말하자면... 일단 정부로부터 외국인에 대한 서포트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독일에는 저 같은 외국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어도 잘 못해요. 그런데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한국에 온다든지 하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한 거예요. 제 친구중 하나는 하마터면 감옥 갈 뻔 했다고 해요. 체류 기간이 좀 모호해서... 그러면 미리 알려주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 것도 모르는 채 지내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말해줘야 해요. 외국인으로서 한국 정부는 최악인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아주 친절해요. 아마 과거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에 나이스하지 않게 보여도 친절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죠. 어느 장소를 찾는

다 하면 같이 가주기도 해요. 그리고 독일 정부는 전화 요금 청구서나 이런 것도 여러 언어로 번역해서 보내주기도 하구요.

7. 요약 및 소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 기타국가 출신의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담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방문 동기

먼저 한국방문 동기를 보면 재미한인 청소년들은 부모 및 주변인들의 권유를 통해 한국방문과 한국어 연수를 하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한국어 연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족 청소년들의 경우 주요 한국 방문 목적은 한국 대학에의 진학이었다. 중국에서 대학을 마친 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의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거나 이미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가 있었다. 조선족 청소년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취업이다.

재일교포 청소년들은 부모나 주위의 권유보다는 자신이 한국 방문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별히 한국인이나 한국에 대한 정체성과 관련하여 최선의 선택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기 보다는 외국으로의 유학이나 관심분야 공부를 위해 한국에 유학을 하게 된다.

독립국가연합에서 온 한민족청소년들의 경우 주로 한국에서 유학을 간 유학생들이나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들과의 교류 등으로 한국에서 제공하는 유학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기타국가 출신 한민족청소년들은 주로 부모의 권유로 한국의 대학에서 유학을 하기 위해 체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한국에서 향후 진로를 계속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려면 한국에서의 인맥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자신 스스로 결정을 하기도 한다.

2) 한국체류 과정에서의 경험

한국에 체류하면서 여러 곳에서 온 한민족청소년들은 자신과 비슷한 혹은 다른 다양한 한민족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지역의 한민족청소년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이들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한다. 같은 한민족이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성향이 다르며 지역에 따라 한민족 집단을 다르게 분류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재미한인 청소년들은 한국을 방문하여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한국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사회라는 인식을 갖는다. 특히 서울생활은 이들로 하여금 한국이 매우 현대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또한 미국에서 이들은 한국사회는 유교적인 관습이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보다 자유분방(liberal)함을 느낀다.

조선족 청소년들은 한국에 와서 그들이 가졌던 한국인들과의 막연한 동질감이 무너지거나 무시당한다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실망하게 된다. 이런 실망의 경험은 이들이 처음 방문한 사람들일수록, 그리고 민족적 동질감을 더 많이 의식하고 있는 경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 와서 실망을 하면서 이들의 의식은 다시 확장되게 된다. 한국인들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인정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재일교포들은 최초의 인상부터 장기간 생활한 후에까지 한국은 역시 자신들이 이전까지 살던 환경과는 다르다는 인상을 뚜렷이 가지고 있다. 그것이 때로는 긴장감이 되기도 하고 환영받거나 편안한 느낌이 되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외국이라는 느낌을 놓지 못한다.

독립국가연합 출신 한인 청소년들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생활면에서는 점점 적응되어가고 있지만 한국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인들이 여전히 해외한민족을 같은 민족으로 보지 못한다는 의견을 말하고 있다.

기타 국가 출신 체보자들 대부분은 한국의 대학 생활을 일종의 ‘단기 체류’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한다는 생각이 강하며,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인상은 주로 한국사회의 획일성에 대한 실망감, 일상생활과 사회관계에서의 문화적 이질감 등이다.

3) 정체성

한국어 사용과 함께 한국 방문은 한국문화를 습득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재미한인 청소년들은 한국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미국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느끼고 한국인의 후손이라고 느끼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조선족 청소년들의 경우도 스스로 중국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족이란 개념이 이들의 정체성에 크게 중요시 되지 않는 것이다. 즉,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민족 정체성보다 강하다. 하지만, 중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조선족 학교에 다닌 학생들의 경우에는 확실히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좀 더 깊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두 가지 모두를 의식하게 된다.

재일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의 영향으로 한민족(한국인) 정체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민족 정체성에 대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고, 주민등록법상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여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생활경험은 한국에 체류하면서 자신은 더 한국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해지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들은 한국에서도 귀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일본에서도 정주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중의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다. 재일한인으로서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신은 두 나라를 매개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위치에 있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독립국가연합 출신 한민족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어를 배우면서 점차 자신의 민족정체성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기도 한다.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다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같은 민족임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음식도 비슷하고 김치를 먹는 것도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민족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지 한국인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정체성은 고려인으로 대표된다고 말하고 있다.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처음에는 이것도 저것도 확실치 않은 부정적 정체성이었지만 한국에 와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보다 풍부한 정체성으로 거듭나게 된다.

여러 나라에서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기타 국가 출신 제보자들은 각기 국가에 명확히 속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한국에 대해서도 유아, 청소년 상당 기간을 떨어져 살아서 그런지 국가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정체성을 느끼기는 어려운 듯 하였다. 자신의 출신국이나 성장국이 다르며 성장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그 국가의 대표적인 학교가 아닌 외국인 학교에서 교육받은 경우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모호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아예 “글로벌사회의 시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반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문화적으로 한국과 묶여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4) 거주국에서의 한인단체 및 한국문화 관련 생애경험

재미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 대중문화를 즐기는 경우가 많았다. 2세들의 경우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친숙도는 부모나 형제 등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가정에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시청하고, 한국제품을 선호하는 경우 자녀들은 한국 대중문화에 접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재미한인 청소년 2세들의 경우 어린시절 한국교회를 다니며 교회 부설 한글학교에서 한글을 배운 경우가 많았다.

조선족 청소년들의 경우 조선족 학교, 조선족 관련 단체는 이들의 민족 정체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한국과의 교류 시에도 정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다. 조선족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대학을 다니는 동안 조선족들의 모임에 나가 본 적이 있었는데 언어 소통이 불편해서 도중에 그만 둔 경우도 있다.

재일한인 청소년들의 한국문화와 관련된 활동의 경우 재학하는 학교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먼저, 일본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학교 특성에 따라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학교가 있다. 반면, 총련계의 경우 조선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민족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민단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한인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재일한인 청소년들이 참가하고 있다.

고려인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에 대한 관심은 일상적으로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등 한국대중문화를 접하거나 한국어교육원 등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특히 한국에서 방문하는 공연팀이나 교류단들을 통하여 한국문화에 대해 접하게 되었다. 일부는 대학 전공을 한국어 학과로 선택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글 학교 및 한국 문화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5) 진로 선택을 위한 전략

재미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어를 배우면 향후 진로 선택에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사업 분야에서 국제적인 업무를 담당하면 한국에서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때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한국적 정서를 개발시키는 것과 한국 역사를 아는 것도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선족 청소년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조선족이라는 지위는 한국어 습득, 한국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한국 유학을 위한 각종 정보에 있어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능력은 이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생활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민족의식”이나 “한민족”의 연대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자신의 처지에서 자기 개인의

성취를 위한 최선을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한민족이라는 통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이들의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기도 한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미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대체로 한국에 남거나 한국 관련 일을 하는데 긍정적이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 좋지 않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경우에도 이후 한국과 지속적인 접촉을 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하며, 한 곳에 정착하기 보다는 “왔다갔다”하는 삶을 살고 싶어한다.

고려인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한국과 관련된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한다. 러시아에서의 구직 가능성이 낮은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러시아 관련 기업에 취직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한편, 기타국가 출신 제보자들은 대학 이후 한국에서 진로를 계속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 특히 대학원을 외국에서 선택하는 경우에는 거의 그곳에 영구히 머물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진로 결정에 있어서 한국 문화에 익숙한 점을 들면서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제보자도 있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진로를 한국에서 정하고 싶어하기도 한다. 물론 이들의 거주국이 한국과 관련하여 경제 수준이 어떠한가도 이들의 향후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고국과 해외 한민족 연계 방안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재미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고국에서 이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인들과의 캠프 프로그램, 해외한인을 위한 행사 제공이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고국 방문을 위한 정보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한다. 해외 한민족으로서 각 거주국에 살아가면서도 고국에 대한 이미지는 이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에 따라서 고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이미지 개선 사업이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한다. 한국 대사관에 한국에 관한 정보를 더 강화하는 것도 제안되며 Facebook 등 인기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홍보도 제안되고 있다.

조선족 청소년들의 경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민족으로 연결된 어떤 동류의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들의 개인적 성취에 도움이 되는 자원들이다. 이들에게 있어 민족은 “국가”나 “민족주의”와 같은 무겁고 거북스러운 존재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민족의식”이니 하는 무거운 주제로 인식될 때는 거의 관심이 없거나 거부감을 갖지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제공된다거나 그것을 통해 현실적인 성취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괜찮다고 보고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민족”이란 말로 다가오는 정보가 아니라 단지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자원들”이다. 민족이란 정서/개념을 갖기에는 중국 조선족 청소년들은 중국인이라는 국가 정체성이 너무 강하고, 조선족이라는 (한국에 오면 소외를 경험하는) 정체성이 너무 부담스럽다.

재일한인 청소년들은 고국방문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유용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한국의 국가 이미지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근래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이미지가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그리 높지 않다고 여긴다. 한국과 재일한인들 나아가 다양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들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한국 체류 기간에 외국인으로서 생활하는 이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해 줄 필요가 있다.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에서 독립국가연합의 한인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문화적인 지원을 우선시하고 있다.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보다는 재단을 만들어 청소년세대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하고, 문화와 역사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한국에 유학을 와 있는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장학금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향후 한국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국과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

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인터넷을 통한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기타 국가 출신 청소년들의 경우 한인 청소년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한국문화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좋겠다고 말한다. 국적이 외국인 경우 아무리 고국이라 해도 법적인,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히 한국을 알거나 한국어를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행정적인 차원의 관심 혹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IV-7〉 국내 체류 해외 한민족청소년 면담조사 결과 요약

	한국방문동기	한국체류과정에서의 경험	민족정체성	한국문화관련 생애경험	진로선택전략	고국과의 연계방안
제1인칭 소년	부모, 주변인의 이해연수 권유 및 자신의 의지	다양한 해외한민족의 교류, 한국사회의 재발견 (Hi Tech, Modern 사회, liberal한 사회)	한국어사용, 한국방문, 한국음식, 외모 등을 통한 한민족 정체성 확인 vs 한국에서 주변인 정체성 인식	대중가요, 드라마, 영화 등 한국대중문화 향유 경험 많음 한인교회, 한글학교 경험 많음	한국어를 국제 업무에 활용계획, 한국적 저서 및 역사 이해가 진로에 연결	캠프, 행사, 고국방문 정보제공, 커뮤니티 개선행업, 대사관 홈페이지 활용, 인기있는 웹사이트 활용
조선족 청소년	자신의 의지로 유학, 취업 관심	조선족 무시에 대한 실망 경험 고국에 대한 환상이 깨짐	민족 정체성보다는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함 한민족 정체성인식은 조상 조선족 집거구 방문 등을 통해 인식	조선족학교 vs 한인학교 조선족학교	조선족 정체성이 유학이나 진로에 유용하게 활용, 한국유학을 통한 세계진출 소망,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사업 구상	현실적으로 개인의 성취에 도달되는 정보 및 자원
제1인칭 청소년	부모권유, 교회학생 프로그램, 관심분야한국유학	다양한 한민족집단에 대한 경험, 한국사회의 다양한 분위기 경험(환영, 이방인, 불안감 등)	한민족 정체성 기준 vs 흔관스러운 정체성인식에 따른 다양한 선택	민족학교 vs 일본학교 다양한 한인단체 활동	한국과 일본을 매개하는 역할	고국방문을 위한 정보 제공, 일본의 경제적 이점지 보급, 외국인을 위한 생활편의 제공
고려인 청소년	지인의 소개를 통한 유학	한국사회에 대한 거리감 한국사람들과의 이질감	한국어 학습, 음식공부를 통한 한민족 공감대 형성 증가 하지만 한국인과 다른 고려인 정체성 다중정체성 인식	한국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 한국어 교육원, 대학의 한국어학과	한국관련 회사에 취업 의사	문화, 역사교육자원,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한국방문 프로그램 지원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기타국가출신 한민족청소년	부모의 한국대학교육에 대한 권유, 자신의 선택	한국사회의 획일성 실망, 문화적 이질감, 문화충격	모호한 정체성(글로벌사회의 시민) 한민족 정체성 인식	한인교회, 개별적 교육	한국에서의 진로 고려 vs 한국에서의 대학교육 후 해외 진출	정부차원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제공, 외국인으로 체류하는데 겪는 어려움 해소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 론
2. 정책제언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 론

이상으로 유학이나 연수 등을 위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한민족 청소년들의 생활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이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 한국어 및 문화에 대한 태도, 한민족 정체성, 네트워크 구축 관련 관심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면담조사를 통해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이들이 한국체류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한국방문 동기, 한국체류 도중 겪는 경험, 한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 한국문화 관련 생애경험, 진로선택 전략,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의견 등을 알아보았다.

설문조사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한민족청소년들은 그 이민사에 따라 이민세대, 경제상황, 한국전통문화 및 언어 보유 정도, 한국과 관련된 진로 관심 등에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 CIS, 일본지역은 3세대가 주를 이루고 4세대도 있는 반면에 북미지역은 2세대와 1.5세대가 주를 이룬다. 가족의 경제적 수준 인식에 있어서도 북미지역은 비교적 높은 반면, CIS나 일본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부모님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정도는 북미 지역이 높다고 나타난 반면, 일본과 CIS 지역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관련이 있는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CIS와 중국 지역 한민족청소년들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각 지역에 공통적으로 한국 언어 및 문화에 대한 관심,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정도, 한국청소년들과의 교류 및 친선 기회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앞으로 한국을 또 방문하고 싶은 정도는 통계적으로 국가 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모든 지역이 4점 이상의 매우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

끼는 정도가 높았다. 특히 이들 청소년들은 장래 진로와 관련해 고위 전문직 등 엘리트 직종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차 거주국의 중요한 인적자원일 뿐 아니라 고국과 적절한 연계를 가질 때 한국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반면에 이들의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 정도는 그리 높지 않아 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접촉 기회를 늘려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어를 배워두면 장래의 직업이나 진로 설정에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나서 이러한 부분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모국어, 모국문화 및 모국 방문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욱 개발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지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면담조사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들은 언어연수나 유학 등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면담 참가자의 경우에 따라 부모의 강한 권유로 입국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관심에 의해 입국하는 경우도 있었다. 재미한인 청소년들의 경우는 한인 커뮤니티의 신문이나 주변의 관행으로 방학 중 한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연수가 권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한국 방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한국사회의 현실이 다름을 알게 된다. 특히 미국에서 온 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사회가 유교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매우 자유분방하고, 고도의 기술을 가진 현대적인 사회라는 것을 깨닫는다. 중국에서 온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사회가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재일한인과 고려인 청소년들도 한국사회에 들어와 체류하면서 자신들은 한국사회의 일원이 아님을 느낀다. 공통적으로 이들은 외국에서 살 때는 한민족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지만 한국사회에 들어와서는 더욱 한국인과 다름을 느끼게 된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주변적 정체성을 겪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호한 정체성을 인식한다. 하지만 역으로 자신들의 중간자적 위치는 모국과 본국을 매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에 유

리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특히 출생국가가 부모와 다르고 성장한 환경도 다른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글로벌사회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한국어나 한인이라는 배경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과 자신의 거주국을 매개하여 사업을 하거나 미래 직업을 구상하기도 한다. 이들이 제안하는 해외한인과 고국과의 연계 방안으로는 공통적으로 고국방문에 대한 정보 제공, 외국인을 위한 생활편의 제공,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들고 있었다.

해외 각 국으로의 한민족 이주가 시작되어 한 세기가 지난 현 시점에서 다양한 거주국에서 삶을 꾸려나가면서 초래된 재외동포들의 문화적 이질성과 다양성 및 한민족으로서의 보편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해외한민족을 네트워크하고자 할 때 단순히 혈연이나 조상, 역사의 공유나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이미 이질화되기 시작한 이민자의 자녀 세대들을 포괄하지 못하게 된다. 자녀 세대들은 이민 사회의 주변인 위치에 머물렀던 부모 세대와 달리 거주국의 주류 사회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고 그 사회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이민 후속세대들이야말로 국가 간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며 이들과 모국과의 지속적인 연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의 해외이민자에 대한 정책이 보다 포용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지구화와 함께 교통·통신 등의 급속한 발달로 국가 간의 교류 및 인구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경의 개념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각 국가의 지리적 영토 개념이 희석화되는 지구화의 경향은 한반도 내부의 정세 변화와 해외동포 사회의 관계가 보다 밀접해질 것임을 암시한다. 특히, 해외 한민족은 한반도 통일에 다양한 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남북한 사회 통합과 함께 세계 도처에 퍼져 있는 한민족이 네트워크를 이룰 때 진정한 한민족 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확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재외동포가 모국과 다중적으로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질적 네트워크와 역할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민족의식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고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추상적인 이념으로서 해외동포가 한민족으로서의 정통성을 간직했는지, 혹은 한민족으로의 정체성 정도를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에 대해 문제시하기보다는 이들이 해외 각 곳에 거주하면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다양한 적응력과 저력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국 및 그들의 거주국 모두에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가야 하겠다. 이를 위해 도출한 정책제언을 다음의 절에 소개하고자 한다.

2. 정책제언

1) 모국방문을 위한 정보 제공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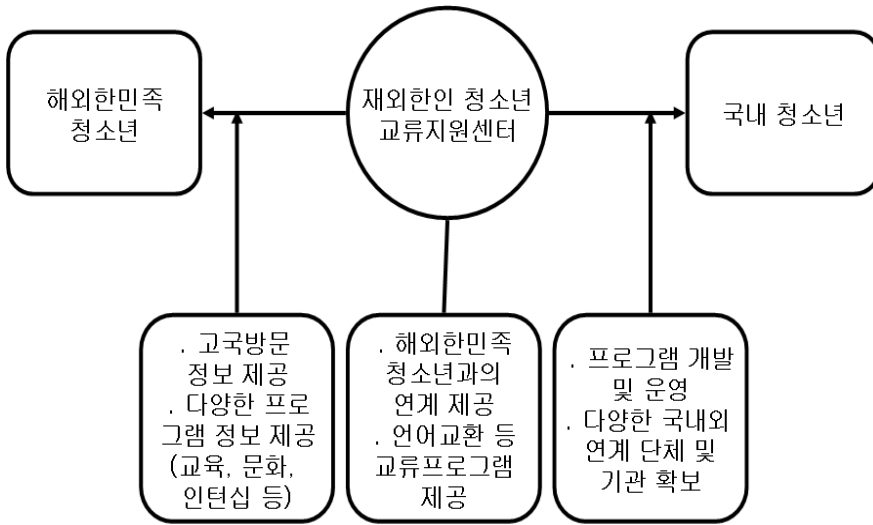
이민후속세대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모국을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을 다원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모국을 방문하고 있는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이들은 지역의 신문이나 지역에서 개인적 통로를 통해 한국 방문 정보를 얻고 있었다. 이들은 현재 거주국의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 홈페이지에 고국방문 프로그램이나 장학금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더 많이 수록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에 따라 거주국에서 한인 청소년들이 많이 방문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방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현재 재외동포재단이나 국제교육진흥원에서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그에 따라 보다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 고국방문 프로그램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재미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한글을 아는 1.5세의 경우 싸이월드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렇지 않은 2세들의 경우 Face Book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2) 모국방문 프로그램의 활성화

이민후속세대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한민족청소년들의 모국 방문 프로그램 및 교류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단순히 해외한민족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나 단순지식 위주의 국사 혹은 단편적인 유적지 관광을 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들의 모국방문을 계기로 모국과 장기적인 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해외한민족 모국 수학생과 국내 학생들과의 교류, 친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같은 전공이나 관심 분야를 가진 사람들과의 장기적인 모임을 활성화하여 한국을 떠나서는 온라인상으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장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는 한민족이라는 정서적 유대 및 막연한 전통문화를 공유한 집단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재외한인청소년 교류·지원센터 설립

현재 국제청소년교류센터 내에 재외한인청소년 교류·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를 방문하고 있는 한민족청소년들의 경우 연수기관이나 방문기관을 통해 국내체류 정보를 얻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충분치 않다.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의 모국방문에 대한 총괄적 정보를 제공하며, 국내 청소년들과의 교류 및 연계를 추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을 위하여 교육, 문화, 교류, 인턴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국내 청소년들에게는 이들과 만나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이들이 상호간에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언어교환 프로그램 등도 제공한다. 재외한인 청소년 교류·지원센터는 자체 내에 교류 전문가를 배치하며, 국내외의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그림 V-1] 재외한인청소년 교류지원센터(안)

4) 모국방문 재외한인청소년에게 글로벌화의 첨병으로서의 역할 부여

모국을 방문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들을 단지 민족주의적인 의식으로 묶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은 해외 각국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기 때문에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의식을 공유하기 보다는 거주국에서 사회화과정을 거침으로써 현지의 생활양식과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향후 한국과 연계를 갖는 것은 민족주의 강화보다는 글로벌화 확산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한국 청소년들은 이들로부터 다양한 해외의 문화와 언어 및 관련 정보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은 대내적 글로벌화를 가속시키며 국내의 다양성을 확장시키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일정기간 한국에 체류하다 본국으로 돌아가 관련 업무를 하거나 한국과 연계를 가짐으로써 한국의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외적 글로벌화를 이끄는 사람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해외동포 청소년들이 한국의 기업, 학교, 단체 등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5) 모국방문시 외국인으로서의 생활 편의 제공 필요

모국을 방문하여 체류하고 있는 해외 한인 청소년들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으로서의 신분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사용, 신용카드 사용, 의료시설 이용시 한국 주민이 아니어서 다양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단지 해외 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것이다. 인터넷 등록시 외국인등록증이나 재외국민거소신고증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한국사회는 2007년 8월 이후 외국인 거주자가 100만을 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이제 한국이 보다 원활한 다문화·글로벌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 위주의 다양한 편의시설, 행정절차 등을 글로벌화시킬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공보처(1995). 광복 50주년 한민족 공동체 의식조사. 서울: 공보처.
- 국가안전기획부(1998). 21세기 국가 발전과 해외한민족의 역할: 체계적 교류, 협력망 구축 방향을 중심으로. 국가안전기획부.
- 김경신·임채완·이선미·김명혜·한경미(2005). 재외한인여성의 생활실태 및 의식. 집문당
- 김남희 외(2005). 국외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용역보고서.
- 김원태·임채완·민형배·배한동·임현모·황오연·문병훈(2005). 재외한인언론의 역사와 현황기초연구. 집문당.
- 김일평(1995). 민족공동체 발전과 해외동포. 광복 50주년 기념 세계 한민족 통일문제 토론회, 통일 번영의 한민족 시대 전망. 통일원, 국민생활 체육 협의회, pp. 107-138.
- 박동준(2000). 한민족공동체(KC)를 위한 교육방안. 한민족공영체 8호, 13-51쪽.
- 박승록(2000). 한민족공동체(KC)를 위한 경제권 구축. 한민족공영체 8호, pp. 52-82.
- 박준규(2007). 코리아아메리칸의 디아스포라적 정체성: 뉴욕 재미 한인 문화단체를 중심으로. 북미주 한인의 역사(하), pp. 52-77. 국사편찬위원회.
- 법무부(2005). 국가간 인적교류 지원 및 관리 개선 방안. 법무부
- 외교통상부(1999).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통상부.
-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2006). 참여정부의 재외동포정책.
- 윤인진 외(2005). 재외동포 차세대 현황과 육성방안: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재외동포 재단용역보고서.
- 윤인진(1997). 재미한인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고찰. 교포정책자료. 제56집, pp. 129-171.
- 윤인진(2000a). 남북한 사회통합과 재외동포의 역할. 통일문제연구, 제12권 1호, pp. 5-24.
- 윤인진(2000b). 열린 민족주의와 한민족 공동체, 민족번영 새모델. 통일한국, 8월, pp. 28-31.
- 윤인진(2004). 코리아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 윤인진(2005a). 재외동포 현황과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방안. 21세기 재외동포 현황과 과제 자료집.
- 윤인진(2005b). 장래 우리나라 인력난 문제해결 및 재외동포 인력활용방안. 법무부 연구용역과제보고서.

- 이광규(1995). 재미교포 2세 교육의 방향과 과제. 해외한민족 교포자녀와 민족 교육.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pp. 23-40.
- 이광규(1999). 한민족공동체(KC)와 민족문화. 한민족공영체 제7호, pp. 82-112.
- 이정훈·윤인진(1998). 재일동포의 민족교육과 모국수학의 현황과 발전방안. 재외한인 연구 제7호, pp. 175-222.
- 이정희(1994). 남북통일과 해외동포의 역할. 교포정책자료 제48집, pp. 46-69.
- 이창가·김중(1994). 모국수학생의 민족정체감 연구. 서울대 학생연구 29(1): pp. 130-137.
- 임지현(1999).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서울: 소나무.
- 임채완·장윤수·최영관·이진영·최영표·김재기(2005). 재외한인 집거지역 사회경제. 집문당.
- 임채완·전형권(2006). 재외한인과 글로벌 네트워크. 한올아카데미.
- 재외동포재단(2007).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 조재희(2005). 국제인적교류의 비전과 전략. 국제인적교류지원을 위한 세미나. 법무부·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진동섭 외(2003). 재외동포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최우길(1999).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 변화에 대한 소고. 재외한인연구 제8호: pp. 187-241.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재외동포인적자원 지원 및 활용촉진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준상(1995). 교포자녀 모국방문 교육의 발전과제. 해외한민족 교포자녀와 민족 교육, pp. 45-57.
- Appadurai, A(1990). Disjuncture and difference in the global cultural economy, *Diaspora*, Vol 2, No. 2, pp. 1-23.
- Appadurai, A.(1991). Global Ethnoscapes: Notes and queries for a transnational anthropology. In R. G. Fox(Ed.), *Recapturing anthropology: Working in the present*(pp. 191-210). Santa Fe, NM: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 Chuh, K.(1996). Transnationalism and its pasts, *Public Culture*, Vol 9, pp. 93-112.
- Clifford, J.(1994). Diasporas, *Cultural anthropology*, Vol. 9, No. 3, pp. 302-338.
- Glick Schiller, N. and Fouron, G.(1998). Transnational lives and national identities: The identity politics of Haitian immigrants. In Michael Peter Smith and Luis Eduardo Guarnizo(Eds.), *Transnationalism from below*(pp. 130-161). 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 Glick Schiller, N., Basch, L. G. and Blanc-Szanton, C.(1992). Towards a definition of transnationalism: Introductory remarks and research Questions. In N. G. Glick Schiller, L. G. Basch, and C. Blanc-Szanton(Eds.), *Towards a transnational perspective on migration: race, class, ethnicity, and nationalism*(pp. ix-xv). New York: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 Glick Schiller, Nina(1999a), Transmigrants and nation-states: Something old and something new in the U.S. immigrant experience. In Charles Hirshman, Philip Kasinitz, Josh DeWind(Eds.),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American experience*(pp. 94-119). New York: Rusell Sage Foundation.
- Glick Schiller, Nina(1999b). Who are these guys? A transnational reading of the U.S. immigrant experience. In Liliana R. Goldin(Eds.), *Identities on the move: Transnational processes in North America and the Caribbean basin*(pp. 15-43). Albany, New York: Institute for Mesoamerican Studies.
- Glick Schiller, Nina, Linda Basch and Cristina Szanton Blanc(1995). From immigrant to transmigrant: Theorizing transnational migration, *Anthropological quarterly*, 68(1): pp. 48-63.
- Gupta, A. & Ferguson, J.(1992). Beyond “culture” : Space,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Cultural anthropology*, 17 (1), pp. 6-23.
- Jo, Hye-young(2000). Locating Korean language and identity among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3(2): pp. 105-137.
- Kearney, M.(1995). The local and the global: The anthropology of globalization and transnationalism,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4, pp. 547-65.
- Lavie, S. and Swedenburg, T.(1996). Introduction. In S. Lavie and T. Swedenburg(Eds.), *Displacement, diaspora, and geographies of identity*(pp. 1-25).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Park, Eun-Ja Kim(1995). Voices of Korean-American students, *Adolescence*, 30(120): pp. 945-953.
- Safran, W.(1991).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1991, Spring), pp. 83-99.
- Sharpe, J.(1995). Is the United States postcolonial? transnationalism, immigration, and

race, *Diaspora*, Vol. 4, No. 2, (1995), pp. 181-199.

Smith, A. D.(1994). The politics of culture: Ethnicity and nationalism." In Tim Ingold(Ed.), *Companion encyclopedia of anthropology: Humanity, culture and social life*(pp. 706-733).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Tololyan, K.(1996). Rethinking diaspora(s): Stateless power in the transnational moment, *Diaspora*, Vol. 5, No. 1, pp. 3-36.

Portes, A. & Rumbaut, R. G.(1996). *Immigrant America*.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부 록

1. 한국어 설문 조사지
2. 영어 설문 조사지
3. 일어 설문 조사지
4. 러시아어 설문지
5. 중국어 설문지

1. 한국어 설문 조사지

한민족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설문지(국내 수험자 용)

안녕하세요? 설문지 상으로나마, 고국을 방문하여 한국에 관한 경험을 쌓고 계신 재외한인동포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www.nypi.re.kr)에서는 「해외 한민족청소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재외한인청소년의 생활실태와 한국에 관한 전반적인 관심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자료는 연구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 정보는 절대 외부로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각 문항마다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에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년 7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 일동

문의처: 문경숙(2188-8837/moonks@nypi.re.kr)

조혜영(2188-8813/jhy@nypi.re.kr)

I. 기본 인적사항

1. 귀하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
2.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세
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__ ① 남성 _____ ② 여성
4. 귀하의 현재 신분은 무엇입니까?
_____ ① 고등학생 _____ ② 대학생 _____ ③ 대학원생

II. 부모와 가정 형편

1. 귀하의 부모님은 생존해 계십니까?

- _____ ① 부모님 모두 생존 _____ ② 부만 생존
_____ ③ 모만 생존 _____ ④ 부모님 모두 사망

2. 귀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민족배경은 무엇입니까?

- _____ ① 아버지 한인 _____ ② 어머니 한인
_____ ③ 두 분 다 한인 _____ ④ 두 분 모두 한인 아님

3. 귀하는 본국에서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 _____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_____ ②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만족하는 편이다
_____ ⑤ 매우 만족한다

4. 부모님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빈칸에 아래 번호 중 해당하는 번호를 적어주세요. (현재 안 계시면, 생전의 학력)

(1) 아버지 (아래 번호 중): _____ 번

(2) 어머니 (아래 번호 중): _____ 번

- | | |
|-------------------------|--------------------------|
| _____ ①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하셨다 | _____ ② 초등학교 중퇴·졸업 |
| _____ ③ 중학교 중퇴·졸업 | _____ ④ 고등학교 중퇴·졸업 |
| _____ ⑤ 대학교 중퇴 | _____ ⑥ 대학교 졸업 |
| _____ ⑦ 대학원 이상 | _____ ⑧ 기타(구체적으로,) |

5.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래 상자 안을 보고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적어 주세요. (은퇴나 사망의 경우, 이전의 직업)

(1) 아버지 (아래 번호 중): _____번

(2) 어머니 (아래 번호 중): _____번

_____ ① 전문직 등 (변호사, 예술가, 교수, 학자, 의사, 회계사, 교사 등)
_____ ② 고위관리직 등(정부 3급 이상 공무원, 행정관리자, 기업체 임원·이사, 장교 이상의 군인 등)
_____ ③ 사무직 등(정부 행정 공무원, 기업체 사무직 종사자, 은행원, 경찰, 하위직 군인 등)
_____ ④ 기술직(생산감독, 숙련 기능공)
_____ ⑤ 상업·자영업(9인 이하 소규모 장사 및 가족 종사자, 목공소 주인, 개인 택시 운전자 등)
_____ ⑥ 판매종사자(도·소매업 종사자, 보험 및 부동산 거래인, 외판원, 점원 등)
_____ ⑦ 서비스직 종사자(음식·숙박업 관리자 및 관련 종사자, 이발사, 미용사 등)
_____ ⑧ 농업, 어업, 임업
_____ ⑨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운수 및 단순 노무자(공장근로자, 일용노동자 등)
_____ ⑩ 가정주부
_____ ⑪ 무직
_____ ⑫ 기타(구체적으로, _____)

6. 현재의 가족 수입은 가족이 생활하기에 어떠한 수준입니까?

- _____ ① 매우 부족하다
- _____ ② 약간 부족한 편이다
- _____ ③ 부족하지도 넉넉하지도 않다
- _____ ④ 약간 넉넉한 편이다
- _____ ⑤ 매우 넉넉한 편이다

7.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귀하 가족의 소득은 어떠한 수준입니까?

- _____① 평균보다 훨씬 낮다 _____② 평균보다 약간 낮다
 _____③ 평균이다 _____④ 평균보다 약간 높다
 _____⑤ 평균보다 훨씬 높다

III.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1	2	3	4	5
2. 부모님은 대체로 한국에 대해 좋게 말씀을 하신다.	1	2	3	4	5
3. 부모님은 내가 한국어를 공부하기를 원하신다.	1	2	3	4	5
4. 부모님은 내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신다.	1	2	3	4	5
5. 부모님은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신다.	1	2	3	4	5
6. 부모님은 한국음식을 즐겨 만드신다.	1	2	3	4	5
7. 부모님은 내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신다.	1	2	3	4	5

IV. 한국에 대한 관심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 관련 뉴스에 관심이 있다.	1	2	3	4	5
2. 한국에서 연수나 공부를 더 오래 하고 싶다.	1	2	3	4	5
3.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또 방문하고 싶다.	1	2	3	4	5
4. 한국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고 싶다..	1	2	3	4	5
5. 한국에 있는 내 나이 또래 청소년들과 대화하고 싶다.	1	2	3	4	5
6. 나는 배우자로 한국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7. 한국과 관련성 있는 직업 갖기를 계획하고 있다.	1	2	3	4	5
8. 나는 나의 부모님보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이 많다.	1	2	3	4	5
9. 나는 나의 부모님보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1	2	3	4	5
10. 한국어를 배워두면 장래 직업이나 진로 설정에 더 유리할 것이다.	1	2	3	4	5

11. 이번이 몇 번째 한국 방문입니까?
(_____ 번)
12. 귀하는 평소에 한국 뉴스를 얼마나 시청합니까?
_____ ① 매일 시청한다 _____ ② 2,3일에 한 번 시청한다
_____ ③ 일주일에 한 번 시청한다 _____ ④ 별로 안 본다
_____ ⑤ 전혀 안 본다.
13. 귀하는 한국 뉴스를 어떤 방법으로 접하고 있습니까?
_____ ① TV _____ ② 라디오 _____ ③ 인터넷
_____ ④ 신문, 잡지 _____ ⑤ 친구나 친지
_____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4. 귀하는 TV나 라디오를 통해 한국의 연속극이나 오락프로를 시청한적 있습니까?
_____ ① 자주 시청한다 _____ ② 가끔 시청한다
_____ ③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 _____ ④ 중계가 안되어 시청할 수 없다
15. (시청한적 있다면) 귀하는 한국의 연속극이나 오락프로에 대해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_____ ① 매우 재미있다. _____ ② 재미있는 편이다.
_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_ ④ 유치하고 재미없다.

V.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민족 배경은 내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1	2	3	4	5
2. 설, 추석, 단오, 한식 등 한국의 전통명절을 최고로 생각한다.	1	2	3	4	5
3. 나는 한민족 문화를 많이 알고 있다.	1	2	3	4	5
4. 나는 한국어를 듣고 이해한다.	1	2	3	4	5
5. 나는 한국어를 말할 수 있다.	1	2	3	4	5
6. 나는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다.	1	2	3	4	5

VI. 한민족 정체성 관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이 자랑스롭다.	1	2	3	4	5
2. 나는 한민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고 노력한다.	1	2	3	4	5
3. 나는 주로 한인들로 구성된 조직체 또는 사회단체(협회, 동호회, 동향인 모임 등)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1	2	3	4	5
4. 나는 나의 한민족 배경에 대해 잘 안다.	1	2	3	4	5
5. 나는 내가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1	2	3	4	5
6. 나는 한민족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1	2	3	4	5
7.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민족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1	2	3	4	5

VII. 네트워크 구축 관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인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1	2	3	4	5
2.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1	2	3	4	5
3. 한국에서 재외동포에게 유용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1	2	3	4	5
4. 한국 청소년들과의 교류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1	2	3	4	5
5. 나는 한국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한다.	1	2	3	4	5
6. 한국 청소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7. 한국 유학생들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1	2	3	4	5
8.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로 인해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	1	2	3	4	5
9. 나는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한국 유학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	1	2	3	4	5
10. 나는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한국 취업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	1	2	3	4	5

2. 영어 설문 조사지

General Social Survey of Young Generation Korean Abroad

Hello,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s conducting a general social survey to assess the present conditions and ethnic consciousness of young generation Korean Abroad. Findings from the survey shall be used for developing human resources and global network of young generation Korean Abroad.

The data obtained through the survey will be statistically analyzed to understand young generation Korean Abroad as a group, and therefore, all information about the individual shall be kept in strict confidence. Your candid response to each question will be greatly appreciated. It will take approximately 20 minutes or less to complete this questionnaire.

July 2007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www.nypi.re.kr)
Kyoung-Suk Moon(2188-8837)/Hye-Young Jo(2188-8813)

I. Personal Background Information

1. What is your nationality? ()
2. How old are you? ()

_____④ Confucianist _____⑤ Muslim _____⑥ Russian orthodox
 _____⑦ No religion ⑧ Other (Specify) _____

7. In terms of generation, which generation do you think you personally belong to?
 (The 1.5generation is a group of people who were born in South Korea and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at age 6~18 and think their identity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_____① First generation _____② 1.5 Generation
 _____③ Second generation _____④ Third generation
 _____⑤ Fourth generation _____⑥ Fifth generation
 _____⑦ Don't Know

II. Parents and Family Relations

1. Are your parents alive?

_____① Both of them are alive _____② Only father is alive
 _____③ Only mother is alive _____④ None of them is alive

2. What is the ethnicity of your father or mother?

_____① Father is Korean _____② Mother is Korean
 _____③ Both father and mother are Korean

3. To what degree are you satisfied with your current life in Korea?

_____① Very dissatisfied _____② Somewhat dissatisfied
 _____③ Neither dissatisfied nor satisfied _____④ Somewhat satisfied
 _____⑤ Very satisfied

4. What is the highest level of school your father or mother has attended?

Write the relevant number in the brackets provided.

Father () Mother ()

_____① no education _____② elementary school
 _____③ middle school _____④ high school
 _____⑤ some college education _____⑥ graduated from college
 _____⑦ graduate school and more _____⑧ other(Specify)

_____① Far below average

_____② Below average

_____③ Average

_____④ Above average

_____⑤ Far above average

III. Relations with Parents

	Strongly disagree	Somewhat disagree	So-so	Somewhat agree	Strongly agree
1. I talk with parents in Korean.	1	2	3	4	5
2. Overall, parents talk good things about Korea.	1	2	3	4	5
3. Parents want me to study Korean.	1	2	3	4	5
4. Parents want me to get a job which is related to Korea.	1	2	3	4	5
5. Parents teach Korean to their children.	1	2	3	4	5
6. Parents usually make some Korean food.	1	2	3	4	5
7. Parents want me to marry a Korean.	1	2	3	4	5

IV. Interests about Korea

	Strongly disagree	Somewhat disagree	So-so	Somewhat agree	Strongly agree
1. I am interested in Korean news.	1	2	3	4	5
2. I want to study or do internship more.	1	2	3	4	5
3. I want to visit Korea again if possible.	1	2	3	4	5
4. I want to make Korean friends more.	1	2	3	4	5
5. I want to talk with fellow South Koreans of the same age	1	2	3	4	5
6. I will choose Korean as my spouse.	1	2	3	4	5
7. I want to get a job which is related to Korea.	1	2	3	4	5
8. I have more interests about Korea than my parents have.	1	2	3	4	5
9. I know much more about Korea than parents do.	1	2	3	4	5
10. I would have better opportunities for jobs and careers if I learn Korean	1	2	3	4	5

VI. Korean ethnic identity

	Strongly disagree	Somewhat disagree	So-so	Somewhat agree	Strongly agree
1. I am proud of myself as a Korean.	1	2	3	4	5
2. I try to know the history of Korea, tradition, customs etc.	1	2	3	4	5
3. I actively join the community or social group which are mainly composed of Korean.(association, club, meeting with people who are from same city etc)	1	2	3	4	5
4. I know about Korean background very well.	1	2	3	4	5
5. I have a pride as a member of Korean.	1	2	3	4	5
6. I have strong attachment to Korean.	1	2	3	4	5
7. I frequently talk about Korea to other people.	1	2	3	4	5

VII. Establishing Network

	Strongly disagree	Somewhat at disagree	So-so	Somewhat at agree	Strongly agree
1. I actively participate in Korean organizations.	1	2	3	4	5
2. I contact with people or organizations in Korea	1	2	3	4	5
3. Korea gives enough information to overseas Koreans.	1	2	3	4	5
4. I want to have more opportunities to interchange with young Koreans.	1	2	3	4	5
5. I visit Korean web sites.	1	2	3	4	5
6. There is a need for internet web sites where we can talk with young Koreans.	1	2	3	4	5
7. I had good impression of Korean students who came to study in the United States	1	2	3	4	5
8. I got to have good impression of Korea because of Korean students who came to study in the United States	1	2	3	4	5
9. I know of the study-abroad program in Korea for overseas Korean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s.	1	2	3	4	5
10. I know of the employment program in Korea for overseas Korean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s.	1	2	3	4	5

3. 일본어 설문 조사지

韓国を訪問している在外韓人青少年に対する意識調査

こんにちは。アンケートを通じて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母国を訪問して経験を積んでいる

在外韓人同胞の皆さまにお会いして嬉しく思います。国務総理傘下の政策研究機関の韓国青少年政策

研究院(www.nypi.re.kr)では、在外韓人青少年のグローバル・ネットワーク構築方案研究」の一環として、

韓国を訪問されている在外韓人青少年の生活実態と、韓国に関する様々な関心に対して調べています。

このアンケートは研究目的以外には使用致しませんし、個人情報には絶対漏れないようにします。

各質問に対して、率直で誠実にお答えする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本アンケートにご協力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うございます。

2007年 7月

韓国青少年政策研究院研究陣一同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www.nypi.re.kr)
Kyoung-Suk Moon(2188-8837)/ Hye-Young Jo(2188-8813)

I. 個人の基本事項

1. あなたの国籍は何ですか ()

_____⑦ 無宗教 _____⑧ その他（具体的に： _____）

7. あなたは在日の何世代目にあたりますか。

(1.5世代は韓国で出生し、6~18歳の間で移民した人として自分のアイデンティティが在日 1世代と 2世代とは違うと認識している人を指す。)

_____① 在日1世 _____② 在日1.5世 _____③ 在日2世
_____④ 在日3世 _____⑤ 在日4世 _____⑥ 在日5世
_____⑦ わからない

II. ご両親と家庭事情

1. あなたのご両親について質問です。

_____① 両親とも生存 _____② 父のみ生存
_____③ 母のみ生存 _____④ 両親とも死亡

2. あなたの父と母の民族的背景は何ですか。

_____① 父が在日 _____② 母が在日 _____③ 両親とも在日

3. あなたは日本の生活のどの程度満足していますか。

_____① とても満足 _____② やや不満足
_____③ 普通 _____④ やや満足
_____⑤ とても満足

4. ご両親の学歴についての質問です。下記の番号の中から該当する番号を書いてください。（現在亡くなられた方は生存時の学歴）

(1) 父（下記の番号の中で）: _____番

(2) 母（下記の番号の中で）: _____番

_____①無学 _____②小学校中退・卒業

- _____③中学校中退・卒業 _____④高校中退・卒業
 _____⑤高校中退卒業 _____⑥専門大学・大学校中退
 _____⑦大学院以上 _____⑧その他（具体的に： ）

5. ご両親の職業は何ですか。下記の中から該当する番号を選んでください。

（引退や死亡の場合、生存時の職業）

(1) 父（下記の番号の中で）： _____番

(2) 母（下記の番号の中で）： _____番

- _____① 専門職など（弁護士、芸術家、教授、学者、医師、会計士、
教師など）
 _____② 高級管理職など（政府3級以上公務員、行政管理者、
企業役員・理事、将校以上の軍人など）
 _____③ 事務職など（政府行政公務員、企業事務職従事者、銀行員、
警察、下級軍人など）
 _____④ 技術職（生産監督、熟練技術者）
 _____⑤ 商業・自営業（9人未満小規模企業及び家族従事者、
個人タクシー運転手など）
 _____⑥ 販売従事者（小売・卸売り従事者、保健及び不動産仲介人、
営業員、店員など）
 _____⑦ サービス従事者（飲食・宿泊業管理者及び関連従事者、
美容師など）
 _____⑧ 農業、漁業、林業
 _____⑨ 生産及び関連従事者、運輸及び単純労働者（工場労働者、
日雇い労働者など）
 _____⑩ 家庭主婦
 _____⑪ 無職
 _____⑫ その他（具体的に： ）

6. 現在、家族収入は家族が生活するためにはどのような水準ですか。

- _____① とても不足である _____② やや不足である

- _____③ 普通である _____④ やや充分である
 _____⑤ とても充分である

7. 一般的な家庭と比べ、あなたの家族の所得はどのような水準ですか。

- _____① 平均よりとても低い。 _____② やや平均より低い
 _____③ 平均くらいである _____④ やや平均より高い
 _____⑤ 平均よりとても高い

III. ご両親と関連する家庭生活

家庭生活	全くそう 思わない	そう 思わない	普通で ある	そう 思う	とても そう 思う
1. 両親と対話の時は韓国語(朝鮮語)で話す。	1	2	3	4	5
2. 両親は大抵韓国について肯定的に評価する。	1	2	3	4	5
3. 両親は私が韓国語を勉強して欲しいと願う。	1	2	3	4	5
4. 両親は私が韓国と関連する職業で働いて欲しいと願う。	1	2	3	4	5
5. 両親は子どもである私たちに韓国語を教えて下さる。	1	2	3	4	5
6. 両親は韓国の食べ物をよく作る。	1	2	3	4	5
7. 両親は私が韓国人と結婚して欲しいと願っている。	1	2	3	4	5

IV. 韓国への関心

	全くそ う思わ ない	そう思 わない	普通で ある	そう思 う	とても そう思 う
1. 韓国関連のニュースに関心がある。	1	2	3	4	5
2. もっと長く韓国で研修か勉強をしたい。	1	2	3	4	5
3. 機会があればまた韓国を訪問したい。	1	2	3	4	5
4. 韓国の友人をもっと作りたい。	1	2	3	4	5
5. 韓国にいる同世代の青少年と対話をしたい。	1	2	3	4	5
6. 私は配偶者として韓国(朝鮮)人を選択したい。	1	2	3	4	5
7. 韓国(朝鮮)と関連している職業に就職したい。	1	2	3	4	5
8. 私は両親より韓国(朝鮮)で起きていることに関心が高い。	1	2	3	4	5
9. 私は両親より韓国(朝鮮)について、もっと知っている。	1	2	3	4	5
10. 韓国語(朝鮮語)を勉強しておけば、将来職業や進路選 択に有利である。	1	2	3	4	5

11. 今回は何回目の韓国訪問ですか。

(_____ 回)

12. あなたは普段、韓国のニュースをどの位見えていますか。

- _____ ① 毎日見ている。 _____ ② 2-3日に一回見ている。
 _____ ③ 一週間一回見ている。 _____ ④ ほとんど見ない。
 _____ ⑤ 全く見ない。

13. あなたは韓国ニュースをどのような方法で聞いていますか。

- _____ ① TV _____ ② ラジオ _____ ③ インターネット
 _____ ④ 新聞・雑誌 _____ ⑤ 友達や親戚 _____ ⑥ その他 (具体的に:)

14. あなたは TVやラジオを通して韓国ドラマや娯楽番組を見たことがありますか。

- _____ ① 頻繁にある。 _____ ② 時々ある。
 _____ ③ 全くない _____ ④ 中継施設不備の関係で視聴できない。

15. (見たことのある方に)あなたは韓国のドラマや娯楽プログラムについてどのような感じでしたか。

- _____ ① とても面白かった。 _____ ② 面白い方である。
 _____ ③ あまり変わらない。 _____ ④ 幼稚で面白くない。

V. 韓国(朝鮮)言語は文化に対する理解度

	まったくできない	ほとんどできない	普通	大体できる	まったくそうである
1. 韓民族(朝鮮民族)であることが、私が生きているのに大きな助けとなる。	1	2	3	4	5
2. お正月、お盆、端午、寒食などの韓国の伝統を守っている。	1	2	3	4	5
3. 私は韓民族(朝鮮民族)の文化を沢山知っている。	1	2	3	4	5
4. 私は韓国語(朝鮮語)を聞いて理解している。	1	2	3	4	5
5. 私は韓国語(朝鮮語)を喋れる。	1	2	3	4	5
6. 私は韓国語(朝鮮語)を読み書きできる。	1	2	3	4	5

VI. 韓民族(朝鮮民族)のアイデンティティ関連

	まったくできない	ほとんどできない	普通	大体できる	まったくそうである
1. 私は韓民族(朝鮮民族)の後継であることが自慢できる。	1	2	3	4	5
2. 私は韓民族(朝鮮民族)の歴史、伝統、慣習などを知ろうと努力している。	1	2	3	4	5
3. 私は主として韓国人(朝鮮人)たちで構成されている組織、または社会団体(協会、同好会、同郷会の集いなど)に活発的に参加している。	1	2	3	4	5
4. 私は私の韓民族(朝鮮民族)の歴史を良く知っている。	1	2	3	4	5
5. 私は、私が韓民族(朝鮮民族)の一員であることが自慢できる。	1	2	3	4	5
6. 私は韓民族(朝鮮民族)に対して強い所属感を感じている。	1	2	3	4	5
7. 私は他の人々に韓民族(朝鮮民族)について良く話している。	1	2	3	4	5

VII. ネットワーク構築関連

	まったくできない	ほとんどできない	普通	大体できる	まったくそうである
1. 韓国人(朝鮮人)団体に積極的に活動している。	1	2	3	4	5
2. 韓国にいる人や団体と連絡を取っている。	1	2	3	4	5
3. 韓国は在外同胞に有用な情報を十分に提供している。	1	2	3	4	5
4. 韓国の青少年たちとの交流機会が多くなることを願う。	1	2	3	4	5
5. 私は韓国のインターネットサイトをよく利用している。	1	2	3	4	5
6. 韓国の青少年と対話可能なインターネットサイトを構築する必要がある。	1	2	3	4	5
7. 韓国からの留学生に対するイメージはよい。	1	2	3	4	5
8. 韓国から留学してきた学生のお陰で韓国に好感をもてた。	1	2	3	4	5
9. 私は韓国政府が支援する韓国の留学プログラムを知っている。	1	2	3	4	5
10. 私は韓国政府が支援する韓国就職プログラムを知っている。	1	2	3	4	5

4. 러시아어 설문 조사지

General Social Survey of Young Generation Korean Abroad

Здравствуй те, мы рады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вас на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Науч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строения глобальной сети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ёжи за рубежом」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звеньев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Кореи(www.nypi.re.kr), находящийся в ведени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Дан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затрагивает вопросы жизн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в Корею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а также и другие интересы к Корею.

Результаты дан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е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в других целях, а ли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не будет разглашена. Большая просьба правдиво ответить на тот или иной вопрос данного анкетирования. Искренне благодарим вас за участие данного опроса.
июль 2007год

С уважением научный состав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Кореи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www.nypi.re.kr)
Kyoung-Suk Moon(2188-8837)/Hye-Young Jo(2188-8813)

I. Общие сведения / 기본 인적 사항

1. Гражданином какой страны Вы являетесь? ()
2. Ваш возраст? () лет
3. Ваш пол? ① мужской ② женский
4. Ваш род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① старшекласник ② студент ③ аспирант ④ служащий
⑤ безработный ⑥ другое (подробно,)
5. Ваша будущая профессия (отметьте из списка)?

- ①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сфера (юрист, деятель искусства, ученый, врач, бухгалтер, преподаватель и т.д.)
- ② руководящая должнос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й чиновник, администратор, директор предприятия, высший офицерский ранг и т.д.)
- ③ делопроизводство (служащий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сферы, делопроизводитель на предприятии, служащий банка, работник полиции, средний и низший офицерский ранг и т.д.)
- ④ техническая сфера (технолог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й рабочий)
- ⑤ сфера торговли и частн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ладелец торгов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семейного бизнеса, мал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одитель частного такси и т.д.)
- ⑥ служащий сферы торговли (работник торговли, страховой агент, агент по недвижимости, продавец и т.д.)
- ⑦ работник сферы обслуживания (общепита, гостиничной сферы, бытов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и т.д.)
- ⑧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рыболовство, лесоводство
- ⑨ не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й труд: грузчик, чернорабочий и т.д.
- ⑩ домохозяйка ⑪ безработный ⑫ другое (подробно,)

6. Ваше вероисповедание?

- ① протестантизм ② буддизм ③ католическая вера
④ конфуцианство ⑤ ислам ⑥ православие
⑦ атеист ⑧ другое (подробно, _____)

7. Из какого Вы поколени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 ① 1-ого ② 1,5-ого ③ 2-ого ④ 3-его
⑤ 4-ого ⑥ 5-ого ⑦ не знаю

II. Сведения о родителях и об уровне жизни семьи/ 부모와 가정 생활

1. Живы ли Ваши родители?

- ① оба родителя живы ② жив только отец
③ жива только мать ④ оба родителя умерли

2. Кто Ваши родители по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 ① отец кореец ② мать кореянка ③ оба родителя корейцы

3. Насколько Вы довольны жизнью на Вашей Родине?

- ① не доволен(а) ②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что не доволен(а)
③ и да, и нет ④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что доволен(а)
⑤ доволен(а)

4. Ка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у Ваших родителей ? (есл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родителей нет в живых, укажите их образование при жизни)

- ① отец (из списка): _____ ② мать (из списка): _____

- | | |
|--------------------------------------|-----------------------------|
| ① не было возможности ходить в школу | ② 7-летняя школа |
| ③ 10-летняя школа | ④ 11-летняя школа |
| ⑤ техникум | ⑥ законченное высшее |
| ⑦ аспирантура | ⑧ другое (подробно, _____) |

7. Как Вы оцениваете уровень доходов Вашей семьи по сравнению со среднестатистическим уровнем?

- ① очень низкий ② сравнительно низкий
 ③ средний ④ сравнительно высокий ⑤ очень высокий

III. Родители и семейная жизнь/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Нет	Скорее нет, чем да	И да, и нет	Скорее да, чем нет	Да
1. Я разговариваю с родителями по-корейски.	1	2	3	4	5
2. В целом родители хорошо отзываются о Корее.	1	2	3	4	5
3. Родители хотят, чтобы я учил корейский язык.	1	2	3	4	5
4. Родители хотят, чтобы моя работа была связана с Кореей.	1	2	3	4	5
5. Родители учат мен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1	2	3	4	5
6. Родители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готовят корейские блюда.	1	2	3	4	5
7. Хотят ли родители, чтобы Вы женились на кореянке (вышли замуж за корейца)?	1	2	3	4	5

IV. Степень интереса к Корее/ 한국에 대한 관심

	Нет	Скорее нет, чем да	И да, и нет	Скорее да, чем нет	Да
1. Я интересуюсь новостями, связанными с Кореей.	1	2	3	4	5
2. Я хотел(а) бы долгое время обучаться или проходить стажировку в Корее.	1	2	3	4	5
3. Если представится случай, я хотел(а) бы поехать в Корею.	1	2	3	4	5
4. Я хотел(а) бы иметь больше друзей в Корее.	1	2	3	4	5
5. Я хотел бы пообщаться со сверстниками из Кореи.	1	2	3	4	5
6. Я выберу себе в спутника жизни корейца (корейку).	1	2	3	4	5
7. Я планирую найти работу, связанную с Кореей.	1	2	3	4	5
8. Я интересуюсь новостями из Кореи больше, чем мои родители.	1	2	3	4	5
9. Я больше знаю о Корее, чем мои родители.	1	2	3	4	5
10. Если я выучу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это поможет мне в будущем найти работу.	1	2	3	4	5

11. В который раз Вы в Корее? (_____раз)

12. Как часто Вы слушаете корейские новости?

- _____ ① Я слушаю каждый день.
- _____ ② Я слушаю один раз в 2, 3 дня.
- _____ ③ Я слушаю один раз в неделю.
- _____ ④ Почти не слушаю.
- _____ ⑤ Совсем не слушаю.

13. Что является источником новостей из Кореи?

- ① телевидение ② радио ③ интернет ④ газеты и журналы
- ⑤ друзья, родные ⑥ другое (подробно, _____)

14. Смотрели ли Вы по телевизору (либо слушали по радио) корейские сериалы или корейские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 ① смотрю часто ② смотрю редко ③ совсем не слушаю
- ④ нет возможности смотреть из-за технических проблем

15. Какое у Вас сложилось впечатление после просмотра (либо прослушивания) корейских сериалов ил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 ①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② в целом благоприятное впечатление
- ③ обычные передачи ④ примитивно и неинтересно

V. Уровень поним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Нет	Скорее нет, чем да	И да, и нет	Скорее да, чем нет	Да
1. То, что я кореец, во многом помогает мне в жизни.	1	2	3	4	5
2. Я справляю корейские праздники: Новый Год, Чхусок, Тано, Хансик.	1	2	3	4	5
3. Я много знаю о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1	2	3	4	5
4. Я воспринимаю на слух корейскую речь.	1	2	3	4	5
5. Я могу говорить по-корейски.	1	2	3	4	5
6. Я могу читать и писать по-корейски.	1	2	3	4	5

VI.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знание/ 한민족 정체성 관련

	Нет	Скорее нет, чем да	И да, и нет	Скорее да, чем нет	Да
1. Я горжусь тем, что я по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кореец.	1	2	3	4	5
2. Я стараюсь побольше узнать об истории Кореи, традициях и обычаях.	1	2	3	4	5
3. Обычно я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состоящих из корейцев (ассоциации, землячества и т.д.).	1	2	3	4	5
4. Я хорошо знаю о своих корейских корнях.	1	2	3	4	5
5. Я испытываю чувство гордости от того, что я один из корейцев.	1	2	3	4	5
6. Я глубоко ощущаю чувство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1	2	3	4	5
7. Я часто рассказываю другим о корейцах.	1	2	3	4	5

VII. Создание единой сети/ 네트워크 구축 관련

	Нет	Скорее нет, чем да	И да, и нет	Скорее да, чем нет	Да
1. Я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 в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1	2	3	4	5
2. Я контактирую с корейцами и корей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з Кореи.	1	2	3	4	5
3.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едоставляет достаточно полезной информац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живущим за рубежом.	1	2	3	4	5
4. Желательно, чтобы связи с молодежью из Кореи расширились.	1	2	3	4	5
5. Я использую корейские интернет-сайты.	1	2	3	4	5
6. Есть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оздать интернет-сайт общения с молодежью из Кореи.	1	2	3	4	5
7. Корейцы, приехавшие из Кореи на учебу, произвели на меня хорошее впечатление.	1	2	3	4	5
8. Благодаря студентам из Кореи я стал более благожелательно относиться к Корее.	1	2	3	4	5
9. Я знаю о программах обучения в Корее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1	2	3	4	5
10. Я знаю о корейских программах поиска работы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1	2	3	4	5

5. 중국어 설문 조사지

访问韩国的海外同胞青少年 意识调查

您好！趁这样的机会认识访问韩国的海外同胞们，我们很高兴。为了「海外同胞青少年全球的网络构成方案研究」，国务总理所属的韩国青少年政策研究院(www.nypi.re.kr)进行关于访问韩国的海外同胞青少年的生活状态和对韩国的关心调查。调查资料只用于研究目的，不会有个人资料的外流。望认真如实地填写每项问题。谢谢您的合作！

2007年 7月

韩国青少年政策研究院 研究人员 致谢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www.nypi.re.kr)

Kyoung-Suk Moon(2188-8837)/Hye-Young Jo(2188-8813)

I. 个人基本情况

1. 您的国籍是什么？ ()
2. 您的年龄？ 满 () 岁
3. 您的性别？
_____①男 _____②女

4. 您现在的身份？

- _____ ①高中生 _____ ②大学生 _____ ③研究生
_____ ④职员 _____ ⑤无业 _____ ⑥其它 (具体, _____)

5. 您将来要从事的职业是下列选项中的哪一个？

_____ ① 专业行职业等 (律师, 艺术家, 教授, 学者, 医生, 会计, 教师等)
_____ ② 高级官吏等 (政府 3级以上公务员, 行政管理者, 企业负责人, 理事, 将校以上的军人等。)
_____ ③ 行政职 (白领) 等 (政府行政公务员, 企业白领, 银行职员, 警察, 下级军官等)
_____ ④ 个体经营 (9人以下小规模の生意及从事家族经营者, 木作坊主人, 出租车司机等。)
_____ ⑤ 从事销售业者 (从事批发零售者, 保险及房地产交易者, 推销员, 营业员等)
_____ ⑥ 从事服务行业者 (餐饮, 旅馆管理者及相关人员, 理发师, 美容师等。)
_____ ⑦ 农业, 渔业, 林业。
_____ ⑧ 从事生产及其相关职业者, 运输及单纯劳动者 (工厂工人, 临时工等。)
_____ ⑨ 家庭主妇
_____ ⑩ 无业
_____ (11) 其它 (具体, _____)

6. 您信仰的宗教是什么？

- _____ ①基督教 _____ ②佛教 _____ ③天主教
_____ ④儒教 _____ ⑤伊斯兰教 _____ ⑥无宗教
_____ ⑦俄罗斯正教 _____ ⑧其它 (具体, _____)

7. 您是移民第几代？

(所谓1.5代是指出生后在6-18岁时移民的人, 认为自己的主体性与第一代和第二代有所区别的人。)

- _____ ①第1代 _____ ②1.5代 _____ ③第2代
_____ ④第3代 _____ ⑤第4代 _____ ⑥第5代
_____ ⑦其它

II. 父母和家庭情况

1. 您的父母在世吗？

- _____ ①父母都在世 _____ ②只有父亲在世
_____ ③只有母亲在世 _____ ④父母双亡

2. 您的父亲和母亲的民族背景是什么？

- _____ ①只有父亲是韩民族 _____ ②只有母亲是韩民族
_____ ③双亲都是韩民族

3. 您对本国的生活多么满意？

- _____ ①完全不满意 _____ ②不怎么满意 _____ ③一般
_____ ④较满意 _____ ⑤很满意

4. 父母的学历如何？在下列选项中选择适当的填写。（如果已去世，就填写生前的学历）

A. 父亲（下列序号中） _____ 号

B. 母亲（下列序号中） _____ 号

- | | |
|----------------|--------------------------------------|
| _____ ①没有上过学 | _____ ②小学中退.毕业 |
| _____ ③中学中退.毕业 | _____ ④高中中退.毕业 |
| _____ ⑤大学中退 | _____ ⑥大学毕业 |
| _____ ⑦研究生 以上 | _____ ⑧其它（具体， ） |

5. 父母的职业是什么？在下列选项中选择适当的填写。

（如果退休或去世，就填写退休前和生前的职业）

(1) 父亲（在下列序号中）： _____ 号

(2) 母亲（在下列序号中）： _____ 号

- ① 专业行职业等 (律师, 艺术家, 教授, 学者, 医生, 会计, 教师等)
- ② 高级官吏等 (政府 3级以上公务员, 行政管理者, 企业负责人, 理事, 将校以上的军人等。)
- ③ 行政职 (白领) 等 (政府行政公务员, 企业白领, 银行职员, 警察, 下级军官等)
- ④ 个体经营 (9人以下小规模的经营及从事家族经营者, 木作坊主人, 出租车司机等。)
- ⑤ 从事销售业者 (从事批发零售者, 保险及房地产交易者, 推销员, 营业员等)
- ⑥ 从事服务业者 (餐饮, 旅馆管理者及相关人员, 理发师, 美容师等。)
- ⑦ 农业, 渔业, 林业。
- ⑧ 从事生产及其相关职业者, 运输及单纯劳动者 (工厂工人, 小时工等。)
- ⑨ 家庭主妇
- ⑩ 无业
- ⑪ 其它 (具体)

6. 您的家庭收入, 在维持家庭生活上属于哪项?

- _____ ①非常贫乏 _____ ②略贫乏
- _____ ③不贫乏但也不富裕 _____ ④略富裕
- _____ ⑤很富裕

7. 您认为您的家庭生活水平与邻居相比如何?

- _____ ①非常低 _____ ②比较低 _____ ③一般
- _____ ④比较高 _____ ⑤很高

III. 与父母相关的家庭生活

	完全不那样	不怎么那样	一般	大体上那样	非常那样
1. 跟父母对话时用韩国语	1	2	3	4	5
2. 父母大体上说韩国好	1	2	3	4	5
3. 父母希望我学韩国语	1	2	3	4	5
4. 父母希望我找与韩国相关的职业	1	2	3	4	5
5. 父母给子女教韩国语	1	2	3	4	5
6. 父母喜欢做韩国料理	1	2	3	4	5
7. 父母希望您跟韩国人结婚吗?	1	2	3	4	5

IV. 对韩国的关心

	完全不那样	不怎么那样	一般	大体上那样	非常那样
1. 关心与韩国相关的新闻	1	2	3	4	5
2. 计划在2-3年内访问韩国	1	2	3	4	5
3. 有在韩国进修或学习的计划	1	2	3	4	5
4. 如果有机会想访问韩国	1	2	3	4	5
5. 想跟与我同龄的韩国青少年进行交流	1	2	3	4	5
6. 我要选韩国人为配偶	1	2	3	4	5
7. 计划找与韩国相关的工作	1	2	3	4	5
8. 我比父母更关心在韩国发生的事。	1	2	3	4	5
9. 关于韩国我比父母懂得更多	1	2	3	4	5
10. 学好韩语对将来就业和发展会更有利。	1	2	3	4	5

11. 包括这次，您访问过韩国一共有几次？（ ）次

12. 您平时多么听韩国新闻？

- ①每天听 ②2, 3天听一次 ③一周停一次
④不怎么听 ⑤完全不听

13. (如果听韩国新闻)，通过什么途径听？

- _____ ①TV _____ ②收音机
_____ ③因特网 _____ ④报纸，杂志
_____ ⑤朋友或亲戚 _____ ⑥其它（具体， ）

14. 您曾经通过TV或收音机视听过韩国的连续剧或娱乐节目吗？

- _____ ①经常视听 _____ ②偶尔视听
_____ ③完全不视听 _____ ④因没有转播不能视听

15. (如果视听过) 您对韩国的连续剧或娱乐节目有何感想？

- _____ ①很有意思 _____ ②较有意思
_____ ③一般 _____ ④幼稚，没意思

V. 对韩国语言和文化的关心

	完全不那样	不怎么那样	一般	大体上那样	非常那样
1. 因为我是韩民族，在平时生活中有很多有利因素	1	2	3	4	5
2. 过春节，中秋，端午，清明节等韩国的传统节日	1	2	3	4	5
3. 关于韩民族的文化我很了解	1	2	3	4	5
4. 我能听懂韩国语	1	2	3	4	5
5. 我会说韩国语	1	2	3	4	5
6. 我会读，写韩国语	1	2	3	4	5

VI. 关于韩民族的主体性

	完全不那样	不怎么那样	一般	大体上那样	非常那样
1. 我以我是韩民族的后代而感到自豪	1	2	3	4	5
2. 我努力了解韩民族的历史，传统，习惯等。	1	2	3	4	5
3. 我积极参与主要由韩国人组成的组织或社会团体(协会，同好会，同乡会等)	1	2	3	4	5
4. 我很了解韩民族的背景。	1	2	3	4	5
5. 我因自己是韩民族的一员而感到自豪。	1	2	3	4	5
6. 关于韩民族我经常跟别人谈。	1	2	3	4	5

VII. 关于构建情报信息网

	完全不那样	不怎么那样	一般	大体上那样	非常那样
1. 在韩国人团体积极活动。	1	2	3	4	5
2. 与在韩国的人或团体保持着联络。	1	2	3	4	5
3. 韩国为海外同胞充分提供有用的情报。	1	2	3	4	5
4. 我希望增加与韩国青少年交流的机会。	1	2	3	4	5
5. 我使用韩国的网站。	1	2	3	4	5
6. 有必要构建能与韩国青少年进行交流的网站。	1	2	3	4	5
7. 对韩国留学生有好的印象。	1	2	3	4	5
8. 因为韩国留学生才对韩国有了好感。	1	2	3	4	5
9. 我知道韩国政府支援的韩国留学项目。	1	2	3	4	5
10. 我知道韩国政府支援的韩国就业项目。	1	2	3	4	5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진 ◆

(가나다 순)

김명식 국제교육진흥원 교육연구사
김미옥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수
김성규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소장
김정숙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교수
박마야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진기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교수

◆ 연구보조원 ◆

최영인 성균관대학교 석사 과정
김지선 숭실대학교 학사

200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7-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 - 조사개요 보고서 / 이경상·김기현·임희진
07-R01-1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박철현
07-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 이경상·유성렬
07-R01-3 청소년 사교육 이용 실태 및 효과에 대한 분석 / 김기현
07-R01-4 청소년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탐색 / 임희진·유제민
07-R02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종합부문 / 임지연·김신영·김정주
07-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결과부문 / 김신영·임지연
07-R0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II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 백혜정·최우영·길은배·윤인진·이영란
07-R04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 오해섭·김영호·이민희
07-R05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II -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 이종원·장근영·김형주
07-R05-1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II - 청소년인권영역별 실태분석 / 이용교·박창남·이중섭
07-R0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체체계 정비방안 연구 / 이춘화·김희균·조아미·황성기
07-R07 신종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대책 - 신종·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 김영한·권일남·주동범
07-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과소비 실태와 대책 / 성운숙
07-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격차 실태와 대책 / 황진구·유지열
07-R09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조사개요보고서 / 이창호·오성배·정의철·최승희
07-R10 청소년 우대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개선방안 / 김경준·최인재·설인자·원구환
07-R1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 이해연·서정아·조흥식·정익중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 부모자녀관계, 교
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 김현철·김은정·민경석 (자체번호 07-R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
현철·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Bahira Sherif Trask, Gudrun Quenzel, Yasuaki
Aota (자체번호 07-R1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 김현철·
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배지혜·Bahira Sherif Trask, Melina McConatha Roske,
Bethany Willis Hepp·Gudrun Quenzel·Michaela Janotta·Janina Herrmann·Hideki Watanabe·
Shigeki Matsuda·Yasuaki Aota·Masayuki Ozawa·Peter Strandbrink (자체번호 07-R1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철 · 김은정 · 최연혁 · 윤인진 · 정재영 · 임창규 · 이선이 · 김현주 · 이여봉 · 박천식 · 배지혜 · Gudrun Quenzel · Katherine Conway-Turner · Hideki Watanabe · Shigeki Matsuda · Yasuaki Aota · Masayuki Ozawa (자체번호 07-R1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 김현철 · 고미숙 · 박노자 · 권인숙 · 나임윤경 (자체번호 07-R12-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1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조혜영 · 문경숙 (자체번호 07-R1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2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I : 국내체류 해외 한민족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조혜영 · 문경숙 · 박동숙 · 양한순 · 최진숙 (자체번호 07-R1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3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윤인진 · 채정민 (자체번호 07-R13-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4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김익기 · 이동훈 (자체번호 07-R13-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5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김태기 · 임영연 · 박일 · 배광웅 (자체번호 07-R13-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6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임영상 · 황영삼 · 고기영 · 박지배 · 이병조 · 권주영 · 김석원 · 최소영 · 최인나 (자체번호 07-R13-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7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중장기 대책방안 연구 / 강일규 · 전재식 · 길은배 · 배기형 (자체번호 07-R13-6)

■ 수시과제

- 07-R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 정하성 · 우룡
- 07-R15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 방안 / 권일남 · 김혁진 · 오해섭
- 07-R16 청소년육성기금 확충방안 / 원구환 · 김현철 · 백혜정
- 07-R17 YP(청소년 스스로 지킴이)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 우형진 · 김성벽 · 성윤숙
- 07-R18 특별지원청소년 세부 선정절차 및 지원방법 연구 / 김경준 · 서정아 · 정익중
- 07-R19 한류가 베트남 청소년의 문화의식에 미치는 영향 / 서동훈 · 박영균
- 07-R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상근지도자(PM·SM)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김호순 · 김기현 · 최병훈 · 한도희 · 박재환
- 07-R21 고교생의 생활의식 국제비교 연구 / 이종원 · 이경자 · 임희진
- 07-R22 초등학교생의 생활습관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이경자 · 임희진
- 07-R23 고교생의 소비행동 및 소비의식에 관한 국제의식 연구 / 김현철 · 김진숙

■ 용역과제

- 07-R30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오해섭·장근영·김남정·박정배
07-R31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 / 김영한·서정아
07-R32 2007년도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안전·프로그램 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신영·오성배·양계민
07-R33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윤숙·임희진
07-R34 청소년 자율참여형 학교단체 수련활동의 운영모델 개발 / 임지연·연규철·이교봉
07-R35 2030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과 전략 / 김기현·조혜영·장근영·이창호·강홍렬·고원·김민·김은경·김지선·김현주·나의순·마경희·손승영·손유미·우명숙·이승현·임천순·전상진·주용국·진미석·채재은·최규종·최순종·최화영
07-R36 청소년희망세상비전 2030총괄분야연구 / 김기현·조혜영·장근영·이창호·고원·강홍렬
07-R37 청소년 통계 혁신방안 / 이경상·김기현
07-R38 다문화가족자녀의 교사생활과 교사학생의 수용성 / 조혜영·이창호·권순희·서덕희·이은하
07-R39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및 가해학생선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인재·김경준·백혜정·강진구·김태희·송미경·이유미
07-R40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 / 맹영임·조혜영·이춘화·김경준·김현철·김기현·임희진·임지연·길은배·김민·유홍식·전명기
07-R41 청소년독서활성화 종합대책 연구 / 황진구·김은정·백원근·허병두
07-R42 2007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김은정·황진구
07-R43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규제순응도 조사 연구 / 김영한·송병국·오홍석
07-R44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 이종원·장근영·김호순
07-R45 자연(생태)환경활동 영역의 학교교과를 연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경자·김승규·송순재
07-R46 2007 청소년백서 / 문경숙·김기현
07-R47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 조사연구 / 김신영·오성배·이명진
07-R48 질적수급전망분석 / 김기현
07-R49 2007 서울시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백혜정
07-R50 2007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평가 / 김현철·백혜정·김형주
07-R51 2007 청소년쉼터시설종합평가 / 황진구·이경상
07-R52 2007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오해섭·이혜연
07-R53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연구 / 김신영·오성배·이명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7-S01 「2008년도 고유연구과제 발굴·선정과 경영혁신 방향설정 워크숍」(1.23~24)
07-S0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anging Family Relationships & Socialization in Adolescence」(4.20)
07-S03 「청소년의 역사사랑 토론회」(5.12)
07-S04 「제주세계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청소년」(8.17~18)

- 07-S05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전문성 함양 방안」 (6.28)
- 07-S06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안)」 (7.3)
- 07-S07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자료집」 (7.5)
- 07-S08 「청소년 우대제도 국내·외 사례 워크숍」 (7.20)
- 07-S09 「다문화 청소년정책의 과제와 방향」 (7.20)
- 07-S10 「일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연구 포럼」 (9.11)
- 07-S11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과 치료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9.13~14)
- 07-S1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9.14)
- 07-S13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9.14)
- 07-S14 「한민족청소년과 글로벌 네트워크」 (10.30)
- 07-S15 「2007 고유과제 정책제안 검토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을 위한 직원 워크숍」 (11.1~2)
- 07-S16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9)
- 07-S17 「질적연구를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세미나」 (11.27)
- 07-S18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포럼」 (11.29)
- 07-S19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12.7)
- 07-S20 「한국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근대적 담론 형성의 기원과 그 영향」 (12.24)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1호 (통권 제45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2호 (통권 제46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3호 (통권 제47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연구보고 07-R13-1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I**

인 쇄 2007년 12월 21일

발 행 2007년 12월 24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중 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 대표 류윤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709-3(93330)